



2013 공예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예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예 백서

목차

1장 • 2013 공예백서 개관

- 1절 • 2013 공예백서 목적 및 연구방법 ° 12
- 2절 • 공예의 정의와 범주 ° 14
 - 1. 공예의 정의 ° 14
 - 2. 공예의 범주 ° 16
- 3절 • 2013 공예백서의 구조 ° 21

2장 • 공예정책

- 1절 • 개관 ° 28
 - 1. 공예정책의 정의 ° 28
 - 2. 공예정책의 범주 ° 30
- 2절 • 현황 ° 35
 - 1. 공예 관련 법과 제도 ° 35
 - 2. 공예 관련 조직 및 인력 ° 73
- 3절 • 결론 ° 102
 - 1. 공예정책 분석 ° 102
 - 2. 과제와 전망 ° 104

3장 • 공예산업

- 1절 • 개관 ° 108
 - 1. 공예산업의 정의 ° 108
 - 2. 공예산업의 범주 ° 110
- 2절 • 현황 ° 119
 - 1. 현황 자료조사 지표 ° 119
 - 2. 일반 현황 ° 121
 - 3. 공예산업 매출 규모 ° 128
 - 4. 공예산업 종사자 현황 ° 136
 - 5. 제조 및 유통 현황 ° 143
- 3절 • 결론 ° 150
 - 1. 공예산업 분석 및 한계 ° 150
 - 2. 과제와 전망 ° 151

4장 • 공예전시와 행사

- 1절 • 개관 ° 154
 - 1. 공예전시와 행사의 정의 ° 154
 - 2. 공예전시와 행사의 범주 ° 155
- 2절 • 현황 ° 159
 - 1. 공예전시 ° 159
 - 2. 공예행사 ° 168
- 3절 • 결론 ° 186
 - 1. 공예전시와 행사 분석 ° 186
 - 2. 과제와 전망 ° 187

5장 • 공예연구

1절 • 개관 ° 190

1. 공예연구의 정의 ° 190
2. 공예연구의 범주 ° 191

2절 • 현황 ° 194

1. 학회 및 학술논문 ° 194
2. 학위논문 ° 201
3. 출판물 ° 206
4. 학술행사 ° 212
5. 연구단체 및 연구보고서 ° 214

3절 • 결론 ° 218

1. 공예연구 분석 ° 218
2. 과제와 전망 ° 219

7장 • 해외 사례

1절 • 개관 ° 310

2절 • 해외 공예 동향 ° 311

1. 영국 공예산업 동향 ° 312
2. 미국 취미공예 동향 ° 323

3절 • 결론 ° 333

부록 •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년 공예 관련 사업 현황 ° 335

참고자료 ° 375

참고문헌 ° 402

6장 • 공예교육

1절 • 개관 ° 224

1. 공예교육의 정의 ° 224
2. 공예교육의 범주 ° 224

2절 • 학교 공예교육 ° 227

1. 학교 공예교육의 정의 및 범주 ° 227
2. 공예 일반교육 현황 ° 228
3. 전문 공예교육 현황 ° 260
4. 소결 ° 270

3절 • 공예 평생교육 ° 273

1. 공예 평생교육의 정의 및 범주 ° 273
2. 공예 취미교육 현황 ° 274
3. 공예 직업교육 현황 ° 284
4. 소결 ° 301

4절 • 결론 ° 303

1. 공예교육 분석 ° 303
2. 과제와 전망 ° 305

표 목차

표 1-1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의 공예의 범주	표 3-2	2013년 공예산업분류표
•		표 3-3	2013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표본설계
표 2-1	공예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표 3-4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조사 내용
표 2-2	공예정책 범주별 분류	표 3-5	소재별 공예사업체 사업시작 시점
표 2-3	공예정책 성격별 분류	표 3-6	용도별 공예사업체 형태
표 2-4	부처별 공예 관련 법률 소관 현황	표 3-7	사업체 구성
표 2-5	부처별 공예사업 현황	표 3-8	작품 활동 시작시점
표 2-6	부처별 시/도 협업과제	표 3-9	개인공방 보유현황
표 2-7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 종목 지정 현황(총 49종)	표 3-10	사업자 등록 유무
표 2-8	공예기술의 용도별 분류	표 3-11	사업자 미등록 이유
표 2-9	대한민국 명장 공예 분야 직종 분류 및 직무내용	표 3-12	2012년 기준 소재별 공예산업 총 매출액
표 2-10	기타 공예 관련 법령 및 내용	표 3-13	2012년 기준 공예범주별 공예산업 매출 규모
표 2-11	공예 관련 주요 법률 발의 현황	표 3-14	2012년 기준 지역별 공예산업 매출 규모
표 2-12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표 3-15	2012년 기준 교육사업 매출 규모
표 2-1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표 3-16	연도별 업체당 매출액
표 2-14	전통수공업 신자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표 3-17	공예범주별 2012년 기준 매출액 현황
표 2-15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표 3-18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표 2-16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범주별 분류	표 3-19	소재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표 2-17	지방자치단체별 공예 분야 특성화 현황	표 3-20	범주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표 2-18	중앙정부 공예 관련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표 3-21	지역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표 2-19	문화체육관광부 공예 관련 조직 담당업무	표 3-22	인력 현황
표 2-20	문화체육관광부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표 3-23	권역별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 분류
표 2-21	문화재청 소관 공예 관련 국가전문자격 현황	표 3-24	공예사업체 주요 판매처
표 2-22	2013년 문화재청 전통공예 활성화 관련 세부사업 내용	표 3-25	대표 공예품
표 2-23	학교 장르별 예술강사 현황(2008~2013)	표 3-26	공예작가 대표 공예품 소재 및 용도
표 2-2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서별 업무내용	•	
표 2-25	고용노동부의 국정과제 추진개요 및 추진체계	표 4-1	공예전시와 행사를 위한 1차 범주
표 2-26	자치단체 부서별 공예 관련 업무	표 4-2	2013년 공예전시와 행사 재료별 범주 기준
•		표 4-3	2013년 공예전시와 행사 현황
표 3-1	공예 분류	표 4-4	2013년 공예전시 1차 범주별 분포
		표 4-5	2013년 공예전시 1차 범주 및 주최 유형별 개최 현황

표 4-6	2013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 및 주최 유형별 개최 현황	표 5-15	1차 범주별 연구단체
표 4-7	2013년 공예전시 1차 범주 및 인적 구성별 개최현황	표 5-16	재료 범주별 연구보고서
표 4-8	2013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 및 인적 구성별 개최현황	표 5-17	1차 범주별 연구보고서 •
표 4-9	2013년 공예전시 지역별 개최 수	표 6-1	공예교육에서 학교교육
표 4-10	2013년 공예전시 1차 범주 지역별 분포	표 6-2	공예교육에서 평생교육
표 4-11	2013년 공예행사 개최 현황	표 6-3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범주
표 4-12	2013년 공예 지역축제 지역별 개최 수	표 6-4	2009년 개정교육과정 적용 시기
표 4-13	2013년 공예지역축제 재료 범주별 공예지역축제	표 6-5	2013년 교육과정별 미술교과
표 4-14	2013년 공예지역축제 개최 현황	표 6-6	2013년 미술교과 초중등 편제 및 수업사수
표 4-15	2013년 공예국제행사 개최 현황	표 6-7	2013년 출간 초등학교 미술관련 교과서
표 4-16	2013년 공예복합문화행사 개최 현황	표 6-8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서 내 공예 실습 내용
표 4-17	2013년 공예공모전 주최 유형 및 재료 범주별 개최 현황	표 6-9	초등학교 3-4학년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4-18	2013년 공예공모전 재료 범주별 개최 현황 •	표 6-10	초등학교 3-4학년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5-1	공예연구 분석을 위한 연구 범주구분의 정의 및 범위	표 6-11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5-2	공예 관련 주요 학회 개요	표 6-12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5-3	범주별 공예관련 학술논문 현황	표 6-13	2013년 출간 중학교 미술교과서
표 5-4	범주별 박사학위논문 수	표 6-14	중학교 2009년 개정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5-5	범주별 석사학위논문 수	표 6-15	중학교 2009년 개정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5-6	2013년 1차 범주별 단행본 수	표 6-16	중학교 2007년 개정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5-7	2013년 1차 범주별 번역서 수	표 6-17	중학교 2007년 개정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5-8	2013년 발간 정기간행물	표 6-18	2013년 출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표 5-9	재료 범주별 정기간행물 현황	표 6-19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표 5-10	주최 유형별 및 행사 형태에 따른 학술행사	표 6-20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표 5-11	1차 범주별 학술행사	표 6-21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집필진 전공 분포
표 5-12	재료 범주별 학술행사	표 6-22	중학교 미술교과서(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통합) 집필진 전공 분포
표 5-13	주최 유형별 공예 관련 연구단체	표 6-23	고등학교 미술교과서(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통합) 집필진 전공 분포
표 5-14	재료 범주별 연구단체	표 6-24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과 연계
		표 6-25	방과 후 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 학생 현황
		표 6-26	2013년 돌봄교실 운영현황
		표 6-27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6-28	대학교의 공예 및 디자인관련 교양교육	공예 관련 프로그램 수
표 6-29	중·고등학교 미술교원 수 대비 공예·디자인 전공 교원 수 및 비율	표 6-56 한국폴리텍대학 공예관련 학과
표 6-30	학교지원예술강사 중 공예 전문강사	표 6-57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현황
표 6-31	공예 강사 지원 참여 학교	표 6-58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국가 공인 및 비공인 현황
표 6-32	디자인·공예 교과과정 설치대학 현황	표 6-59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중 지도자자격증 현황
표 6-33	2013년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연수 과정 통계	표 6-60 시·도별 전수교육관 현황
표 6-34	2013년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공예 관련 연수 과정	표 6-61 공예종목 입주 전수교육관 현황
표 6-35	고등학교 체제 개편	표 6-62 2013년 한국문화의 집 공예관련 강좌 개설현황
표 6-36	공예과정 개설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표 6-6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의 전통문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6-37	공예과정 개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현황	표 6-64 2013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표 6-38	2-3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현황	•
표 6-39	2-3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개설현황	표 7-1 공예관련 사업체 수/수입/총부가가치(GVA)
표 6-40	2-3년제 대학 재료범주별 공예관련 전공 수	표 7-2 공예제작자 구분
표 6-41	2-3년제 대학 공예과 학생 현황	표 7-3 공예제작자들의 전공(복수응답)
표 6-42	4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현황	표 7-4 활동분야 및 재료에 따른 비율
표 6-43	4년제 대학 재료범주별 전공 수	표 7-5 공예 학생 현황(2010/2011년/HESA 자료)
표 6-44	4년제 대학 공예과 학생 현황	표 7-6 제작시 환경을 위한 변화(복수응답)
표 6-45	대학원 석·박사 공예과(전공) 현황	표 7-7 제작자/소매업자들에게 있어서 관광의 중요성
표 6-46	대학원 석·박사 재료범주 전공 수	표 7-8 미국 취미공예 현황
표 6-47	공예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현황	표 7-9 공예와 취미협회 공예범주 및 범주별 커뮤니티 현황
표 6-48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전체 현황	표 7-10 컨퍼런스 &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표 6-49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 및 공예 강좌 학습자 수	
표 6-50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 및 공예 프로그램 수	
표 6-51	평생학습관의 재료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 현황	
표 6-5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재료 범주별 공예 강좌 개설 현황	
표 6-53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표 6-54	직업교육훈련기관 종류	
표 6-55	재료 범주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의	

그림 목차

그림 1-1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의 공예의 범주

•

그림 2-1 공예 관련 주요 법률의 범주별 분포

그림 2-2 공예 관련 주요 법률의 정책 성격별 분류

그림 2-3 공예기술의 용도별 분포도

그림 2-4 대한민국명장제도 개편안

그림 2-5 한·한민족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공예 범주별 분류

그림 2-6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성격에 따른 분류

그림 2-7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도

그림 2-8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그림 2-9 시 · 도 지방자치단체 공예업무 소관부서 정책 성격별 분류

•

그림 3-1 산업과 공예산업

그림 3-2 공예산업 정의

그림 3-3 공예의 1차 범주에 따른 공예산업의 범주

그림 3-4 공예산업의 범주

그림 3-5 사업 시작 시점

그림 3-6 공예사업체의 사업형태

그림 3-7 사업체 구성

그림 3-8 사업자등록 여부

그림 3-9 2012년 기준 매출액 현황

그림 3-10 제작과 판매비중

그림 3-11 2012년 기준 총 판매액

그림 3-12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 현황

그림 3-13 인력 현황

그림 3-14 성별 종사자 수

그림 3-15 연령별 종사자 수

그림 3-16 학력별 종사자 수

그림 3-17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 분류

그림 3-18 공예사업체 사업분야

그림 3-19 대표 공예품의 용도

그림 3-20 대표 공예품의 소재

•

그림 4-1 2013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별 분포

그림 4-2 2013년 공예전시 주최 유형별 분포

그림 4-3 2013년 공예전시 인적 구성별 현황

그림 4-4 2013년 공예국제행사 재료별 개최 현황

그림 4-5 2013년 복합문화행사 재료 범주별 개최현황

그림 4-6 2013년 공예 공모전 모집 현황

•

그림 5-1 1차 범주별 공예 관련 학술논문 비율

그림 5-2 연구 범주별 공예관련 학술논문 비율

그림 5-3 1차 범주별 공예관련 박사학위논문 비율

그림 5-4 1차 범주별 공예관련 석사학위논문 비율

그림 5-5 1차 범주별 단행본 비율

그림 5-6 1차 범주별 번역서 비율

•

그림 6-1 평생교육기관 연도별 변화

그림 6-2 2013년 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 현황

그림 6-3 평생학습관 공예 강좌 연령대별 현황

그림 6-4 평생학습관의 1차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 현황

그림 6-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1차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 현황

그림 6-6 사업장부설 공예 강좌 연령대별 현황


그림 6-7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의 1차 범주별 공예 강좌 개설 현황

그림 6-8 대학(원)부설 공예강좌 연령대별 현황

그림 6-9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1차 범주별 현황

•

그림 7-1 제작시 테크놀로지 사용 비율



1장 2013 공예백서 개관

1절
2013 공예백서
목적 및 연구방법

2절
공예의 정의와 범주
1. 공예의 정의
2. 공예의 범주

3절
2013 공예백서의 구조

1장

2013 공예백서 개관

1절 • 2013 공예백서 목적 및 연구방법

『2013 공예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지속적인 공예현황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2012 공예백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2013 공예백서』는 “공예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로서의 근본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백서 발간사업은 공예 현황 조사의 어려움과 관심의 분산으로 인해 산발적 조사 및 연구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보다 구체적 현상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집적하여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즉 『2012 공예백서』에서 밝힌 거시적 목적처럼 백서는 “국민의 공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진흥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숙고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공예상을 세우는 것”¹⁾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 목적에 따라 본 백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공예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화 하며 추후 활용가능한 기초 자료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한국 현대 공예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현시점에서 공예의 정의 및 범주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항목별 현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제시한다.

셋째, 공예 분야의 연구 과제와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 연구로서의 객관적 검토와

1 허보윤, 황승욱, 김정현, 김유라, 윤이랑, 『2012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12

제안을 개진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무엇보다 전제해야 할 것은 공예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칫 정체성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공예의 예술과 산업의 양면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처하였다.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이거나 작품으로 전시되거나 상품으로 디자인되거나 모두 목적에 따라 각각 적용 가능한 공예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제작과 유통 및 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공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예작가는 상품의 디자이너이자 예술가이며 동시에 공예교육자로서 활동하는 것 또한 어색한 일이 아니다. 즉 공예에 대한 고정된 정의나 편협한 시각을 근본으로 한 본질론이나 정체성 문제로 회귀하여 실질적인 현상을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백서는 이상의 목적과 태도를 견지하고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여러 자료들을 찾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다. 항목별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타진하여 수합한 다음 이를 유의미한 세부 항목으로 변별해내는 방식으로 분석의 과정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 공예백서』가 구조화한 공예의 항목과 범주의 객관성을 존중하되, 보다 엄격한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와 통계에 힘을 싣고자 하였다.

조사 범위에서 공예산업 분야는 2013년에 진행된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실태조사』가 많은 부분 참조되었다.²⁾ 또한 본 백서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지역과 문제를 다루어 공예현상 진단과 전망의 참조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 『2013 공예백서』의 조사와 분석 및 집필은 연구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고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항목의 선정이나 집필의 강약에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2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2절 • 공예의 정의와 범주

『2013 공예백서』의 기본적인 관점과 체계는 공예에 관한 정의와 범주로부터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영역이나 사물이 하나의 정의로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지켜가는 일은 거의 드물다. 공예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실체로서 공예는 존재해 왔지만,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활용되어 그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당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본 백서에서의 정의는 최근 국내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에 진행된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1. 공예의 정의

공예를 정의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예의 현상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하나의 정의가 가능한 일이 아님은 자명하며,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현재적 의미임을 전제해야 한다.

한국에서 공예에 관한 정의는 명칭이 유래된 1880년대 이래 꾸준히 변화를 보여 왔지만, 정의를 이루는 몇몇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기술·기법’, ‘수작업’, ‘실용성’, ‘예술적 가치’, ‘일상생활’, ‘재료’와 같은 요소들은 공예의 정의와 정체성을 이루는 것들이다. 본질적으로 공예의 정의를 찾아가는 하워드 리사티Howard Risatti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의 ‘테크네technē’로 거슬러 올라가 고찰을 시작하였다. 리사티는 공예가의 행위는 ‘테오리아theōria’와 ‘프락시스praxis’를 융합한 것으로 물질적 형태와 구상/아이디어가 공존하는 창조 행위로서 ‘포이에시스poiēsis or poietikos’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리사티는 이러한 점을 모든 공예의 바탕이 되는 창조 행위라고 강조하였다.³⁾

3 Howard Risatti, "Design, Workmanship, and Craftmanship",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p.162-167

공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craft의 사전적인 의미를 추적해 보면 게르만어 ‘Teutonic’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단어는 원래 ‘힘strength, 세력force, 능력power, 미덕virtue’을 의미하던 것이었으나 차츰 ‘기술, 숙련이 필요한 일,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 특별한 구성능력, 솜씨 좋음’의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예는 실제 사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뜻하는 말로 이해되었다.⁴⁾ 나아가 『미학·예술학』 사전에서 공예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신변에서 사용되며 재료, 장식, 기교 또는 제작과정과의 관련에 의해 미적 효과를 나타내는 도구나 그 외의 물품 및 그것의 제작을 총칭”⁵⁾ 하는 것으로서의 정의 역시 유용하다.

최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의 공예에 관한 정의에서 이미 지적인 내용이지만, 공예의 사전적 정의는 기능이나 일상생활, 실용성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미술이나 예술의 한 영역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선행 문헌들의 내용은 공예를 재료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물품이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예를 미적 영역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술과의 변별점을 잃게 되며,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물품이나 행위로 규정했을 때 공예는 오늘날 산업디자인과의 차별화된 지점을 갖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

보다 중립적 정의를 시도한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공예는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나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⁶⁾ 이처럼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예술적으로 가치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라 하더라도 현재 수작업이 일정부분 기계로 대체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공예를 수작업에만 한정하는 것은 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기계로 대량생산된 실용품을 공예라 할 수 없으며, 실용성이 배제된 예술작품을 공예라 부를 수도 없는 일이다. 공예는 분명 ‘수공’과 ‘쓰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공예를 정의하는 최근의 영국공예청Crafts Council의 제안은 의미있는 참조점이

4) ibid., p.16 참조

5) 다케우치 도시오, 『미학·예술학 사전』 미진사, 1989, p.353

6)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생활 속 문화융성 실현과 또 하나의 한류를 위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03, p.2

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공예 개념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총체적 공예 개념을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즉, 공예_{craft}는 ‘도자, 유리, 금속, 가구, 보석 등을 이용하여 공예제작자가 손으로 직접 제작한 독창적인 수공예’라 정의하고, 현대공예_{contemporary craft}는 ‘최근, 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예제작자가 만든 독창적인 수공예’로, 마지막으로 최첨단 공예_{cutting-edge contemporary craft}는 ‘현대 공예 중에서 혁신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최고의 기술을 통해 예술적 가치와 미적 비전이 구현된 공예’라고 각각 규정하였다.⁷⁾

그러나 『2013 공예백서』를 위한 공예의 정의는 위의 영국의 공예처럼 세분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에서부터 전시행사 등 현황 파악에는 예술적, 산업적 측면들이 결합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공예란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물품이나 그것을 제작하는 행위’라는 다소 넓은 의미의 정의를 토대로 하였다. 여기서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 제작의 행위는 인간의 손이 작용하는 부분이며,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물이란 단순히 미적으로만 정의되는 예술품의 성격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공예의 범주

공예의 정의 만큼이나 다양한 견해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공예의 범주다. 다만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같은 범주에 대한 논의는 가장 가깝게는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것과, 2013년 진행된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의 사례가 있다. 특히 이 후자의 연구는 전자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한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본 백서에 서 역시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에서의 범주로부터 분석하고 그에 대한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에서의 제안을 확인하고 부연하고 있다.

먼저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에서의 공예의 범주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7 박남희, 문희원, 이시은, 이경애, 『해외공예산업 분류체계 현황조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6

여기서 공예의 범주는 1차, 2차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 중 1차 범주는 현대공예, 전승공예, 공예산업, 취미공예로 활동 영역별로 대별되는 분류로 되어 있으며, 2차 범주는 1차 범주의 영역에 속하는 세부 영역들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⁸⁾

표 1-1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의 공예의 범주

1차 범주	현대공예	전승공예	공예산업	취미공예
2차 범주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기타공예	목/칠공예 (나전, 채와, 건칠, 화각, 죽, 각자 등) 도자공예(도자, 옹기 등) 금속공예(장신구 포함) 종이공예 기타공예 (옥석, 초자, 초경, 모피, 골각, 말총, 부채, 악기, 단청, 탕화, 민화 등)	도자공예 유리/석공예 금속공예 목/죽세공예 종이공예 섬유공예 가죽공예 기타공예	(항목 나열식) 툴페인팅공예, 양초공예, 참숯공예, 크리 스탈, 야생화, 점토놀이공 예, 토크아트공예, 골판지 공예 등

특히 1차 범주의 4단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현대공예는 대학 이상에서 공예 관련 학업을 경험하였거나 공예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전문성을 지닌 이가 손으로 직접 재료를 다루어 행하는 공예활동을 말하며, 전승공예는 과거의 기술이나 기법·재료·표현 양식 등을 전승하는 이가 행하는 공예활동을 의미한다. 공예산업은 공예로 구분되는 사물을 양산하는 체제와 그에 연관된 개발·유통·소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취미공예는 전문적이지 않은 아마추어가 행하는 공예활동을 일컫는다.”⁹⁾

이 같은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의 제안을 검토하여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¹⁰⁾

첫째, 현대공예라는 범주는 대학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공예나 작가공예, 미술공예

8 최범, 허보윤,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p.27

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공예현황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58

10 박남희, 이현경, 안영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3

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만, ‘현대’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동시대라는 시의성을 갖고 있기에 자칫 현시대의 모든 공예가 개별적인 특성이 망각된 채 위의 정의대로 규정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전승공예는 공예 현장에서 특히 ‘장인’과 관계된 범주이다. 즉 ‘과거의 기술이나 기법·재료·표현 양식 등을 전승하는 이’가 행하는 공예활동으로, 이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전통의 보존, 계승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이 무형문화재에 의한 전승공예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술방식이나 특성을 가지면서 원재료와 생산방식에 있어 현대화된 공예들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러한 공예들을 민속공예로 규정하고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승공예라는 범주는 민속적 소재를 과거로부터 전유하여 만들어지는 민속공예나 혹은 전통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공예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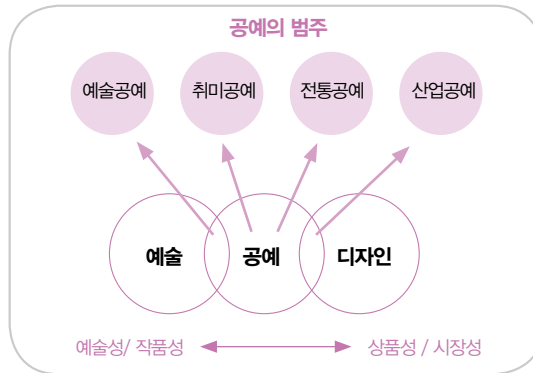
셋째, 『2011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는 공예산업을 광의적 공예산업과 협의적 공예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공예산업(사업체)과 개인/작가, 취미공예, 전승공예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후자는 공예산업(사업체)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같은 개념적 사용은 경우에 따라 혼선이 빚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또한 공예산업이라는 용어는 공예의 범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써 여타의 하위 범주를 갖는 상위의 개념으로써 사용함이 더 적합할 것이다.

넷째, 취미공예는 “전문적이지 않은 아마추어가 행하는 공예활동”이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즉 그 용어에서 비예술성, 비전문성, 비산업성 등을 드러내며 질적으로 부족한 공예활동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따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는 1차 범주를 예술공예, 취미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같은 범주가 상용의 범주로 수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고, 앞서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갖기에 그 의견에 주목하였다. 넓게는 미술, 디자인과의 경계와 구분이, 좁게는 제작과 유통

의 경계와 구분이 중첩과 차별을 반복하며 좁혀진 제안임을 한번 더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차 범주를 내용을 규정하였다.¹¹⁾

그림 1-1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의 공예의 범주¹²⁾



첫째, 예술공예는 기존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에서 현대공예에 대한 제안이다. 실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대공예가 내부적으로 가진 미적 대상으로서, 예술작품으로서의 공예에 대한 관점을 묶은 것이다. 즉 예술공예는 예술성/작품성에 보다 근접한 특성을 갖으며, 예술과 공예의 접점에서 예술성을 공통분모로 하는 범주이다. 이는 공예의 또 다른 특성인 기능을 배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언제나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자족적인 실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상용품으로써 보다는 감상이나 전시 가치를 더 큰 목적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예술공예는 기존에 현대공예라는 용어가 오랜 시간 관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인식의 변화는 용이한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용어에 대한 문제는 인식의 근거가 되는 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미공예라 일컬어지는 분야는 대개 문화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형태의 공예활동과 취미를 통한 정서교육의 형태로서 유아

11 위의 책, pp.20-21

12 이 그림은 「산업공예 기초경영진단 지표개발」(김종선, 「산업공예 기초경영진단 지표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2, 한국콘텐츠학회, 2013, p.190)에서 설명한 [그림 1]을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박남희, 이현경, 안영주, 앞의 책, p.20)에서 재구성하여 제안한 것임

및 초중고등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노작활동으로 간주되었다. 대체로 취미공예는 상품의 제작과 소비의 차원이 아니라 공예교육과 그것을 통한 정서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제고해 봐야할 것이다. 교육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공통감을 형성하는 것은 공예의 저변화와 대중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공예와 취미협회(The Craft & Hobby Association)’라는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공예인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들은 공예가 현대적으로 수용되는 형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른 장르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취미기악, 취미조소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취미공예를 의미하는 적절한 용어의 개발 및 적용이 시급하다.

셋째, 전통공예는 기존에 전승공예로 구분되었던 분야를 보다 확대 적용한 범주이다. 전통공예는 전승공예와 민속공예,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형태들을 현대적으로 변형, 발전시킨 공예를 포괄하여 정의한 것이다. 이는 공예의 주요 요소 중 ‘제작기술’을 주된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제작과정에서 점차 새로운 기술과 설비 등이 도입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즉 “공예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습득한 경험으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온 기술과 지식을 포괄하는 것”¹³⁾이라는 견해를 수용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각 시대와 환경에 맞는 변형의 과정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넷째, 산업공예는 디자인과 공예의 접점에서 실용성을 공통분모로 하는 범주다. 따라서 산업공예는 상품성/시장성에 더 근접해 있으며, 그것은 상품으로 제작되어 유통, 소비되는 공산품의 사이클을 공유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산업공예를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영역으로 볼 수만은 없다. 전 과정이 기계화되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산업디자인과 공예는 분명 변별점을 갖고 있으며, 다만 산업공예라 했을 때는 과거의 제작방식에서 산업화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제작과정의 공예를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공예는 수공예의 특성을 갖고 일부 생산 공정이 기계화되어 생산되는 공예에 적용해 볼 수 있다.

13 Raymont Guidot, *Historire du design 1940-1990*, Hazan, 1994, pp.11-12

3절 • 2013 공예백서의 구조

『2013 공예백서』의 장 구성은 『2012 공예백서』의 틀에 준거하되 해외의 시사적 사례를 소개하는 한 장을 추가하였다. 즉 1장은 공예백서 개관, 2장은 공예정책, 3장은 공예산업, 4장은 공예전시와 행사, 5장은 공예연구, 6장은 공예교육, 여기에 7장 해외 동향을 추가하였다. 7개의 장과 더불어 본 백서의 부록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이 더해져서 구성되었다.

1장의 공예백서 개관에서는 『2013 공예백서』의 연구 목적과 방법, 공예의 정의와 범주, 본 백서의 구조를 밝히고 있다. 공예백서의 근본적인 목적과 조사 연구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공예의 정의와 범주를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본 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관점과 틀거리가 되는 개념적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7개의 전체 구조의 개요를 제공하여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제시해주고자 하였다.

2장 공예정책 부문에서는 공예와 관련되는 정책주체(중앙정부 지자체)가 정책대상(공예 분야)의 진흥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공예 관련 법령 및 조례)을 동원하며, 그것이 어떻게(정책 수행 기관) 실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공예정책의 주체로는 2013년 12월 기준 총 17개 중앙정부부처와 11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정책 대상인 공예의 1차 범주(산업공예, 전통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공예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 수단이 되는 공예 관련 법률과 조례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했다. 다음으로 이를 소관하는 담당기관의 직무수행을 각 부처별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우리나라 공예정책을 분류하고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정책이 전통공예와 산업공예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적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예의 예술적 속성에 따른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최근 생활 공예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취미공예나 공예교육 관련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공예가 다수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개념이나 영역을 분명하게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예정책의 현실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공예정책이 비평적/역사적 관점이 아닌 각종 법령 및 시책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예분야의 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공예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의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공예문화 진흥 정책의 취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장은 공예산업에 관한 장으로, ‘공예’는 문화적 요소, 예술적 요소, 산업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예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공예산업은 공예 작품 및 공예상품의 창작·유통·전시·활용 등 공예와 연관된 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¹⁴⁾의 산업의 정의를 토대로 공예산업을 제조나 유통에 한정하지 않고 창작, 전시, 활용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본 백서에서도 이 정의를 토대로 2013년 공예산업 현황을 살펴 보았다.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는 공예산업의 실체인 ‘공예사업체’와 개별 주체인 ‘공예작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본 백서는 이와 같은 지표를 토대로 공예산업의 일반 현황과 매출 규모, 종사자 현황, 그리고 제조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공예의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예술적 관점에서의 공예작가와 구분을 시도한 것인데, 1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예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비교 분석으로서 실질적 현황파악이 되었다.

4장 공예전시와 행사에서는 2013년에 개최된 공예 관련 전시와 행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공예전시와 행사는 일정 공간에서 공예가와 기획자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자,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판매하는 기회가 된다. 공예전시와 행사는 대중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14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시하는 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공예산업이란 “공예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2008).

공간이기에 공예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반응은 물론 문화예술계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자료수집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미술 및 공예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 조사 방식이 기본적인긴 하지만 누락되거나 정확한 자료를 수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정보수집 및 통계는 곧 정확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통해 추후 공예전시와 행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과도 연계 되므로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2014년 'KCDF 공예전문 DB'를 오픈하여 공예 관련 종사자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전시·행사·공모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공예 관련자들과 단체, 협회, 작가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외 소식, 특히 지방과 해외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운영 관리하여, 추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5장의 공예연구는 전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회와 학술논문, 그리고 석·박사 학위논문과 함께 출판 및 유통되는 단행본과 번역본, 그리고 정기간행물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전문적인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행사와 국·공립 및 사설 연구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주요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2 공예백서』에서 설정한 연구범주를 수정·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3년 공예연구 현황은 『2012 공예백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 분야별로 연구 경향이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데, 학술논문의 경우 전통공예를 대상으로 한 공예역사 연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취미공예나 공예교육에 대한 연구의 비중은 적었다. 그리고 학위논문의 경우 예술공예에 대한 공예작품연구나 공예이론/비평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출판물의 경우에는 앞의 두 분야와 다르게 취미공예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 연구단체나 연구보고서의 경우 모든 범주를 아우르는 넓은 관점에서 공예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각 연구 분야에서 연구대상과 방법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더하여 상호간의 교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장 공예교육은 크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기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그리고 취

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러한 점은 『2012 공예백서』에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상위범주를 나누고, 하위범주로 학교교육과 취미교육, 그리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눈 것과 상이하다. 하지만 평생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여러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미교육과 직업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공예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체별로 새롭게 범주를 구분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경우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모두에서 2012년에 비하여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교육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창의적 체험교사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재료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하는 공예에 대해 습득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를 보완할 만한 관련 연구와 출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경우 비교적 범위가 명확한 반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현황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등을 통하여 수합한 공예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공예의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민간자격증의 경우 취미공예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직업교육 역시 금속/귀금속/보석/석과 섬유/가죽의 범주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장 해외사례에서는 영국의 산업공예와 미국의 취미공예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국 공예의 특징은 문화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된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공예산업은 창조산업군에 포함되어 영국공예청Crafts Council이나 수출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 문화창조기술청Culture and Creative Skills 등에서 수출지원과 홍보를 비롯하여 작가지원, 판매유통, 전시지원, 해외교류,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테크놀로지의 발달, 글로벌한 경제 흐름을 파악하여 ‘세계화와 지역화’를 강조하고, 공예제작 및 소비에서 있어서 지속가능성이나 환경,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며 세계 공예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용품과 생활용품을 개인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이를 넘어서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바로 공예와 취미협회의 활동들이 그것인데, 미국에서는 여타의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취미공예가 활성화되어 취미나 정서함양의 차원을 넘어 일군의 취미산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특히 공예와 취미협회의 활동들은 공예교육이나 전시, 행사를 비롯하여 재료시장과 연계되어 연간 29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추후 취미공예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solid light purple color. Overlaid on this background is a faint, stylized illustration of a tea set. It includes a large teapot in the center, several teacups and saucers, and two ice cream cones at the top. The items are connected by thin, dark lines, suggesting they are arranged on a tray or a table. The overall style is minimalist and elegant.

2장 공예정책

1절 개관

1. 공예정책의 정의
2. 공예정책의 범주

2절 현황

1. 공예 관련 법과 제도
2. 공예 관련 조직 및 인력

3절 결론

1. 공예정책 분석
2. 과제와 전망

2장

공예정책

1절 · 개관

우리나라 공예정책은 문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공예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여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공예정책 또한 정책 목표와 정책 주체, 그리고 정책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예정책은 공예전반, 즉 공예교육, 산업, 연구, 전시와 행사 등과 관련된 공예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1. 공예정책의 정의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예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다. 다만 공예에 관한 공공정책으로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예정책에 대한 정의를 위해 ‘정책’에 관한 토대론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각 논자의 시각에 따라 다른 정의들이 있다. 예컨대 정책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다이¹⁾Dye에 따르면 “정책이란 정부가 업무를 진행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¹⁾이다. 그 외에 정책의 가치를 중요한 요인으로 삼은 이스턴²⁾Easton은 정책을 “사회 전체를 위한 여러 가치의 권위적 배분”²⁾으로 정의하고 정책의 수단과 전략을 강조하였다. 로위³⁾Lowi는 정책을 “정부가 여러 가지 제재들을 사용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도”³⁾라 정의하고, 이것들을 분배 · 규제 · 재분배 · 구성정책으로 구분한 뒤 정책의

1 Thomas R. 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 (14th ed.), Boston: Pearson, 2013

2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이웅필 역, 『정치체계분석』, 서울: 한국학술정보(e-book), 2002

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짐에 주목하였다. 한편 켄킨스Jenkins는 “공공정책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⁴⁾으로 정의하며, 하나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의 모든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및 『2012 공예백서』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정책이란 정부가 어떤 것을 일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의식적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 주체,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책 대상,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정책 목표, 정책 실행의 방편은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백서의 공예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정책 주체)가 공예 분야 전반(정책 대상)을 진흥, 보호, 지원하기 위해(정책목표) 실행하는 공공정책(정책적 도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대상은 공예 1차 범주로서 전통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가 되고, 정책 목표는 본 백서를 구성하고 있는 공예 정책/산업/교육/전시·행사 등에 해당하며, 정책 도구는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공예정책은 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비평이나 이론, 역사적 관점이 아닌 정부의 각종 법령 및 시책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한정된다. 즉, 대한민국 수립 이후 시행되었거나 현재까지 시행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예정책으로서 공예분야 전반에 걸친 법률과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공예정책은 현재까지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예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정책을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예정책 부문에서는 정책의 수단이 되는 공예 관련 법령을 정책대상(공예 범주)과 정책영역, 정책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정책 주체(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예문화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정책 수단(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어떤 방식(실행 조직 등)으로 실현하는지 살펴보았다.

3 Theodore J. Lowi, "Fo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2, 1972, pp.25-53
에서 재인용

4 W. I. Jenkins, *Policy Analysis: A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8

2. 공예정책의 범주

1) 공예정책 범주

공예정책의 범주를 살펴보면, 정책 주체는 2013년 12월 기준 총 17개 중앙정부 부처⁵⁾와 2012년 7월 1일자로 공식 출범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단위의 119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⁶⁾ 이들 각 부처의 공예정책은 공예 관련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 그에 따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와 같이 공예정책 현황의 지표가 되는 공예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⁷⁾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⁸⁾을 통해 조사하여 선별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공예와 관련된 총 21개 법령 및 시행규칙 중 주요 법령은 8건인데, 2012년 11월 18일 시행된 관계로 『2012 공예백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술인 복지법」이 추가됐다. 이는 공예가 예술과 산업의 영역에 걸쳐 있으며, 공예인들은 기술인인 동시에 예술인이기도 하다는 맥락에서 주요 법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은 9개로 2012년 이후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에 중앙정부의 공예 관련 주요 부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을 명시했다.

표 2-1 공예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공예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21)		
주요 법령(8)	기타 관련 법령(9)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재보호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저작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인준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본 백서의 중앙부처의 개편과 명칭은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기준으로 함)

6 본 백서에서는 공예 관련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를 조사하여 공예 관련 내용을 추출, 해당 직무수행을 확인하고 상세 내용을 검토했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8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숙련기술 장려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예술인 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조폐공사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관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2) 공예정책 분류

(1) 공예정책 영역별 분류

공예정책의 영역은 문화재,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산업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그에 따른 법률을 분류하면, 첫째, 문화재 정책을 대표하는 법과 제도는 1962년 가장 먼저 법제화된 「문화재보호법」과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있는데, 이는 공예범주에서 전통공예에 해당된다. 둘째, 문화예술정책은 예술공예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인 법령은 「문화예술진흥 기본법」이 있다. 그리고 1949년 시작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공예부가 설치되면서 공예가 미술의 분과로 자리 잡았으나, 1982년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현재 남아있는 공예 관련 문화예술 정책으로는 미술은행제도가 있다.⁹⁾ 셋째는 문화산업 정책으로서 현재는 공예범주에서 전통공예와 산업공예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1990년대 이후 대두된 문화산업 개념은 공예에 있어서도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실현을 요구했다. 특히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통해 공예 또한 문화산업의 일부로 명시되면서¹⁰⁾ 공예에 대한 산업적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공예산업은 그 어떤 다른 문화산업보다 산업적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예 문화 산업은 아직 그 개념이나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채 다른 산업정책들 속에서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9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미술은행 운영 규정에 보면 미술은행의 수집 대상에 '순수공예' 항목이 있는데, 이는 예술공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에 공예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정부의 공예정책은 문화예술이면서 산업이라는 양면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예는 예술품이자 문화상품으로서 이중적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예가는 창작 활동을 통해 예술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인 동시에 문화상품의 생산자이며 나아가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기업가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공예의 양면성은 두 영역의 독자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예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으며, 이 논란은 공예계에서조차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문제이다. 결국 공예정책의 영역별 분류를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공예가 문화재나 문화예술, 문화산업을 넘어 생활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문화정책이라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적 접근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예정책 범주별 분류

본 백서에서는 정책 분류의 또 다른 기준으로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예의 1차 범주(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에 따른 분류를 시도했다. [표 2-2]를 보면, 다수의 법령과 시행규칙이 산업공예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예의 산업화에 따른 관련 법령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예의 산업화 정책에는 산업공예뿐만 아니라 전통공예의 산업화 정책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공예에 해당되는 법령들의 일부가 전통공예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취미공예의 경우도 교육사업의 맥락에서 산업공예의 일부 법령과 관련된다. 즉 공예문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2-2 공예정책 범주별 분류

1차 범주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2차 범주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목/칠공예 (나전, 채와, 건칠, 화각, 죽, 각자 등) 도자공예(도자, 옹기 등) 금속공예(장신구 포함) 종이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칠공예 석공예	

2차 범주	기타공예	기타공예 (옥석, 초자, 초경, 모피, 골각, 말총, 부채, 악기, 단청, 탕화, 민화 등)	유리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가죽공예 기타공예	
범주별 정책 분류 (법령, 시행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예술인 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숙련기술장려법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지관리법 • 저작권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관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한국조폐공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3) 공예정책 성격별 분류

[표 2-3]은 공예 관련 정책을 정책 성격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크게 5개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문화시설 정책을 제외한 4개의 분류 기준이 1차 범주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시설 정책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의 세부 조항으로 포함되어 별도의 정책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공예박물관과 같은 공예 특성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사실은 공예 관련 정책적 기반이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실상이다.

아래 [그림 2-1]과 [그림 2-2]의 분포도를 보면, 공예 관련 17개의 법령 가운데 전통공예와 산업공예에 해당하는 법령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공예, 취미공예 관련 법령 5건은 직접적으로 언급된 법률적 조항이 없는 관계로 기타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정책 성격별 분류의 경우에는 3개의 공예 범주에 해당하는 법령이 각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취미공예 관련한 교육정책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표 2-3 공예정책 성격별 분류

정책 성격별 기준	정책 성격별 기준에 따른 정책
산업정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 문화예술산업진흥, 중소기업기금 설치, 공예품개발육성조례 등
교육정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예술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문화 예술기금설치, 시·도민을 대상 미술대전, 문화상, 축제 등
문화시설정책	지역공예품판매장, 시립박물관, 교육관, 체험장, 전시장, 복지회관, 문화의 거리 등에 대한 설치 조례
문화재정책	「문화재보호법」, 「숙련기술장려법」 외 공예명장선정, 향토유적보호

그림 2-1 공예 관련 법령의 범주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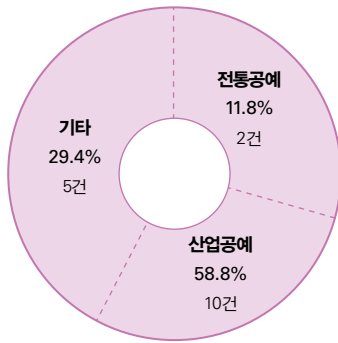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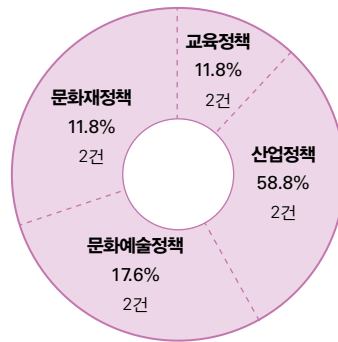


그림 2-2 공예 관련 법령의 정책 성격별 분류



2절 · 현황

2절 현황에서는 공예 관련 법과 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앙정부 소관 공예 관련 법령의 경우엔 주요 법령을 선별하여 자세히 다루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시행규칙 전체를 공예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공예 관련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조직현황을 살펴보았다.

1. 공예 관련 법과 제도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 공예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공예정책의 도구인 공예 관련 현행 주요 법령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숙련기술장려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예 관련 학예연구 및 유물 수집을 수행하는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근거법령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그리고 공예교육의 법률적 근거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마지막으로 예술인으로서 공예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있다. 그밖에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9건의 기타 관련 법령(「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저작권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포함하여, 2013년 12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공예 관련 현행 법령은 총 17건이다. 그 외 각 법령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있다.

[표 2-4]의 부처별 공예 관련 법령 소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공예의 보호·전승에서부터 예술공예의 육성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관점에서 공예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

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예품의 생산, 과세 등의 내용을 정하고, 공예를 산업의 관점에서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절반 이상의 정책을 소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8건의 공예 관련 주요 법령 중 6건을 소관하고 있으며, 광의의 맥락에서 공예의 문화적 속성에 따라 공예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부처별 공예 관련 법률 소관 현황

부처명	소관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저작권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국가기술자격법」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한국조폐공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농림축산식품부	「산지관리법(산림청)」

[표 2-5]는 공예 관련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정부 각 부처별 지원방향과 주요 사업 현황이다. 각 부처별 지원 방향은 산업공예와 관련한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미공예, 예술공예와 관련해서 주무부처가 지원하는 사업은 파악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공예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산업적 맥락의 정부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5 부처별 공예사업 현황

지원기관	지원방향	주요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창작 · 유통지원, 해외전시 및 해외진출, 인력양성, 소재 · 기술개발 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공예기술)	전통공예대전, 전통공예의 활성화 (전통공예 작품전, 제작유통지원 등)
고용노동부	숙련기술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라믹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세라믹산업(전통도자공예 포함), 지역연고산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조업), 소상공인	대한민국공예품대전(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참살이서비스 지원
조달청	조달문화상품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선정작품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
안전행정부	지역 향토자원	지역의 향토핵심자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향토자원	농어촌 향토산업육성, 지역농업특성화

· 출처 각 부처별 홈페이지

[표 2-6]은 중앙정부 6개 주요 부처와 지자체가 시/도 공예 관련 정책 과제와 어떤 내용으로 협업하는지 각 부처별로 정리한 것이다.¹¹⁾ 공예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조직은 다수의 중앙부처에 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예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과제가 정책 성격에 가까운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예 분야 고유의 특징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표 2-6 부처별 시/도 협업과제

기관명	과제명	주요내용
안전행정부	향토명품 활성화	개발 공예명품 공동홍보 생산거점 공예명품 육성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기 구축한 작업장, 교육장 공동활용(통영 등) 우리동네 공예공방시 상호협력
산업통상자원부	공예명품 개발	일반 제조업에 공예소재·기술 접목도모 창조기업 육성 공예명품 개발시 협력

11 각 부처별 정책과제와 사업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열람하여 정리한 주요 내용을 추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예 소재 · 기술 융복합 지원	산업부 산하 소재 연구기관 연계 등 신소재 · 기술 연구시 협력 융복합 연구시 상호협력
	해외진출 공동지원	KOTRA 현지사무소 활용, 현지동향 · 정보제공 등 업체 해외진출시 협력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동 개최, 세계공예엑스포 개최 협력
고용노동부	공예명장 활용 강화	명장 · 명인 · 우수숙련기술자 연계활용
	공예 숙련인력 양성	공예인력 양성, 숙련기술 교육 등 협력 강화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공예인증제 인증상품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 공예품 추천 및 소개시 기관 등 공동홍보
중소기업청	공예행사 연계	대한민국공예품대전과 공예트렌드페어 연계 세계공예엑스포 개최 협력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연계강화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책 공예업체 · 작가 연계 강화
	해외진출 공동지원	해외박람회 등 공동진출 및 정보공유
지자체	지역공예 활성화 협력	공예품 시장 외산공예품에 대한 공동대응 실태조사 협력 공예 전시 · 판매장, 창작공방 등 조성 및 운영시 상호협력 개발상품, 공간 등에 대한 공동홍보(지역관광사이트 등) 공예마켓 개최, 공예품 전시, 자료 수집 및 연구, 교육 등 공예 전문 문화시설 활용
	공예박물관 설립 (서울시)	공예품 전시, 자료 수집 및 연구 · 교육 등 공예 전문 문화시설 활용

· 출처 각 부처별 홈페이지

(2) 주요 법령 및 개정 현황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 간 미흡하였던 개별 법제에 의한 부분적 지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크게 총칙, 창업/제작/유통, 문화산업기반조성,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산업전문회사, 그리고 보칙의 7장으로 구성되었으나, 문화산업진흥위원회와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소기업 모태 조합 내 문화산업 별도계정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이와 관련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제1조(목적)에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의 문화산업진흥 책임을 명시하여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및 제작자·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유통 전문회사의 설립·지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전문인력양성과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문화 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을 통한 문화산업 기반 조성,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문화산업 분야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바목에서 공예품을 문화산업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의 바목에 명시된 공예품 외에도 마목의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과 자목의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이 별도로 명시됨으로 인해 공예의 개념과 범주를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1999년 2월 제정된 이후 2002년 1월 26일 전부 개정이 있었고, 2013년 2번의 타법 개정을 포함해서 28회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 정부 부처 개편과 중앙정부 부처 개편과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타법 개정을 포함하여 두 번의 타법 개정이 있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1년 11월 30일 제8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 1972년 8월 1일 제 82회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통과된 후,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 2337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총 제6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 날 설정 및 문화강좌 설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등 문화예술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련합회의 설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1972년 8월 14일 제정되었으며 2013년 2회 개정되어 현재까지 총 25회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 개정에는 최근 만화가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13.8.6.] [법률 제11901호, 2013.7.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하 “문화시설 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문화재보호법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모체는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이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제정되었으며, 총 12장 10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국유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설치(제8조)하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두도록 하였다(제9조). 그리고 문화재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국가지정문화재 실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관리, 일반동산 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및 조사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환수 및 활용,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설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공예품과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공예기술이 각각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지정범위에 속해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분류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되며, 재료구분에 따른 7종의 ‘공예기술’은 6종의 ‘전통연행’ 및 3종의 ‘음식제조’와 함께 무형유산에 속한다. 이 법령 제24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또는 예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받고 있는 종목은 총 123종으로 그 중 공예기술은 49종이다[표 2-7].

이 법령은 산업화 시기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던 문화재 보존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문화재보호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정 체계의 문제점, 전승단절 위기 해소 미흡, 전수교육 활성화 부족, 공예종목의 전승기반 약화, 무형문화재의 진흥·활성화 전략 부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담당관실 및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소관 법령으로서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포함하여 총 40회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에는 개정된 바가 없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시행일 : 2015.1.29.] 제2조

표 2-7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 종목 지정 현황(총 49종)

소재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금속	제35호	조각장	도자	제91호	제와장
	제60호	장도장		제96호	옹기장
	제64호	두석장		제105호	사기장
	제65호	백동연축장	석	제94호	벼루장
	제77호	유기장		제100호	옥장
	제78호	입사장		제120호	석장
	제101호	금속활자장	섬유	제14호	한산모시짜기
	제112호	주철장		제22호	매듭장
목칠	제10호	나전장		제28호	나주의삿골나이
	제31호	낙죽장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
	제42호	악기장		제80호	자수장
	제47호	궁시장		제87호	명주짜기
	제48호	단청장		제89호	침선장
	제53호	채상장		제107호	누비장
	제55호	소목장		제115호	염색장
	제74호	대목장		제119호	금박장
	제88호	바디장	지	제102호	배첩장
	제93호	전통장		제117호	한지장

목질	제99호	소반장	지	제124호	궁중채화
	제103호	완초장	피모	제4호	갯일
	제106호	각자장		제4호	망건장
	제108호	목조각장		제108호	탕건장
	제109호	화각장		제109호	화혜장
	제110호	윤도장			
	제113호	칠장			
	제114호	염장			
	제118호	불화장			

· 출처 문화재청(<http://www.cha.go.kr>)
· 2013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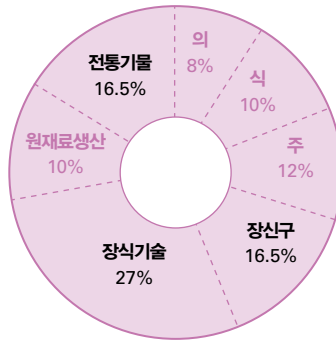
이상의 49종의 공예기술 종목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2-8]과 같다. 용도별 분포를 보면, 장식 기술이 27%로 가장 많고, 장신구와 전통기물이 동일하게 16.5%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8 공예기술의 용도별 분류

용도 구분	공예기술
의	자수장, 침선장, 누비장, 염색장
식	채상장, 사기장, 유기장, 옹기장, 소반장
주	소목장, 대목장, 제와장, 왕초장, 염장, 번와장
장신구	갯일, 매듭장, 장도장, 백동연죽장, 탕건장, 화혜장, 윤도장, 망건장
장식기술	단청장, 불화장, 칠장, 입사장, 화각장, 나전장, 각자장, 조각장, 낙죽장, 목조각장, 배첩장, 두석장, 금박장
원재료생산기술	한산모시짜기, 곡성돌살나이, 나주셋골나이, 명주짜기, 한지장
전통기물	금속활자장, 주철장, 옥장, 전통장, 약기장, 궁시장, 석장, 바디장

· 출처 문화재청(<http://www.cha.go.kr>)

그림 2-3 공예기술의 용도별 분포도



라.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 제정되었다.

이 법령 제11조(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정분야 및 직종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며, 당초 24개 분야 167종이었던 것을 2012년 이후 22개 분야, 96개 직종으로 통합하였다.¹²⁾ 이 중 공예 분야 직종은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등의 6개 항목이 있다.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세부 직종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직종별로 별도의 관할 부처가 존재하며 공예 분야는 석공예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머지 5개 직종이 고용노동부에 속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소관 법률로서 1989년 4월 1일 「기능장려법」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10회 개정되었다.

12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1-6호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에는 개정된 바가 없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338호, 2010.5.31.,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한편, 정부는 2012년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¹³⁾ ‘역동적 고숙련 사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¹⁴⁾ 이는 지난 2010년 전면 개정한 「숙련기술장려법」을 바탕으로 수립한 5개년 계획으로, 고용노동부는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열린 고용사회 확산을 위해 정부·기업·학교가 적극 나서서 숙련기술인력을 키워내고, 그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숙련기술자」¹⁵⁾, 「대한민국명

13 고용노동부 2012년 5월 29일 보도자료 참조.

14 4대 정책과제는 ①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② 능력 중심 문화 확산, ③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④ 숙련기술 장려 인프라 구축이다.

장」¹⁶⁾ 제도를 정비, 「예비대한민국명장」(現 우수 숙련기술자) 중에서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해 숙련기술인에게 성공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술을 한 단계씩 높여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으로 대한민국명장제도 개편안을 [그림 2-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명장 가운데 공예 분야 직종을 추출하여 분류하고 그 직무내용을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그림 2-4 대한민국명장제도 개편안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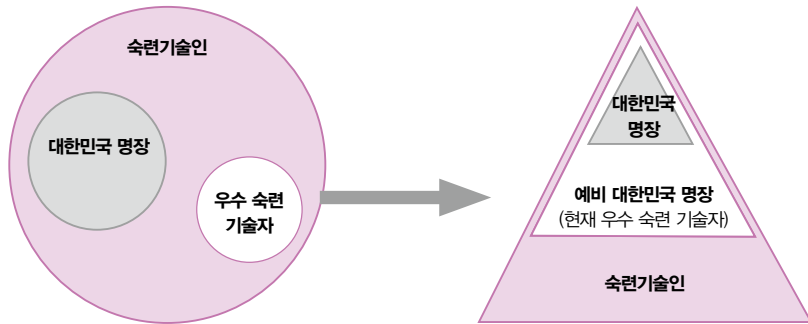


표 2-9 대한민국 명장 공예 분야 직종 분류 및 직무내용

직종	직무내용
목칠공예	<p>목재나 플라스틱재의 자재와 부속품을 가공하고 조립하여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 절단, 연마, 도장,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를 제작</p> <p>줄 톱, 끌, 송곳, 사포 등 각종 수공구 및 기계공구를 사용하여 나무를 깎고, 켜고, 자르고, 붙이고, 다듬어서 미관상 아름답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목공예품을 제작</p> <p>전복, 소라껍질을 이용 자개무늬를 도안, 본뜨기를 하여 적정 농도의 아교로 자개를 접착하고 섬세한 무늬효과가 나타나 입체감을 나게 하기 위하여 모조 또는 부조로 조각 작업을 수행하여 각종 칠기제품 제작</p> <p>자개를 부착한 기물 바탕 위에 옻나무에서 채취된 수지인 칠(漆)을 자개무늬 이외의 부분에 애벌칠, 두벌칠, 마감칠을 하여 자개무늬의 영롱한 색채를 살려 각종 칠기제품을 제작</p>

15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16 최고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17 고용노동부 2012년 5월 29일 보도자료 참조

목칠공예	붓, 로울러 브러쉬, 스프레이 등의 도장기기와 설비를 사용하여 페인트, 바니쉬 및 유사재료를 가구의 외부 및 내부표면에 칠하여 가구의 외관 장식 및 보호 * 가구제작, 목공예, 패세공, 칠기, 가구도장 직무 포함
도자기공예	도자기 재료가 되는 고령토, 점토, 장석 및 기타 화공약품을 각종 분쇄기로 분쇄, 혼합, 미분쇄하여 소지토와 유약을 제조하고 각종 성형기계, 기구 및 석고형을 사용하여 소지토를 원하는 기물로 성형하고 건조, 시유, 장식한 후 가마에서 고온으로 소성시켜 식기류, 타일, 애자 및 위생도기, 도자기 등을 제작
석공예	건축물, 기념비 또는 조각, 실내 장식품 등의 석물제작을 위해 화강암, 석회석, 대리석, 사암 및 그 밖의 암석을 디자인하고, 절단하거나 조각하여 모양을 만들고 끝손질
보석 및 금속공예	세공할 모양, 형태에 따라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과 일반금속을 소재로 금속용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신변 장신구, 식탁용품 및 심미적 작품을 제작하고 수리 각종 보석원석의 특성과 연마형태를 파악하고 연마기,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원석의 특성과 형태에 알맞게 보석난(알)과 장신구, 장식품을 일정한 각도로 연마하고 광택을 내고, 귀금속에 알맞은 크기의 보석을 가공하여 끼우거나 확대경을 사용하여 불순물, 깨짐, 표면상태, 규격 등을 검사 * 보석가공, 귀금속가공, 금속공예 직무 포함
자수공예	자수재봉틀을 사용하여 실, 직물을 포함한 각종재료로 의상의 부분품이나 기타 직물에 도안대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자수품을 제작(기계자수) 직물재료 위에 자수 도안을 옮겨 그리거나 등사된 장식적인 도안위에 각종 수실을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도안의 선을 따라 수를 놓음(수자수)
인장공예	나무, 보석, 상아, 합성수지 등 인장 재료의 특성과 재질에 대한 지식과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재료와 용도에 맞는 도장 제작

· 출처 「2012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안내책자」,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하는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수렴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게 되었다.¹⁸⁾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최근 개정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중복에 따른 관련 법규의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단일화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개발에 관한 내용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해당되는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방중소기업 경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가업승계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시켰다.

2012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발효됨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7년 4월 11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조문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21일 법률 제9685호 제2차 일부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관련 분야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면서 2012년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등이 최근에 반영되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계는 중소기업의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조성, 사용 및 그 운용기구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공예와 관련한 법률 조항은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62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53조 민속공예산업,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소관 법률로서 1994년 제정되어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51번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내용

2012년 개정된 이 법률 제67조 22의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9제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법률 제11846호, 2013.5.28, 타법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1846호, 2013.5.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제62조(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제정되었다. 총 9장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

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사항과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의 등록, 관리운영,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학예사의 자격요건(제6조)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설립 등을 정하고 있다(제33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 등 동 법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로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 협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예분야는 2조(정의)에서 ‘박물관’의 정의 중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등의 항목과 관련이 있고, ‘미술관’의 정의에서 문화·예술·학문 분야로서 서화, 조각, 건축, 사진 등과 함께 미술자료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된 유·무형문화재 중심의 정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일상문화 또는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공예를 연구하고 실물을 수집·기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1991년 11월 30일에 제정된 이후 최근 2013년에 1회 개정되었고, 2014년 타법 개정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총 24회 개정되었다.

2013년 개정 내용

[법률 제12135호, 2013.12.30,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②항은 현행과 같고, ③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 2014.3.31.] [법률 제12135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 제5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설치,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시설 및 단체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용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설 및 단체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령 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17에 따라 정의하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18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제1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제5장)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학교와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23조). 최근 개정을 통해 정한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급 교육과정 중 ‘교수역량’ 영역의 10개 선택교과목에 공예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격취득경로 중 하나로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교육기간이 3년 이상인 이수자가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교육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이나 활동영역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2년 2월 17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수행업무, 자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다. 2013년에는 개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까지 총 5회의 개정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소관 법령으로서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이후 타법개정을 포함해 총 4번의 개정을 거쳤다.

2013년 개정 내용

2013년에는 개정된 바가 없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 2013.2.18.] [법률 제11312호, 2012.2.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 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❶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❶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❶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아. 예술인 복지법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11월 18일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예술인’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으로서 2011년 1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2013

년 일부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공예에 대한 문화예술적 관점의 법령으로 「문화예술진흥법」과 더불어 공예 분야 종사자 또한 예술인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예인들의 권익과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013년 개정 내용

이 법은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시행 2014.3.31.][법률 제12136호, 2013.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12.30.].
-

(3) 기타 관련 법령

공예와 관련된 기타 법령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본문에 ‘공예’ 또는 ‘공예품’을 명시하여 법률 대상 범위의 일부로 공예를 다루고 있거나 그 내용으로써 공예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말하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저작권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원자격검정령」, 「국가기술자격법」,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총 9개 법령이 이에 해당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2년 2월 17일 일부개정을 통해 제2조 제4항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에 ‘불교공예’가 포함되면서 관련 법령으로 추가되었다. 각 법령에 나타난 공예 관련 주요 내용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기타 공예 관련 법령 및 내용

법령명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법률 제12158호, 2014.1.1., 일부개정]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중략) 35. 영 별표 제35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 서식
산지관리법 [시행 2014.8.7.][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 2014.7.1.][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한국조폐공사법 [시행 2014.1.21.][법률 제12271호, 2014.1.21., 일부개정]	제11조(업무)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7호, 2012.2.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학교명	자격별	표시과목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국어, 수학, 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진로진학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술, 가정, 기술·가정,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상업정보,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 2014.6.12.]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2014.6.12., 일부개정]

제3조(국가기술자격증 직무분야 및 종목)[별표 2] (개정 2014.6.12)

직무 분야 (26)	종직무 분야 (61)	기술·기능 분야(494)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7	109	114	160
19 섬유 의복 (2/15)	191 섬유 (8)	섬유		섬유	섬유	
					섬유 디자인	
						염색 (날염)
						염색 (침염)
	의류			의류		
	192 의복 (7)					양복
						양장
						신발류 제조
					패션디 자인	

23 인쇄 목재 가구 공예 (2/16)	231 인쇄 · 사진 (5)				패션 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인쇄	인쇄	인쇄
	232 목재 가구 공예 (11)					가구제작
			귀금속 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도자기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석공예
					피아노 조율	피아노 조율

<p>관세법 시행령</p> <p>[시행 2014.7.29.][대통령령 제25523호, 2014.7.28., 타법개정]</p>	<p>제18조(무로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p> <p>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p> <p>제28조(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p>
<p>개별소비세법 시행령</p> <p>[시행 2014.7.31.][대통령령 제25476호, 2014.7.16., 타법개정]</p>	<p>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2014.2.21.></p> <p>7. “공예창작품”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 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기술·기법으로 율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p>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4) 공예 관련 법률 발의 현황

2012년 5월 29일 시작된 제19대 국회에서 2013년 기준으로 발의된 공예 관련 법안 중에 현행 법률 개정안을 제외하고, 새롭게 제안된 법률은 총 4건([표 2-11])이다. 이 중에서 2012년 11월 7일 제안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2013년 3월 29일 다시 국회에 회부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과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안」은 2012년 5월 29일자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으나, 19대 국회에 다시 제안되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은 2013년 1월 3일 윤관석 의원 등 22인의 발의로 제19대 국회에 제안되었으며,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또한 재발의 되어 심사 중에 있다. 본 백서에서는 이상 4건의 발의된 법률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발의안과 각 심사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표 2-11 공예 관련 주요 법률 발의 현황

의안번호	법률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관위원회
1902482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2012.11.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0324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윤관석의원 등 22인	2013.01.0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05716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43인	2013.06.2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906232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1인	2013.07.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상세내용 참고자료 1-1 참조

표 2-12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경위	발의자	조해진의원 등 11인
	발의일	2012. 11. 7.
	회부일	2013. 3. 29.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사회적 갈등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

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고, 보존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수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브랜드화, 전통공예품 인증·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해외 전시·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세계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이 적극 요청됨.

주요내용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전통적 공예, 공예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등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등의 범주로 확대함(안 제2조).
-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심의기구로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문화재청장은 시·도무형문화유산,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품의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공동체의 전승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승자가 제작한 상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전통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7조).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크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8조).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표 2-1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안경위	발의자	윤관석의원 등 22인
	발의일	2013. 1. 3.
	회부일	2013. 3. 29.
제안이유	<p>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임. 특히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이행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고, 관광·교육 등의 다른 산업분야와의 연계 범위가 넓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의 대표 분야임.</p> <p>그러나, 그동안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공예진흥 정책과 더불어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음.</p> <p>또한 전통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p> <p>이에 하나의 문화적 총체로서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p>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7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과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제작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국가는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예기능 및 공예상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공예품은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소관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예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며, 특히 전통공예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과 미의식을 반영하는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²⁰⁾ 이와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규모 가내수공업적 제작환경, 전근대적 유통구조,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의 단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예진흥 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예의 문화산업적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저가의 외국산 공예품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의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입법체계 및 내용과 유사·중복되고, 제정안 고유사항 중에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 시책 마련 등 선언적 성격의 규정이 대부분이고, 공예문화산업은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진흥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예분야에 특화된 개별법 제정이 의의가 있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공예 정책에서 벗어나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

20 일반적으로 공예는 ❶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제작자가 ❷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❸ 주로 수작업에 의하여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❹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14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경위	발의자	유승우의원 등 43인
	발의일	2013. 6. 27
	회부일	2013. 7. 3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수공업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공업 등록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명가를 탄생시키고 있음. • 전통수공업 제품에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유지·계승되어 온 전통문화의 소재(재료, 지식, 양식), 기법(생산방법, 기술, 도구), 디자인(형태, 상징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한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전통수공업이라 정의함(안 제2조 제1호). • 전통수공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품(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적용된 것을 포함한다)을 전통수공업제품이라 정의함(안 제2조 제2호). • 전통수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대통령령에 따라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우수전통수공업제품 지정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전통수공업제품의 창작 및 제작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 정부는 전통수공업제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수공업제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고 전통수공업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전통수공업제품 품질인증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통수공업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통수공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수공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전통수공업을 효율적으로 신지식산업화하기 위하여 전통수공업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 및 개발, 기업 등록제도 운영, 전문기업·명가 지정 및 지원,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통수공업 진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36조).

· 출처 국회안전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표 2-15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경위	발의자	김광림의원 등 11인
	발의일	2013. 7. 31
	회부일	2013. 8. 1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 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자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통문화와 관련된 집단이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제작,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 인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2) 지방자치단체

(1)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²¹⁾ 2013년 12월 기준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총 354개의 공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례 및 시행규칙을 본 백서의 범주인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2-16]과 같다.

21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표 2-16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범주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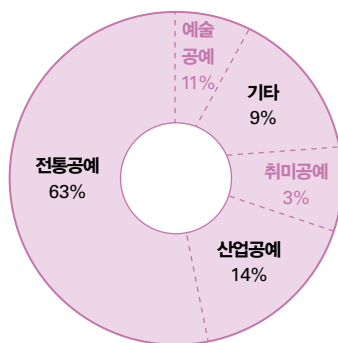
구분	전통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기타	합계
서울특별시	5	2				7
부산광역시	5	1	1			7
대구광역시	2		1			3
인천광역시	9	1	1			11
광주광역시	7	1	2			10
대전광역시	6	1	1			8
울산광역시	4		2		1	7
세종특별자치시	4					4
경기도	30	7	4		6	47
강원도	24	4	8	4	3	43
충청북도	28	5	3	2	4	32
충청남도	11	3	3	1	2	20
전라북도	26	3	4	1	3	37
전라남도	26	2	15		8	51
경상북도	21	4	3	3	2	33
경상남도	22	3	3		2	30
제주특별자치도	3	1				4
합계	223	38	51	11	31	354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 2013년 12월 기준

· 참고자료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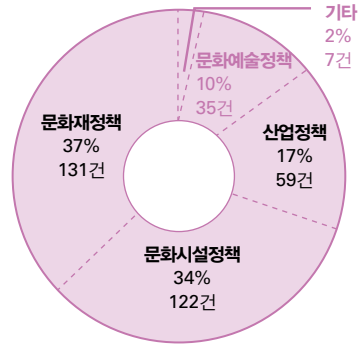
그림 2-5 현행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공예 범주별 분류



전체 354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예 범주와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결과, 보호 및 전승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통공예 정책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따르는 문화재정책은 37%로 집계되었다.[그림2-5], [그림2-6]

이 중 문화재정책에 속하는 다수의 조례나 시행규칙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항 22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의 설치, 브랜드개발 등을 정하여 공예산업체를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14%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많은 수의 조례가 속해 있는 문화시설정책은 공예마을이나 문화의 거리 등과 같은 공간 및 시설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2012 공예백서』에서는 기타 정책에 포함시켰으나, 본 백서에서는 예술공예와 기타 정책으로 다시 세분화 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기금의 설치, 시·도민대상의 미술 대전, 문화상, 축제 등을 정하는 문화예술정책이 2012년 보다는 높은 비율로 집계되어 11%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공예교육관, 체험장 등 지자체 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문화시설정책의 일부를 취미공예로 분류하였는데, 전체 지자체 중에서 11건으로 조사되어 아직은 취미공예만의 독립적인 정책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그림 2-6].

그림 2-6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성격에 따른 분류



(2) 지역별 공예분야 특성화 현황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시행규칙명에 ‘향토문화유산’, ‘민속공예품’, ‘문화재’ 등과 같이 광의의 공예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별도의 공예 세부분야를 특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행내용은 [표 2-17]과 같다. ‘도자’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이천시, 충북 단양군, 전남 강진군 등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옷칠’, ‘한지’, ‘한옥’이 각각 2곳이었다.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도 소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각 특화 분야의 문화시설 운영·관리를 정한 조례가 많다 점에서 장기적 지원·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7 지방자치단체별 공예 분야 특성화 현황

지역	자치단체	분야	관련 조례 내용
울산	울주군	옹기 및 발효 음식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	도자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강원	수원시	화성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원주시	옷/한지	옷·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옷	옷산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강원	원주시	옷	옷산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옷칠	한국옷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충북	단양군	도자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조례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옹기 및 발효음식	옹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충남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전북	남원시	옷칠	옷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순창군	옹기 및 발효음식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한옥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전남	강진군	청자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청자 박물관장 사무위임 전결규정 고려청자 재현품 관리 규정 청자축제 조례
	나주시	천연염색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담양군	대나무공예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시행규칙
	해남군	옥석공예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북	경주시	한옥	교촌 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안동시	포	안동포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경남	경남	나전칠기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조례
	산청군	목각장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통영시	나전칠기	통영나전칠기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 출처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명
· 2013년 12월 기준

2. 공예 관련 조직 및 인력

1) 중앙정부

공예 관련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정부 부처 및 기관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총 4개 중앙정부 부처와 ‘문화재청’,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조달청’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공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백서에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가능한 정부부처 소속기관 직제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업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분화된 공예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추가했다. 각 부처의 공예 관련 담당조직 및 부서의 주요 업무는 [표 2-18]과 같으며, 각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18 중앙정부 공예 관련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조직		담당부서 및 산하기관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문화산업정책과	표2-19 참조
		저작권정책과	
		예술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박물관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표2-22 참조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표2-21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공예이론 분야의 전문가 육성 및,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연계한 인재양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기 · 예능 중심의 기록화 사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문화재수리기술강좌’, ‘교원문화유산 직무연수’, ‘전통공예디자인강좌’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 · 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를 연구, 조사, 수집, 보존, 전시, 보급, 교류
		민속기획과	
		유물과학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문화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연구, 분야별 예술지원정책 및 예술교육 연구,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 연구
		문화예술연구실	
		문화산업연구실	
		관광정책연구실	
		관광산업연구실	
		융합연구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문화예술교육본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 장비 확충 및 정비,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	
		교육진흥본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표2-24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의 디자인생활산업과	디자인 인력 양성, 디자인 지역기반 구축 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RDC), 광역권 디자인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섬유세라믹과	섬유패션 정책-섬유R&D(섬유스트림), 섬 유산업원천융합기술, 국방섬유 등-과 세 라믹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업무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과 관련된 업무
		경영판로국 판로정책과	민속공예산업의 육성 업무
	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문화서비스표준과	디자인 · 미술 · 공예업무를 담당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과	「숙련기술장려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소관,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고용정책실 직업능력평가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훈련기준 개발, 훈련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자격제도 운 영지원 등의 업무
	한국산업인력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기획팀, 숙련기술진흥팀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우수숙련 기술인 선정 및 우대 지원업무
		기술자격출제실	자격종목의 출제 · 검토 · 선정과 관련한 공예분야의 업무
		건설환경팀	
		생활과학팀	
기획재정부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	전통공예상품의 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 에 부수되는 업무

· 출처 각 부처 홈페이지

(1) 문화체육관광부

가. 본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11월 4일 정부조직법 및 직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탄생
한 공보처 및 문교부의 문화국,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설치된 교통부의 관광공로국에
서 기관의 기본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후 공보업무와 문화예술업무를 통합으로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가 발족(대통령령 제3519호)되었고,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어 문화부로 공식 출범(대통령령 제12895호)하였다.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편되었으며 1994년 12월 23일 교통부의 관광국을 인수했다. 1998년 2월 28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관광부(대통령령 제15722호)로 개편되어 문화관광 정책을 관장하는 중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3년 3월 건립된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의 중추적 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위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켰고, 2005년 8월 국립중앙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문화교류단을 신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획기능 및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처를 신설하였다. 문화관광부는 2007년 5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사업과 도서관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9월 18일자로 본부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본부 및 관광산업본부를 신설하였다. 2008년 2월 29일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기존의 문화관광부 조직에서 흡수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설(대통령령 제20676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와 관련한 문화와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 문화 선진국들의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예술부문의 하나로 공예를 주목하여, 200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공예전담기관인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설립·운영하였다. 나아가 2010년 3월 공예와 디자인의 효율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하여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공예문화의 대국민 확산, 공예산업 기반조성, 해외시장 진출, 각종 전시 지원 사업, 유통 지원 등을 통해 공예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2년에는 공예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공예계

의 의견을 집약한 공예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만들어 2013년 1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 조직 개편 이후 현재 각 실국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으로 구성되어 콘텐츠정책과 하부조직으로는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를 두고 있으며, 저작권정책관 하부조직으로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과를 두고 있다. 2009년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던 문화예술국은 2013년 다시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으로 분리되었고, 문화기반국이 신설되었다. 문화정책국에는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여가정책과, 국어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를 두고 있으며, 예술국에는 예술정책과와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이전 디자인공간문화과), 문화예술교육과를 두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정책기획단이 사라지면서 그 하부조직이 새로 신설된 문화기반국의 인문정신문화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정책과로 개편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예와 관련이 있는 조직은 문화산업정책과, 저작권정책과, 예술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박물관정책과가 있다. 이들 조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9]와 같다.

표 2-19 문화체육관광부 공예 관련 조직 담당업무

조직	업무
문화산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산업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영 • 문화산업진흥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 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 금융제도, 세제 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 • 문화산업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저작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추진 •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 · 연구, 동향 분석 • 저작권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및 후속 대책 수립 •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 저작권 관련 법령 교육 및 홍보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술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조정 및 시행 •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자원조성 및 운영 • 예술지원 사업의 평가 •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계획의 수립 • 문학 및 회화 · 조각 · 사진 등 조형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 문학 · 조형 예술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 •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 •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예술영재 교육 • 대한민국예술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립현대미술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지역전통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 지역문화의 특화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 • 문화 · 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 • 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 · 연구지원 • 지방 문화원의 육성 · 지원 •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 •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 •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 · 보급에 관한 업무
시각예술 디자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문화 진흥 및 디자인교류 활성화 •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 추진 및 지원 • 다중 이용 공공시설 등의 문화적 개선 • 국 · 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 건축문화 진흥 및 인식 제고 • 공예문화 확산 및 공예산업 진흥과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문화예술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 • 문화예술 관련 학교 및 사회교육 지원 • 문화예술수요 확충 및 교육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구축 •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 · 기관 및 단체지원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박물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정책과는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추진 •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국립 · 사립 박물관의 육성 · 지원 •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업무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9월 25일, 공예를 통한 생활 속 문화융성을 실현하고, 공예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예산업 중장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예산업 첫 중장기 발전방안으로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예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²²⁾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표 2-20]과 같다.

표 2-20 문화체육관광부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비전	생활 속 공예, 산업화 · 세계화	
목표	분야간 융합 및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육성(2017년도) • 공예명품 발굴(10개 품목) • 지역특화 공예마을 육성(5개소) • 공예인증제 정착(23014년 시범시행) • 우리동네 공예공방 운영(20개소)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 생활 속 공예	❶ 대중과의 접촉 확대 ❷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2. 명품공예 발굴 및 산업기반 육성	❸ 명품공예 발굴 · 육성 ❹ 유통 활성화 및 마케팅 강화 ❺ 산업적 진출기반 조성

22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9월 25일 보도자료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문.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3. 해외진출 및 교류 확대	⑥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⑦ 공예 국제교류 확대 ⑧ 한국 공예기술 전수 및 인력 교류 활성화
	4. 지역 특화 발전기반 마련	⑨ 지역공예 생산거점화 및 특화 개발 ⑩ 지역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그림 2-7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도



나.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구)황실사무청으로 출발하여 1998년까지 문화공보부와 문화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외국(外局)으로서 문화재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1999년 5월에는 ‘문화재청’으로, 2004년 3월 차관청으로 승격되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과 가치 창출로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소관법령은 「문화재보호법」(‘62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04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제정), 「문화재보호 기금법」(‘09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0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11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62제정)이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 분야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총괄, 문화재보호법(령) 정비, 시·도문화재보호 조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가 공예종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전승자인·선정 및 해제, 공예종목 전승지원 및 보급·활성화, 공예협동조합 설립, 공예종목 전승·관리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예 관련 국가전문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은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이다. 자격 종목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문화재청 소관 공예 관련 국가전문자격 현황

자격 구분	종목
문화재수리 기능자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 화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공, 철물공, 조각공(목조각공, 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세척공, 보존과학공(훈증공, 보존처리공),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박제 및 표본 제작공
문화재수리 기술자	보수, 실측·설계,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 출처 문화재청(<http://www.cha.go.kr>)

201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13년 10월 체결됨)에 대응

한 무형유산 종합 정책 수용기관 마련, 국내의 무형유산 전승환경의 취약성과 전승자 지원의 취약함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무형유산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시설의 필요성에 입각해 청장 직속 직제로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이 신설되어 국립무형유산원 건립과 함께 공예분야가 포함된 무형유산 전승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 선진화, 문화유산 향유기반 확대 및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세계화, 문화국가 위상 강화를 중점과제로서 선정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및 진흥 촉진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용어 변경(‘무형문화재’→‘무형문화유산’) 및 범주 확대, 전통공예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 수요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기·예능 위주에서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의식까지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가 목적이다.

2014년 4월 준공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은 2014년 10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분야별 운영프로그램 개발, 무형유산 자료 수집 및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무형유산 전승역량 강화 및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 기관 홍보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세우고 무형문화유산원을 세계적인 무형유산 연구·체험·교육·관람의 복합문화 서비스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그밖에 무형문화재(기·예능)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농악·연희·이북5도 무형문화재 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 정기공연 및 해외공연 정례화·확대 등 브랜드화를 추진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예품 공공구매 확대(8.5억원)와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지원(40여 종목) 등 무형문화재 공예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표 2-22 2013년 문화재청 전통공예 활성화 관련 세부사업 내용

사업명	내용	예산(원)
보유자 작품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1,5억
전승공예대전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공예품 일반 공모	2억
전통공예 명품전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중심 전통공예품 전시 · 판매	0,5억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위한 교육 · 제품 개발, 마케팅 · 디자인 교육	2.05억
공예작품 재외공관대여 및 활용	대사관 접견실 등에 전통공예품을 활용한 한국적 공간 스타일링 제 안, 문화원 등에 공예작품 전시	1,5억
무형문화재공예 판로 확대	판매를 위한 홍보 전시, 유통사 모집 및 협력기업 MOU 체결	3,6억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	컨설팅 자문단 구성, 전승자와의 협업을 통한 오늘날 사용 가능한 전통공예품 개발	4억
전통공예품 구입	보유자 작품전 등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출품작 구입	8,5억
한국적 라이프스일 창출 사업	전통공예를 활용한 현대적 사무공간 제안	0,9억

· 출처 문화재청(<http://www.cha.go.kr>)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청이 설립한 대학으로, 교훈은 ‘민족자존, 문화창달’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과학적 ·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1997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14982호)이 제정된 후, 학교 건립공사를 거쳐 2000년 3월 문화재관리학과와 전통조경학과의 2개 학과로 개교하였다. 2001년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를 개설하고, 2002년에는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를 개설하였다. 2004년 제1회 학위수여식을 가졌으며, 2009년 전통문화연수원을 개원하였다. 2012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명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변경되고, 3개 단과대학과 3개 대학원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로 개편되었다. 2013년 현재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통미술공예학과는

국내 유일의 전통미술공예 전공으로서, 국가문화정책의 미래를 겨냥하여 전통조형정신의 확고한 계승과 실제적 체험교육을 기반으로 한 공예이론, 전통회화, 전통조각, 전통도자, 전통섬유 등 5개 전공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이를 통해 공예이론 분야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연계하여 정통공예문화의 정수를 창조적으로 선도할 인재양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산하 전문연구기관으로 문화재 보존과 계승을 위해 고고연구, 미술문화재연구, 건축문화재연구, 무형문화재연구, 보존과학연구, 복원기술연구, 자연문화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공예 관련한 주요 연구로는 구술채록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전승주체인 개인의 생애와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기·예능 중심의 기록화 사업’을 2011년까지 진행했다. 2012년에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는 현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126건을 거의 기록하였고, 구술채록 현장의 경험과 쟁점사항, 매체별 기록방법, 구술자료의 전사(傳寫) 및 검독(檢督), 구술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방법, 구술 자료의 활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질문지, 구술채록 진행절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명단 등을 참고자료로 수록하여 구술채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향후 2단계 기록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구술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직물, 도자기, 나전 화각, 금속공예, 목공예의 전통무늬와 근현대 나전도안 원형을 기록하고, 유물의 재질에 따라 실측, 탁본, 사진촬영, 일러스트화하는 ‘한국 전통문양 원형기록화 사업’을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진행했다. 이 사업은 각종 문화재를 장식했던 우리의 전통문양의 원류를 규명하고 그 원형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물 유적에 남아있는 문양을 재질별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통 무늬』 시리즈 등 총 8권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들 책자에는 개별 문양에 대한 해설과 함께 사진, 일러스트 등을 수록하여 문양의 의미체계와 조형적인 가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양 일러스트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³⁾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장식문양은 현대적인 디자인 소재로도 연결 가능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단체로서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3조). 1980년 4월 1일 한국무형문화재보존협회, 한국문화재보급협회,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등 3개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발족하였고, 1992년 9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개칭되었다.

한국전통문화의 전승과 보급,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전문 특수법인으로 전통예술공연, 전통공예전시, 전통의례재현, 전통문화체험, 전통혼례와 전통음식의 보급, 문화유산교육,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 등의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교육과 출판사업에도 힘써, 전통음식문화를 집대성한 『한국음식대관』(전6권) 외 많은 교육용 도서와 문화재도서를 발간하였다. 정기간행물로는 『월간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조사연구로 각종 국책사업, 도로 등의 지표조사와 전국의 개발 지구 매장문화재들에 대한 구제발굴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개발로 인한 문화재훼손 방지와 문화재 보존 및 학술 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밖에 국제협력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문화동반자 사업(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각 나라에서 선발된 문화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재단의 문화동반자 사업에는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케냐, 콜롬비아 등 11개국에서 총 21명의 문화 전문가가 초청되었다. 그리고 한국문화

23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센터(www.alright.or.kr)는 (재)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팀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유통시스템으로 2011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받은 공공저작권 집중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료' 또는 '무료'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 및 민간 유통을 대행하고 저작권 권리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재보호재단은 2010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NGO)로 인가받은 이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예정종목의 국·영문책을 발간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주요 운영시설로는 ‘한국의 집’, ‘한국문화의 집’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문화재조사연구단’, ‘인천국제공항 전통문화시설’, ‘고궁편의시설’ 등이 있다. ‘한국문화의 집’은 문화유산교육의 일환에 따라 우리 옛 문화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문화공간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급과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유산 애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며 전통문화유산의 현대적인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문화재수리기술강좌’, ‘교원문화유산 직무연수’, ‘전통공예디자인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단체들의 전수활동공간으로 공예인들의 작업 공방 및 상설전시장, 무용·음악·연극 예능인들의 연습실 및 공연장 등을 갖추고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내외국인의 관람장소와 각급 학교의 체험교육장으로 연중 개방되어 있다.

다.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립민속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62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전신인 국립민족박물관이 개관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크게 네 시기-국립민족박물관시대^{1945년-1950년}, 한국민속관시대^{1996년-1975년}, 한국민속박물관시대^{1975년-1979년}, 국립민속박물관시대^{1979년-현재}-로 구분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1979년 현재의 기관명을 갖게 되었으며 199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에서 문화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1993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 이전하면서 문화체육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다시 2008년 2월 29일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09년 5월 4일에는 어린이박물관이 신설되었다.

조직은 관장 이하 민속기획과, 섭외교육과, 유물과학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로

이루어져 있다. 민속기획과에서는 인사·서무·예산·경리·기획·감사·청사 관리를, 섭외교육과에서는 박물관 홍보 및 국제교류 관련업무, 민속문화에 관한 박물관 교육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물과학과에서는 민속 유물의 구입·수집·보존관리 및 처리와 민속 유물의 문화 상품화를 추진하며 문화재의 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운영과에서는 전시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관련 업무, 야외 전시장의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속연구과는 전통 생활사·공예 기술·세시 풍속·민간 신앙·각종 의례·전통 사회의 관습과 제도의 조사 연구, 동·서양 민속 비교 조사·연구를 맡고 있다. 또 전통 세시 풍속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도 맡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임무와 역할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65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0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임무와 역할은 크게 박물관으로서의 집행기능과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원 기능으로 대별된다. 집행기능과 관련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를 연구, 조사, 수집, 보존, 전시, 보급, 교류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법적으로는 민족의 고유한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 전체를 박물관 활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개항기 이전 우리 민족의 민속·생활사’에 한정하여 박물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의 생활문화, 일상, 일생 등 3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물은 「조씨삼형제초상」(보물 제1478호), 「신·구법천문도」(보물 제1318호), 「경진년 대통력」(보물 제1319호) 등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총 9만 1,457점(2009년 9월 현재)을 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설전시 기획 전시 기증전시 외부전시 국제교류전시를 비롯해 연 4회 이상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하여 한국의 생활문화의 폭넓은 이해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구입, 기증, 기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민속현장의 사진, 필름,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속학 전문서적, 다양한 멀티미디어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축적하여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부터 해외 유명박물관에 한민족문화실 및 해외문화원의 한국실 설

치를 지원하여 세계 곳곳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박물관의 전문가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성인교육, 소외계층, 다문화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민속한마당 상설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어린이박물관 역시 어린이들에게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케 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주요 전시 및 사업으로는 <제38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2013.10.9~28)이 있었고, <혼례(婚禮)>(2013.12.12~2.11) 기획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해외 혼례조사와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베이징민속박물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대여한 혼례 유물, 일반 국민들로부터 수집한 혼례 사진과 혼수품 등 한국·중국·일본·베트남·네팔 등 아시아 5개국의 혼례문화조사 결과 전통과 현대의 혼례 관련 유물 863점을 소개함으로써 해외 문화 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 기반구축’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삶을 조사하여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원화 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민속문화의 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의 준비기간과 1년의 실행기간을 설정하여 추진되었다. 2013년에는 ‘경남민속문화의 해’로서 2012년 6월 협약식을 갖고, 선포식 및 민속축제한마당(2013.3.30~31), 특별전·순회전 <끈질긴 삶과 신명, 경상남도>(2013.4~12), <경남무형문화제 축제>(2013.6.11~12)를 진행했다.

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02년 12월 4일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합하여 새로이 출범한 연구기관이다. 출범 당시 기관명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었으며, 2007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문화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외국의 문화정책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국민 문화향수 및 문화시설 확산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대중문화 및 대중매체 연구,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연구, 남북 문화통합 및 북한예술에 관한 연구, 분야

별 예술지원정책 연구, 예술교육 및 청소년문화 연구,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관광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조사, 연구용역의 수탁,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 보급 및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한다.

2011년 6월 7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대비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장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정보보호 기능 강화,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및 국악 악기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3명의 정원을 증원하였다. 6월 16일에는 다문화·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교육과에서 문화여가정책과로 이관하였고, 이와 아울러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업무를 종무1담당관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였다. 국어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민족문화과·지역문화과를 국어정책과·지역민족문화과로 개편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를 신설하여 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이어 10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국민소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직제가 일괄 개정(대통령령 제23209호)되었다.

2012년 2월 1일,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홍보기획 및 홍보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였으며,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총괄 조정기능을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이관, 문화정책관 소관 문화예술교육기능을 예술정책관·소관으로 이관하였다. 2012년 4월에는 국가서지 품질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국가서지과가 신설되었으며, 9월에는 장애인의 정보욕구 충족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2007년 신설)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12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신설되었으며,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년 5월 23일 발표)의 박물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9월 7일 문화예술국에 박물관 전담부서인 박물관정책과가 신설되었다.

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

구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최근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서울시교육청 MOU 체결,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MOU 체결, 한국언론재단과 지역신문사 공동기획취재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청사 확대 이전(구로구에서 마포구로) 및 조직 개편(3본부 1실 11팀), 교육부 및 9개 공공기관간 자유학기제 협업을 위한 MOU 체결, 마포구청 MOU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2013에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개최와 더불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사노피-아벤티스·아름다운가게와 MOU를 체결했다. 특히 [표 2-22] 학교 장르별 예술강사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부터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공예가 포함되면서 2013년에는 공예 분야의 강사 4,485명이 7,254개 초·중·고 학교에 출강했으며, 수혜 학생수는 2,200,000명에 이른다.²⁴⁾

표 2-23 학교 장르별 예술강사 현황(2008~2013)

단위: 명

구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	사진	디자인	공예	합계
2013	1,799	767	245	851	466	66	124	167	4,485
2012	1,699	766	253	807	467	48	96	127	4,263

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2013

2011	1,733	725	253	763	499	37	67	87	4,164
2010	1,568	845	330	801	500	24	39	49	4,156
2009	1,394	721	291	614	463	-	-	-	3,483
2008	984	450	212	299	299	-	-	-	2,244

· 사진, 디자인, 공예 분야는 2010년부터 신규로 편성됨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예술강사 자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2013.12

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00년 4월 공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06년 우수공예품의 유통·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종합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2009년 공예 관련 전문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공예정보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였다. 2010년 3월 공예와 디자인을 통한 공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두 분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문화재단과 통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KCDF 갤러리를 리뉴얼 개관하였다. 2011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를 관리 위탁받아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 공간운영본부가 공예디자인사업본부로 통합되었다. 2013년 이후 현재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경영전략본부와 공예디자인사업본부와 그 하부 조직들의 명칭이 전체적으로 바뀌어 새롭게 구성되었다[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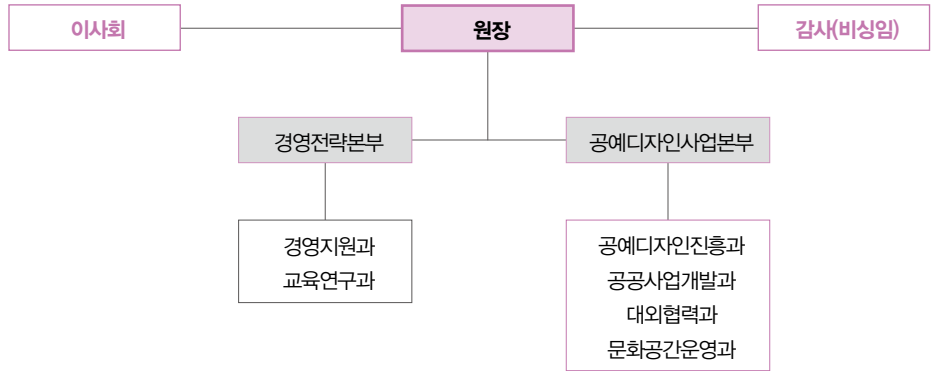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와 디자인의 균형적 진흥·육성을 위하여 2본부 5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경영전략본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 조직 및 대외업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총괄하고, 공예·디자인사업본부는 <공예 트렌드페어> 개최 및 우수공예품의 유통, 해외마케팅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 2013년에 추진된 주요사업내용과 담당부서 현황은 [표 2-24]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본 백서 부록의 ‘2013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 결과보고’를 참조할 수 있다.

표 2-24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서별 업무내용

부서명	주요업무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과	경영전략본부총괄, 업무총괄, 회계, 결산, 예산, 기관성과, 중장기계획, 고객만족도평가, 대외자료, 계약, 경영공시, 정부시상지원대회평가, 제규정, 대외요구자료, 주간업무보고, 인사, 복무, 노무, 이사회, 제규정, 대외자료, 증명서발급, 회계, 인프라구축, 직원교육, 서무총괄, KCDF갤러리 시설관리
경영전략본부 교육연구과	공예디자인인력양성, 공예유통망구축, 공예사료리소스복발간, 문화예술ODA, 공예디자인인력양성교육, 공예유통망구축, 공예디자인인력양성교육, 공예디자인백서 발간, 아카이브센터운영
공예디자인사업본부 공예디자인진흥과	2013 공예트렌드페어, KCDF 기획전시, 지역공예마을육성(통영), 공예소재개발연구, 지역공예마을육성(북촌), 공예인증제 연구 및 구축
공예디자인사업본부 공공사업개발과	한국적 생활문화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디자인박물관건립추진, 문화로행복한학교만들기,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컨설팅, 디자인 해외교류 프로그램운영(IDA),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공간 조성,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사회문제해결문화디자인시범사업,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문화디자이너 선정, 디자인인큐브, 디자인박물관 건립추진, 고품격 한국적 스타일모델 개발 및 확산 지원, 2013 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공예디자인사업본부 대외협력과	공예해외 문화교류 사업, 공예디자인 홍보, 마케팅, 대만 국제문화 창의산업박람회 전시, 2013 한· 사우디 문화 관광 교류지원사업, 전통문화 자원육성지원 사업(한지), 공예디자인 매거진 발행, 공예디자인스타상품개발, 전통문화 자원육성지원 사업(한복), KCDF갤러리숍운영 및 마케팅, KCDF대관업무, 기획공모전, 한지상품개발 및 유통확산, 공예소재연구 개발지원, 한복생활화 인식확산, 공예디자인 스타상품개발 지원, 한복생활화 인식확산, 공예디자인 스타상품개발 지원
공예디자인사업본부 문화공간운영과	기관홍보, 수익사업, 문화역서울복무, 전시운영 전반, 사업계획, 예산, 규정, 기념품개발사업, 서무, 수익사업, 자원봉사, 시설관리/방호, 감독 및 유지보수, 문화역서울284 프로그램운영, 문화역서울284 홍보, 마케팅

· 출처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 제공자료

그림 2-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조직도



· 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 제공자료

(2) 산업통상자원부

가. 본부

2013년 3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상업·무역·공업 등의 업무에 통상 교섭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공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나 전문기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부의 산업기반실 창 의산업정책관의 디자인생활산업과에서 디자인인력양성, 디자인 지역기반 구축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RDC}, 광역권 디자인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그리고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섬유세라믹과에서 섬유패션 정책-섬유 R&D^{섬유스트림}, 섬유산업원천융합기술, 국방섬유 등-과 세라믹산업육성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예산업 및 기술에 관한 내용을 분담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청

1973년 1월 상공부에 소속된 표준국·중앙계량국·국립공업연구소·국립지질조사소·국립광업연구소와 체신부에 소속된 전기통신연구소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상공부의 외청으로 출범한 공업진흥청이 전신이다. 공업진흥청은 1993년 상공자원부를

거쳐 1994년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변경되었고, 1996년 2월 9일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청이 설치되었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산업자원부, 2008년 지식경제부를 거쳐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외청으로 변경되었다.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예사업체가 포함됨에 따라 ‘금융’, ‘인력’, ‘창업·벤처’, ‘기술·R&D’, ‘판로·수출’, ‘전통시장·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혜 범위에 들어가며, ‘청년맞춤형사업’,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 ‘소상공인대학 경영학교 e-러닝교육’, ‘참살이 서비스분야 창업 및 취업지원’ 등 일부 사업 공고의 대상 업종에 공예분야가 ‘공예·디자인’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로 2013년 이전 사업결과물에 공예분야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우수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및 내수 판로 개척’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43회째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²⁵⁾에 따라 3개년(2011~2013년) 지원계획으로 수립된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포함되어 2013년까지 총 약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와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가 소관하고 있으며, 민속공예산업의 육성 업무는 2011년 이후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에서 경영판로국 판로정책과로 이관되었다.

다. 기술표준원

1883년에 화폐주조 및 금속광물의 분석·가공·제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환국 소속의 ‘분석시험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국립기술품질

25 제3조(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대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원으로 변경되면서 공업표준과 품질안전 업무가 추가되었다. 1999년 국립기술품질원이 국립기술표준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소속을 거쳐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으로 되었다. 2013년 12월 국립기술표준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으며, 정부부처 개편과 부처명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이 되었다. 2014년 5월에는 충청북도 음성 혁신도시 청사로 이전계획이 있고, 표준정책국 문화서비스표준과가 출판·인쇄물·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미술품과 함께 공예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고용노동부

가. 본부

공예 관련 법률 가운데 「숙련기술장려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소관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공예와 관련된 업무는 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과와 직업능력평가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훈련기준 개발, 훈련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자격제도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문화예술 관련 국정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협조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2-25 고용노동부의 국정과제 추진개요 및 추진체계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협업부처	기재부, 고용부, 국방부
과제 개요	예술인 복지 확충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 강화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 영화 등 비주류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
주요추진계획	❶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및 예술인 재교육 등을 통한 예술인복지 확대 ❷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패스 도입 및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및 기업 미술품 구입 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주요추진계획

- ❶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 장르 지원 강화
 - 폐 산업시설과 舊 군사시설(서계동 등)의 문화·관광 공간 재조성
 - 예술분야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와 국립예술단체 경쟁력 강화
 -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 지원 및 전용관 확대
- ❷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
 -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문화 분야 단체의 법인화 유도
 - 재정 운영 투명성과 직업 안정성 부여로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 ❸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 예술창작지원센터 설립 및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아트페어 개최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되었다.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기획팀과 숙련기술진흥팀이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자격종목의 출제·검토·선정과 관련한 공예분야의 업무는 능력평가이사 하부조직인 기술자격출제실 건설환경팀과 생활과학팀이 담당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

가. 조달청

정부가 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에 관한 사무와 물품의 관리·조정 및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이다. 1949년 임시외자충국으로 출범하여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되었다. 주요 업무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와 공급 및 공공시설물의 공사계약 관리, 주요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운영, 정부가 보유한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와 통합공고 등 공공 전자조달의 창구를 단일화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관리 등이다. 공예 관련한 사업은 구

매사업국 쇼핑물단가계약과가 전통공예상품의 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예 관련 조직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부서의 공예 관련 업무,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을 조사하였다.(참고자료 1. 공예정책현황 1-2번 참조) 그 결과 2013년 각 자치단체 소속 부서명과 공예 관련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표2-26] 정책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그림 2-9]와 같이 나타났다.

표 2-26 자치단체 부서별 공예 관련 업무

자치단체	부서명	공예 관련 업무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팀	미래유산 관련 사업 및 업무 총괄 창의, 교육 관련 업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국내외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공예 · 공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창작공방 조성지원(주민참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전통예술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시민문화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업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위원회 총괄 및 무형문화재분과 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활용팀	남산골 한옥마을 관련 업무 총괄 교육 프로그램(전통문화체험교실 및 상설체험) 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특화관광팀	한류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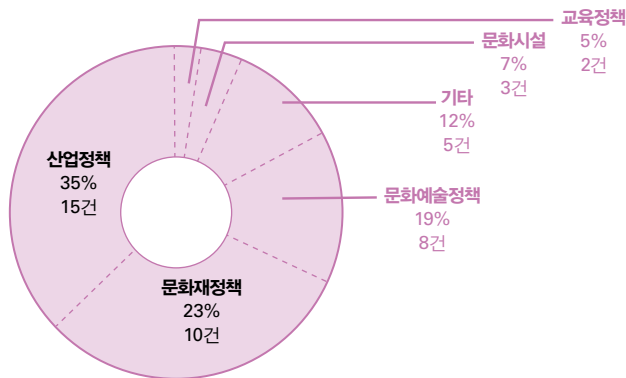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문화디자인팀	공공미술사업 및 도시갤러리 관련 업무 총괄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업무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여성일자리팀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개최 및 사후 관리
부산광역시	본청 경제산업본부 기업지원과	공예품 관련 전반(기본계획,대전,장려금,명장 등)
	사업소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요리/문화/예술/공예) 운영
	사업소 해양자연사박물관	해양공예품관, 화석관 운영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지방문화 및 지역예술의 육성 발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문화산업 정책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 자원의 산업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화관 향토역사관	향토역사관 관련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국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	소장작품 보존 및 전시기획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공예도자류 기초자료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중구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	공예산업육성및복권업무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공장등록,기업지원,공예산업 관련 등 중소기업 육성 및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문화산업과	문화산업 기반 조성 업무 공예명장 선정 및 공예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빛고을공예창작촌 시설확충 지원사업 추진 공예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디자인센터 등) 공예조합 관련 업무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생활예술 업무의 종합 기획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울산공예협동조합 관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예술인복지사업 전시행사지원(건축,미술,사진,서예 등) 문화산업 업무 총괄
경기도	경제기획관 기업지원 1과	공예품대전 등 공예산업 육성
	산림환경연구소	목공예체험, 전시실 운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박물관미술관 법/조례/협회 업무
강원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기반시설 건립과 운영 지원 박물관, 미술관, 예술인 특화마을 업무 공예공방 운영
	경제진흥국 기업활성화과	강원도 향토공예관 관리 및 공예산업 육성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발전 및인재 육성에 관한사항 민속예술 발굴 보존 지원 등 관련 사항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 협력 추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관련 업무 총괄 민속공예품 개발에 관한 업무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국내시장(전시회, 박람회) 판로지원 및 상품 홍보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업무 총괄 문화산업 업무 총괄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	공예업무, 공산품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 공예명장제, 공예품 해외 판촉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 향토산업 육성 및 우수 공예업체 지정 운영 등
전라남도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업무 전반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전통문화상품개발,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지정 관리 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지정 관리 등
	민생일자리본부 기업지원과	공예산업 육성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소상공인지원담당	공예산업 육성, 지원 경상남도 공예축제 및 공예품대전 개최 해외 공예품 박람회 및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 경상남도 추천상품 공예품 분야 심의회 개최 우수공예업체 현장실습 실시 공예품대전 개최 계획 수립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농촌생활문화관 운영 및 생활문화 교육 전통 규방공예 과정 운영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예술 및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전통예술의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우수문화상품개발 및 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공예산업개발 및 지원 문화산업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전통문화 개발에 관한 사항
제주도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판로지원담당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안정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향토문화 보존 및 조사지원
		문화재 관련 업무 기획·조정 및 총괄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관리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 출처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17개 광역 및 자치단체 44개 부서)

그림 2-9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예업무 소관부서 정책 성격별 분류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공예범주별 분류와 정책 성격별 분류에서 공예 관련 조례가 전통공예정책과 문화재정책, 문화시설정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책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재 및 산업 관련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조례에서 정하는 다수의 공예 정책이 문화재 정책과 향토문화 산업정책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공예산업 지원육성을 정책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전담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산물, 공예품 판매장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가 지역별 특성화가 아닌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일률적인 추진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공예산업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관련 조직의 열악함은 문화예술 관점의 지방자치단체 공예정책의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관점이 전통과 문화재적 맥락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적 맥락의 접근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문화관광부, 문화체육부, 문화예술부 등 유사한 부서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범주에 걸친 공예정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 각 업무의 담당부서 상위 부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공예에 대한 정체성과 독립적인 개념 인식 부족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 성격에 따라 업무가 세분되어 서로 다른 부서가 전담하고 있는 구조 또한 공예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절 • 결론

우리나라 공예정책은 공예를 대상으로 비평론이나 공예이론, 역사적 관점에서가 아닌 각종 법령 및 시책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임을 확인하였다. 즉, 대한민국 수립 이후 시행되었거나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공예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공예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법률과 제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예분야의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단일 정책으로의 공예정책을 찾을 수 없고, 단지 공예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의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공예가 다수의 영역에 중첩되어 있는 특성으로하여 개념이나 영역을 분명하게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예정책의 현실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는 공예를 사회문화적인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1. 공예정책 분석

본 백서의 공예정책에서는 ‘정책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대상’(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의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어떠한 정책 수단(법령 및 조례 등)을 동원하며, 그것이 어떤 방식(실행 조직 등)으로 실현되고, 또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공예정책을 분석한 결과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예 범주에 따른 정책의 불균형

본 백서의 공예정책 부문에서 살펴본 공예 관련 법령은 총 17개로서 이를 정책의 대상인 1차 범주(전통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에 따라 분류하고, 정책 목표나 과정, 수단 등 법안의 성격별로 분류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공예정책의 80% 이상이

전통과 산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예술로서의 공예에 대한 정책은 부재하며, 교육 관련 정책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공예 범주의 다층적 성격으로 인해 생기는 정책 대상의 불분명함과 더불어 공예 분야만의 특별법이 부재함으로 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주에 따른 분류 결과 산업공예 관련 법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화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공예품이 일부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그간 공예의 각 범주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서 ‘공예’에 대한 통합적 정의가 없는데다, 그에 해당하는 상위 법률의 부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정책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예교육 부문 정책의 취약함

최근 생활 공예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취미공예의 영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조례 전체 중에서 유일한 교육 관련 정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다. 얼마전 개정을 거쳐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문의 특성화된 정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공예는 물론 전통공예 이수자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단 하나의 법안을 가지고 공예교육의 전반적인 사안들과 특히, 현재 확대되고 있는 평생교육원과 문화센터들의 취미공예 관련한 조항들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3) 공예정책 담당 조직의 산발적 분포

공예정책이 각각의 문화예술, 산업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조직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 역시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둘 다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다. 공예 관련 주요 정책의 가장 많은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공예 관련 정책 담당과가 각 실/국의 하위 부서에서 산발적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부서가 각기 다른 상위 부서에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은 공예 정책이 각 법률에 산재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과 각 부서 간 소통 및 협력체계를 저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는 공예정책이 단발적 시행에 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후속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현재 상황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예교육의 특성과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공예 정책 소관기관을 통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과제와 전망

1) 공예정책의 범주별 균형화 지향

공예 범주에 따른 공예정책에 대한 불균형은 예술공예가 미술의 일부로 간주되는 현상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공예는 예술, 혹은 산업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 논란은 공예계 자체에서조차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책적 관점 또한 문화예술과 산업 두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적으로 가장 취약한 범주는 현대적 맥락의 예술공예이다. 문화예술정책 중에서 전통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문화재보호법」과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반면에, 예술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정책은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미술은행제도로 일부 남아있다. 이는 두 영역이 독자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예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2) 공예교육 부문 정책적 강화

취미공예의 영역이 급속히 확산되는 최근 현상에도 불구하고 법령, 조례 전체 중에서 유일한 교육 관련 정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는 사실은 또다른 정책적 지원의 필요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특히 공예교육에 종사하는 공예가, 공예인, 또는 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해당하는 법률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취미공예 수혜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적 지원의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

3) 공예문화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공예정책 요청

공예정책 담당 조직의 산발적 분포에 대해 통합적 운영과 공예정책 집행 및 수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책 대상 분야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하고 정책추진 방향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공예 분야 전반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공예문화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중심 조직으로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독립성과 역할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예정책은 문화재정책이나 예술정책을 넘어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확장된 영역의 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그에 따른 공예문화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이 요청된다.

3장 공예산업

1절 개관

1. 공예산업의 정의
2. 공예산업의 범주

2절 현황

1. 현황 자료조사 지표
2. 일반 현황
3. 공예산업 매출 규모
4. 공예산업 종사자 현황
5. 제조 및 유통 현황

3절 결론

1. 공예산업 분석 및 한계
2. 과제와 전망

3장

공예산업

1절 · 개관

기존 공예산업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전통공예, 산업공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3 공예백서』에서는 취미공예, 예술공예를 포함하였다. 예술공예와 취미공예는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산업으로 간주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술공예의 경우 공예작품의 갤러리 유통으로 인한 매출이 있다. 취미공예의 경우, 공예교육 서비스와 더불어 공예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와 반제품이 제작되어 공예사업체와 공예작가에겐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백서의 공예산업에는 두 영역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본 백서는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예산업 현황의 지표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1. 공예산업의 정의

공예산업은 공예와 관련된 생산적 경제활동 일체를 일컫는 말이지만, 그에 관한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이는 예술과 산업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공예의 특성상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 공예의 다양한 현상을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공예산업은 절충적 형태로서 문화산업이라는 영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공예를 일상용품으로서 공산품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용도나 재료에 따라 의(衣)생활-섬유공예, 식(食)생활-도자공예, 금속공예, 주(住)생활-한지공예, 목공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공예를 문화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공예산업은 ‘문화’와 결부된 생산, 유통, 서비스 및 기타 활동의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산업과는 구별되는 문

화적 특수성과 예술성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공예산업은 제조업, 명품산업, 관광, 디자인, 농업 등 연관된 산업분야가 다양하고 유관 분야와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써 확장된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제작 주체 및 방식에 따라 작품부터 상품까지 그 성격 또한 다양하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공예산업이란 ‘공예’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른 한편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공예산업은 공예작품 및 공예상품의 창작·유통·전시·활용 등 공예와 연관된 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공예’는 문화적 요소, 예술적 요소, 산업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예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포괄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이에 근거해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²⁾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³⁾의 정의를 토대로 공예산업을 제조나 유통에 한정하지 않고 창작, 전시, 활용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본 백서에서도 이 같은 유연한 정의에 공감하고 이에 근거를 두었다. 즉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의 “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라는 5단계의 산업 활동”이라는 공예산업 정의를 본 백서에서도 따른다. 이는 공예산업의 생산적 차원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13, p.2

2 박남희, 이현경, 안영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3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2008

그림 3-1 산업과 공예산업



그림 3-2 공예산업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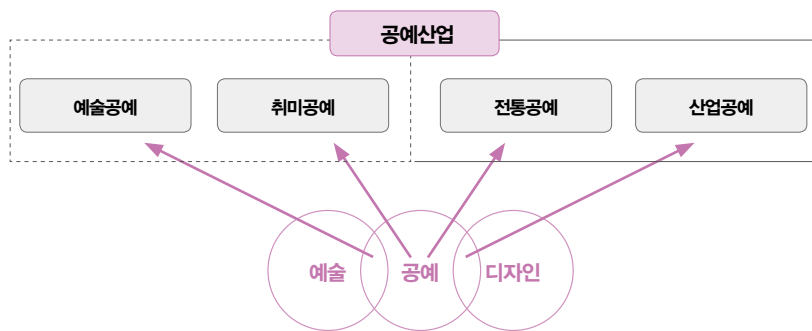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세우고 2014년까지 공예 상설 전시공간을 확대하고, 공예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공예문화를 체험,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공예 소재 독립영화를 제작, 공모하는 등 방송매체와 함께 공예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행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⁴⁾ 더불어 공예는 개인의 창조성(예술적 감각, 수공)과 소재·기법·문양 등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까닭에 일반 제조업과 차별화되는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향후 전략은 공예산업을 단순히 상품의 제조와 유통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자원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예산업의 범주

공예산업에는 공예의 범주 가운데 산업공예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의 선행연구들 또한 공예산업의 대상을 산업공예와 일부 전통공예에 한정해 왔다. 이는 산업공예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용하여 분류가능하며, 사업자등록에 의한 매출의 파악이나 제작, 유통, 판매를 파악하는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백서에서는 공예산업의 범주를 1차 범주에서 산업공예와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하되, 취미공예와 예술공예를 포괄했다. 특히 전통공예의 경우 전승공예와 민속공예, 그리고 현대적으로 응용된 것들을 포괄하여 문화상품이나 기념품 등 상품으로 제작, 유통될 수 있기에 그것 역시 공예산업실태의 조사대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백서는 공예산업의 주요한 대상으로 보고자 했다.

그림 3-3 공예의 1차 범주에 따른 공예산업의 범주



· 출처 박남희, 이현경, 안영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23

그러나 예술공예와 취미공예의 경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예술공예는 그동안 창작품으로써 산업의 대상이 아닌 전통적인 맥락에 따라 예술작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공예작품과 공예상품에 대한 [표 3-1]의 분류는 유통될 수 있는 상품의 관점에서 예술공예품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4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정책보고서, p.7

5 위의 보고서, p.2

표 3-1 공예 분류

구분	성격	특성
공예작품	예술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디자인) + 완전 수공 + 작가(장인)정신 초고품질, 초고가, 소량(一品) 갤러리, 컬렉션 중심의 유통체계
공예상품	문화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디자인) + 높은 수공성 + 용도/쓰임 고품질, 중고가, 다품종 중소량 백화점, 기념품점, 일반상점 등의 유통체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13

[표 3-1]에서 설명된 바에 의하면, 공예작품은 작가의 정신과 창의성을 담아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한 것이다. 또한 높은 품질과 비싼 가격, 단일품에 한정되며 갤러리나 컬렉션 중심의 유통 체계를 특성으로 갖는다. 이러한 공예작품과 공예상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의 특성이 보다 분명해 지는데, 양자의 다른 점은 공예작품에서는 용도/쓰임의 특성이 빠져있으며, 공예상품에서는 작가정신과 창의성이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회화나 조각 등 순수예술과는 다른 공예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용되지 않는 감상용 공예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족적인 용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청자가 감상용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화병이든 물병이든 그것이 갖는 용기라는 기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사용가능한 것으로써 그 기능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예술공예 작품은 순수예술 작품과는 달리, 상품과 작품을 오가는 양가적 특성을 보여준다.

예술공예를 산업의 범주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전체 공예산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선도성이 높은 분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고급 공예상품의 유통 채널로서 공예전문갤러리가 증가하고 골동품이 아닌 현대 공예작품도 미술작품처럼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최근 경향에 비춰본다면, 미술작품처럼 유통되는 예술공예 산업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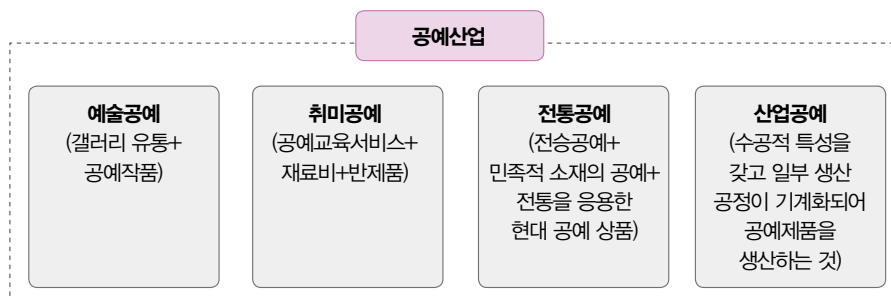
한편, 취미공예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교육 서비스업으로서 공예교육이며, 두 번째는 잠재된 사업체로서의 아마추어

공예이다. 전자의 경우, 공예와 관련된 교육행위 자체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공예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도구와 재료가 수반되어야만 교육서비스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교육서비스에 비해 도구와 재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기도 하다. 특히 도자공예·목공예·섬유공예 등은 교육과정에 반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DIY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최근 한국도 여가시간의 증가 등에 힘입어 DIY산업이 급격한 성장추세에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교육서비스업 만큼 관련된 도구와 재료의 비중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공예산업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 아마추어 공예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숙련도가 높지 않고 별도의 시장성 속도가 높지 않아 산업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의 작가/공방만을 산업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여가생활이 발달하고 취미로 하던 공예작업이 성숙하여 판매 가능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제작한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공예/장신구 전문 매장에 소량씩 납품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프리마켓, 편집매장, 전자상거래 등이 발달하면서 취미공예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공예와 취미공예는 제조나 유통에 있어서 산업의 구조 속에서, 혹은 상품으로 형태로만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백서에서 정의하는 공예산업이 “‘공예’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술공예와 취미공예 또한 공예산업의 고려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술공예의 경우 유통채널에 대한 연구 및 취미공예와 관련된 인프라,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축적된 연구 자료가 미비하지만 이번 백서 공예산업 부문에서는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공예사업체와 공예작가를 나누어 현황 조사가 이루어졌고, 매출 규모의 경우 각 사업체와 공예작가의 교육사업 매출 현황을 추가했다. 그러나 차후 예술공예와 취미공예의 영역 또한 공예산업적 맥락의 정책과 제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백서는 공예산업의 현황조사를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림 3-4 공예산업의 범주



다음 [표 3-2]는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구축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한국표준무역분류표’,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1차 범주 즉, 산업공예, 전통공예, 취미공예, 예술공예의 다양한 산업적 현황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상품성과 시장성에 근접해있는 범주로서 산업공예와 전통공예의 범주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3-2 2013년 공예산업분류표

대분류 원재료	중분류 용도/기법/품목	소분류 적용제품
도자	생활소품	티슈 케이스, 화병, 촛대, 시계, 발판, 향로, 화장품병, 인테리어 소품 및 부자재, 문고리, 타일, 조명제품, 액자 등
	장신구/잡화	목걸이 펜던트, 반지, 귀걸이, 팔찌, 브로치, 머리핀 등
	주방/욕실용품	공기, 대접, 접시, 잔, 다완, 식탁 매트, 컵, 수저받침, 병, 잔 받침, 양념통, 세면대, 세제통, 비누받침, 변기, 욕조 등
	가구용품	콘솔, 식탁, 의자, 테이블, 화장대, 벽면장식도판, 펜스, 도자발 등
	문방/사무용품	책갈피, 재떨이, 메모꽂이 등
	기념품	도자 인형, 액자, 열쇠고리, 함, 도자기 종 등
	도조(陶彫) 작품	예술 작품
	전통공예	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옹기, 기와, 독, 노리개 등
유리	생활소품	유리병, 거울, 오르골, 비즈 발, 유리테이블 등

유리	장신구/잡화	크리스탈 액세서리, 머리핀, 머리띠, 목걸이 펜던트, 반지, 귀걸이, 팔찌, 자연석 장신구, 핸드폰 줄 등
	주방/욕실용품	그릇, 컵, 접시, 잔, 대접, 공기, 병, 볼, 주전자, 매트, 숟, 돌판, 돌솔 등
	가구용품	식탁, 화장대, 거실 탁자, 장식장 등
	문방/사무용품	유리 상자, 명패, 메모꽂이, 문진 등
	기념품	유리 조상(彫像) 등
	모자이크 및 타일	타일 액자, 모자이크 판 등
	건축유리	판유리, 접합유리,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절곡, 거울 등
석	생활소품	돌수조, 돌수반, 촛대, 돌방석 등
	장신구/잡화	자연석 장신구, 팔찌, 귀걸이 등
	주방/욕실용품	맷돌, 숟, 돌판, 돌솔, 돌냄비, 돌절구 등
	가구용품	돌테이블, 돌의자 등
	문방/사무용품	낙관석, 메모꽂이, 문진 등
	기념품	돌조각, 돌하르방, 옥돌 등
	비석	기념비, 묘비 등
	전통공예	돌장승, 전각, 칠보, 먹, 벼루, 다듬잇돌, 디딤돌, 석등, 석탑, 동물상, 비녀 등
금속	생활소품	인테리어소품, 전등, 스탠드, 엠블럼, 액자 등
	장신구/잡화	스피커, 안경테, 화병, 거울 등
	주방/욕실용품	수저, 포크, 칼, 밥그릇, 대접, 쟁반, 주전자, 차도구, 맥주잔 등
	가구용품	식탁, 테이블, CD케이스, 책장, 화장대, 대문, 펜스, 문고리 등
	문방/사무용품	편지칼, 북마크, 명함상자, 명함케이스, 책갈피, 메모꽂이, 문진 등
	기념품	주화, 주석잔, 배지, 트로피 등
	무기/도구	총, 창, 칼, 가위, 망치, 낫, 곡괭이, 호미, 워낭, 각종 농기구 등
	전통공예	주철, 금속활자, 유기, 백동연죽, 두석, 장도, 범종, 입사, 불구, 칠보, 조각 상감 등
귀금속 보석	금/은 세공품	목걸이, 팔찌, 반지, 브로치, 넥타이핀, 커프스버튼, 은수저 등
	보석제품	목걸이, 팔찌, 반지, 펜던트, 왕관, 버클, 시계 등
	시계	시계(벽시계, 자명종, 전자시계 등)
	전통공예	칠보, 옥 제품

목	생활소품	옷걸이, 나무집게, 나무 상자, 목베개, 지팡이 등
	장신구/잡화	액자, 스탠드, 현판, 목걸이 펜던트, 반지,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
	주방/육실용품	차도구, 바구니, 밥상, 절구, 절구대, 반죽말대, 도마, 목식기, 숟가락, 젓가락, 조리도구 등
	가구용품	침대, 책상, 책장, 옷장, 문갑, 서랍장, 화장대, 식탁, 소파, 의자, 테이블, 장롱, 선반, 좌식 탁자 등
	문방/사무용품	나무 선반, 파티션, 데스크 서비스, 테이블 웨어, 책갈피, 독서대, 필통
	기념품	입체장식품, 벽면장식품, 탈, 나무인형
	코르크	코르크 화분, 코르크 인형, 코르크 판, 받침대, 뚜껑 등
	교구	각종 원목 교구
	칠(漆)	옷칠제품, 황칠제품, 채화(彩畵), 천연페인트(콩기름, 동백기름) 제품
	전통공예	윤도(輪圖), 화각(華角), 목판활자, 소반, 활, 악기, 나전칠기(螺鈿漆器), 탈, 목장승, 솟대, 전통 가구, 바디(직조틀), 낙죽, 다식판, 바둑판, 장기판 등
죽세 초경	생활소품	죽부인, 베개, 부채, 뉘싯대, 벽지, 여치집 등
	장신구/잡화	액자, 스탠드, 목걸이 펜던트, 반지, 열쇠고리, 핸드폰 고리 등
	주방/육실용품	죽기, 소쿠리, 채반, 식기받침대, 컵받침대, 냄비받침, 바구니 등
	가구용품	등가구, 의자 등
	문방/사무용품	필통, 서류함 등
	기념품	모자, 가방, 인형
	매트 및 발	화문석, 왕골 발, 방석, 대자리 등
	전통공예	국궁, 갈포, 짚신, 탈 등
종이 한지	생활소품	포장지, 상자 및 케이스, 벽지, 장판, 조명, 한지 액자, 열쇠고리 등
	장신구/잡화	종이가방, 펜던트, 반지, 보석함, 지갑 등
	주방/육실용품	쟁반, 컵받침, 냄비받침, 요지함 등
	가구용품	의자, 반닫이, 문갑, 종이 발 등
	문방/사무용품	명함, 노트, 메모지, 엽서, 카드, 책갈피, 필통, 봉투 등
	기념품	다종이 인형, 방패연, 종이 모빌, 기념엽서, 풍경사진, 전사(轉寫) 등
	한지	다종이, 화선지, 창호지, 오색지, 장판지, 포목지, 태지 등
	골판지	골판지 상자, 함, 의자, 테이블, 서랍장 등

종이 한지	북아트	책, 책표지, 제본, 일러스트, 교구 등
	전통공예	지승(紙繩), 지호, 지장(紙纈), 지화(紙花), 전지(剪紙), 등(燈), 태극선, 합죽선, 바구니, 봇통, 한지 자체, 한지 민속그림 등
섬유	직조	각종 견직물, 면직물, 모직물 등의 직조품, 휘장 등
	뜨개	대바늘 손뜨개, 레이스, 코바늘 등
	침구	이불, 베개, 쿠션, 침대보 등
	자수 및 침선(針線)	자수 액자, 십자수, 십자수 재료, 자수이불, 앞치마 등
	커튼 및 카펫	커튼, 카펫, 발, 매트, 러그 등
	의류 및 잡화	홍패션, 의복, 모자, 구두, 양말, 스카프, 숄, 머플러, 가방, 파우치 등
	한복	한복, 두루마기 등
	태피스트리	태피스트리
	매듭	노리개, 머리띠, 머리핀, 단추, 브로치, 핸드폰 고리 등
	염색	갈옷, 감물 제품, 황토 염색 제품, 전통문양 나염 등
	기념품	모자, 손수건, 천 주머니, 넥타이, 실크 부채 등
	전통공예	침선, 누비, 자수, 매듭, 모시, 천연염색, 금박(金箔), 조각보, 전통 의복, 족두리 등
가죽	모피류	의복, 가방, 창작패션 등
	동물용 마구	애완용품, 말안장 등
	가방 및 케이스	가방, 핸드백, 클러치, 필통, 파우치, 지갑, 명함지갑, 복주머니 등
	신발 및 잡화	신발, 가죽 액세서리, 허리띠, 지갑, 명함지갑 등
	가죽 혼합 제품	펜던트, 팔찌, 발찌, 의자, 소파 등
	기념품	지갑, 목걸이, 팔찌, 발찌, 열쇠고리, 핸드폰 액세서리 등
	전통공예	화혜
특수 소재	골각	뼈와 뿔로 만든 제품, 조상(造像), 브로치, 화각장 등
	자개	자개농, 자개반합, 자개 브로치, 자개 액세서리 등
	유기농/재생용품	밀가루, 설탕 등의 유기농 제품, 숯 제품, 친환경 제품, 가구, 의류, 잡화 등의 리폼 제품 등
	플라스틱	폴리스티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제품 등

특수 소재	고무	천연고무, 인조고무, 기포고무, 폴리우레탄 제품 등
	신소재/합성소재	LED소재, 탄소 및 유리섬유, 합성섬유, 알루미늄 합금, 필름 제품 등
복합 소재	오락용품	테디베어, 민속인형, 구체관절인형, 발도르프인형, 손뜨개 인형, 닥종이 인형, 각종 장난감, 장기, 윷, 체스, 바둑, 제기, 팽이, 투호 등
	축제용품	연(鳶), 등(燈), 크리스마스용품 등
	생활용품	우산, 양산, 빗, 빗자루, 솔, 붓, 부채 등
	악기	수제기타, 바이올린, 첼로, 북, 장구, 해금, 징, 단소, 대금, 등
	간판	현판, 상가 간판 등
	표구	액자, 족자, 발, 첩 등
기타	양초	아로마 향초, 소이 양초, 베이커리 양초 등
	조화	조화액자, 코사지, 웨딩용품, 아트플라워, 카네이션, 벽걸이용 덧생 등
	종교용품	제례용품, 연등(燃燈), 불구(佛具), 천주교용품 등
	혼례용품	의류함, 농, 장, 목기러기, 문갑, 보석 등
	장례용품	유골함, 관, 묘석, 수의 등

· 출처 박남희 · 이현경 · 안영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p.98-100

이 분류체계의 유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공예산업에서 취급되고 있는 문화관광 상품과 지역특산품, 전통공예품, 산업공예품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포괄적인 분류체계로서 분류체계의 각 항목들에 최근의 공예산업의 실태와 현황이 밀도 있게 반영되었다. 둘째, 공예는 다수의 장르가 혼합되어있고, 예술적 개념과 실용적 개념이 혼용되며, 다기능, 다용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예산업에 있어서도 공예의 복합적인 상황이 분류체계 안에서 포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셋째, 공예의 다양한 제작과정과 공예산업의 다양한 실체에 따라 중분류의 분류 기준을 소재와 용도 외에 기법과 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예산업의 특수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2절 · 현황

공예산업은 공예가 가진 예술성과 실용성 그리고 문화적 욕구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공예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1인 공방이나 소규모 가내수공업 시스템 내에서 도제식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생산된 상품의 유통 기반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예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2절 현황에서는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공예산업의 일반 현황과 매출 규모, 종사자 현황, 그리고 제조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았다. 공예산업의 주체를 ‘공예사업체’와 ‘공예작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1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예산업의 특수성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 현황 자료조사 지표

1) 조사 설계

공예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예사업체와 공예작가 모집단 구축과 사전 확인조사를 위한 총 자료수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공예사업체 총 17,002개, 공예작가 16,660명이었다. 조사모집단⁶⁾은 공예사업체 2,730개, 공예작가 622명이었고, 전수조사를 통해 추출된 유효표본은 공예사업체 2,000개, 공예작가 603명이었다. 실태조사 표본설계는 아래 [표 3-3]과 같다.

6 조사모집단: 응답 표본을 추출하는 기본 틀(Sampling Frame)

표 3-3 2013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표본설계

구분	공예사업체	공예작가
조사지역	전국 16개 광역시도	
조사모집단	2,730개	622
조사방법	Multi-Survey*	
유효표본	총 2,000개	총 603명
표본추출	전수추출	
조사기간	2013.12.26 ~ 2014.02.07	
조사기관	(주)월드리서치	

* Multi-Survey란 응답자 요청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방식임

2) 조사 내용

공예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내용은 크게 일반 현황과 매출규모, 제조 현황을 소재별/용도별/지역별/공예 범주별로 검토하고, 공예생산품의 유통방식을 알아보았다.

표 3-4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⁷⁾ 조사 내용

항목	공예사업체	공예작가
일반 현황	사업시작 시점, 사업체 형태, 종사자현황, 공예범주별 현황	작가 정보, 사업자 등록, 공예작품 활동 운영 현황, 공예 관련 협회 및 단체 가입 현황
매출 규모	2012년 기준 매출액 현황 내수 및 수출 비중	판매 현황, 공예작품 총 판매액
제조 및 유통	소재별/용도별 공예품 제조 및 주요 판매처	소재별/용도별/범주별 작품 활동 영역

7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2. 일반 현황

공예산업의 일반 현황은 사업체의 경우 사업시작 시점과 사업체 형태 및 구성, 공예단체나 협회 가입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예작가의 경우엔 작품 활동 시작 시점, 개인공방의 유무 및 형태 그리고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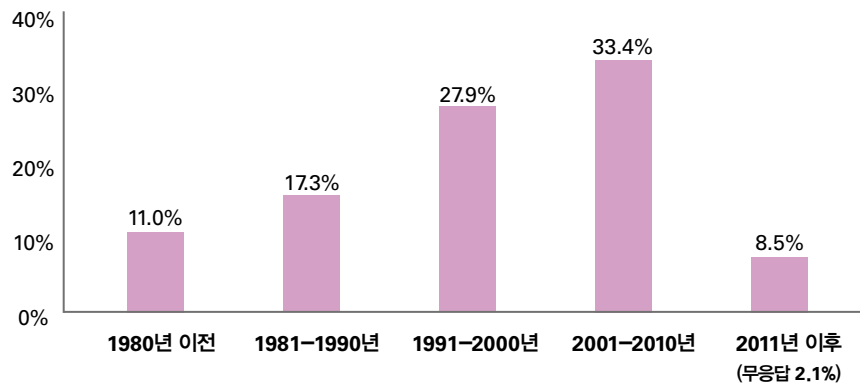
1) 공예사업체 개요

(1) 사업체 정보

가. 사업 시작 시점

공예사업체의 사업시작 시점은 2001년~2010년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991년~2000년이 27.9%, 1981년~1990년이 17.3%, 1980년 이전이 1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예사업체의 수는 1990년대 이후 점진적인 증가를 이어오다가 2011년 이후에는 8.5%로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사업 시작 시점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5

1980년을 기준으로 공예사업체의 사업시작 시점을 소재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2001~2010년의 경우, 합성소재가 67.9%로 가장 높았고, 종이 50.0%, 섬유 41.9%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3-5 소재별 공예사업체 사업시작 시점

단위: 개

소재별	사례수 (개)	1980년 이전	1981년- 1990년	1991년- 2000년	2001년- 2010년	2011년 이후	무응답
금속	101	13.9	20.8	24.8	28.7	8.9	3.0
귀금속/ 보석	76	9.2	10.5	23.7	36.8	15.8	3.9
나무(목공예)	424	17.7	24.5	26.7	25.7	4.5	0.9
죽세	32	18.8	21.9	21.9	31.3	3.1	3.1
칠	30	30.0	16.7	13.3	23.3	13.3	3.3
도자	767	8.6	17.7	32.5	31.2	8.5	1.6
돌(석공예)	41	19.5	17.1	36.6	22.0	2.4	2.4
유리	29	0.0	3.4	24.1	41.4	27.6	3.4
섬유	222	7.2	11.3	25.7	41.9	10.8	3.2
가죽	38	7.9	23.7	15.8	36.8	13.2	2.6
종이	124	5.6	9.7	27.4	50.0	5.6	1.6
특수소재	46	15.2	13.0	17.4	39.1	10.9	4.3
합성재료	28	0.0	10.7	14.3	67.9	7.1	0.0
기타	3	33.3	0.0	0.0	66.7	0.0	0.0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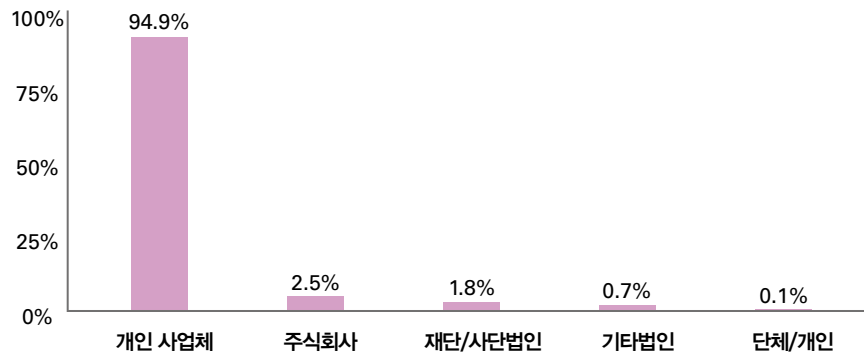
나. 사업자 형태

공예사업체의 사업형태는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사업체(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9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식회사 2.5%, 재단법인·사단법인이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예사업체의 대부

분이 개인사업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체 형태를 공예상품의 용도별로 살펴보면, [표 3-6] 과 같다. 개인사업체는 가구용품이 97.7%로 가장 높고, 주방/육식용품 95.7%, 생활소품 9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식회사는 기타용품(8.9%), 문방/사무용품(6.2%)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단/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타용품(2.2%)과 생활소품(2.1%)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림 3-6 공예사업체의 사업형태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5

표 3-6 용도별 공예사업체 형태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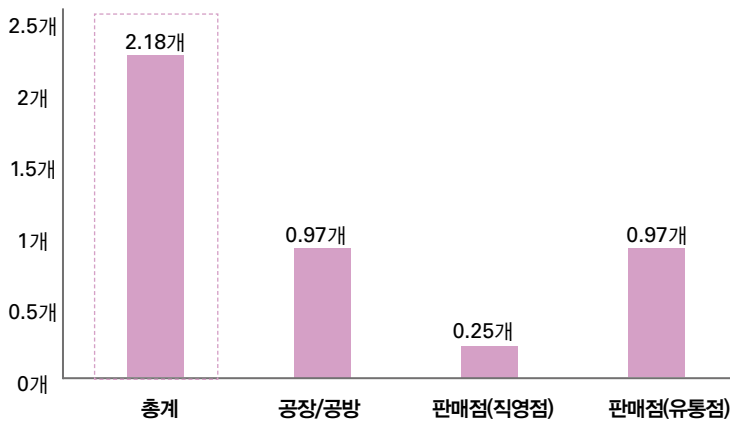
용도별	사례수 (개)	개인 사업체	주식회사	재단/ 사단법인	기타 법인	단체/개인
가구용품	133	97.7	0.8	1.5	0.0	0.0
문방/ 사무용품	65	92.3	6.2	1.5	0.0	0.0
생활소품	772	95.5	1.6	2.1	0.9	0.0
장신구/잡화	216	95.4	4.2	0.5	0.0	0.0
주방/육식용품	464	95.7	2.2	1.1	1.1	0.0
기타용품	90	86.7	8.9	2.2	1.1	1.1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5

다. 사업체 구성

공예사업체는 평균 2.1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장, 공방과 판매점(유통점)이 각각 평균 0.97개로 조사되었고, 판매점(직영점)은 평균 0.25개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표 3-7]의 사업체 구성에서는 제조와 유통, 수출입을 포함하는 공예사업체가 평균 4.43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7 사업체 구성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6

표 3-7 사업체 구성

단위: %, 평균, 개

사업 분야	사례수 (개)	공장/공방	판매점(직영점)	판매점(유통점)	합계
제조	96	1.02	0.01	0.23	1.26
유통	99	0.02	0.54	0.61	1.16
교육	30	0.77	0.00	0.10	0.87
제조/유통	906	1.01	0.27	1.27	2.55
제조/유통/교육	454	1.06	0.17	0.45	1.68
제조/유통/수출입	75	1.07	0.45	2.91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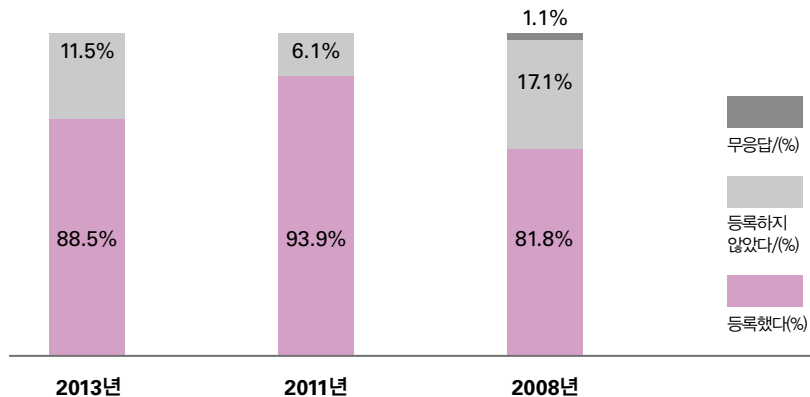
제조/교육	44	1.00	0.02	0.00	1.02
기타	66	0.95	0.44	0.88	2.27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6

라. 사업자등록 여부

아래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예사업체 중 88.5%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의 94.9%가 개인사업자이고, 5.1%가 법인 사업자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는 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조사결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의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사업자등록 여부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3

2) 공예작가 기본 현황

(1) 작가 정보

가. 작품 활동 시작시점

[표 3-8]은 공예작가의 작품 활동 시작시점을 공예범주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공예작가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991년-2000년(21.7%), 1981년-1990년(15.4%), 1980년 이전(1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예범주별로 보면 공예산업의 경우에도 전통공예의 사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취미공예는 2001-2010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업공예의 경우는 작품 활동을 시작한 비율이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술공예와 취미공예의 경우 2001년과 2010년 사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큰 폭의 감소 현상을 보인 것이 특이점으로 주목된다.

표 3-8 작품 활동 시작시점

단위: 명

공예범주	사례수 (명)	1980년 이전	1981년- 1990 년	1991년- 2000년	2001년- 2010년	2011년 이후
산업공예	154	25.3	23.4	20.8	28.6	1.3
예술공예	117	4.3	6.8	20.5	53.8	14.5
전통공예	297	8.4	15.8	23.6	40.7	10.8
취미공예	35	8.6	5.7	14.3	51.4	20.0
총합계	603	11.9	15.4	21.7	40.8	9.6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1

나. 개인공방 유무 및 형태

공예작가의 70.3%는 개인공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29.7%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공예작가 및 전통공예 공예작가의 개인공방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주별 분류를 보면, 공예작가의 경우에는 예술공예에 해당하는 사례가 29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개인공방을 가지고 있는 작가는 전통공예범주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개인공방 보유현황

단위: %

		사례수(명)	개인공방 있다	개인공방 없다
사업자 등록	등록	281	94.0	6.0
	미등록	322	49.7	50.3
공예범주	전통공예	154	77.3	22.7
	산업공예	117	67.5	32.5
	예술공예	297	69.4	30.6
	취미공예	35	57.1	42.9
전체		603	70.3	29.7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1

다. 사업자등록 유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공예작가는 46.6%(개인등록 45.4%, 법인등록 1.2%)인 반면에, 미등록 공예작가는 53.1%로 집계되었다. 또한, 공예 범주별 사업자 등록 비율을 집계한 결과, 산업공예의 사업자 등록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예술공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술공예의 경우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0 사업자 등록 유무

단위: %

공예범주	사례수(명)	개인	법인	미등록
전통공예	154	51.9	3.2	44.8
산업공예	117	55.6	0.0	43.6
예술공예	297	38.0	0.3	61.3
취미공예	35	45.7	2.9	51.4
전체	603	45.4	1.2	53.1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2

· 사업자 등록 중 0.3%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매출이 작거나 없어서’란 의견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을 지속할 의향이 없어서’(20.0%), ‘공예활동에 지장이 없어서’(19.7%), ‘개인활동, 취미활동임으로’(14.7%)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수도권은 매출이 작거나 없어서, 전라권은 공예활동 지장이 없어서, 충청권은 ‘사업 지속 의향이 없어서’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1 사업자 미등록 이유

단위: %

권역	사례수 (명)	매출이 작거나 없음	사업 지속 의향 없음	공예활동에 지장 없음	개인, 취미 활동임으로	도움 받을 일 없음
수도권	229	31.9	20.1	16.2	12.7	9.2
영남권	33	9.1	21.2	39.4	18.2	.0
전라권	13	23.1	15.4	53.8	7.7	.0
충청권	29	27.6	27.6	6.9	24.1	10.3
강원/제주/기타	16	18.8	6.3	25.0	25.0	12.5
전체	603	28.1	20.0	19.7	14.7	8.1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2

3. 공예산업 매출 규모

1) 전체 매출 규모

(1) 소재별 총 매출 규모

2012년 기준 공예산업 전체 매출액은 1조 2,474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소재별로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매출액을 차지하는 소재는 귀금속/보석이었고 그 다음이 도자, 섬유, 목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상의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들과의 매출액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2 2012년 기준 소재별 공예산업 총 매출액

구분	총 매출액(백만원)
금속	77,894
귀금속/보석	384,738
나무(목공예)	193,697
죽세	6,863
칠	9,298
도자	250,884
돌(석공예)	22,601
유리	9,811
섬유	195,604
가죽	24,624
종이	43,960
특수소재	21,724
합성재료	3,258
기타	28.1
총계	1,247,411

· 출처 월드리서치 제공.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위한 조사 자료

(2) 공예범주별 매출 비율

공예 범주별 매출 비율은 전체 2,511개 사례 중에서 전통공예의 사례가 1,499로 가장 많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출 평균은 42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산업공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통공예는 영세한 1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나 유통 경로의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2012년 기준 공예범주별 공예산업 매출 규모

단위: 평균, 개

범주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
전통공예	1,499	26.4	30.4	13.5	18.4	11.0	103.2
산업공예	426	23.5	20.4	12.7	29.8	13.6	266.2
예술공예	446	52.5	16.1	7.4	5.4	18.6	27.2
취미공예	140	40.0	36.4	5.7	2.9	15.0	31.4
전체	2,511	31.3	26.5	11.8	17.4	13.0	114.2

· 출처: 월드리서치 제공,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위한 조사 자료

(3) 지역별 매출 비율

지역별 매출 비율을 조사할 결과, 예상대로 수도권의 사례가 가장 많았고 매출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례수는 영남권 전라권 순으로 조사되었으나 평균 매출 비율은 수도권 다음으로 전라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3-14 2012년 기준 지역별 공예산업 매출 규모

지역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
수도권	1,218	32.8	21.1	11.0	19.5	15.5	134.4
영남권	546	28.4	32.6	13.0	15.4	10.6	92.8
전라권	413	28.6	31.7	13.8	17.9	8.0	102.7
충청권	207	30.9	30.0	9.7	11.6	17.9	100.5
강원	74	36.5	28.4	10.8	16.2	8.1	114.0
제주	52	38.5	32.7	13.5	7.7	7.7	39.6
전체	2,511	31.3	26.5	11.8	17.4	13.0	114.2

· 출처: 월드리서치 제공,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위한 조사 자료

(4) 교육사업 매출 비율

2012년 기준 교육사업 매출 비율은 다수의 업체와 작가의 경우 전체 매출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년 매출 2천만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공예산업에서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15 2012년 기준 교육사업 매출 규모

교육사업 매출비중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무응답/ 해당없음	평균
0-10%	344	44.2	22.7	9.3	10.2	13.7	64.3
11-20%	89	38.2	32.6	12.4	6.7	10.1	39.0
21-30%	90	28.9	42.2	8.9	8.9	11.1	36.1
31-40%	37	27.0	35.1	13.5	18.9	5.4	88.3
41-50%	140	36.4	35.7	11.4	5.0	11.4	32.5
51-60%	37	35.1	35.1	18.9	8.1	2.7	57.8
61-70%	60	50.0	30.0	6.7	1.7	11.7	19.0
71-80%	70	64.3	21.4	2.9	0.0	11.4	13.1
81-90%	79	68.4	11.4	5.1	1.3	13.9	21.5
91-100%	70	52.9	27.1	2.9	4.3	12.9	38.7
무응답	3	0.0	0.0	33.3	0.0	66.7	50.0
전체	2,511	31.3	26.5	11.8	17.4	13.0	114.2

· 출처 월드리서치 제공.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위한 조사 자료

2) 공예사업체 매출 규모

(1) 연도별 매출액 변화

공예사업체의 2012년 업체당 매출액은 평균 1억3천5백90만원으로 2011년(1억3

천9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 예상 업체당 매출액은 평균 1억2천9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공예산업 업체당 매출액은 2011년까지 점진적 증가를 보였으나, 2012년 소폭 하락했다. 그에 따라 2013년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6 연도별 업체당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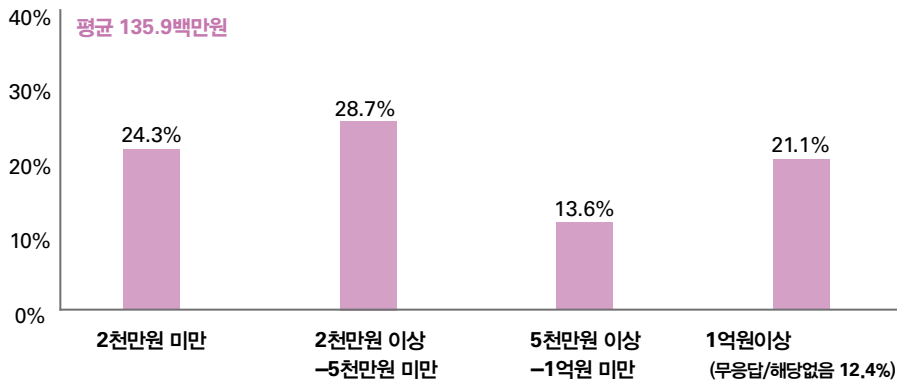
구분(년)	2007	2008	2011	2012	2013(예상)
업체당 매출액 (표본)	9,900만원	11,000만원	13,900만원	13,590만원	12,956만원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90

(2) 2012년 기준 매출액 현황

공예사업체의 2012년 기준 총 매출액은 평균 135,900,000원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인 업체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천만원 미만(24.3%), 1억원 이상(21.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9 2012년 기준 매출액 현황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87

공예 범주별로 살펴보면, 산업공예 범주에 속하는 공예사업체 매출액이 평균 336.4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통공예(평균 109.3백만 원), 예술공예(평균 46.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공예범주별 2012년 기준 매출액 현황

공예범주	사례수 (개)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통공예	1,363	24.6	30.9	13.9	20.0	109.3
산업공예	325	12.9	19.7	15.1	38.5	336.4
예술공예	197	34.0	22.8	13.2	10.7	46.1
취미공예	115	36.5	38.3	6.1	2.6	34.6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87
· 무응답/해당없음 12.4% 제외

3) 공예작가 매출규모

(1) 공예작품 판매 현황

직접 제작한 공예작품을 판매하고 있는 공예작가는 86.6%로 조사되었는데, 공방 내 매장(1순위 33.9%, 1+2순위 41.2%)을 통한 판매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공예 관련 전시회(1순위 22.8%), 갤러리 샵(1순위 2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조사 결과와 대비했을 때 전시회 및 페어, 박람회 판매 비율은 하락한 반면, 공방 내 매장 판매, 갤러리 샵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단위: %

범주별	전시회	공방 내 매장	페어 및 박람회	갤러리샵	공예 전문상가	인터넷 쇼핑몰	기타
2013년(A)	22.8	33.9	5.9	20.1	4.6	3.1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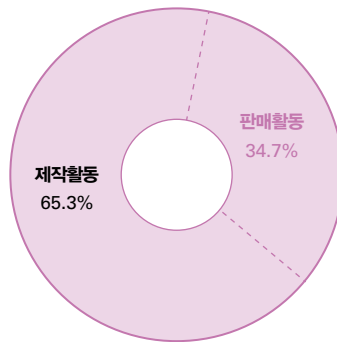
2011년(B)	42.1	15.8	15.8	10.5	5.3	5.3	5.3
GAP(A-B)	- 19.3	+18.1	- 9.9	+9.6	-0.7	-2.2	+4.3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33

(2) 제작과 판매 비중

공예작품활동의 제작활동 비율은 평균 65.3%, 판매활동 비율은 평균 34.7%로 나타났다.

그림 3-10 제작과 판매비중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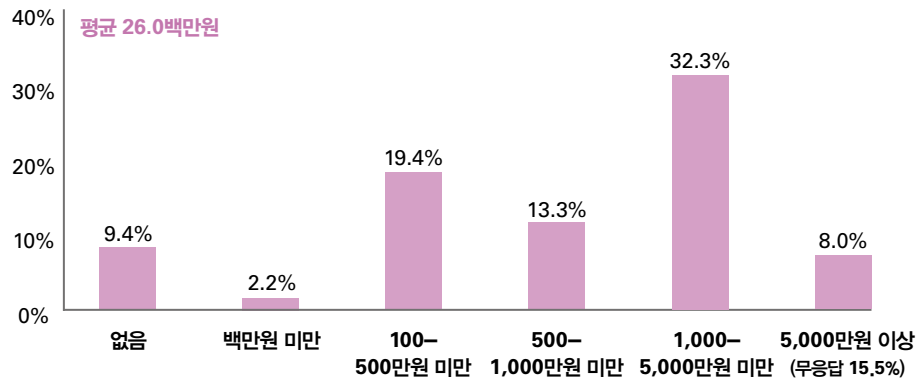
(3) 2012년 기준 총 판매액

공예작가의 2012년 기준 공예작품 총 판매액은 평균 2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1,000-5,000만원 미만'이란 의견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500만원 미만'(19.4%), '500-1,000만원'(13.3%)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2013년 예상 총 판매액은 3천 1백만 원으로 2012년 판매액 대비 5백만 원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예작가의 공예작품 판매 현황을 범주별로 살펴본 결과 산업공예가 42.76%로 평균(25.97%)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예술공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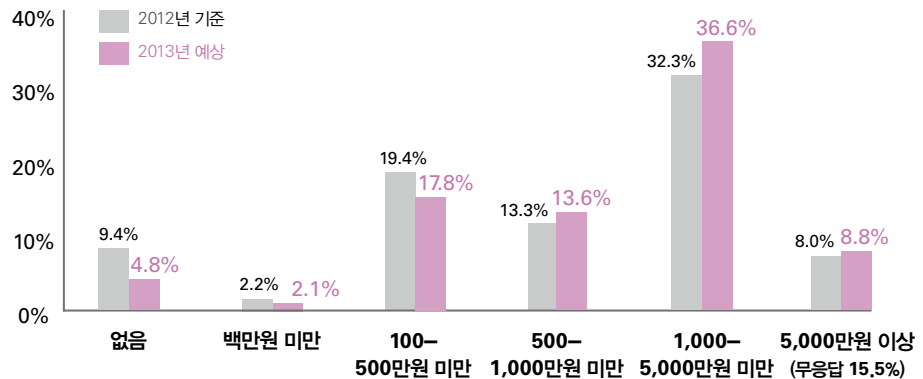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역시 예술공예의 경우 작품 판매의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1 2012년 기준 총 판매액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38

그림 3-12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 현황



년도	평균	중앙값
2012년 기준	25.97	8.0
2013년 예상	30.94	10.0

2012년 판매액		평균	증감값	2013년 예상 판매액		평균	증감값
공예범주	전통공예	39.21	15.0	공예범주	전통공예	45.72	15.0
공예범주	산업공예	42.76	10.0	공예범주	산업공예	49.07	10.0
	예술공예	12.00	4.0		예술공예	15.44	5.0
	취미공예	18.37	8.0		취미공예	19.68	10.0
전체		25.97	8.0	전체		30.94	10.0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34

4. 공예산업 종사자 현황

1) 전체 종사자 현황

(1) 소재별 종사자 비율

공예산업 소재별 종사자 비율은 도자 분야가 가장 많은 종사자수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나무(목공예), 섬유, 종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예산업 총 매출액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순으로 종사자 비율과 총 매출액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19 소재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종사자수
금속	1,991
귀금속/보석	929
나무(목공예)	5,782
죽세	348
칠	392
도자	10,966

돌(석공예)	636
유리	456
섬유	3,485
가죽	480
종이	1,737
특수소재	581
합성재료	311
기타	294
총계	28,389

· 출처 월드리서치 제공,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위한 조사 자료

(2) 공예범주별 종사자 비율

공예범주별 종사자 조사 사례는 전체 2,603 사례 중에 전통공예가 1,517로 가장 많은 사례수로 집계되었으나, 종사자 비율에서는 전통공예, 산업공예 모두 1인 종사자 비율이 평균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예술공예와 취미공예의 경우에는 사례수 대비 1인 종사자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범주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단위: %

공예범주	사례수	1명	2명	3-4명	5명이상	종사자수 평균
전통공예	1,517	58.9	27.4	15.2	8.4	2.40
산업공예	442	51.6	18.6	16.5	13.3	2.92
예술공예	494	87.0	6.7	2.8	3.4	1.55
취미공예	150	87.3	8.0	2.7	2.0	1.39
전체	2,603	58.9	20.8	12.3	7.9	2.27

· 출처 월드리서치 제공,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위한 조사 자료

(3) 지역별 종사자 비율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사례수가 가장 많았고, 공예 범주별 종사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비율에서도 1인 종사자 기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예 산업분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21 지역별 공예작가 공예작품 판매현황

단위: %

지역	사례수	1명	2명	3~4명	5명이상	종사자수 평균
수도권	1,276	61.1	19.7	10.4	8.7	2.31
영남권	556	51.4	26.4	16.9	5.2	2.25
전라권	416	54.3	21.6	15.1	8.9	2.44
충청권	222	70.7	13.1	8.1	8.1	1.82
강원	75	57.3	17.3	14.7	10.7	2.59
제주	57	71.9	19.3	3.5	5.3	1.67
전체	2,603	58.9	20.8	12.3	7.9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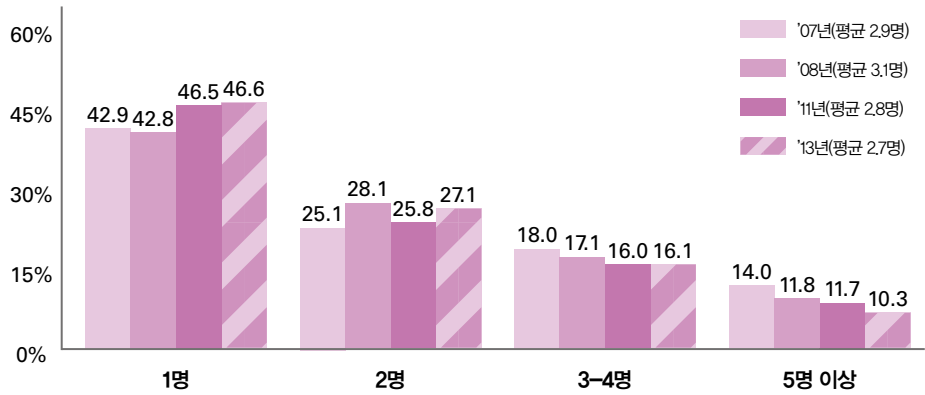
· 출처: 월드리서치 제공,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위한 조사 자료

2) 공예사업체 종사자 현황

(1) 전체 종사자 현황

2013년 공예사업체의 인력 현황은 평균 2.7명으로 2011년(2.8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1인 사업체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2인이 27.1%, 3~4인이 16.1%, 5인 이상이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한 공예사업체의 평균 인력이 2.75명으로 미등록 공예사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3 인력 현황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7

표 3-22 인력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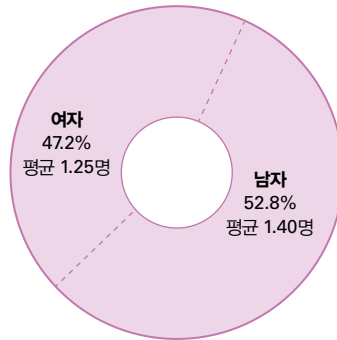
사업자등록	사례수(개)	1명	2명	3-4명	5명 이상	평균
등록	1,770	43.3	28.2	17.5	11.0	2.75
미등록	230	71.3	18.7	5.2	4.8	1.91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7

(2) 성별 종사자 수

전체 종사자 중 남성은 52.8%이며, 업체당 평균 1.40명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은 47.2%, 업체당 평균 1.25명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4 성별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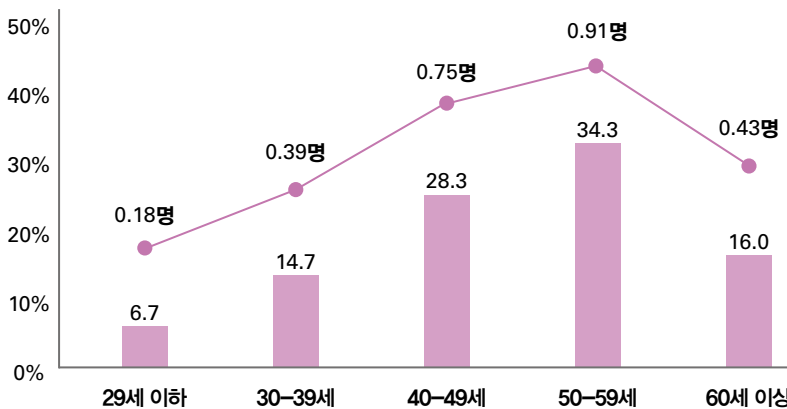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8

(3) 연령별 종사자 수

공예사업체 연령별 종사자 현황은 50-59세 연령대의 공예사업체 종사 비중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49세(28.3%), 60세 이상(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연령별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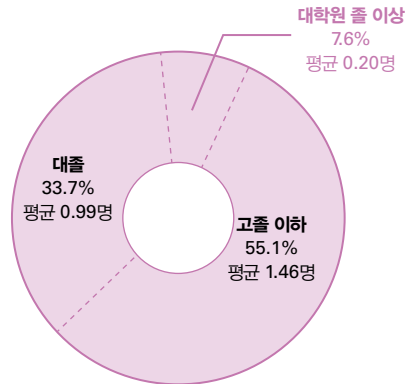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

(4) 학력별 종사자 수

공예사업체 학력별 종사자 현황은 종사자 중 55.1%(업체당 평균 1.46명)는 고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대졸(33.7%, 평균 0.99명), 대학원 졸 이상(7.6%, 평균 0.20명)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학력별 종사자 수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59

3) 공예작가 종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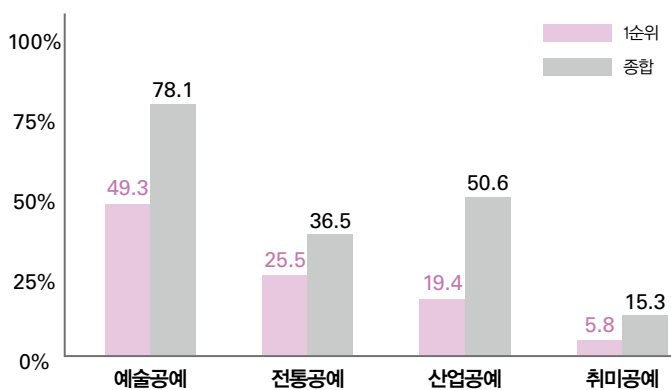
공예작가의 경우 공예산업 종사 현황이 작가 1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공예 범주별로 공예작가를 분류하고, 다시 지역별로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를 분류했다.

(1)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 분류(중복응답)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로 예술공예(1순위 49.3%, 1+2순위 78.1%)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통공예(1순위 25.5%, 1+2순위 36.5%), 산업공예(1순위 19.4%, 1+2순위 50.6%), 취미공예(1순위 5.8%, 1+2순위 15.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7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 분류

단위: %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7

(2) 지역별 공예작가의 공예 분류(중복응답)

1순위 기준으로 수도권은 예술공예, 영남권은 전통공예, 전라권은 산업공예, 충청권은 취미공예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3 권역별 공예작가의 공예 범주 분류

단위: %

권역	사례수(명)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수도권	406	59.4	16.0	20.7	3.9
영남권	64	26.6	54.7	14.1	4.7
전라권	47	25.5	38.3	29.8	6.4
충청권	60	28.3	43.3	11.7	16.7
강원/제주/기타	26	38.5	38.5	11.5	11.5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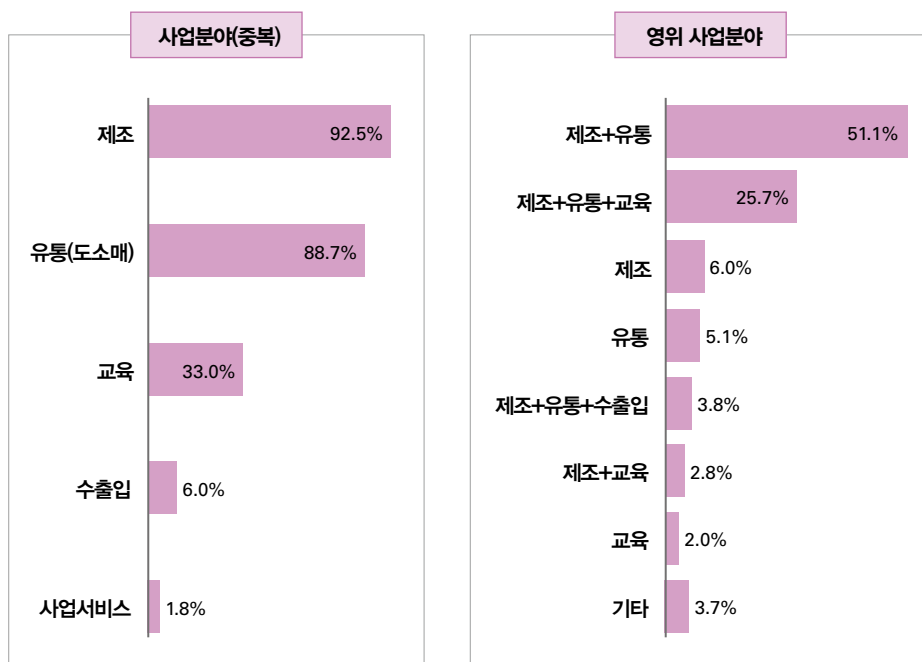
5. 제조 및 유통 현황

1) 공예사업체

(1) 사업분야

공예사업체의 92.5%(중복응답)는 제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통(도소매) 88.7%, 교육사업 33.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8 공예사업체 사업분야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60

(2) 공예 범주별 제작 비율

공예사업체의 범주로 전통공예(1순위 68.2%, 1+2순위 75.2%)가 높게 나타났고, 산업공예(1순위 16.3%, 1+2순위 35.0%), 예술공예(1순위 9.9%, 1+2순위 26.8%), 취

미공예(1순위 5.8%, 1+2순위 16.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제작과 유통 비중

공예사업체의 제작 비중은 60.4%, 유통 비중은 39.6%로 조사되었고, 2011년(제작 60.8%, 유통 39.2%)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4) 대표 공예품

제작·유통·판매하는 대표 공예품으로 도자기가 19.2%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 식기/반상기(14.6%), 찻잔/컵(4.4%), 다기(4.1%), 화병/화분(4.0%)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5) 주요 판매처

공예품의 주요 판매처로 ‘공방 내 매장’(1순위 75.5%, 1+2순위 79.6%)이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예품 전문상가’(1순위 9.6%, 1+2순위 21.9%), ‘공예관련 전시회’(1순위 2.3%, 1+2순위 10.6%)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3-24 공예사업체 주요 판매처

단위: %

주요 판매처	종합순위(%)
공방 내 매장	79.6
공예품 전문상가	21.9
공예관련 전시회	10.6
갤러리 샵	5.3
Daum, Naver 같은 종합포털 사이트에 링크된 쇼핑몰	4.2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3.6
일반매장	2.5
공예관련 박람회	2.4

주문제작	2.3
공예전문 인터넷 사이트	1.6
GS Shop, 롯데닷컴, CJmall, 현대 Hmall 등의 종합 쇼핑몰	1.6
납품	1.1
11번가, G마켓, 옥션, 네이버샵, 인터파크 등의 오픈 마켓	1.1
디자인 브랜드 사이트	0.6
면세점	0.6
개인	0.6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23
· 상위 0.5% 이상

2) 공예작가

(1) 대표 공예품

제작·판매·유통되는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식기/반상기(16.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도자기(15.4%)였다. 이어 장신구/악세서리(9.1%), 생활소품(5.8%), 목걸이(5.5%), 스탠드/조명등(5.3%), 브로치(5.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대표 공예품

단위: %

(단위: 명, %)	사례수	%
전체	603	100
식기/반상기	98	16.3
도자기	93	15.4
장신구/악세서리	55	9.1
생활소품	35	5.8
목걸이	33	5.5
스탠드/조명등	32	5.3
브로치	31	5.1

(단위: 명, %)	사례수	%
전체	603	100
의자	5	0.8
옷/의류	5	0.8
한복	5	0.8
보석함	5	0.8
반지	5	0.8
팔/발찌	5	0.8
열쇠고리	5	0.8

찾잔/컵	29	4.8
화병/화분	27	4.5
인형	27	4.5
다기	25	4.1
액자	21	3.5
조형물	21	3.5
가방	20	3.3
스카프/머플러	19	3.2
가구	17	2.8
탁자/테이블	17	2.8
접시	17	2.8
오브제	14	2.3
조각	12	2.0
장식장	9	1.5
촛대	9	1.5
벽걸이	8	1.3
사발/공기	8	1.3
명함집	7	1.2
시계	7	1.2
귀걸이	7	1.2
테이블웨어	6	1.0

넥타이	5	0.8
주전자	5	0.8
벽화	5	0.8
섬유	4	0.7
방석	4	0.7
거울	4	0.7
서각	4	0.7
항아리	4	0.7
식탁	3	0.5
서랍장	3	0.5
필통	3	0.5
펜	3	0.5
침구	3	0.5
염색	3	0.5
조각보	3	0.5
염주/묵주	3	0.5
쟁반	3	0.5
상/소반	3	0.5
커피 드리퍼	3	0.5
타일/도벽	3	0.5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4
· 사례수 3개 미만 미제시

(2) 대표 공예품의 소재 및 용도

대표 공예품의 주된 소재로 도자¹⁾라는 의견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금속(20.7%), 섬유(19.7%), 나무(18.7%), 귀금속/보석(7.3%), 종이(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조사결과 대비 도자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금속은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대표 공예품의 주요 용도로는 생활소품이란 의견이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장신구/잡화(22.2%), 주방/욕실용품(20.6%), 가구용품(7.6%)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조사결과 대비 장신구/잡화의 비율이 하락한 반면, 주방/욕실용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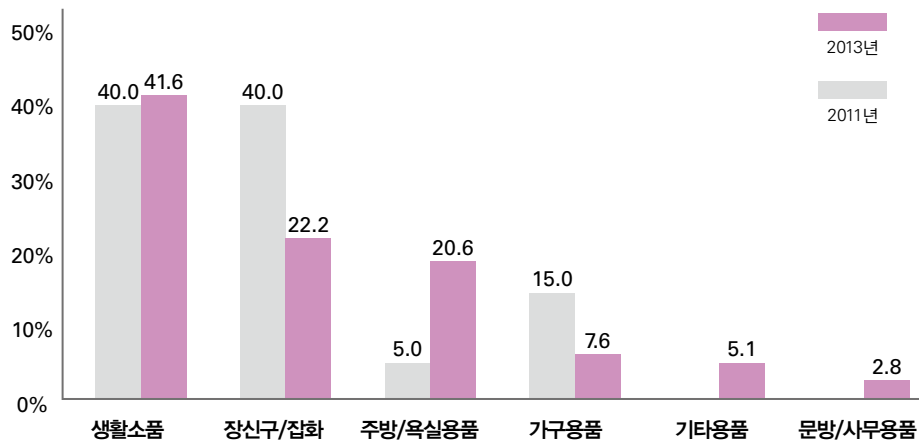
표 3-26 공예작가 대표 공예품 소재 및 용도

단위: %, 상위 2.3% 이상

대표공예품(중복)	%	대표공예품 소재(중복)	%	대표공예품 용도(중복)	%
식기/반상기	16.3	도자	66.8	생활소품	41.6
도자기	15.4	금속	20.7	장신구/잡화	22.2
장신구/악세서리	9.1	섬유	19.7	주방/욕실용품	20.6
생활소품	5.8	나무	18.7	가구용품	7.6
목걸이	5.5	귀금속/보석	7.3	기타용품	5.1
스탠드/조명등	5.3	종이	5.8	문방/사무용품	2.8
브로치	5.1	칠	3.6		
차잔/컵	4.8	가죽	2.8		
화병/화분	4.5	유리	2.2		
인형	4.5	죽세	1.8		
다기	4.1	흙/점토	0.8		
액자	3.5	식물(왕골/꽃/짚)	0.7		
조형물	3.5	돌	0.3		
가방	3.3	플라스틱	0.3		
스카프/머플러	3.2	짐승털	0.2		
가구	2.8	아교	0.2		
탁자/테이블	2.8	비누재료	0.2		
접시	2.8	합성수지	0.2		
오브제	2.3	FRP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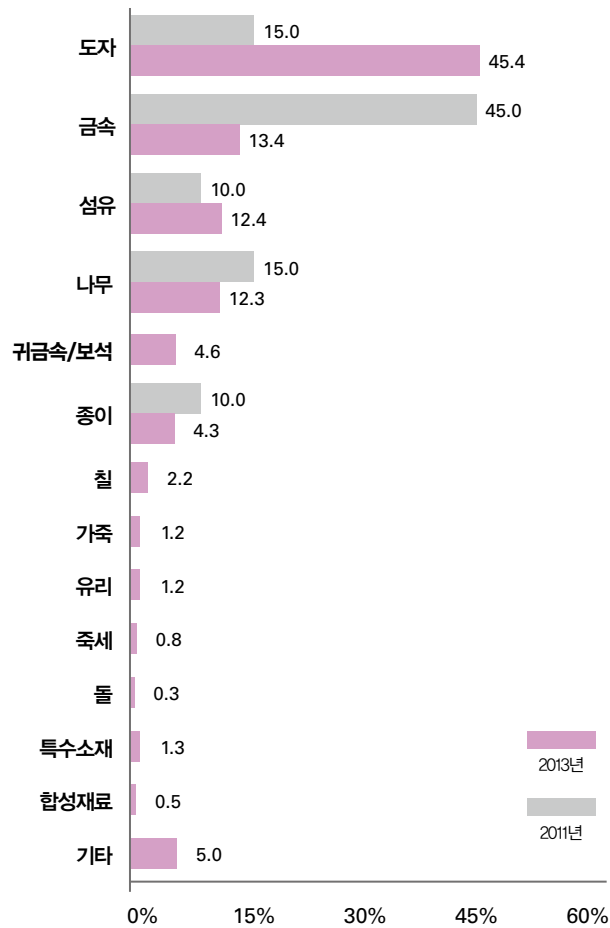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29

그림 3-19 대표 공예품의 용도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6

그림 3-20 대표 공예품의 소재



· 출처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115

3절 · 결론

3장 공예산업에서는 공예산업의 정의와 범주 그리고 현황을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와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분석하였다. 본 백서는 기존의 ‘제조’와 ‘유통’에 한정된 협의의 ‘공예산업’ 범주로부터 한걸음 나아가 전통공예와 산업공예를 비롯해서 예술공예, 취미공예까지 모두 포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예산업 범주의 확장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공예산업의 실태와 현황을 밀도 있게 다루고자 예술적 속성과 산업적 속성을 모두 가진 공예의 특수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공예산업의 주체 역시 ‘공예사업체’와 ‘공예작가’로 구분하고, 1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예산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및 조사를 지표로 살펴본 공예산업 현황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예산업 분석 및 한계

『2012 공예백서』의 경우 『2011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한계로 공예산업 정의와 조사범위의 문제, 그리고 범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2011 실태조사의 경우 ‘신공예산업 분류체계’를 주된 범주로 사용함에 따라 광의의 ‘공예산업’, 즉 포괄적 의미의 ‘공예생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취미공예의 결과물은 공예사업체이나 공예작가의 경우와 달리 산업적 목적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오히려 작업과정과 교육과정이 산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범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본 백서의 공예산업 범주 설정의 토대가 되었던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는 전통공예와 산업공예 외에 예술공예와 취미공예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범주와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백서의 범주 설정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공예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

준 공예산업 전체 매출액은 1조2,474억원이며, 공예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8,389명으로 추정된다. 과거에 비해 공예산업 전체 시장규모(총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당 종사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예산업 업종간 양극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체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는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업체당 매출이나 종사자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공예에 비해 산업공예의 매출 기여도가 높으며, 교육사업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매출 규모 현황에 대한 조사는 『2012 공예백서』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2007년의 실태조사에서 처음 거론되었던 모집단의 표본설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표본의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의 여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도 사실이다.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공예산업실태조사 보고서』의 경우에도 표본 오차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통계조사의 한계는 여전히 남겨진 문제다. 더욱이 공예사업체와 공예작가를 구분함으로써 각각의 생산물 또한 ‘공예품’과 ‘공예작품’ 이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구분하고 있는데, 용어는 충분히 상이한 입장과 견해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과제와 전망

공예산업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와 전망이 제기된다.

첫째, 공예 관련 교육사업 부문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공예 관련 전체 시장 가운데 취미공예의 확산에 따른 교육사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변화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정기적인 실태 파악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공예산업의 거점이 되는 공방 육성이 장기적으로 공예산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공예산업의 주체인 공예사업체 및 공예작가 모두 공방을 중심으로 한 생산, 판매, 교육활동이 활발한 만큼, 공예공방을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정부·지자체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상품 기획, 개발, 마케팅, 유통(수출) 등 관련 분야와 연동되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및 개발 기능의 강화가 요망된다. 이는 본 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예산업의 생산적 차원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정의인 “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라는 5단계의 산업 활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넷째, 공예산업 주체에 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개별이 아닌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는 공예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1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예사업체의 영세성을 감안 할 때, 사업체 지원보다 지역 혹은 단체·협회 등 커뮤니티 중심의 지원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공예 특성화 지원 정책에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예산업은 여타의 산업과, 문화산업 영역들 중에서도 차세대 한류를 이끌 창조적 문화산업임과 동시에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가치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공예산업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예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 정책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4장 공예전시와 행사

1절 개관

1. 공예전시와 행사의 정의
2. 공예전시와 행사의 범주

2절 현황

1. 공예전시
2. 공예행사

3절 결론

1. 공예전시와 행사 분석
2. 전망과 과제

4장

공예전시와 행사

1절 · 개관

공예현황에서 가시적으로 공예작품의 등장과 공예행사들의 활약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전시와 행사 부분이다. 1절 개관에서는 공예전시와 행사의 정의를 비롯하여 범주를, 2절 현황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범주별, 재료별, 주최별, 인적구성별, 지역별 현황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3절 결론에서는 예술공예가 공예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과 재료 범주별 전시 현황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무엇보다 전시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공예전시나 행사의 수집과 분석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공예분야 전시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온라인 사이트의 필요성과 공예전문 복합문화행사인 공예트렌드페어의 전문성과 홍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1. 공예전시와 행사의 정의

공예전시는 공예와 관련된 어떤 주제나 목적 아래 선정된 작품을 전시공간에 배열하는 행위나 이와 관련된 활동이다. 즉, 전시는 일정한 공간에서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이기에, 공예가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로 전시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는 이러한 전시가 확장되어 지역축제나 아트 페어, 공모전 등과 같은 형식으로 다수의 기획자와 공예가, 관람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이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2012 공예백서』에서도 밝혔듯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이고 모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예문화의 현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예 ‘전시’는 개인 및 단체 공예가가 관람객에게 공예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다. 반면 ‘행사’는 공공, 민간기관과 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람객에게 공예작품을 보여주면서 학술행사나 워크숍, 혹은 판매 등 다른 부분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공예전시와 행사의 범주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겠다.

2. 공예전시와 행사의 범주

공예의 1차 범주는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라, 공예전시와 행사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4-1 공예전시와 행사를 위한 1차 범주

공예전시와 행사를 위한 1차 범주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예술공예를 위한 전시는 예술성이나 작품성에 근접하여, 일상용품이라기 보다는 감상이나 전시가치를 더 큰 목적으로 한 전시를 의미한다. 전통공예 전시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고 있는 작품들의 전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산업공예와 관련된 전시는 실용성에 무게를 두고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라는 프로세스를 거친 상품으로서 공예작품을 전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미공예 전시는 전문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예작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취미 혹은 정서적 활동의 입장에서 공예작품을 제작하는 취미공예 작품을 전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 재료별 범주는 『2012 공예백서』¹⁾와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1 허보윤, 황승욱, 강정현, 김유라, 윤이랑, 『2012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90

2 박남희, 이현경, 안영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pp.20-22 참조

에서 제시한 ‘공예산업분류체계(2013)’²⁾를 참조하여 다음의 9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4-2 2013년 공예전시와 행사 재료별 범주 기준

	공예산업분류체계(2013)	2012 공예백서	2013 공예백서
1	금속	금속	금속/귀금속/보석/석
2	귀금속/보석	—	
3	석	—	
4	도자	도자	도자
5	유리	유리	유리
6	목	목	목
		칠	칠
7	섬유	섬유	섬유/가죽
8	가죽	—	
9	종이/한지	종이	종이/한지
10	죽세/초경	—	죽세/초경
11	특수소재	기타	기타 (특수, 복합, 기타 재료)
12	복합소재	두 개 이상 복수	
13	기타	—	
합계	13 항목	9 항목	9 항목

본 백서에서 공예재료를 ❶금속→금속/귀금속/보석/석, ❷섬유→섬유/가죽, ❸종이→종이/한지, ❹죽세/초경, ❺기타 & 두 개 이상 복수→기타 항목으로 재분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속→금속/귀금속/보석/석’ 항목은 최근 금속공예 전시가 금속 자체를 이용한 작품제작을 비롯하여 여타의 귀금속, 보석 등과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섬유→섬유/가죽’ 항목 또한 최근 들어 섬유와 가죽을 결합하여 제작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과 외국에서는 섬유분야에 보다 광범위한 분야, 예를 들자면 텍스타일과 가죽공예 등이 포함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³⁾ 또한 국내에서 가죽공방이나 공예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추후 이와 관련된 전시의 기회를 열어두기 위함이다.

셋째, ‘종이’의 범주 또한 ‘종이/한지’로 확장되었으며, ‘죽세/초경’의 항목을 신설하였다. 특히 한지 공예전의 경우, 여러 종이류와는 다르게 ‘한지’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한 점, 그리고 최근 들어 한지의 전통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계승을 위해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죽세/초경의 경우, 올해 전시현황에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서 죽세와 초경제품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많은 점과 추후 전시 가능성을 위해 범주상 열어 두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백서에서 ‘기타’와 ‘두 개 이상의 복수’ 재료를 사용한 전시의 경우를 ‘기타’ 항목으로 묶었다. 이는 공예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자, 금속, 섬유, 목, 종이 등의 재료들 이외의 재료들과 여러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공예작품을 의미한다.

또한 공예전시와 행사의 주최기관은 공공, 민간, 대학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공공’이란 중앙정부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외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학’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법인설립허가 및 인가를 받은 기관이다. 반면 ‘민간’은 ‘공공’과 ‘대학’을 제외한 개인을 말하며, 개인 이외에도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포함된다.

공예전시와 행사를 위한 자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국내 작가가 참여한 공예 관련 전시와 지역 축제, 국제행사 및 복합문화행사와 공모전을 자료수집 기준으로 삼았다. 자료수집, 특히 전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공예전시 모두를 조사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공예가가 인터넷을 통

3 영국의 경우, 공예산업표준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예산업 분류체계(1990s)’에서 ‘가죽공예(가죽공정, 신발제작, 가죽직조, 안장)’와 ‘텍스타일(자수, 퀼트/패치워크/어플리케, 패션/의류, 섬유예술)’의 항목을 2000년에는 ‘텍스타일과 가죽(자수, 패션, 손 & 기계 뜨개, 레이스 제작, 기타 실과 관련된 공예, 패치워크와 퀼트, 소프트 피니싱 & 덮개, 방적, 직조, 염색, 표면 패턴)’의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가죽으로 제작하는 제품군이 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섬유나 자수 및 기타 항목들과 복합적으로 제작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남희, 문화원, 이시은, 이경애, 『해외공예산업 분류체계 현황조사』, pp.11-14 참조

해 전시를 홍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시현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료수집은 기본적으로 미술관련 주요 사이트인 김달진미술연구소^{www.daljin.com}와 네오룩^{www.neolook.com} 그리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kr}을 중심으로 했다. 그 외 한국공예가협회^{www.craftkorea.org}와 공예인^{jeon.kookmin.ac.kr}, 세라믹인포^{ceramicinfo.org}, 클레이파크^{claypark.net} 등을 참조하였으며, 이외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각종 포털 서비스와 각 전시와 행사의 공식 홈페이지 및 행사 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지역 축제, 국제행사 및 아트 페어와 같은 공예 행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모가 큰 데다가, 공공기관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많았기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일차적인 정보수집 이외에 본 백서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참조하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행사 주최측에 요청하였으나, 행사에 책정된 구체적인 예산과 판매수익 등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결과보고서 공개에 협조한 행사만을 보다 상세히 분석할 수 있었다.

2절 • 현황

미술 및 공예 관련 주요 사이트를 중심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된 공예전시는 634건, 공예행사는 132건으로 총 766건으로 집계되었다. 공예행사는 공예지역축제 17건과 공예국제행사 3건, 공예복합문화행사 11건, 공모전 101건으로 구성된다.

표 4-3 2013년 공예전시와 행사 현황

단위: 건

구분	내용		개최 수
공예전시	공예전시	공예전시회	634
공예행사	공예지역축제	각 지역에서 발생한 공예축제	17
	공예국제행사	국제적 성격을 가진 공예행사	3
	공예복합문화행사	공예아트페어	11
	공예공모전	공예관련 공모전	101
합계			766

1. 공예전시

1) 범주별 전시현황

(1) 1차 범주별 전시현황

2013년 개최된 634건의 공예전시를 1차 범주로 분류하면, 예술공예가 583건, 전통공예가 43건, 취미공예가 4건, 그리고 산업공예가 4건으로 나타났다.

표 4-4 2013년 공예전시 1차 범주별 분포

단위: 건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합계
583	43	4	4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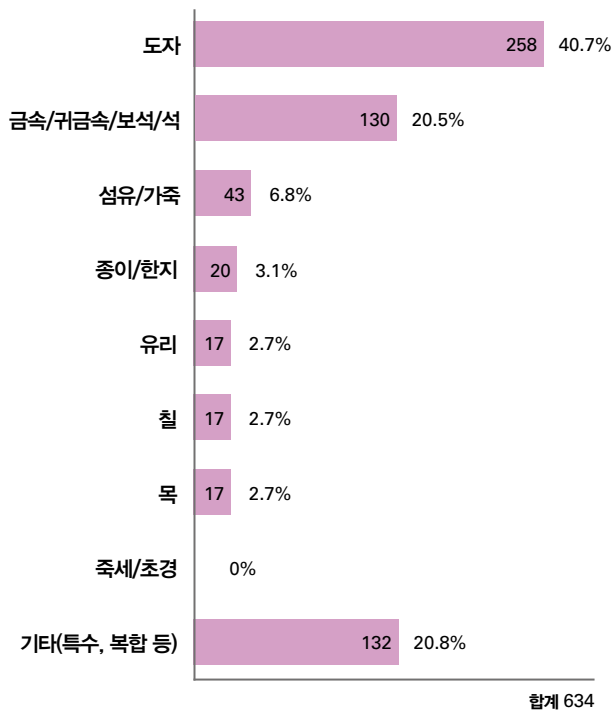
1차 범주별 전시분포에서의 특징이라면, 현대공예가 583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취미공예와 산업공예 전시가 각각 4건으로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현대공예의 예술지향적 성격, 즉 일상용품보다는 감상이나 전시를 일차적으로 한 전시회가 많았음을 반영한다.

전통공예의 경우 <민속공예전>과 같은 ‘민속공예’를 비롯하여 <규방공예전>, <옷칠전>, <심수관도예전>의 경우처럼, 공예의 주요소 중 ‘제작기술’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작품을 제작, 전시한 ‘전승공예’를 포함한다. 취미공예 분야의 경우는 우디회원의 <우디목가구전>과 <하늘생각공방 도예전>, 조선도재회원 <2013 흙과 색전>, <사리도예동우회전>으로 모두 취미단체나 동호회를 중심으로 개최된 단체전이었다.

(2) 재료별 전시현황

2013년 개최된 전시를 재료 범주별로 분류하면 [그림 4-1]과 같다. 전체 634건의 전시 중 도자공예가 258건으로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금속/귀금속/보석/석공예가 130건, 기타 공예가 1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섬유/가죽공예가 43건, 종이/한지공예가 20건, 유리공예 18건, 칠과 목공예가 각각 17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2013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별 분포



· 2013년 634개 전시 기준

기타 전시는 대부분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허명옥 공예 · 사진전〉처럼 다른 장르와 함께 전시한 경우, 또 〈김미선 양초공예전〉이나 〈알공예전〉처럼 재료별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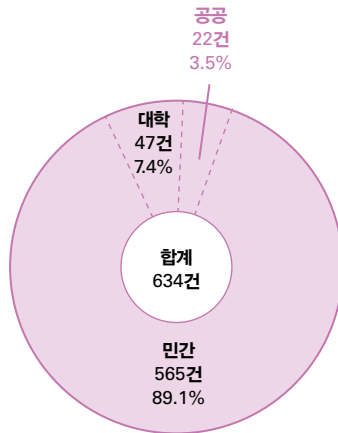
『2012 공예백서』와 마찬가지로, 재료별 전시에서 도자공예가 258건으로 약 40%, 금속/귀금속/보석/석공예가 130건으로 20.5%, 섬유/가죽공예가 43건으로 6.8%를 차지하였다. 이는 6장 공예교육의 대학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교육에서 도자전공(39개)이 가장 많으며, 금속/귀금속/보석/석(30개), 섬유/가죽(29개), 목(19개) 순으로 공예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4 공예 재료별 전공에 관한 자료는 6장 공예교육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주최별 전시현황

주최 유형에 따라 2013년 공예전시를 분류해 보면 [그림 4-2]와 같다. 민간이 주최한 전시가 565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학이 47건(7.4%), 공공이 22건(3.5%)으로 뒤를 이었다.

그림 4-2 2013년 공예전시 주최 유형별 분포



· 2013년 634개 전시 기준

『2012 공예백서』와 비교해 보면, 민간주최 전시는 80.2%에서 89.1%로 다소 증가했다. 반면 공공전시는 전체 전시 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38건(8.7%)에서 22건(3.5%)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주최는 대부분 작가들의 개인전 혹은 단체전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가 전시기획에서부터 장소임대, 작품 판매 등의 전시 전반을 모두 준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라믹 창작센터 입주작가전>이나 <서울현대공예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이나 사람미술관 등의 기획 취지에 맞추어 작가를 지원, 공모하고 전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학 주최의 경우에는 47건 모두 대학교나 대학원의 졸업전시나 학위청구전, 혹은 각 과의 동아리 전시로 구성되었다. 『2012 공예백서』의 상황에 비해 상당한 감소세를 보

인 22건의 공공전시는 대부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나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전시를 기획, 주최한 것으로 민간전시나 대학전시에 비해 그 규모와 기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예전시를 1차 범주 및 주최별로 분석하면 [표 4-5]와 같다. 예술공예전시는 민간 주최가 총 565건 중 521건으로 89.3%를 차지했으며 대학이 47건으로 8.1% 공공이 15건으로 2.6%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공예의 경우에도 90% 정도가 민간주최였으며, 공공전시는 약 10%를 차지했다. 반면 취미공예는 개인의 취미, 혹은 동호회의 성격을 반영하여 100% 민간주최로 나타났다.

전통공예가 예술공예에 비해 공공주최가 많은 이유는 2장 공예정책 중 문화재정책, 「문화재보호법」, 「숙련기술장려법」이나 ‘공예명장선정’, ‘향토유적보호’ 등과 연계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⁵⁾

표 4-5 2013년 공예전시 1차 범주 및 주최 유형별 개최 현황

단위: 건

1차 범주	주최 유형			합계
	민간	공공	대학	
예술	521	15	47	583
전통	38	5	—	43
산업	2	2	—	4
취미	4	—	—	4
합계	565	22	47	634

2013년 공예전시를 재료 범주별 및 주최 유형별로 분석하면 [표 4-6]과 같다. 민간과 대학주최 전시의 경우 도자와 금속공예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공공 주최의 경우 도자, 그리고 기타 공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장 공예정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4-6 2013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 및 주최 유형별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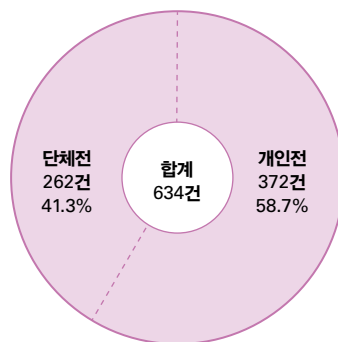
단위: 건

1차 범주	주최 유형			합계
	민간	공공	대학	
도자	243	7	8	258
금속/귀금속/보석/석	109	1	20	130
섬유/가죽	36	1	6	43
종이/한지	18	1	1	20
유리	17	-	-	17
칠	14	2	1	17
목	17	-	-	17
죽세/초경	-	-	-	-
기타(특수, 복합 등)	111	10	11	132
합계	565	22	47	634

3) 범주별 전시현황

2012년 공예전시를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인적구성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에서와 같이 개인전이 372건으로 58.7%, 단체전이 262건(41.3%)으로 전년도(52.9%와 47.1%)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4-3 2013년 공예전시 인적 구성별 현황



· 2013년 634개 전시 기준

개인전은 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중점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작가가 기획에서부터 제작, 판매 등의 준비과정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가들은 개인전을 통해 자신이 예술세계를 선보이고 판매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표 4-7]에서와 같이, 다른 장르에 비해 현대공예 분야의 전시가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체전의 경우 <장식과 환영-현대장신구의 초대전>이나 <자연을 물들이다-이병찬 천연염색전>, <2013 아시아 현대도예-신세대의 교감전>처럼 같은 재료 범주의 전시가 대부분이나 <속찬 나무와 빈그릇-목다구에 도자기를 엮다>, <아트 앤 쿡 Art&Cook-미술을 담다>의 경우에서처럼 범주 간, 혹은 다른 분야와의 전시도 있었다. 취미공예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기보다는 동호회에 소속이 되어 취미로 하는 경우를 반영한 탓인지 개인전은 보이지 않았고, 모두 단체전으로 개최되었다.

표 4-7 2013년 공예전시 1차 범주 및 인적 구성별 개최현황

단위: 건

1차 범주	인적구성		합계
	개인전	단체전	
예술	348	235	583
전통	24	19	43
산업	—	4	4
취미	—	4	4
합계	372	262	634

재료 범주 및 인적구성별로 개최된 전시를 분석해 보면 [표 4-8]과 같다. 개인전의 경우 재료 범주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자공예와 금속/귀금속/보석/석공예와 섬유/가죽공예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域New Site-동아시아 현대도예 교류전>, <한중도자예술교류전>, <2013 아시아 현대도예 신세대 교감전>처럼 도자공예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주최 유형별 재료 범주전에서 단체전이 개인전

의 수가 두 배에 가까운 것은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함께 전시를 개최하기에 재료 범주에서도 단일 범주보다는 복합이나 복수의 재료를 사용한 기타 범주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8 2013년 공예전시 재료 범주 및 인적 구성별 개최현황

단위: 건

1차 범주	주최 유형		합계
	개인전	단체전	
도자	176	82	258
금속/귀금속/보석/석	80	50	130
섬유/가죽	28	15	43
종이/한지	7	13	20
유리	11	6	17
철	8	9	17
목	12	5	17
죽세/초경	—	—	—
기타(특수, 복합 등)	50	82	132
합계	372	262	634

4) 지역별 전시현황

2013년 공예전시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표 4-9]와 같다. 전체 634개의 전시 중에서 서울이 441건(69.6%), 경기지역이 56건(8.8%)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80% 정도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문화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육과 산업을 비롯한 문화 인프라 및 행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서 개최한 전시 중에서 인사동과 삼청동이 속한 종로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강남구가 뒤를 이어 서울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심한 모습을 보였다.

표 4-9 2013년 공예전시 지역별 개최 수

단위: 건

지역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	강원	경기	전북
개최수	441	2	22	14	16	4	29	8	56	4
지역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순회	국외	합계	
개최수	—	2	18	1	2	3	2	10	634	

국외 전시로는 프랑스 베라암젤름갤러리 〈날아라 닭 Fly. Roosters-성태훈展〉, 독일 뮌헨 Steinheilstrasse 16 80333 갤러리 〈Fallmamal Exhibition-홍영희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갤러리 Rob koudijs 〈Abstract Portraits-조성호 장신구展〉, 캐나다 〈Implicit Value-이승열 장신구展〉로 집계되었다. 반면 단체전 10건 중에서는 〈域New Site-동아시아 현대도예 교류전〉과 〈2013 아시아현대도예-신세대의 교감전〉과 〈2013 Collect전〉 등 도자공예 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2013년 공예전시 1차 범주 지역별 분포

단위: 건

구분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합계
서울	400	38	2	1	441
인천	1	1	—	—	2
부산	22	—	—	—	22
대전	14	—	—	—	14
광주	15	1	—	—	16
울산	4	—	—	—	4
대구	24	1	1	3	29
강원	8	—	—	—	8
경기	54	2	—	—	56
전북	4	—	—	—	4

전남	-	-	-	-	-
경북	2	-	-	-	2
경남	18	-	-	-	18
충북	1	-	-	-	1
충남	2	-	-	-	2
제주	3	-	-	-	3
국내 순회	1	-	1	-	2
국외	10	-	-	-	10
합계	583	43	4	4	634

2. 공예행사

공예행사는 크게 ‘공예지역축제’와 ‘공예국제행사’, ‘공예복합문화행사’, 그리고 ‘공모전’으로 구분된다. 공예지역축제는 각 지역의 문화, 역사, 전통 등의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이를 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열리는 축제를 말한다. 공예국제행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작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성격을 가진 행사로 일반적으로 1-2년 단위, 혹은 기획행사 식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013년에 공예와 관련된 국제행사로는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제27회 이천도자기 축제>가 있다. 공예복합문화행사는 아트페어나 공예, 혹은 문화축제 식으로 작가나 갤러리가 한 자리에 모여 전시보다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은 공예관련 공공, 혹은 민간기관이 일반 혹은 작가들을 상대로 특정 주제의 아이디어나 제품제안, 기획 등을 심사하여 상금을 비롯한 특전을 제공하는 콘테스트를 말한다.

2013년에 개최된 공예행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1 2013년 공예행사 개최 현황

단위: 건

구분	내용		개최 수
공예행사	공예지역축제	각 지역에서 발생한 공예축제	17
제주	공예국제행사	국제적 성격을 가진 공예행사	3
국내 순회	복합문화행사	공예아트페어(art fair)	11
국외	공예공모전	공예관련 공모전	101
합계			132

1) 공예지역축제

공예지역축제는 각 지역의 문화, 역사, 전통 등 지역문화의 특색을 바탕으로 열리는 축제이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지역특산물 홍보와 행사를 찾는 관람객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기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4-12]는 2013년에 개최된 지역별 공예지역축제 현황이다.

표 4-12 2013년 공예 지역축제 지역별 개최 수

단위: 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	강원	경기
-	1	-	-	-	2	-	1	3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합계	
1	3	2	3	-	1	-	17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예지역축제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공예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한 서울(441회, 69.6%)과 두번째로 전시개최가 많았던 부산(22회, 3.5%)의 경우에는 공예지역축제와 국제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축제와 행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공예관련 전시와 복합문화행

사가 서울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데다가, 인근 경기도에서 국제공예행사와 공예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축제를 재료별로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총 17건의 축제 가운데 도자 9건, 종이/한지공예 5건, 금속/귀금속/보석/석, 섬유/가죽과 죽세/초경이 각각 1건씩 집계되었다.

표 4-13 2013년 공예지역축제 재료 범주별 공예지역축제

단위: 건

재료 범주	소계
도자	9
금속/귀금속/보석/석	1
섬유/가죽	1
종이/한지	5
유리	—
철	—
목	—
죽세/초경	1

· 2013년 17건 지역축제 기준

지역별 공예축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3]에서와 같이, 도자 관련 지역축제가 전년도(15건 중 7건으로 47%)에 이어 올해 총 17건의 지역축제 중 9건으로, 과반수 정도(52.9%)를 차지했으며, 여러 공예 재료 중에서도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이/한지의 경우에는 〈2013 전주한지문화축제〉, 〈2013 안동한지축제〉, 〈2013 의령한지병풍축제〉, 〈2013 원주한지문화제〉, 〈2013 안산종이문화축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지라는 특정 재료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전남 담양에서는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가, 울산에서는 금속을 중심으로 한 〈제9회 울산쇠부리 축제〉가, 충남 서천 〈제24회 한산모시문화제〉가 개최되었다.

표 4-14 2013년 공예지역축제 개최 현황

	분류	시도명	축제명	개최 기간	장소	주제	내용	주최/ 주관	주최 유형
1	도자	경기도 여주군	제25회 여주 도자기축제	2013. 9.28 -10.20 (23일간)	여주 신록사 관광지 일원	도자천년, 물결따라 행복여행	전시, 판매, 체험행사, 공연	주최:여주군 주관: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공공
2	도자	경기도 광주시	제16회 광주 왕 실 도자기 축제	2013. 9.28 -10.20 (23일간)	경기 도자박물관	빛고 그리고 태우다	전시, 판매, 체험행사, 공연	주최:광주시 주관:광주왕실 도자기축제추진 위원회	공공
3	도자	경상북도 문경시	제15회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2013. 4.27-5.5 (9일간)	문경새재 일원	찻사발에 담긴 전통, 그 깊은 울림!!	전시, 판매, 공연	주최:문경시 주관:문경전통 찻사발축제추진 위원회	공공
4	목	전라남도 담양군	제15회 담양 대나무축제	2013. 5.3-5.8 (6일간)	죽녹원, 관방재림 일원	푸른대숲, 맑은정신	박람회, 체험행사, 공연	주최:담양군 주관:(사)담양대 나무축제위원회	공공
5	종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시	2013 전주 한지문화 축제	2013. 5.2-5.5 (4일간)	한국전통문 화전당, 한 지산업지원 센터, 완주 군 대승한 지마을	전주한지 물결, 한류와 함께 II	박람회, 학술행사, 전시, 체험행사, 공연	주최:전주시,완 주시 주관:전주한지 문화축제조직 위원회	공공
6	금속	울산광역시 북구	제9회 울산 쇠부리축제	2013. 5.10-5.12 (3일간)	북구청광장 일원, 북구문화예 술회관	산업의 두드樂, 쇠부리 울림으로	전시, 체험행사, 공연	주최:울산북구청 주관:울산쇠부리 축제추진위원회	공공
7	도자	울산 광역시 울주군	2013 울산 웅기축제	2013. 5.2-5.5 (4일간)	외고산 웅기마을 일원	웅기, 꿈을 꾸대!	전시, 체험행사, 공연	주최:울산울주군 주관:울산웅기축 제추진위원회	공공
8	섬유	충청남도 서천군	제24회 한산 모시문화제	2013. 6.6-6.9 (4일간)	한산모시관 일원	세계유산 한산모시, 불후의 명작 을 만나다	패션쇼, 체험행사, 전시, 공연	주최:서천군 주관:한산모시문 화제추진위원회	공공
9	도자	전라남도 강진군	제41회 강진 청자축제	2013. 7.27-8.4 (9일간)	강진군 고려청자 요지 일원	흙, 불 그리고 인간	워크샵, 전시, 체험행사, 공연	주최:강진군 주관:강진군향토 축제추진위원회	공공

10	종이	경상북도 안동시	2013 안동 한지축제	2013. 9.27 -9.29 (3일간)	안동한지 공장 일대	한지에 담긴 꿈, 한지에 담을 꿈	전시, 놀이, 체험행사, 공연	주최:안동시 주관:(사)안동한 지문화마을	공공
11	종이	강원도 원주시	제15회 원주 한지 문화제	2013. 9.5-9.9 (5일간)	원주한지테 마파크	한지로 통하다	패션쇼, 체험행사, 전시, 공연	주최:(사)한지개 발원 주관:원주한지문 화제위원회, Gi강원민방	민간
12	종이	경상남도 의령군	제7회 의령 한지 병풍축제	2013. 10.3-10.4 (2일간)	산반시장 주차장, 부림면 일원	천년의 숨결 한지 스미다	공연, 체험행사, 전시, 판매	주최:경상남도 의령군 주관:의령한지병 풍축제위원회	공공
13	도자	경상남도 김해시	제18회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	2013. 10.22 -10.27 (6일간)	김해분청도 자관 일원	불의 향연, 김해분청도 자의 비상	전시, 판매, 체험행사	주최:김해시 주관:김해분청도 자기축제추진위 원회, (사)김해도	공공
14	도자	인천 서 구	제3회 녹청자 축제	2013. 9.28 -9.29 (2일간)	수도권매 립지 녹색 바이오단지 일원	천년의 향기 녹청자 와 국화의 만남	전시, 체험행사, 공연	주최:인천광역시 서구, SL공사 주관: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15	도자	경상남도 경주시	제13회 경주신라 도자기축제	2013. 4.12-4.21 (10일간)	황성공원 일원	오래된 미래와 만나다	전시, 판매, 체험 행사	주최/주관 : 경주 도예가협회	민간
16	종이	경기도 안산시	2013 안산 종이문화 축제	2013. 10.3-10.6 (4일간)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전시관		전시, 체험행사	주최:안산시 주관:예사랑공예 문화원, 한국창작 종이문화원, (사)전통공예문 화협회	공공
17	도자	전라남도 목포시	제14회 목포 생활도자전	2013. 5.1-5.5 (5일간)	평화광장 일원	흙으로 그려 진 세상, 함 께 소통하는 우리	전시, 경매, 체험 행사	주최:목포시 주관:(사)전남도 자기협회	공공

2) 공예 지역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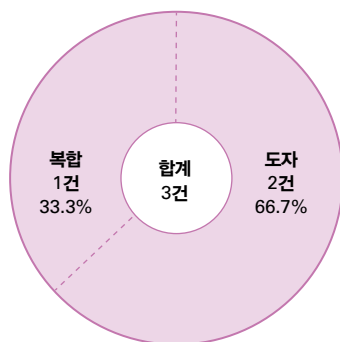
공예국제행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작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성격을 가진 행사로 일반적으로 1-2년 단위, 혹은 기획행사 식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013년 공예와 관련된 국제행사로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제27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있다.

표 4-15 2013년 공예국제행사 개최 현황

	분류	시도명	축제명	개최 기간	장소	주제	내용	주최/주관	주최 유형
1	도자	이천시	제27회 이천도자기 축제	2013.9.28 -10.20 (23일간)	설봉공원 일원	나(陶) 너(陶) 우리 (陶)	전시, 공연 체험행사, 도자판매	주최,주관:이천 도자기축제추진 위원회	민간
2	복수	청주시	2013 청주국제 공예 비엔날레	2013.9.1 -10.20 (40일간)	옛청주연초 제조창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	전시, 공연, 체험행사	주최:청주시 주관: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조 직위원회	공공
3	도자	경기도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	2013.9.28 -11.17 (51일간)	이천세라피 아, 곤지암 도자공원, 여주도자 세상	Communi- ty: u, with uswith me, with yo	전시, 판매, 체험행사	주최:경기도 주관: 한국도자 재단	공공

2013년에 개최된 3건의 행사 중, <제27회 이천도자기축제>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도자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여러 범주와 재료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행사이다.

그림 4-4 2013년 공예국제행사 재료별 개최 현황



· 2013년 3개 국제행사 기준

(1) 제27회 이천도자기축제⁶⁾

이천시에서 주최하고,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제27회 이천도자기 축제가 <나(陶) 너(陶) 우리(陶)>라는 주제로 2013. 9. 28-10. 20일(23일간) 이천시 설봉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이천-도자-축제'라는 세 가지 요인을 재조명하여 도자로 대표되는 이천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세계도자, 공예도시와의 실질적인 작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이 지역 간 도자 네트워크^{Ceramic Interlocal Network}를 구축하였다. 또한 문화향유의 방식으로 도자상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도자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음식, 커피, 텍스타일 등 도자예술과 맞닿아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도자문화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또한 다양한 체험, 학술,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2013년 행사에는 10만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올해 최초로 관(官)에서 민간 주도로 이관되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지역간 도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작가들의 실질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도예가를 초청해 도자 제작과정, 관람객과의 소통시간을 가진 것이 그것이다. 또한 요리, 커피, 텍

6 <http://blog.naver.com/shim9092?Redirect=Log&logNo=10176759952>

스타일, 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예가와 협업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2)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⁷⁾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주제 하에 2013년 9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20일까지 옛청주연초제조창에서 개최되었다. <기획전 1: 운명적 만남, Mother & Child>에는 10개국 20명(국내5/해외15)의 작가가 400여 점의 작품을, <기획전 2: ‘용도’로서의 구조와 발전, 그리고 전개-현대공예에 있어서 ‘용도’와 표현>에서는 9개국 40여 명의 작가가 353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독일공예협회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132명의 작가가 535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초대국가관>과 핀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일본 등 11개 나라에서 14개 단체가 참여하여 국가별 공예트렌드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국제산업관> 등이 개최되었다. 그 외 학술심포지엄과 관람객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가 있었다.

1999년 처음 시작된 이후 7차례나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1인 총감독제도를 공동감독 체제로 채택하면서 여성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첫선을 보인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기대만큼 풍족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기획전 1: 운명적 만남, Mother & Child>과 <조각보 프로젝트>이다. <기획전1>은 국내외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심도있게 다루고 전시설치 방식에서나 내용면에서 공예전시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조각보 프로젝트>는 2013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3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버려지는 현수막 30톤을 수거해 80만 개가 넘는 작은 조각들로 잘라내고, 이를 다시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바느질해 만든 것으로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특히 참여한 외국작가들의 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 <http://okcj.org>

(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⁸⁾

한국도자재단이 주최한 <2013 제27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커뮤니티-나, 너, 우리 다 함께 Community-With Me, With You, With Us’라는 주제로 경기도 이천 세라피아에서 2013년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개최되었다.

행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미주를 대표하는 11명의 국제위원들이 추천하고 전시감독이 최종 지명한 18개국 27명 국내외 중견 작가들의 신작들로 구성되는 본 전시 <GICB 201 국제지명공모전>, 신진작가를 소개하는 특별전시 <HOT Rookies>, 세계 각국의 중견 및 신예 그리고 지역의 전문 도예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의적 실험과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국제도자워크숍 멘토링 캠프> 및 일반인 워크숍 그리고 다양한 학술 교육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각박해지고 개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존, 공생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자라는 따뜻한 매체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인간의 오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도자 CERAMICS라는 매체를 매개로 하여 갈등과 소외,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3) 공예복합문화행사

공예복합문화행사는 아트페어나 박람회와 같이 작가나 화랑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공예복합문화행사 개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16 2013년 공예복합문화행사 개최 현황

	분류	시도명	축재명	개최기간	장소	내용	주최/주관	주최 유형
1	금속	서울시 강남구	제11회 2013 한국 주얼리페어	2013.4.18 ~4.21 (4일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C전시장	전시, 국제 주얼리 컨퍼런스 등	주최:한국무역 협회 외 주관: (주)서울메세nC	민간

8 <http://www.kocef.or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593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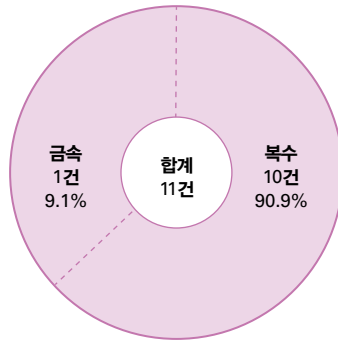
2	복수	서울시 서초구	Design & Art Fair 2013	2013.5.23 -6.2 (11일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전시, 기획전시, 아트마켓, 기업홍보관	주최/주관:마이아트 예술기획 연구소	민간
3	복수	부산시	2013 부산국제 차공예 박람회	2013.6.20 -6.2 (3일간) 2013.10.31 -11.3 (4일간)	부산 벡스코	공예품 전시, 판매	주최:부산 MBC,KNN 주관:(주)메세코리아	민간
4	복수	전라 남도 순천시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2013.8.7 -8.11 (5일간)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대한민국공예품 대전수상작 전시, 부대행사	주최:중소기업청 주관:한국공예협동 조합연합회	공공
5	복수	서울시 서초구	2013 마니프서울 국제아트페어	2013.9.2 -10.12 (15일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군집개인전, 100만원 소품 특별전 등	마니프조직위원회	민간
6	복수	대구시	제8회 대한민국 공예 문화 박람회 <과거-현대의 창조적 부활>	2013.9.1 -9.15 (4일간)	대구 엑스코	전시, 특별전시, 체험행사	주최: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주관:대구경북공예 협동조합	공공
7	복수	서울시 강남구	2013 서울디자인 페스티벌 <나눔 디자인>	2013.12.18 -12.22 (5일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신에 디자이너 관, 학생 디자이 너 전시관 등	주최: (주)디자인하우스 주관:월간DESIGN	민간
8	복수	서울시 종로구	2013 공예트렌드페어 <새 발견, 공예 와 지역성>	2013.12.19 -12.22 (4일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A전시장	기획관, 산업관, 창작공방관, 부대행사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
9	복수	경상 남도 창원시	제10회 경상남도 공예축제	2013.5.10 -5.14 (5일간)	창원시 용지문화 공원	전시, 판매, 체험행사, 경매	주최:경상남도 주관:경상남도공예 협동조합	공공
10	복수	서울시 종로구	제26회 인사동 통문화축제	2013.9.25 -10.1 (7일간)	인사동 일원	음식축제, 거리 행렬, 전시, 패션 쇼, 체험행사 등	주최:종로구 주관:(사)인사동통문 화보존회	공공
11	복수	대전시	제1회 대전국제 아트쇼 2013	2013.10.10 -10.14 (5일간)	대전무역 전시관	전시, 판매	주최:(사)한국미술협 회대전광역시지회 주관:대전국제아트 쇼운영위원회	민간

서울의 경우, 코엑스에서 <제11회 2013 한국주얼리페어>, <2013 서울디자인페스티벌-나눔 디자인>과 예술의 전당에서 <Design & Art Fair 2013>, <2013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2013 공예트렌드페어-새 발견, 공예와 지역성>이 개최되었다. 이외에는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제26회 인사전통문화축제>가 열렸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산시에서 개최한 <2013 부산국제 차공예 박람회>, 전남 순천의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대구시의 <제8회 대한민국 공예문화 박람회: 과거-현대의 창조적 부활>, 경남 창원시에서 <제10회 경상남도 공예축제>가 열렸으며 대전에서 처음으로 <제1회 대전국제아트쇼 2013>가 개최되었다.

복합문화행사를 재료별 범주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11건 중에서 금속을 중심으로 하는 <제11회 2013 한국주얼리페어>를 제외하고는, 10건 모두 공예 재료 전반에 걸친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사였다.

그림 4-5 2013년 복합문화행사 재료 범주별 개최현황



· 2013년 11개 복합문화행사 기준

전시가 전공자 내지는 관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예복합문화행사는 대중과 공예가, 혹은 공예관련 단체와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 공예작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직접적이고 쉽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매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행사별 간략한 소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1회 2013 한국주얼리페어⁹⁾

한국무역협회, 한국귀금속관련단체장협의회, 한국귀금속중앙회,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등이 주최한 <제11회 2013 한국주얼리페어>가 2014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품목으로는 파인 주얼리^{Fine Jewelry}, 다이아몬드, 진주 등의 귀금속, 의류와 패션 주얼리, 시계 등이 전시되었다. 부대행사로는 한국귀금속중앙회 세미나와 (재)월곡주얼리 산업진흥재단 월곡주얼리연구소 세미나, 제13회 국제주얼리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제2회 대한민국 귀금속함량기술 콘테스트 시상식이 있었다.

주최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참가업체는 191개사의 294부스가, 해외 참가업체는 41개사에서 43부스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참가현황으로는 한국이 191개, 이탈리아가 15, 홍콩 12, 일본 5, 스리랑카 2, 기타 7개로 총 232개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방문객이 28,474명, 해외가 979명으로 총 29,453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출상담액이 124백만불, 계약 예상액이 66백만불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한 업체의 참가목적으로는 현장제품판매가 26%, 신제품 소개 및 홍보가 25%, 오더 수주, 계약체결 19%, 고객확보 및 관리가 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입수 및 교환이 3% 뒤를 이었다.

(2) 2013 서울디자인페스티벌 <나눔 디자인>¹⁰⁾

(주)디자인하우스가 주최하고, 월간 <디자인>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12회 2013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 12월 18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나눔 디자인'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역대 최다인 약 7만 7천여 명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개막식에서는 매년 각계의 디자인 트렌드 전문가 20명이 리빙, 공간, 아이덴티티, 제품, 디지털, 그래픽의 6가지 영역에서 선정하는 2013 서울디자인 어워드의 수여식이 있었다.

전시는 <디자인 경영관>,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이너스 랩>과 특별전으로 구성

9 <http://www.jewelfair.com/jewelry/01.php>

10 <http://www.designfestival.co.kr>

된 〈글로벌 디자이너〉, 〈한국 콘텐츠관〉, 〈월간 디자인 특별전〉을 선보였다. 더불어 부대행사로 ‘서울디자인 스팟’과, ‘디자인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먼저, 〈디자인경영관〉에서는 메인 협찬사인 네이버의 디지털 데이터의 순환과 나눔에 대한 전시, 서울시 전역 250디자인스팟네트워크를 통해 동대문디자인파크DDP개관을 알리는 사전홍보 전시, 기아자동차의 KIA Design +Art 프로젝트가 선보였다. 〈디자인 전문회사〉에는 폰그래픽 외 총 81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아트워크 연합전인 〈디자이너스 랩〉에서는 스타 디자이너 15인과 함께 ‘스트로를 소재로 한 아트오브제’를 선보였다. 〈글로벌디자이너〉는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 부부인 마리오 트리마르키Mario Trimarchi와 프리다 도베일Frida Doveil의 디자인 스튜디오 프래자일Fragile이 소개되었다. 〈한국콘텐츠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19명과 각계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한국적 라이프스타일을 작품으로 구현했다. 〈월간 디자인특별〉에서는 전문 디자이너들이 지역 브랜드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농사와 디자인〉전과 〈싸전디자인〉전이 열렸다.

(3) 2013 공예트렌드페어 ‘새 발견, 공예와 지역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3 공예트렌드페어〉가 2013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 국제공예박람회로 첫걸음을 내딛은 공예트렌드페어는 지난 8년 동안 공예인의 정보교류와 건강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자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

2013년 8회째를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에서는 ‘새 발견, 공예와 지역성’이라는 주제 하에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시대적 트렌드를 제시하는 다양한 전시와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크게 기획관과 창작공방관, 산업관, 부대행사로 꾸러지며, 기획관은 특별기획전 〈소(素)백, 물질을 말하다〉, 〈KCDF 사업홍보관〉, 〈해외초청관〉으로 조성되었다.

특별전시 〈소(素)백, 물질을 말하다〉에서는 자연스런 소박의 미를 담고 있는 작품에서부터 화려한 꾸밈의 미를 담고 있는 작품을 비롯하여 실용적 기능성에서 장식적 기능의 조형성이 강조된 작품들을 통해 오늘날의 공예 흐름을 한눈에 살펴 보았다. 창작공

방관은 실험적 무대를 통해 공예의 새로운 방향과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공예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3.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공예작가 100팀의 크리에이티브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산업관>에서는 공예작가, 공예브랜드, 협회 및 단체, 대학교 공예 관련 학과, 지자체 등 150개 팀이 다양한 공예품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영국공예청과 프랑스공예협회가 참여하여 해외공예 현황을 비롯하여 트렌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최측이 발간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31,871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는 전년도 관람객 21,531명과 대비하여 10,339명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600여 명의 개인과 단체, 기관의 참여로 활발한 공예작가 발굴과 공예품의 프로모션을 통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 현장 판매액으로 약 3억 7천 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고, 상담 거래 액 또한 약 5억 8천 만원에 달한다. 또한 개별 참가자 평균 5건의 전시 및 입점 요청이 있었다. <2013 공예트렌드페어>는 총 예산 7억 9백 만원으로 공예작가와 소비자와의 접점 마련을 통해 공예문화 소비확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제26회 인사전통문화축제¹¹⁾

1987년부터 시작된 인사전통문화축제는 전통문화마을에 걸맞는 종로구 지역특성 문화축제로서 여타 축제와는 달리 행사규모, 내용면에서 충분한 볼거리와 흥미거리를 제공한다.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이 대거 관람하는 등 종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이 후원하여 매년 개최하는 축제로서 세계민속제, 축제행진, 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거리기획전으로 열리는 도예실연, 거리화가, 전통 떡메치기 등이 타축제와 차별화되며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인 인사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배경으로 펼쳐지기에 더욱 돋보이는 문화예술의 한마당이다.

이번 축제는 ‘고(古) 고(GO) 종로문화 페스티벌 2013’이라는 주제로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인사마당을 비롯하여 인사동 일원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11 <http://news1.kr/photos/view/?610239>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924000523>

전통문화거리행렬, 전통공예체험, 전통다례체험, 궁중의상패션쇼, 전통악기체험, 김치 만들기 체험, 국악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5) 제1회 대전국제아트쇼 2013¹²⁾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가 주최하고 대전국제아트쇼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대전 국제아트쇼 2013>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대전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아트 페어 성격의 행사로 10월 10-14일 5일간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국내 150여 명의 작가와 해외 10여 개국에서 유명 작가들을 초청되었다. 또한 개인작가 부스 166개를 비롯하여, 해외초청작가 부스, 갤러리 참여부스 등 모두 223 개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일본, 스페인, 독일 등 13개국 61명의 작가들 작품 700여 점이 소개되었다. 예산은 대전미협에서 1억 5천 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보조금 1억 5천 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주최측에서는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를 통해 대전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작가들의 작품 판매를 통해 침체된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4만 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00여 점의 작품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4) 공예공모전

공예공모전은 공예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일반 혹은 작가들을 상대로 특정 주제의 아이디어나 제품 제안, 기획 등을 심사해 상금을 비롯한 특전을 제공하는 콘테스트를 말한다. 2013년 공예공모전을 주최 유형과 재료 범주별로 분석하면 [표 4-17]과 같다.

12 http://www.arthub.co.kr/sub04/board01_view.htm?No=5225&page=116
<http://djart.or.kr/zero/view.php?id=dias&no=10>

표 4-17 2013년 공예공모전 주최 유형 및 재료 범주별 개최 현황

단위: 건

재료 범주	주최 유형		합계
	공공	민간	
도자	8	7	15
금속/귀금속/보석/석	1	1	2
섬유/가죽	1	—	1
종이/한지	2	2	4
유리	1	5	6
칠	—	—	—
목	—	—	—
죽세/초경	—	—	—
기타(특수, 복합 등)	26	47	73
합계	39	62	101

2013년 공예공모전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이 39건으로 38.6%를, 민간이 주최한 공모전이 62건(61.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총 공모전 57건 중에서 공공기관이 30건 (47.4%), 민간기관이 27건 (52.6%)로 민간기관의 주최 공모전이 조금 높았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제1회 프랑스 공예전문 비엔날레 참여작가 모집 공모전>, <2013 공예트렌드페어 창작공방관모집 공모전>, <북촌전통공예체험 Ucc & Photo 공모전>, <2013 한지 상품개발 디자인 경연대회 3기 공모전>, <2013 KCDF 갤러리 슥 입점작가 및 업체모집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비롯하여 <제8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공모전>과 같은 공예국제행사나 <제19회 전국 한지공예대전>과 같은 지역축제와 복합문화행사의 주최 기관인 각 시도가 있었다. 반면 민간기관으로는 (사)한국미술협회나 (사)한국공예문화협회를 비롯하여 사설 갤러리나 문화재단, 그리고 일반기업 등이 있었다.

재료 범주별로는 전체 공모전 101건 중에서 기타 재료가 100건으로 약 2/3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모전이 ‘공예 공모전’ 혹은 ‘참여/입주작가 모집 공모전’, ‘

미술대전 공예부문 공모전' 등과 같은 타이틀 아래 공고가 나기에, 금속, 도자, 디자인, 섬유, 유리, 목, 종이 등의 재료가 복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 단일 재료 범주로는 <한국도자재단 도자 Artwork 전문가 공모전>,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학술행사 공개발표 참여작가 공모전> 등처럼 도자가 15건으로 14.9%를 차지했고, 유리가 6건, 종이/한지가 4건, 금속/귀금속/보석/석이 2건, 그리고 섬유/가죽이 1건, 그리고 기타가 73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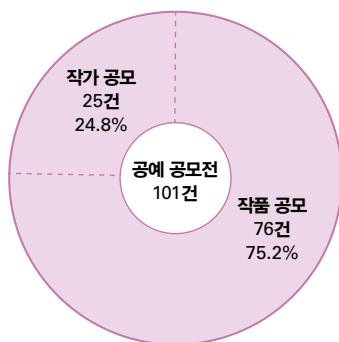
그림 4-18 2013년 공예공모전 재료 범주별 개최 현황

단위: 건

재료 범주	소계
도자	15
금속/귀금속/보석/석	2
섬유/가죽	1
종이/한지	4
유리	6
철	—
목	—
죽세/초경	—
기타(특수, 복합 등)	73
합계	101

2013년 공예공모전을 모집 대상에 의해 구분하면 [그림 4-8]과 같다. 작품공모전은 공예작품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수상작에 상금을 지급하고 작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작품공모전이 76건(75.2%), 기획전 참가나 창작센터 입주작가 공모가 25건(24.8%)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6 2013년 공예 공모전 모집 현황



· 2013년 101개 공모전 기준

2012년 현황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공모전은 특정 단체에서 주관하거나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참여작가 모집 공모전>이나 <제8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공모전>, <2013 평창비엔날레 국민 공모전>과 같이 지역축제나 행사의 부대행사로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도자재단 멘토링캠프Ⅱ 참여멘티 공모>나 <중소도자업체 감성디자인 제품기술개발지원 사업공고>, <2013 한복디자인 경연대회>와 같이 구체적이고 뚜렷한 주제를 제시한 공모전을 비롯하여 <신당창작아케이드 2013년도 입주작가 공모>, <2014 창작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 <한국도자재단 세라믹스창조공방 입주작가 공모>와 같이 작가발굴이나 작업시설을 제공하는 공모전이 있어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공모전의 성격을 완화시킨 공모전도 있었다.

특히 <2013 Taiwan Ceramics Residency>나 <2013 ICMEA Emerging Artists Competition>, <2013 파리국제예술공동체CITE Internationale des Arts 입주작가 공모> 등과 같은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국내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제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2013 한국전통 상징문화상품 공모전>, <2013 백제문화상품 전국공모전>, <한지상품개발 디자인 경연대회> 등과 같이 문화상품공모전이 다수 개최되어, 추후 산업공예 전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절 · 결론

1. 공예전시와 행사 분석

공예전시와 행사는 일정 공간에서 공예가와 기획자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이자, 작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판매하는 기회가 된다. 공예행사는 이러한 전시의 연장선이자 확장된 모습으로, 다수의 기획자와 공예가, 관람객이 작품감상 이외의 여러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소통하는 현장이다. 공예전시와 행사는 대중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공간이기에 공예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반응은 물론 문화예술계의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공예전시와 행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범주별로 전시를 분석해 보면, 예술공예가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공예와 취미공예가 소수 개최된 것으로 보아 1차 범주 간 개최되는 전시현황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현재 기획-제작-유통-판매의 단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산업전시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시회를 통해 작품이 주로 판매되는 유통경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둘째, 재료 범주별로 전시를 구분하면 도자, 금속/귀금속/보석/석, 섬유공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이 도자(39개), 금속/귀금속/보석/석(30개), 섬유/가죽(29개), 목(19개) 순으로 공예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되는 한편, 졸업 이후의 작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공예산업 ‘소재별 매출 비율’에서도 도자공예가 45%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재료에 비해 수요가 많고, 또 이것이 작품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공예전시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전통공예와 산업공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장 공예정책 ‘공예정책 분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예정책이 문화예술과 산업의 관점에 진행되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즉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 정책과 연계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업공예의 경우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들과 협력하여 문화상품이나 향토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과제와 전망

첫째, 공예분야 전시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기관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김달진미술연구소나 네오룩, 클레이파크, 공예인 등의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전년도와 행사를 올해 수집하다 보니, 없어진 홈페이지나 충분치 않은 정보가 많았다. 정보수집의 한계와 문제점은 곧 정확한 정보수집과 추후 공예전시와 행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과도 연계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2014년 ‘KCDF 공예전문 DB’를 오픈하여 공예관련 종사자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전시·행사·공모전’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공예관련자들과 단체, 협회, 작가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외 소식, 특히 지방과 해외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운영·관리한다면, 추후 공예백서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은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예트렌드페어>는 국내 공예작가 및 관계자들이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공예가들의 정보교류는 물론이거니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장(場)이자,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축제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한 해의 공예 트렌드를 전망하고, 앞으로 나가갈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해 왔다.

따라서 전문적인 공예 복합문화행사인 <공예트렌드페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획하여 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각 부스에 참여하는 작가의 선별에서부터 관련 전시 및 부대행사를 비롯하여 공모전 등 전반적인 부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 행사를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장 공예연구

1절 개관

1. 공예연구의 정의
2. 공예연구의 범주

2절 공예연구

1. 학회 및 학술논문
2. 학위논문
3. 출판물
4. 학술행사
5. 연구단체 및 연구보고서

3절 결론

1. 공예연구 분석
2. 제언

5장 공예연구

1절 · 개관

공예연구는 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행위 전반을 다루는데, 본 백서에서는 공예역사, 공예이론/비평, 공예작품연구, 상품개발 및 산업, 공예기술/기법/재료실험/공예교육연구라는 6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예연구의 방향은 학술논문의 경우는 전통과 공예역사에, 학위논문은 예술공예와 공예작품연구에, 출판물의 경우엔 취미공예에 관한 것이 많은 동향을 보였다.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석박사 학위논문이나 단행본 출판에서 연구의 양적 향상이 이루어졌다.

1. 공예연구의 정의

공예연구는 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나 분석, 해석, 평가 등을 하는 학술적 행위와 이에 대한 결과물 전체를 포괄한다. 연구의 대상으로서 공예는 실용적인 일상용품이면서도 아름다운 물품이라는 이중적인 면을 지니며, 또한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예작품이라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행위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한 점에서 공예연구 역시 작품이자 생산물이며 다양한 질료와 기법으로 숙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관점과 행위들로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간 공예연구는 전통과 역사에 근거를 둔 것이 다수였다면, 최근 들어 작품연구와 취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2. 공예연구의 범주

공예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책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에서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공예의 전문가들이 공예 관련 논문을 발표한 학회와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살펴보았다. 공예는 재료의 범주가 다양한만큼 기법, 제작 방식에 대한 것부터 공예작품의 시각적 특성, 물성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해석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질적인 재료들 간의 조화, 공예와 디자인 혹은 예술과의 혼용 등 공예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예교육과 정책 및 산업의 문제 역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가진 2013년 논문들의 경향을 파악한다면, 현재 공예연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공예 관련 석사와 박사 학위논문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공예 관련 전문교육의 방향 역시 진단해볼 수 있었다. 학위논문은 현재 공예 관련 대학의 연구동향과 교육동향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단행본, 번역서, 정기간행물 등 시종에서 출간 및 판매되고 있는 공예 관련 출판물을 통해 일반 대중이 가지는 공예에 대한 관심방향을 알 수 있었다. 출판물은 이를 소비하는 대중의 기호에 민감한 것이며, 학술분야와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예연구의 결과물들이 있다면,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행사도 있다. 사실상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술대회 역시 중요한 학술행사이지만 학술논문으로 대신하고, 그 외에 학회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학술행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학과 민간에서 주관하는 공예 관련 연구단체와 주요 연구기관에서 2013년에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연구단체와 연구보고서의 경우 현 사회와 공예계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한 경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예연구를 좀 더 세밀하고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구분하였다. 먼저 공예 1차 범주는 앞서 1장 2절의 공예의 범주에서 명시한 바([그림 1-1] 참조)에 따르며, 재료범주는 4장 1절 2. 공예전시와 행사의 범주에서 제시한 재료별 범주기준([표 4-2]

참조)을 따랐다. 이어 다양한 측면의 관점이 필요한 공예연구의 특성상, 연구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예연구를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범주는 『2012 공예백서』의 구분과 정의 및 범위를 토대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장하였다.¹⁾

표 5-1 공예연구 분석을 위한 연구 범주구분의 정의 및 범위

연구범주	정의 및 범위
공예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대상으로서 공예 연구 •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전통공예연구(국내외불문) • 미술사에서 다루어진 공예에 대한 연구
공예이론/ 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개념의 이론과 비평적 연구 • 현존하는 작가에 대한 비평연구 • 관련 기반 이론 연구
공예작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작가의 작품창작을 위한 배경 연구 및 작가적 태도와 예술적 표현주제에 대한 연구 • 조형적 실험, 조형적 가치 연구
상품개발 및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연구 • 전통 및 현대공예 기술, 기법, 상징을 활용한 상품화, 관광/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제도 및 산업과의 연계와 생산과 유통활성화 등의 실무적인 접근*
공예기술/기법/ 재료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 제작관련 기술과 기법, 재료에 관한 연구 • 재료나 제작기법에 따른 보존연구*
공예교육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교육의 정규교육과정 안에서의 교육연구 • 평생교육 및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연구 • 전통공예 계승을 위한 교육연구 • 기타 공예를 이용하거나 혹은 공예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과 그 방식 연구*

· * 2012년 대비 추가 및 변형한 내용

『2012 공예백서』의 연구 범주 중, 공예역사에 포함되었던 ‘현재의 입장에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제외하였다. 학술논문을 비롯하여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공예연구에서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활발한데, 그러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1 허보윤, 황승욱, 김정현, 김유라, 윤이랑, 『2012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12

인 방안 및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주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방향에 맞춰 연구범주 구분을 설정하였다. 또한 『2012 공예백서』에서는 공예 이론/비평에 산업, 제도, 유통 등 기타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문화콘텐츠를 비롯하여 문화·예술의 산업화에 관심과 연구가 많이 되는 만큼 상품개발과 함께 묶었다. 실제 전통문화를 산업화하는데 있어서 공예의 상품화와 전통공예의 산업이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범주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공예 연구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분석과 동향 파악이 용이하였다.

2절 • 현황

2013년 공예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예 관련 학회와 학술논문, 학위논문, 출판물, 그리고 학술행사, 연구단체와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출판물, 연구보고서는 간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학술행사는 행사가 이루어진 날짜를 중심으로, 그리고 학회와 정기간행물, 연구단체는 2013년에 공예 관련 활동을 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1. 학회 및 학술논문

공예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하여 2013년에 학술대회와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 및 게재된 학술논문을 살펴보았다. 공예 관련 학술논문은 공예 관련 학회 뿐 아니라 기타 학회에서도 폭넓게 발표 및 게재가 되는 만큼 논문의 주제가 공예와 관련한 경우를 그 범위로 삼았다.

1) 공예정책 영역별 분류: 문화예술/문화산업

2013년에 공예 관련 학술논문을 1편 이상 발표 및 학술지에 게재한 학회는 총 79개이며, 관련 학술지는 84개이다.(참고자료 4-1 참조) 이 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것은 54개 학술지이며 등재후보는 8개이다.

이 중 5편 이상의 공예 관련 논문이 실린 학술지는 한국도자학회의 『한국도자학연구』(20편, KCI 등재후보), 한국조형디자인학회의 『한국공예논총』(17편, KCI 등재후보), 한국기초조형학회의 『기초조형학연구』(13편, KCI 등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야외고고학』(6편, KCI 등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의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6편, KCI 등재), 한국콘텐츠학회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5편, KCI 등재),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의 『디지털디자인학연구』(5편, KCI 등재),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의 『백제문화』(5편, KCI 등재), 한국가구학회의 『한국가구학회지』(5편, KCI 등재)가 있

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공예 관련 학술논문이 실린 학술지가 모두 KCI 등재 후보 이상으로, 2013년에 양질의 공예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2 공예 관련 주요 학회 개요

한국 도자학회	설립구분	사단법인	설립일	1990.6.9.	
	연구분야	도예	대표	모인순	
	전화	02-920-7491	홈페이지	http://www.kscad.or.kr	
	회원현황	정회원	준회원	명예/영구/특별회원	합계
	학술지 발간현황	학술지명	ISSN	간기	창간년도
한국도자학연구		1738-8473	연 2회	2004	
한국 조형디자인 학회	설립구분	사단법인	설립일	1997.3.1.	
	연구분야	공예	대표	임옥수	
	전화	02-325-6454	홈페이지	http://www.art-design.or.kr	
	회원현황	정회원	준회원	명예/영구/특별회원	합계
	학술지 발간현황	학술지명	ISSN	간기	창간년도
한국공예논총		1229-1412	연 4회	1997	
한국 복식학회	설립구분	사단법인	설립일	1975.12.19.	
	연구분야	복식	대표	최해주	
	전화	02-324-1511	홈페이지	http://www.kscad.or.kr	
	회원현황	정회원	준회원	명예/영구/특별회원	합계
		3,758	—	—/266/—	4,024
	학술지 발간현황	학술지명	ISSN	간기	창간년도
복식		1229-6880	연 8회	1997	
한국 민속학회	설립구분	사단법인	설립일	1955.8.17.	
	연구분야	민속	대표	전경옥	
	전화	010-6383-9162	홈페이지	http://www.kscad.or.kr	
	회원현황	정회원	준회원	명예/영구/특별회원	합계
		649	—	—	649

한국 민속학회	학술지 발간현황	학술지명	ISSN	간기	창간년도
		한국민속학	1738-8473	연 2회	1968

·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

이러한 학술논문의 통계와 함께 학회의 역사, 활동 등의 종합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예와 관련한 4개의 주요 학회를 살펴보았다. 2013년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학회는 『한국도자학연구』를 연 2회 발간한 한국도자학회였다. 그리고 『한국공예논총』을 연 4회 발간하는 한국조형디자인학회에서는 공예전반에서부터 조형예술과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한국기초조형학회에서도 많은 공예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나, 시각예술을 비롯한 조형이라는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며 활동하는 연구자들 역시 공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예 연구의 주요 학회로 다루지 않았다.

이어 2013년에는 공예 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되진 않았지만, 복식 분야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며 복식 및 섬유/가죽 공예와 관련한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는 한국복식학회가 있다. 또한 전통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한국민속학회가 있다. 한국민속학회 역시 1968년 『한국민속학』을 창간하며 전통문화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공예와 관련한 양질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²⁾

2) 학술논문

학회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이다. 일부 학회에서는 회원의 전시나 공모 등을 부수적인 행사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양질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학술지에 게재되느냐가 학회의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2012 공예백서』에서는 학회의 발표논문과 게재논문을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2 『2012 공예백서』에서는 한국기초조형학회를 비롯하여 한국미술교육학회를 포함시켰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이 두 학회가 공예보다는 더 넓은 조형 혹은 미술교육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학회에서 제외하였다.

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발표논문과 게재논문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KCI 등재 후보 이상의 학회에서는 절차상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재되지 않은 발표논문의 경우 양질의 논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³⁾ 그러한 점에서 본 백서에서는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2013년의 공예관련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표 5-3 범주별 공예관련 학술논문 현황⁴⁾

범주	전통공예	산업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	복합	합계	비율(%)
공예역사	80	0	4	0	1	85	39.2%
공예이론/비평	2	1	3	0	3	9	4.1%
공예작품연구	2	0	10	0	0	12	5.5%
공예상품개발 및 산업	2	28	1	0	17	48	22.6%
공예기술/기법/재료 실험	18	27	4	0	4	53	24.4%
공예교육 연구	1	0	0	4	4	9	4.1%
합계	105	56	22	3	29	216	100%
비율(%)	48.6	25.9	10.2	1.4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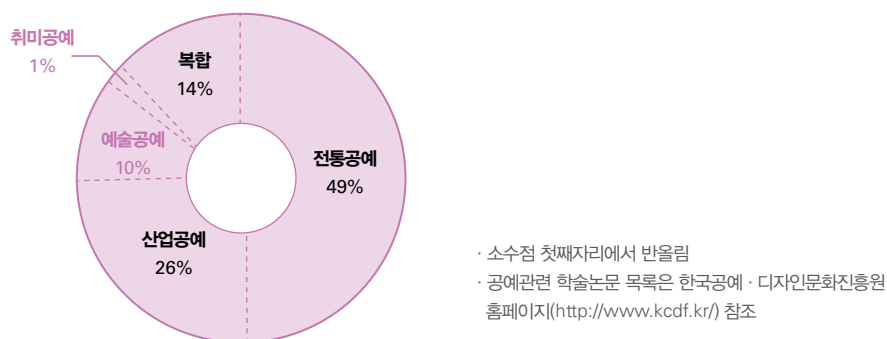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누리미디어(<http://www.dbpia.co.kr>), 교보문고 스킨(<http://scholar.dkyobobook.co.kr/>)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예 관련 학술논문 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에 공예 관련 논문이 1편 이상 발표된 학술지는 84개이며 관련 학회는 79개이다. 그리고 총 게재된 논문은 216편이다.⁵⁾ 이 중 공예 1차 범주에 있어서는 전통공예가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뒤이어 산업공예

- 3 물론 게재되지 않은 발표논문이 모두 기준미달이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게재논문을 위한 심사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예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84개 중 62개가 KCI 등재 후보 이상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타당성을 가진다.
- 4 [표 5-3]에서는 복합이 21.2%(46편)로 나타났지만, 이 중 전체 학술논문대비 17.4%(34편)에 해당하는 논문이 전통과 산업이 복합된 분야였다. 나머지 5.1%(9편)에 해당하는 논문은 '공예', '디자인'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에 대한 연구로 모든 1차 범주를 아우른다.
- 5 공예관련 학술논문 추출은 학술정보관련 포털사이트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누리미디어(<http://www.dbpia.co.kr>), 교보문고 스킨(<http://scholar.dkyobobook.co.kr/>)에서 공예와 디자인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2013년에 발간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공예 관련 논문만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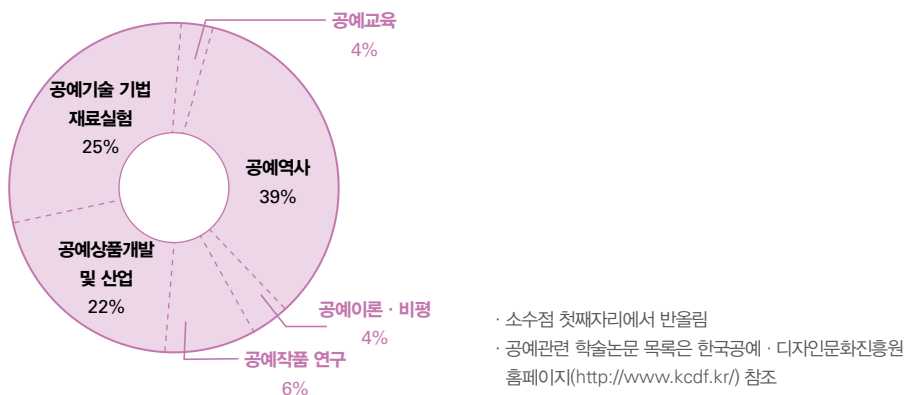
가 25.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전통과 산업 공예를 복합적으로 다룬 논문이 17.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3년 학술논문에서는 이 두 분야가 공예연구의 중요한 이슈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1차 범주별 공예 관련 학술논문 비율



연구 범주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예역사에 관한 학술논문들로 85편(39.2%)이 게재되었고, 그 다음으로 공예기술/기법/재료실험이 53편(24.4%), 공예상품개발 및 산업이 49편(22.6%)이다. 이러한 점은 전통공예에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어서 공예의 기술적인 측면과 산업화하는 측면, 즉 공예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연구 범주별 공예관련 학술논문 비율



이 중 1차 범주에서 전통공예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역사를 연구한 논문이 80편으로 가장 많았다. 「계룡산 학봉리 분청사기 역박지문의 특성과 철화분청사기의 상관관계 연구」⁶⁾, 「조선 후기 나전 유물에 관한 연구: 나전베갯모(민속 1172)의 분석을 중심으로」⁷⁾ 등과 같이 특정 유물에 관한 연구와 함께 「천안-아산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제작 특성과 원료산지 해석: 박지르레 유적을 중심으로」⁸⁾ 등과 같은 유적지 연구도 있었다. 또한 「한국 근대기의 공예상황」⁹⁾ 등과 같은 특정 시대의 공예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공예를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논문들과 더불어, 해외의 공예 역사 연구 또한 적지 않았다. 「이란 사파비왕조(1501~1722) 청화도기에 보이는 중국 수출자기의 영향」¹⁰⁾, 「필리핀 산타 쿠르즈(Santa Cruz) 침물선 출토 무역도자기에 대한 연구」¹¹⁾ 등과 「근대 이전의 전통적 제작방식에 의한 중국 경덕진 도자산업의 특징 고찰」¹²⁾과 「중국 원대청화자기 문양방식에 나타난 몽고적 요소」¹³⁾ 등이 있었다. 이처럼 공예 역사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삼국시대, 조선, 근대 등 다양한 시대를 다루고 있고 해외의 공예 역사 역시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공예의 경우, 공예상품개발 및 산업과 연계되는 논문이 28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전주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디지털 프린팅 텍타이를 중심으로」¹⁴⁾, 「한지/닥 섬유제품의 인체 생리 반응 및 쾌적성 평가」¹⁵⁾ 등과 같이 공예 상품 제작과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디자인 경영 전략이 산업공예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¹⁶⁾ 등과 같은 경영전략연구, 「장신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체계에 관한 연구」¹⁷⁾ 등과 같은 산업을 위한 표준화체계 연구, 그리고 「제주지역 도자 산업현황과 실태조사 연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¹⁸⁾ 처럼 지역의 공예산업실태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 6 최성재, 「계룡산 학봉리 분청사기 역박지문의 특성과 철화분청사기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0, No.1, 한국도자학회, 2013
- 7 신희경, 「조선 후기 나전 유물에 관한 연구: 나전베갯모(민속 1172)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9, No.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3
- 8 김란희, 이찬희, 정재원, 「천안-아산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제작특성과 원료산지 해석: 박지르레 유적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Vol.29, No.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3
- 9 장주영, 「한국 근대기의 공예상황」, 『디자인학연구』, Vol.26, No.4, 한국디자인학회, 2013
- 10 박신희, 「이란 사파비왕조(1501~1722) 청화도기에 보이는 중국 수출자기의 영향」, 『미술사연구』, No.27, 미술사연구회, 2013
- 11 김인규, 「필리핀 산타 쿠르즈(SantaCruz)침물선 출토 무역도자기에 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Vol.10, No.1, 한국도자학회, 2013

또한 공예기술/기법/재료실험 연구범주에서 산업공예와 연계되는 경우가 27편이 있었다. 「도자기 생산과 3D Printing 기술의 융합 연구」¹⁹⁾ 등과 같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단삼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²⁰⁾ 등과 같은 공예재료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또한 공예 외의 전문기술분야에서 공예 기술과 재료를 연구한 「공예용 한지 종류에 따른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²¹⁾ 등을 통하여, 공예 내에서 뿐 아니라 외부의 관심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공예교육연구는 게재된 논문이 많지 않으며(9편, 4.1%),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연구: 천연비누공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²²⁾ 등이 있다. 또한 공예이론/비평 범주는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세계미술 속의 한국 현대공예」²³⁾ 등이 있으며, 공예 작품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 현대도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²⁴⁾ 등이 있다. 하지만 공예역사나 상품개발 및 산업, 공예기술/기법/재료실험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공예이론/비평 4.1%, 공예작품연구 5.5%), 이는 공예연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범주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 12 강성곤, 「근대 이전의 전통적 제작방식에 의한 중국 경덕진 도자산업의 특징 고찰」, 『한국도자학연구』 Vol.9, No.2, 한국도자학회, 2013
- 13 이용욱, 장정란, 「중국 원대청화자기 문양방식에 나타난 蒙古적 요소」, 『한국도자학연구』 Vol.9, No.2, 한국도자학회, 2013
- 14 김기훈, 문미라, 「전주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디지털 프린팅 벡타이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Vol.21, No.3, 복식문화학회, 2013
- 15 임순, 「한지닥 섬유제품의 인체 생리 반응 및 쾌적성 평가」, 『복식』 Vol.63, No.5, 한국복식학회, 2013
- 16 김중선, 「디자인 경영 전략이 산업공예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3
- 17 임철민, 「장산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제16권 4호,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3
- 18 오창윤, 「제주지역 도자산업현황과 실태조사 연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Vol.10, No.2, 한국도자학회, 2013
- 19 최정훈, 김용수, 김진호, 노형구, 조우석, 「도자기 생산과 3D Printing 기술의 융합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3권 제4호(통권 제40호), 한국디지털디자인학의회, 2013
- 20 남정란, 이정숙, 「단삼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한국의류학회지』 Vol.37 No.7, 한국의류학회, 2013
- 21 임현아, 박성철, 주용찬, 최미숙, 이규상, 「공예용 한지 종류에 따른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펄프·종이공학회기술발표논문집』 No.4,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13
- 22 공풍옥, 이선숙,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연구-천연비누공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Vol.13, No.1, 한국예술치료학회, 2013
- 23 박남희,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세계미술 속의 한국 현대공예」, 『미술사학보』 Vol.40, 미술사학연구회, 2013
- 24 방창현, 이현국, 「한국 현대도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4, No.6, 한국기초조형학회, 2013

2.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을 말한다. 본 백서에서는 각 논문이 통과된 학교의 학과 및 전공은 고려하지 않고, 2013년에 학위를 받은 공예 관련 논문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²⁵⁾

1) 박사학위논문

2013년에 발간된 공예 관련 박사학위논문 수는 총 23편으로 2012년 13편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중 공예이론/비평이 11편으로 47.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예술 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7편)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술논문에서 단 3편인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학에서는 공예를 보다 순수한 예술과 학문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 논문으로는 「현대도예의 아방가르드 전략으로서 사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칸프런테이셔널 도자(Confrontational Ceramics)를 중심으로」²⁶⁾ 와 「도자조형의 자연 직관에 의한 우연의 표현 연구」²⁷⁾ 등이 있다.

이외에 공예역사 관련 논문은 「한대 칠기 연구: 목태와 협저태의 지역적 차이와 제작기법 중심으로」²⁸⁾, 공예상품개발 및 산업에 관한 논문은 「한지산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²⁹⁾ 외 5편이 있었다. 또한 공예기술/기법/재료실험의 연구로는 「생성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한 주얼리디자인 적용 연구: Parametric Design 이론을 중심으로」³⁰⁾ 외 3편이 있고, 공예작품연구로는 연구자의 작품을 분석한 「상감기법을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³¹⁾가 있다. 반면 공예교육과 관련된 박사학위논문

25 이러한 점에서 6장 공예교육에서 살펴볼 고등 공예교육 현황 중, 해당 학과 및 전공의 석·박사학위 통계와 상이하다. 공예교육 현황에서의 석·박사학위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교육통계연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학과나 전공 명에 공예가 들어가는 경우만 추출한 통계치이다.

26 홍지수, 「현대도예의 아방가르드 전략으로서 사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칸프런테이셔널 도자(Confrontational Ceramics)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7 정충미, 「도자조형의 자연 직관에 의한 우연의 표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8 이정애, 「한대 칠기 연구: 목태와 협저태의 지역적 차이와 제작기법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9 김동훈, 「한지 산업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0 남상원, 「생성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한 주얼리디자인 적용 연구: Parametric Design 이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은 2013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표 5-4 범주별 박사학위논문 수

범주	전통공예	산업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	복합	합계	비율(%)
공예역사	1					1	4.3%
공예이론/비평		1	7		3	11	47.8%
공예작품연구			1			1	4.3%
공예상품개발 및 산업	1	2		1	2	6	26.1%
공예기술/기법/재료실험	1		2		1	4	17.4%
공예교육 연구						0	0%
합계	3	3	10	1	6	23	100%
비율(%)	13.0	13.0	43.5	4.3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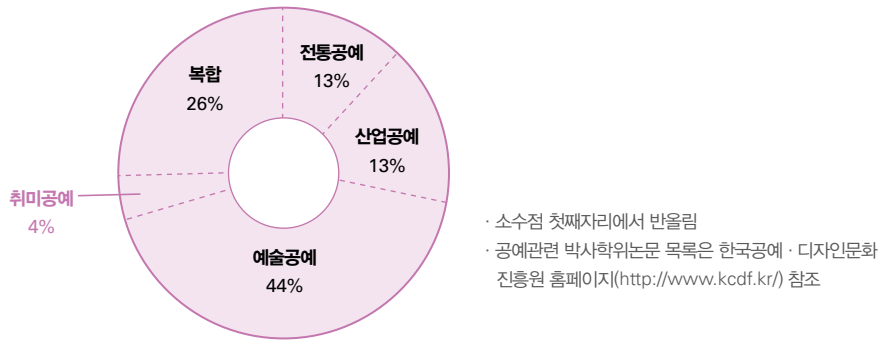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예관련 박사학위논문 목록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학술논문과 달리 공예 관련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공예역사보다 공예이론/비평에 관한 연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공예 1차 범주별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학술논문에서 전통공예가 48.6%로 과반수 정도를 차지했다면,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예술공예가 43.5%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복합인데, 이는 전통공예와 산업공예, 혹은 전통공예와 예술공예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이므로, 전통공예의 성격을 가진 논문이 예술공예에 버금가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31 서해수, 「상감기법을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2 전통공예만을 다룬 논문은 3편이지만 전통공예를 다른 범주로 복합한 논문이 6편이므로, 전통공예적 성격을 가진 논문을 9편으로 볼 수 있다. 표에서는 중복집계가 되므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림 5-3 1차 범주별 공예관련 석사학위논문 비율



2) 석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범주에서는 공예작품연구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13편의 논문 중 101편으로 전체 공예 관련 석사학위논문 중에서 47.4%를 차지한다. 이는 학술논문이나 박사논문과 상당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본인의 작품과 관련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지각 사고에 의한 도자이미지의 현대적 표현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³³⁾, 「구체관절인형의 구조를 응용한 도자 조형 연구: 본인의 감정표현을 중심으로」³⁴⁾ 등과 같이 예술적 시각으로 연구자의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공예와 관련한 개념을 연구하기도 하며, 「한국 전통 색채와 이미지의 표현에 관한 고찰: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³⁵⁾나 「벽사진경의 염원이 담긴 섬유작품 연구: 천과 바느질을 이용한 본인작품을 중심으로」³⁶⁾ 등과 같이 연구자의 작품을 전통공예와 예술공예를 복합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예상품개발과 산업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을 살펴보면, 「한국의 비빔기 형태와 디자인 제안: 도자식기를 중심으로」³⁷⁾, 「꽃담 문양을 활용한 장신구 문화상품

33 김연옥, 「시지각 사고에 의한 도자이미지의 현대적 표현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4 이낙영, 「구체관절인형의 구조를 응용한 도자 조형 연구: 본인의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5 윤인자, 「한국 전통 색채와 이미지의 표현에 관한 고찰: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6 홍수정, 「벽사진경의 염원이 담긴 섬유작품 연구: 천과 바느질을 이용한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7 문난희, 「한국의 비빔기 형태와 디자인 제안: 도자식기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디자인 연구」³⁸⁾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상품개발 아이디어에 대한 논문이 있고, 「한국전통 소재를 이용한 글로벌 문화상품개발전략 연구」³⁹⁾와 같이 보다 넓은 관점으로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종이조형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유아기의 종이조형 “S”제품을 중심으로」⁴⁰⁾나 「지역공예문화산업의 정체성 구축을 위한 장소브랜딩 전략에 관한 연구: 커뮤니티비즈니스 운영을 중심으로」⁴¹⁾ 등과 같이 마케팅과 연관한 연구도 있으며, 국내에 대한 것뿐 아니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패럴 텍스타일 디자인: 2013·14년 F/W 트렌드를 중심으로」⁴²⁾와 같은 해외 공예시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표 5-5 범주별 석사학위논문 수

단위: %

범주	전통공예	산업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	복합	합계	비율(%)
공예역사	14		1		3	18	8.5%
공예이론/비평			2		2	4	1.9%
공예작품연구			87		14	101	47.4%
공예상품개발 및 산업	2	16	2		14	34	16.0%
공예기술/기법/재료실험	11	7	9		3	30	14.1%
공예교육연구	8		1	15	2	26	12.2%
합계(%)	35	23	102	15	38	213	100%
비율(%)	16.4	10.8	47.9	7.0	26.1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예 관련 석사학위논문 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38 백광은, 「꽃담 문양을 활용한 장산구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9 한소라, 「한국전통소재를 이용한 글로벌 문화상품개발전략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0 김은주, 「종이조형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유아기의 종이조형 “S”제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1 정보라, 「지역공예문화산업의 정체성 구축을 위한 장소브랜딩 전략에 관한 연구: 커뮤니티비즈니스 운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2 최희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패럴 텍스타일 디자인: 2013·14년 F/W 트렌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공예기술/기법/재료실험에서도 상품개발 및 산업과 비슷한 수치로 석사학위논문이 작성되었다. 「투각기법을 이용한 도자장식 연구: 신사임당 초충도(草蟲圖)를 중심으로」⁴³⁾나 「오방색을 이용한 차도구의 유약 연구」⁴⁴⁾ 등과 같이 전통공예 기법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와 보다 본격적으로 「스테인리스 컷러리(Stainless Cutlery)를 응용한 금속 조형 연구」⁴⁵⁾ 등과 같이 특정 기법이나 기술을 활용한 공예작품제작방식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예소재로서의 고분자복합재료 연구: 섬유강화플라스틱을 중심으로」⁴⁶⁾ 등과 같이 보다 전문적인 공예재료연구에 관한 석사학위논문도 발표되었다.

비교적 비율이 낮은 공예교육연구는 박사학위논문에서는 한편도 작성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종이/한지, 목, 도자 등 여러 공예 재료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주로 하였는데, 「종이를 활용한 공예교육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⁴⁷⁾, 「목공예활동을 통한 협동학습이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⁴⁸⁾, 「찰흙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에 관한 지도안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⁴⁹⁾, 「추상적 표현을 활용한 칠보공예 지도방안: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⁵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예역사와 공예이론/비평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산수미학을 응용한 도자표현 연구-미학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⁵¹⁾와 같이 동양미학을 적용한 경우를 비롯하여 3편의 공예이론/비평논문이 있다. 이 중 「한국 공예비엔날레의 정체성 연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주제·전시·담론을 중심으로」⁵²⁾는 공예비엔날레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더불어 공예역사의 경우,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동못신 연구」⁵³⁾ 등과 같은 한국 전통공예 뿐만 아니라, 「중국 남송(南宋) 용천

43 최경란, 「투각기법을 이용한 도자장식 연구: 신사임당 초충도(草蟲圖)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4 김행연, 「오방색을 이용한 차도구의 유약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5 차기영, 「스테인리스 컷러리(Stainless Cutlery)를 응용한 금속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6 한나라, 「공예소재로서의 고분자복합재료 연구: 섬유강화플라스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7 강정수, 「종이를 활용한 공예교육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8 박정우, 「목공예활동을 통한 협동학습이 지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적응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9 박창순, 「찰흙을 활용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 관한 지도안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0 곽명숙, 「추상적 표현을 활용한 칠보공예 지도방안: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1 용주, 「산수미학을 응용한 도자표현 연구: 미학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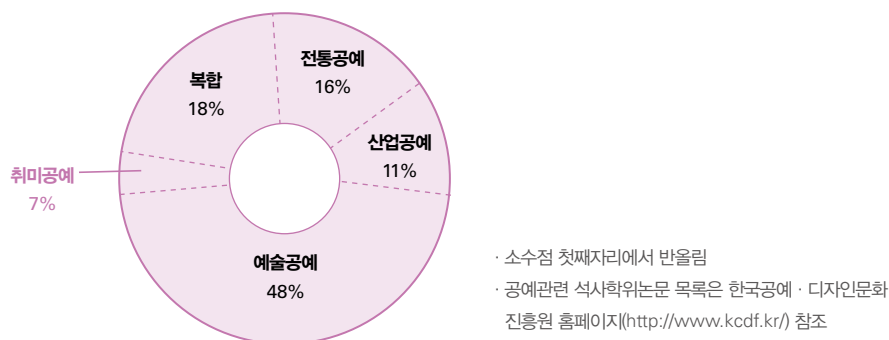
52 이주연, 「한국 공예비엔날레의 정체성 연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주제·전시·담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3 박수동,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동못신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龍泉 청자에 관한 연구」⁵⁴⁾ 등이나 「아르데코 장신구에 관한 연구」⁵⁵⁾ 등 해외의 공예역사에 대한 논문도 보인다.

이처럼 비록 석사학위논문에서 공예작품연구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박사학위논문처럼 예술공예 관련 논문이 두드러진다. 102편의 논문이 예술공예를 다루고 있어서 공예 관련 석사학위논문 전체에서 47.9%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림 5-4 1차 범주별 공예관련 석사학위논문 비율



석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모두 예술공예가 다른 범주에 비하여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술논문에서 예술공예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과 대조를 이룬다. 더불어 학술논문에서는 공예역사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공예이론/비평이 부족한 반면,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공예이론/비평관련 연구가 많았고 석사학위논문에서는 공예작품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3. 출판물

현재 유통되는 출판물의 경우, 공예 관련 모든 출판물이 전문적인 공예연구서는 아니다.

54) 냉수, 「중국 남송(南宋) 용천(龍泉)청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5) 안정연, 「아르데코 장신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하지만 공예에 대해 일반적인 관심이 반영된다는 점을 전제로 공예 관련 내용의 단행본과 번역서, 정기간행물을 살펴보았다. 공예 관련 출판물은 2012년에는 단행본 91권, 번역서 62권으로 총 153권이 출판되었지만, 2013년에는 단행본 127권과 번역서 34권으로 총 161권이 출판되었다. 번역서는 다소 줄었지만 단행본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공예 관련 출판물은 증가하였다.

1) 단행본

2013년에 출판된 단행본은 총 127권으로 그 중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한국도자재단 등의 국·공립기관 및 단체에서 발간한 단행본(31권)과 서울대학교 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제주박물관, 고궁박물관, 치우금속공예관 등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단체에서 제작한 도록 및 안내서(16권)도 포함된다.

공예 1차 범주별로 단행본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갖는 것은 취미공예로 39.4%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전통공예, 예술공예, 산업공예의 순으로 앞서 살펴본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과 차이점을 가진다.

표 5-6 2013년 1차 범주별 단행본 수

범주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복합	합계
단행본(권)	20	35	15	50	7	127
비율(%)	15.7	27.6	11.8	39.4	5.5	100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 통합검색(<http://www.dlibrary.net>),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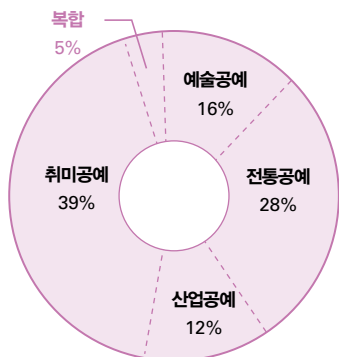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행본 전체목록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취미공예가 단행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떠한 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료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재료보다는 취미공예에서 많이 활용되는 재료와 공예제품을 다루는 서적이 많았다. 가령 알공예,⁵⁶⁾ 옷 리폼,⁵⁷⁾ 손뜨개 인형,⁵⁸⁾ 팬시 아트,⁵⁹⁾ 핸드메이드 가죽공예,⁶⁰⁾ 다이어리 꾸미기,⁶¹⁾ 구체관절인형 제작,⁶²⁾ 글루텐 액

서세리 만들기⁶³⁾ 등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태교를 위한 취미공예제작방법을 알려주거나,⁶⁴⁾ 북유럽스타일 공예를 만드는 방법,⁶⁵⁾ 요리와 공예를 접목하는 설탕 공예⁶⁶⁾ 등이 출판되었다.

그림 5-5 1차 범주별 단행본 비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행본 전체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2) 번역서

단행본에서 취미공예의 비중이 높은 것은 번역서에서는 더욱 심화된다. 전체 34권이 출판되었는데, 그 중 30권이 취미공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88.2%의 높은 비율을 가진다. 그만큼 단행본 뿐 아니라 번역서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출판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디자인 및 공예 분야에서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번역서 저자 중 6권의 저자가 북유럽권이며, 일본인 저자의 번역서 중 한 권이 북유럽 공예의 내용을 담고 있

56 김경아, 『화유의 꿈꾸는 알공예』, 하늘 아래 땅 위에, 2013

57 김남선, 『웃수선나라의 옷 리폼 교실』, 예신, 2013

58 김인영, 『미에라 작은 공방의 손뜨개 인형을 만드는 시간』, 미디어월, 2013

59 김정미, 『실전 방과후지도』 팬시 아트 배우가 방과후지도사 · 특기 적성 교육 교사 · 문화 센터 강사를 위한 최신 인기 아이템, 청솔, 2013

60 김진, 『핸드메이드 가족공예: 가족으로 시작하는 명품 만들기 기초편』, BM성안당, 2013

61 김태민 외 3인, 『다이어리 꾸미기: 미니핑크유메기스기오울하』, 북코디, 2013

62 비에이치조형학원, 『구체관찰인형 제작하기』, 시옷, 2013

63 오정표, 『글루텐으로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이오클래식, 2013

64 박귀선, 『꿈지의 손바느질태교: 초보도 만들 수 있는 자연주의 출산 용품』, 꽃숨, 2013

65 주부와 생활사 편집부, 『북유럽 스타일 손뜨개 소품: 내가 꿈꿔 온 달콤한 손뜨개 세상이 펼쳐진다』, 진선출판사, 2013

66 장혜선, 천민영, 『슈가크래프트 & 클레이케약 셀레이는 첫 만남 DIY』, 예스미디어, 2013

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저자의 번역서가 20권으로 일본 공예에 대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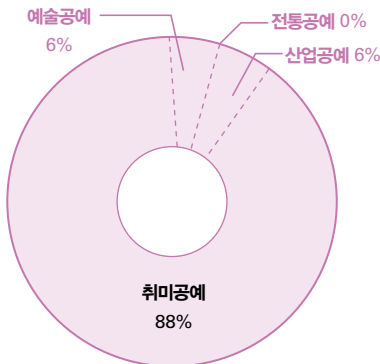
표 5-7 2013년 1차 범주별 번역서 수

단위: 회

범주	예술공예	전통공예	산업공예	취미공예	합계
단행본(권)	2	0	2	30	34
비율(%)	5.9	0	5.9	88.2	100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 통합검색(<http://www.dlibrary.net>),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행본 전체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그림 5-6 1차 범주별 번역서 비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행본 전체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단행본과 번역서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많은 출판물이 출간되지만, 단행본의 경우 국 · 공립기관이나 재단, 각 박물관 등에서 정보제공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서적을 출간하였고, 번역서 역시 한국의 문화를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전문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다.⁶⁷⁾ 그렇지만 여전히 공예의 역사나 이론, 비평 등을 알 수 있는 전문서적은 부족한 실정이며, 취미공예를 대상으로 한 공예기법이나 제작방식에 대한 실용서

67 Kyung Choon, 2013 K-culture Hanji Festival: Korea-China International Invited Hanji Couture Exhibition, Pan-world Art Institute, 2013, International Design Trend Center, 『고품격 한국적 스타일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마감재 모듈 개발-결과 보고서』, International Design Trend Center, 2013

적이 대부분이었다.

3) 정기간행물

공예와 관련한 정기간행물은 1958년 『공예』지가 발간된 이후(현재는 폐간), 현재까지 여러 정기간행물이 창간되고 폐간되어 왔다. 그 중 2013년에 발간된 정기간행물을 조사하였다.

표 5-8 2013년 발간 정기간행물

잡지명	발행처	발행인	종별	종류	창간년도
월간 디자인	(주)디자인하우스	이영혜	잡지	월간	1981년
주간 한국섬유신문	(주)한국섬유신문 대표이사	김시중	특수주간신문	주간	1981년
문화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김종진	기타간행물	월간	1984년
종이문화	(사)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기타간행물	계간	1989년
주간 국제섬유신문	—	조익만	특수주간신문	주간	1993년
주물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잡지	격월간	1995년
월간 도예	(주)월간세라믹스 대표	황호연	잡지	월간	1996년
주간 텍스타일 라이프 (Textile Life)	(주)세계섬유신문사	조영준	특수주간신문	주간	1998년
한국문화재신문	(주)대운하일보	이금선	일반주간신문	주간	2006년
계간한지	(사)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차우수	기타간행물	계간	2008년
패션클루	(주)한국섬유신문	김시중	기타간행물	월간	2008년
한국섬유경제	—	박태훈	특수주간신문	주간	2008년
코리안주얼리	코리안주얼리사	남강우	잡지	격월간	2009년
더주얼리 (THE JEWELRY)	Be Jewel MEDIA	김동시	잡지	격월간	2009년
소잉하루에	(주)코하스	신현호	정기간행물	계간	2009년
패션비즈(Fashionbiz)	(주)섬유저널 대표	김일웅	잡지	월간	2009년

패션지오 Fashion Gio(월간섬유)	-	최명숙	잡지	월간	2009년
니트와섬유	-	윤성민	잡지	계간	2009년
NEPA autocamping	(주) 평안섬유공업	김형섭	잡지	계간	2011년
공예+디자인	(사)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최정절	기관지	계간	2011년
테디맘컨슈리타임즈	테디맘컨슈리타임즈		인터넷신문		2011년
한지와 나	사단법인 천년전주한지포럼	강진하	기타간행물	계간	2011년
한국조형예술신문	(주)키아드랩	김성수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2011년
스텝프라마매거진	블리스크래프트	이원용	정보간행물	계간	2011년
공예세계	(주)광주전통문화평생교육원	김옥수	잡지	연2회간	2012년
강원공예소식	(주)햇살문화	김정연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2013년
공예사랑	-	김경민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2013년
나비습공예사랑	-	홍미진	정보간행물	월간	2013년
총 28 종	16.4	10.8	47.9	7.0	1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색이 있는 부분은 공예 관련 단체발행 정기간행물

· 창간연도별 정렬

조사된 정기간행물은 총 28종이며, 이 중 국가 및 민간의 공예 관련 단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5종이다. 그리고 재료 범주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섬유/가죽 분야로 『주간 한국섬유신문』이나 『주간 텍스타일 라이프』 등과 같은 섬유라는 넓은 범주에 관심을 두는 간행물과 함께 『패션클루』, 『패션지오』 처럼 보다 좁은 범주로 패션을 다루는 간행물들도 있다. 그 외에 종이/한지의 경우 한지를 진흥하기 위한 『한지와 나』와 『계간한지』가 있지만, 더불어 취미공예로서 종이접기를 다루는 『종이문화』도 있다. 금속/귀금속/보석/석의 경우에는 섬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료로서 금속을 다루는 『주물』과 보석을 주로 다루는 『코리안 주얼리』와 『더 주얼리』가 발간되었다. 그렇지만 정기간행물이 다루는 공예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39.3%)을 이루는 것은 공예 및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경우(복합 범주)였다.

표 5-9 재료 범주별 정기간행물 현황

구분	금속/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복합	합계
학술행사(개)	3	1	0	0	0	10	3	0	11	28
비율(%)	10.7	3.6	0	0	0	35.7	10.7	0	39.3	100

· 정기간행물 전체목록은 [표 5-8] 참조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4. 학술행사

공예학술행사는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비롯해서 공공, 대학, 민간이 주최하는 학술활동을 말한다. 학회에서 주최하는 정기적인 학술행사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게재된 학술논문을 통하여 그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더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예 관련 학술행사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학술행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사를 주최하는 유형인 공공, 대학, 민간으로 나누어보고, 재료 범주 및 공예 1차 범주로도 나누어 분석하였다. 더불어 학술행사의 형태 즉,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컨퍼런스를 구분하였다.

표 5-10 주최 유형별 및 행사 형태에 따른 학술행사

구분	공공	대학	공공/대학	민간	합계
세미나	2	2		2	6
워크숍	2				2
세미나/워크숍	1		1	5	7
심포지엄					0
포럼	2				2
컨퍼런스	2				2
합계	9	2	1	7	19

· 학술행사 전체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2013년에 비정기적인 학술행사는 총 19회 열린 것으로 파악되었다.⁶⁸⁾ 공공주최의 학술행사로는 ‘공예정책토론회-공예인증제도 시행과 우리의 과제’(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같은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2013 한국디자인역사문화아카데미-4주간의 디자인 역사 문화여행’과 같은 세미나와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워크숍 이벤트로 이루어진 ‘일본의 도예가 오히 토시오의 현대다도 시연’ 등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치우금속공예관에서 이루어진 ‘공예가의 식탁’과 같은 세미나와 워크숍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았다.

전문 공예연구자들을 위한 정기 학술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한류와 한복의 동반 발전을 위한 대토론’(김기현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같이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 6개의 학술행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였다.

표 5-11 1차 범주별 학술행사

구분	전통공예	산업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	복합	합계
횟수(회)	3	3	5	3	5	19

· 학술행사 전체목록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공예 1차 범주별로 살펴보면, 각 범주별로 고르게 학술행사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최유형과 대상의 요구에 따른 학술대회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가령 전통공예는 한국전통공예학교 및 전통공예디자인강좌와 함께 2013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하여 학술행사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이 열린 행사는 예술공예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예작가의 개인전이나 전시관련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산업공예의 경우 〈홈·테이블테크페어〉 등에서 공예상품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이 이루어졌는데, 취미공예 역시 유사한 전시 및 행사에서 다른 부대행사인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

68 비정기적 학술행사는 각종 관련 포털사이트(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네오룩, 한국공예가협회)와 국민대 전용일 교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검색하여 취합하였으나, 각종 비엔날레나 지방축제 등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므로 그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주최를 한 정책토론회 등이 복합범주에 들어간다.

표 5-12 재료 범주별 학술행사

구분	금속/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복합	합계
학술행사(회)	4	1	0	0	0	1	0	0	13	19
비율(%)	21.1	5.3	0	0	0	5.3	0	0	68.4	100

· 학술행사 전체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공예 1차 범주별 분포는 비교적 균등하나 재료범주별로는 차이가 많이 난다.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금속/귀금속/보석/석 관련 행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지만, 재료와 관계없이 종합적인 견지에서 공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함께 열린 복합 범주의 경우(13회, 68.4%)가 많았다.

5. 연구단체 및 연구보고서

공예 관련 학회 외에도 공공, 대학, 민간 주최별로 연구단체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각 단체에서는 연구결과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중 관련 기관 및 포털사이트⁶⁹⁾를 통하여 공예와 관련한 연구단체를 정리하였으며, 그 중 주요 기관의 2013년 발행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다.

1) 연구단체

공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연구단체는 총 44개소로 집계된다. 그 중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공에서 주최하는 연구단체는 17개소로 가장 높은

69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http://www.ko-hand.or.kr/>), 행정안전부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 참조

38.6%의 비율을 가진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 2곳(국립문화재연구소,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비롯하여, 청주시의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경기도 소속의 (재)한국도자재단이 있다. 그 외에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총 13개소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예 관련 연구소 및 개발센터가 15개소 있으며, 민간에서는 11개소의 연구단체가 있다.

표 5-13 주최 유형별 공예 관련 연구단체

주최 유형	공공	대학	민간	합계
개수(개소)	173	15	11	43
비율(%)	39.5	34.9	25.6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예 관련 연구단체 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재료 범주별로 보면, (재)한국도자재단 등 도자관련 연구단체는 5개소, 종이/한지 관련 연구단체 역시 한국한지공예협회를 비롯하여 5개소가 있다. 그리고 옷칠 연구소는 2개소로 한국옷칠문화연구원 등이 있고, 섬유/가죽관련 연구단체인(1개소) 사단법인 나주시 전통염색구방공예 연합회와 금속/귀금속/보석/석 연구단체(1개소)인 서귀포 칠보공예 연구회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곳보다는 복합적으로 공예 전체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연구소가 68.2%를 차지한다.

표 5-14 재료 범주별 연구단체

구분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가죽	종이/한지	죽세/초경	복합	합계
학술행사(개)	1	5	0	0	2	1	5	0	30	44
비율(%)	2.3	11.4	0	0	4.6	2.3	11.4	0	68.2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예 관련 연구단체 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재료 범주와 유사하게 공예 1차 범주 역시 여러 공예 범주가 복합적으로 연구되는 곳이 많다(36.4%).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전통공예와 예술공예가 각기 25%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전통공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순수한 공예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연구단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15 1차 범주별 연구단체

주최 유형	전통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	산업공예	종합	합계
개수(개)	11	11	3	3	16	44
비율(%)	25	25	6.8	6.8	36.4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예 관련 연구단체 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2) 연구보고서

『2012 공예백서』에서 제시하였던 주요 연구기관을 토대로 2013년에 발행한 연구 보고서를 취합하였다. 이 기관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각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자료에서 ‘공예’, ‘전통’, ‘문화’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취합한 후 내용을 선별하여 취합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2 공예백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통공예 관련 연구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한다는 점에서 공예 연구의 현황 파악에 유의미한 지점을 가진다.

표 5-16 재료 범주별 연구보고서

구분	금속/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복합	합계
개수(개)	9	1	0	0	0	0	0	0	32	42
비율(%)	21.4	2.4	0	0	0	0	0	0	76.2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예 관련 연구단체 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주요 기관이 모두 국공립기관이라는 점에서 특정 유물 및 전통공예를 연구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공예의 경향이나 더 폭넓게 문화나 예술을 각 단체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복합 범주 32개, 76.2%) 그리고 금속/귀금속/보석/석 및 도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다루는 연구대상은 도자기, 석조문화유산, 철기, 청동기 등 전통공예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5-17 1차 범주별 연구보고서

주최 유형	전통공예	예술공예	취미공예	산업공예	복합	합계
개수(개)	16	0	0	2	24	42
비율(%)	38.1	0	0	4.8	57.1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예 관련 연구단체 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공예 1차 범주별 분류에서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보고서 16건 만이 전통공예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5건의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타 기관의 보고서에서는 공예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보다는 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주요 기관의 공예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기관의 연구방향은 앞으로 공예연구 및 정책,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절 · 결론

2013년의 공예연구 현황을 전문 연구자에 의한 학회와 학술논문, 석·박사과정의 학위논문, 그리고 출판 유통되는 단행본, 번역서, 정기간행물과 함께,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행사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및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1. 공예연구 분석

『2012 공예백서』에서는 공예연구 부분 전문연구자의 연구와 출판 유통되는 비전문가를 위한 연구의 이분화를 큰 특성으로 보았는데, 이점은 2013년의 공예연구 현황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단행본이나 번역서의 경우 취미공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의 경우 취미공예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반면 예술공예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에서만 두드러지게 연구가 되었으며, 전통공예의 경우 학술논문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다. 이렇듯이 각기 연구하는 대상에 대한 경향이 연구주체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혹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에서 취미공예를 다루고는 있으나 이는 주로 공예교육과 관련한 연구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각기 연구주체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공예 연구가 단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은 추후 공예연구의 발전 및 공예의 전반적인 밑거름을 만들어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예 관련 출판물을 보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취미공예에 대한 기법적인 면을 주로 다룰 뿐, 보다 깊이 있는 정보나 공예 관련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서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의 전통공예에 대한 연구가 학술논문과 학회활동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관련한 서적을 일반 서점에서 찾기는 힘들며,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번역서 역시 전무하다. 더불어 학위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예술공예에 대한 논의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예술공예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예이론/비평이나 공예작품

연구의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예술로서의 공예나 보다 순수한 학문적 대상으로 공예를 보고자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연구는 대중에게 소개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공예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전문적인 공예교육이나 보다 학생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공예교육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에 비하여 관련한 실용적인 공예교육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특수교육이나 치료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이나 보다 전문적인 공예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연구결과물이 발간될 필요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학술행사와 연구단체의 활동은 공예연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 학술행사는 전문적인 공예연구를 전문가들끼리 공유하거나 혹은 비전문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예작가의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형태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전시의 부대행사로만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단체와 연구보고서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공예연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단체가 특정 재료 범주가 연구 범주를 갖기보다는 전반적인 공예 및 디자인, 혹은 문화전반에 대한 연구 활동과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과제와 전망

본 장에서는 2013년에 이루어진 공예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각 연구주체별로 상이한 연구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충실히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 범주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연구가 소홀한 범주도 있었다. 가령 학술연구에서는 전통공예와 산업공예, 그리고 학위논문에서는 예술공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반면 취미공예에 대한 비중이 적다. 그렇지만 출판물에서는 압도적으로 취미공예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 범주에 대한 서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공예의 저변확대와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의 이해 및 적용을 어렵게 한다. 가령, 공예 관련 평

생교육 시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취미공예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⁷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공예 관련 연구단체에서도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또한 재료범주별로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예의 특성상 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 중 교과 내 교육 뿐 아니라 교과 외 교육에서도 공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참고할 만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현직 미술교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 것처럼⁷¹⁾ 공예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관련한 논문 및 보고서, 학술행사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취미공예나 공예교육에 대한 주체의 학술논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비록 특수교육 분야의 공예교육에 관한 학술논문이 있고, 석사논문에서 일반 공예교육을 위한 논문이 몇 편 발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현장의 요구를 도울 수 있는 공예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공예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예 평생교육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활동이나 연구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가령 미국의 ‘공예와 취미협회(CHA, The Craft & Hobby Association)’에서는 취미공예와 관련한 시장분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⁷²⁾ 이러한 단체가 개인 연구자가 하기 힘든 시장 분석이나 현황파악 그리고 관련한 정책마련을 위한 기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피상적으로 몇 가지 기법을 알려주거나 시연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행사에

70 6장 공예교육 중, 3절 공예평생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미교육에 해당하는 국·공립 평생교육기관에서는 77%,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94%, 대학(원)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49%가 취미공예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2013년에 개설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6장 3절 2. 공예취미교육현황 참조하기 바란다.

71 6장 공예교육에서 이루어진 현직 미술교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예재료 및 기법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보다 참신한 재료 및 기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6장 2절 2. 일반 공예교육 현황 참조하기 바란다.

72 공예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취미공예협회 에티튜드 & 유시지 스터디(CHA Attitude & Usage Study)와 공예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연구하는 취미공예협회 크래프터 인사이트 스터디(CHA Crafter Insight Study)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의 미국 마켓 스터디(Asian/African American Market Report)를 통하여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7장 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 벗어나 공예에 대한 보다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학술행사가 요청된다. 2013년에 이루어진 학술행사는 대부분 전시나 페어 등의 부대행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에서 관련한 부대행사로 공예체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렇지만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흥미위주의 행사가 아닌, 보다 공예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시작으로 공예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학술대회가 요청된다.

네 번째, 공예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질적 성장을 위해서 출판물이 다양하게 나와야 한다. 단순히 취미공예의 기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공예의 범주와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간행물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학술연구나 학교, 그리고 연구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의 공예를 받아들이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의 공예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출판물과 연구 성과 역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3년 공예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언이 당장 공예연구에 적용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예연구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단시간에 채워지는 것 역시 어렵다. 다만 이러한 불균형을 파악하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이 다각화 된다면, 공예의 저변확대와 관련인 및 대중의 공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장 공예교육

1절 개관

1. 공예교육의 정의
2. 공예교육의 범주

2절 학교 공예교육

1. 학교 공예교육의 정의 및 범주
2. 공예일반교육 현황
3. 전문 공예교육 현황
4. 소결

3절 공예 평생교육

1. 공예 평생교육의 정의 및 범주
2. 공예 취미교육 현황
3. 공예 직업교육 현황
4. 소결

4절 결론

1. 공예교육 분석
2. 제언

6장

공예교육

1절 · 개관

공예교육은 공예에 관한 일반적인 혹은 전문적인 창작과 이론에 관한 교육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공예의 1차 범주의 영역별 차이 뿐 아니라 교육주체, 교육대상의 성격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다. 본 백서에서는 교육주체와 교육대상 뿐 아니라 공예전반의 현황을 반영하여 특히 평생교육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1. 공예교육의 정의

본 백서에서는 공예를 “숙련된 기술이나 솜씨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물품이나 그것을 제작하는 행위”¹⁾로 보았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는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²⁾이다. 이에 본 백서의 공예교육은 “공예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공예자체에 대한 이론적 접근뿐 아니라 관련된 제작기술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파생되어 이루어지는 교육행위 역시 포함된다.

2. 공예교육의 범주

『2012 공예백서』에서는 공예교육을 교육 주체 및 대상에 따라 ‘공예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현재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는 평생교육에서 이러한 구분이 모

1 본 백서 1장 공예의 정의 참조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호해집에 따라 공예교육의 범주를 재조정하였다. 이에 본 백서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인 학교교육과 정규교육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³⁾으로 구분하였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예교육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6-1 공예교육에서 학교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대학교	대학원
일반공예 교육	교과 내	교과교육	교과교육		일반교양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외	방과 후 활동				
전문공예 교육	－	예술 중학교	예술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학사과정/ 학사과정	석·박사과정

표 6-2 공예교육에서 평생교육

종류	취미교육	직업교육
교육주체	[비평식 평생교육기관] 국공립평생교육기관 사설평생교육기관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한국폴리텍 대학 직업훈련기관 자격증(국가/민간) 전통공예전수기관 전문가 재교육

학교교육의 경우, 초·중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에서 시행되는 성격에 따라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었다. 일반교육은 미술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와 대학의 교양교육을 말하며, 전문교육은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에

3 『2011·2012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pp.6-7 참조

서 보다 심화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교육의 경우, 크게 취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취미교육은 교육주체에 따라 국공립평생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직업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관련 직업인을 양성하거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2012 공예백서』에서는 평생교육 중 직업교육을 전문교육에 포함하였으나, 정규교육과 달리 각 교육과정이 모두 직업으로 연결되거나 전문적인 소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본 백서에서는 다르게 구성하였다. 특히 자격증의 경우, 급수에 따른 능력의 평가는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교육주체별로 구분하며 살펴봄으로써 조사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각 주체별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전공 등 세부분야 분석에서는 1장 2절 2항의 공예의 범주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재료범주’와 ‘1차 범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범주를 바탕으로, 2013년 공예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절 • 학교 공예교육

공예교육 가운데 먼저, 정규교육과정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 과정 및 활동을 학교 공예교육으로 묶어 살펴보았다. 학교 공예교육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초·중등학교의 중등교육과정 및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른바 학교 내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정의 및 범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공예교육의 정의 및 범주

1) 정의

학교 공예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을 말한다. 여기서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으로, 학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교과 학습 및 생활 영역의 총체”⁴⁾를 뜻한다.

2) 범주

학교 공예교육은 크게 공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반교육과 보다 심화된 전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초등교육의 경우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의 교과 외 교육을 포함한다. 그러나 중등교육부터는 교과교육과 교과 외 교육의 일반교육과 더불어, 공예 관련 전공이 심화된 예술 중·고등학교,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를 통하여 전문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등교육인 전문대학과 대학에서는 일반교육은 교양과목에서 이루어지지만, 대학원(석/박사과정)과 함께 대부분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관련 교육과 활동을 분석하였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 [표 6-1] 공예교육에서 학교교육 표 참조

2. 공예 일반교육 현황

공예일반교육의 대상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 중에서 공예와 관련한 교양 및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학교의 구분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내·외 수업을, 고등교육인 대학의 교양수업을 포함한다.

1) 초·중·고등학교 공예교육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과정 내 수업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과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의 ‘미술’ 과목을 통해 공예 관련 교육의 일부가 이루어진다. 그 외에 교과 외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공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3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범주

	초등교육		중등교육	
	1-2학년	3-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	즐거운 생활	미술	교과교육	교과교육
교과 외 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 후 활동(방과 후 학교(토요프로그램 포함), 돌봄교실 연계수업 등)			

· 출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 2009

· 방과 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시행중이고 교육부에서 관리하므로 학교교육 내에 포함한다.

(1) 교과교육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 앞서와 같은 교육과정 구성은 2012년과 유사하다.⁶⁾

6 「2012 공예백서」에서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기본개념 및 특성을 설명하고, 미술교과를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비교한 것과 달리, 2013년에도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중복 설명은 하지 않았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미술 교과에 대한 분석은 「2012 공예백서」를 참고 바란다(허보윤, 황승욱, 김정현, 김유라, 윤이랑, 「2012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pp.85-90 참조).

다만 순차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학년별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2013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

표 6-4 2009년 개정교육과정 적용 시기⁷⁾

시행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3년 3월 1일	1, 2학년	1학년	—
2014년 3월 1일	3, 4학년	2학년	1학년
2015년 3월 1일	5, 6학년	3학년	2학년
2016년 3월 1일	—	—	3학년

· 출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러한 개정교육과정의 순차적 적용에 따라, 2013년 교육과정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군과 중학교 1학년이, 그리고 나머지 학년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랐다.

가. 미술교과 교육과정

2013년에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학년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만큼, 미술교과역시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사용된 미술교과는 다음과 같다.

표 6-5 2013년 교육과정별 미술교과⁸⁾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9년 개정교육과정
미술교과	미술, 미술과 삶 미술창작, 미술감상	즐거운 생활 미술

· 「미술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3])」, 교육인적자원부, 2007, 「미술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3])」, 교육과학기술부, 2011

7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교과는 시행시기가 상이하며, 한국사 과목은 2012년 1학년부터 적용된다.

2013년에 적용된 2007년 개정교육과정 미술교과는 ‘미술’, ‘미술과 삶’, ‘미술창작’, ‘미술감상’이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중학교 1학년 제외)는 ‘미술’을 기본적으로 교육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과목은 각 학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중 공예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과목은 없지만, ‘미술과 삶’에서 미술과 디자인을 중 영역으로 두고, 미술과 직업에서 다양한 미술 직업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미술창작’과 ‘미술감상’에서도 공예 관련 작품이나 예술품에 대한 간접적인 제시가 가능하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미술’의 주요 내용체계는 ‘미적체험, 표현, 감상’으로 각 학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었는데, 개정된 미술에서는 주요 내용체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외부세계에 대한 ‘지각’과 이에 대한 체험이 강조된다. 또한 감상에 있어서도 2007년 개정에서는 감상의 대상인 미술 작품과 미술문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9년 개정에서는 감상의 방법인 미술사와 미술 비평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향을 정하였다. 더불어 2009년 개정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각 학군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추상적인 미술교육방향 및 목표제시보다 구체적인 교육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는 적용시점이 아니지만 2014년부터는 고등학교 미술과 과목 중 ‘디자인·공예’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술교과는 각기 적용되는 개정교과과정에 따라 2013년에는 다음과 같은 편제 및 수업시수가 배정되었다.

표 6-6 2013년 미술교과 초·중등 편제 및 수업시수

학교	학년군	적용교과과정	교과군	수업시수
초등	1-2학년	2009년 개정	즐거움 생활	384
	3-6학년	2007년 개정	미술	각 68

8 2013년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인 ‘미술’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하는 한편, 고등학교부터는 선택교육과정을 따로 두고 있다. 선택교육과정에는 일반과목인 ‘미술문화’와 ‘미술창작’이, 심화과목에는 ‘미술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조형’, ‘입체조형’, ‘디자인·공예’, ‘미술 전공 실기’, ‘영상 미술’이 있다. 선택교육과정의 과목들을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미술과 과목인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을 세분하여 내용을 심화한 과목들이다. 이러한 선택교육과정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시기에 따라 2014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표 6-4] 참조).

중등	1학년	2009년 개정	예술(음악/미술)	272(1-3학년)
	2학년	2007년 개정	미술	34
	3학년	2007년 개정	미술	68
고등	1-3학년	2007년 개정	미술	34(2)

- 출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교육과학기술부, 2012, 「초·중등학교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교육과학기술부, 2012
- 2009년 개정 교과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수업시수는 학년군을 기준으로 하며, 학년군 별 최소 수업 시수이다.
- 초등학교의 1시수 수업은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 ()안의 숫자는 이수단위(단위 1은 50분 기준으로 17회 수업)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즐거운 생활’의 시수는 초등학교 1학년 180시수, 초등학교 2학년 204시수로 나뉘었으나, 총 합계가 384시수로 2013년에 적용된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시수와 동일하다. 하지만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학교 및 교사 재량의 시간 배분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르므로 각 학년별로 ‘미술’은 68시수가 배정되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중학교 1학년은 1-3학년 학년군을 기준으로 ‘예술(음악/미술)’에 272시수가 배정되었다. 이와 같이 음악과 미술, 그리고 학년군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미술’ 수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밖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34시수 혹은 68시수로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년 별로 수업시수가 정해진다.

이러한 탄력적인 미술교과 수업시간으로 인하여, 각 학년 별로 이루어지는 공예 관련 수업 시수 역시 교사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결과 주로 2시수에 해당하는 80분간 공예수업이 이루어지며 교사들은 더 이상의 시간은 학생들이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⁹⁾

9 일선 초등학교 미술교사들(신화수(서울신천초등학교), 이영규(서울삼전초등학교), 함성주(서울청구초등학교), 이수영(서울서빙고초등학교))과의 심층 인터뷰 내용 발췌

나. 미술교과서

2013년에는 적용된 개정 교과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군과 중학교 1학년에 2009년 개정 교과서들이 사용되었고, 그 외의 학년에서는 2007년 개정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본 백서에서 분석한 미술교과서는 2014년 8월까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수집한 2013년 사용 미술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초등학교 1-2학년 군은 통합교과로, 기존에 미술과목을 포함했던 즐거운 생활을 비롯하여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의 내용이 총 16종의 교과서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표 6-7 2013년 출간 초등학교 미술관련 교과서

학년군	적용 교과	종류	도서명	저자	출판사
초등학교 1-2학년군 (통합교과)	2009년 개정	국정	봄 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봄 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가족 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가족 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여름 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여름 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나 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나 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학교 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학교 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가을 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가을 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우리나라 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우리나라 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겨울 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겨울 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외 1	지학사

초등학교 3-4	2007년 개정	국정	미술 3-4	김홍숙 외 10	미래엔
초등학교 5-6	2007년 개정	검정	미술 5-6	이규선 외 8	천재교육
			미술 5-6	김용식 외 3	금성출판사
			미술 5-6	이우종 외 8	천재교육
			미술 5-6	정일 외 9	천재교육
			미술 5-6	노영자 외 4	교학사
			미술 5-6	노부자 외 5	두산동아

- 출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정보관
- 2013년 출간 교과서 기준
- 국정교과서 국가가 발행한 교과서
- 검정교과서 출판사가 발행 후,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통합교과와 3-4학년 미술교과서는 국정이며, 5-6학년의 미술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받았다. 이 중 공예 관련 내용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먼저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통합교과에서는 16종의 교과서 중 2종의 교과서에서 공예 관련 내용이 있다. 그 중 「여름 1」은 ‘부채 만들기’ 실습이 2페이지(총 페이지 수 대비 2.47%)에 걸쳐있고, 「우리나라 1」에서 ‘우리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찰흙으로 그릇 만들기 실습과 ‘우리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한복을 살펴보는 내용이 각기 2페이지씩 총 4페이지(총 페이지 수 대비 4.12%)에 걸쳐 수록되었다.

표 6-8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서 내 공예 실습 내용

교과서	실습내용
여름 1	부채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1	찰흙으로 그릇 만들기를 하여봅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공예 관련 내용 분석을 위하여, 각기 공예 재료 범주와 이론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분

량을 표로 기록하였다.¹⁰⁾ 이를 바탕으로 각 교과서의 전체 내용 중에서 공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공예실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6-9 초등학교 3-4학년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단위: 면

교과서	금속/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기타	이론	합
미술 3-4		3									3/118
비율(%)		2.5%									2.5%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표 6-10 초등학교 3-4학년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교과서	실습내용
미술 3-4	흙으로 만든 그릇 [심화] 동물이나 식물 모양의 특징을 살려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봅시다.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에는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실습과 관련한 설명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분량은 2.5%의 비율에 그쳤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 한 종만이 있는 초등학교 3-4학년 미술에 비하여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총 6종의 검정교과서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공예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관련 분량과 내용분석은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와 동일하다.

10 『2012 공예백서』에서는 각 공예영역에서 이론과 실기를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분석결과 대부분의 공예 관련 기술에서 실습과 이론이 함께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구분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예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예에 대한 역사나 감상, 그리고 그 외의 이론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는 '이론' 항목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특수소재나 여러 범주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 6-11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단위: 면

교과서	금속/ 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기타	이론	합
두산동아 노부자 외 5인									7		7/122
									5.7%		5.7%
(주)교학사 노영자 외 4인		1					1		2	8	11/120
		0.8%					0.8%		1.6%	6.4%	9.2%
(주)금성출판사 김용식 외 3인				1		1	1			10	13/120
				0.8%		0.8%	0.8%			8%	10.8%
천재교육 정 일 외 9인						1	2		1	2	6/120
						0.8%	1.6%		0.8%	1.6%	5%
천재교육 이우종 외 8인		1							2	3	6/119
		0.8%							1.6%	2.4%	5%
천재교육 이규선 외 8인						2				2	4/120
						1.6%				1.6%	3.3%
평균비율											6.5%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의 공예 부분은 평균 6.5%로 3-4학년의 교과서에 비하여 높아졌다. 그리고 2012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0.4%가 높아졌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내용면에서는 크게 한국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공예에 대해 알리고 이에 관한 실습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한 점에서 일상생활과 공예를 연결하는 이해를 돕는 점에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변의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공예품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섬유/가죽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의 재료를 활용한 천연 염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재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가 보인다.

표 6-12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교과서	실습내용
두산동아 노부자 외 5인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품을 탐색하고, 만들기
(주)교학사 노영자 외 4인	여러 나라의 전통 공예품 만들어보기/ 종이를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한지)/찰흙으로 생활용품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주)금성출판사 김용식 외 3인	알록달록 손수건 만들기/ 똑딱똑딱 시계만들기/ 나만의 등 만들기(한지)
천재교육 정 일 외 9인	자연의 색으로 염색하기/ 전통미술체험하기(부채만들기, 한지공예, 짚공예)
천재교육 이우종 외 8인	여러 가지 재료로 생활용품 만들기/ 토우와 그릇 만들기
천재교육 이규선 외 8인	황토로 물들이기/염색 종이로 꾸미기/염색 물감으로 물들이기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대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은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골라서 참고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시간조절과 함께 학생들의 이해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교과서를 의지할 수 없고, 또한 교과서 및 관련한 학습서, 지도서보다는 유용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찰흙과 같은 식상한 재료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참신한 재료에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교과서의 공예부분에 대하여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은 물론 비전문가인 교사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공예제작방식에 대한 보다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술교과서 내에서 감상부분이나 아이들의 발표에 대한 부분 역시 수업시간에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종합하면 보다 참신한 재료를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보다 세밀한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이 완성작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¹¹⁾

중학교의 경우 2013년부터 1학년에 한하여 2009년 개정교과과정이 적용된 만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2009년 개정교과과정의 교과서는 각 시도 교

11 일선 초등학교 미술 교사들의 (신희수(서울신천초등학교), 이영규(서울삼전초등학교), 함성주(서울청구초등학교), 이수영(서울서빙고초등학교)) 심층 인터뷰 내용 발췌

육청에서 검증한 인정교과서이며, 2007년 개정교과과정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검증한 검정교과서이다. 이는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인정교과서가 확대된 현상과 연결된다. 이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중 83%가 인정도서이다.¹²⁾

표 6-13 2013년 출간 중학교 미술교과서

적용 교과	종류	도서명	저자	출판사
2009년 개정	인정	미술	김인규 외 9	도서출판 미진사
		미술	심영옥 외 5	(주)교학도서
		미술	연혜경 외 2	천재교과서
		미술	김선아 외 4	천재교육
		미술	이주연 외 5	금성출판사
		미술	장선화 외 2	두산동아
		미술	박동진 외 9	형설출판사
		미술	김용주 외 4	비상교육
		미술	김영길 외 5	미래엔
		미술	이경애 외 3	아침나라
2007년 개정	검정	미술	김정희 외 3	지학사
		미술	박은덕 외 3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미술	조중현 외 6	도서출판 미진사
		미술	안혜영 외 4	(주)미래엔
		미술	김용주 외 3	지학사
		미술	이성도 외 6	교학연구사
		미술	김용숙 외 2	일진사
		미술	노영자 외 1	(주)교학사

12 김정호, 「〈2013-02〉 인정도서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3, p.ii

2007년 개정	검정	미술	고승혜 외 4	두산동아
----------	----	----	---------	------

- 출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정보관
- 2013년 출간 교과서 기준
- 인정교과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교과서
- 검정교과서 출판사가 발행 후,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일부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적절한 학년을 표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학년 구분 없이 사용된다. 그렇지만 2013년에는 2009년 개정교과와 2007년 개정교과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나누어지므로 각기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교과서 분석 역시 재료 범주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실습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6-14 중학교 2009년 개정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단위: 면

교과서	금속/ 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기타	이론	합
미진사		1				2				3	6/232
김안규 외 9		0.4%				0.9%				1.3%	2.6%
(주)교학도서	1/2	3		1/2			2				6/232
심영옥 외 5	0.2%	1.3%		0.2%			0.9%				2.6%
천재교과서		4				2				2	8/240
연혜경 외 2		1.6				0.8%				0.8%	3.2%
천재교육							1			6	7/256
김선아 외 4							0.4%			2.3%	2.7%
(주)금성출판사	1	1		1		1				3	6/256
이주연 외 5	0.4%	0.4%		0.4%		0.4%				1.2%	2.3%
두산동아		1				2				6	9/232
장선화 외 2		0.4%				0.9%				2.6%	3.9%

형설출판사 박동진 외 9						1	2			13	16/230
						0.4%	0.9%			5.7%	7.0%
비상교육 김용주 외 4		2								2	7/216
		0.9%								0.9%	3.2%
(주)미래엔 김영길 외 5		1				1	1			7	10/260
		0.4%				0.4%	0.4%			2.7%	3.8%
아침나라 이경애 외 3		4				1	1			7	13/228
		1.8%				0.4%	0.4%			3.1%	5.7%
평균비율											3.7%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009년 개정교과과정이 적용된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전체 교과서 분량대비 공예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7%로 초등학교 5-6학년의 6.5%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2년에는 6.4%였다는 점에서 역시 그 비중이 줄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다수의 교과서에서 ‘디자인’과 ‘콘텐츠’, 혹은 ‘애니메이션’이나 ‘사진’과 관련한 특정 실용분야에 대한 부분을 늘이면서 상대적으로 공예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미술교과서에서도 디자인 섹션 안에 공예를 일부 다루는 형태로 공예를 축소하였다. 이러한 점은 실습내용에서도 드러났다.

표 6-15 중학교 2009년 개정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교과서	실습내용
미진사 김인규 외 9	상감기법을 이용한 타일만들기/자연의 물감 찾아 그리기/흙치기 염으로 물들이기
(주)교학도서 심영옥 외 5	다양한 도자기제작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
천재교과서 연혜경 외 2	실용적인 도자기 조명등을 만들어보자/흙치기 염을 이용하여 천연 염색을 해보자.
천재교육 김선아 외 4	전통한지로 조명등 만들기

(주)금성출판사 이주연 외 5	동판 풍경 장식만들기/도자기 만들기, 접시만들기/양파 겹질로 천연 염색하기, 흙치기 염색하기
두산동아 장선화 외 2	황토 염색 제작/액서서리 만들기-펠트공예, 도자기 만들기
형설출판사 박동진 외 9	천연 염색으로 다문화 조각보 만들기/나만의 개성있는 북아트 만들기
비상교육 김용주 외 4	황토를 이용하여 염색하기/한지를 이용한 조명등 만들기
(주)미래엔 김영길 외 5	생활도자 만들기/ 한지로 생활용품 꾸미기/ 천연재료로 염색하기
아침나라 이경애 외 3	한지를 이용하여 전통 조각보를 제작해보자./도자기 타일을 이용하여 나의 모습을 표현해 보자.

공예와 관련 실습에도 타일, 조명등, 풍경, 접시, 액서서리, 북아트, 다문화 조각보 등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수록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소재(도자, 염색, 한지, 동판 등)를 현대 생활과 연결함으로써 창의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2007년 개정교과과정이 적용된 미술교과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교과서 페이지 수 대비 공예분량의 평균비율은 4.5%로, 2009년 개정교과과정보다는 많지만 역시 2012년 미술교과서에 비하여서는 낮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시 2009년 개정교과과정 미술교과서에서와 같이 디자인 등 기타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교과과정 미술교과서와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금속/귀금속/보석/석과목은 적게 다루거나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많았다. 또한 이론에 대한 비중이 초등학교 교과서보다 많은데, 이 중 미진사(조중현 회 6인)에서 발간한 미술교과서의 경우 이론만을 제시하고 실습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많은 교과서에서 공예에 관한 역사와 이론을 소개하는 데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가장 공예 비중이 많은 교과서는 8.9%인 반면 가장 적은 분량의 교과서는 2.1%의 비율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표 6-16 중학교 2007년 개정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단위: 면

교과서	금속/ 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기타	이론	합
지학사 김정희 외 3		2				6	2			4	14/232
		0.9%				2.6%	0.9%			1.7%	8.0%
(주)중앙교육 진흥연구소 박은덕 외 3	1	6		2		2	2			7	20/224
	0.4%	2.7%		0.9%		0.9%	0.9%			3.1%	8.9%
미진사 조중현 외 6										6	6/216
										2.8%	2.8%
(주)미래엔 안혜영 외 4	1					2				2	5/239
	0.4%					0.8%				0.8%	2.1%
지학사 김용주 외 3		2				2	2		3	5	14/232
		0.9%				0.9%	0.9%		1.3%	2.2%	6.0%
교학연구사 이성도 외 6	1	4								3	8/216
	0.4%	1.9%								1.4%	3.7%
일진사 김용숙 외 2		2				1	1		1	7	12/208
		1.0%				0.5%	0.5%		0.5%	3.4%	5.8%
(주)교학사 노영자 외 1		2					1			3	6/230
		0.9%					0.4%			1.3%	2.6%
두산동아 고승혜 외 4	1					2				3	6/216
	0.5%					0.9%				1.4%	2.8%
평균비율											4.5%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구체적인 공예 실습내용을 보면, 2007년 개정교과과정 미술교과서 역시 실생활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였다. 창의적인 모자제작, 신문지 사용한 그릇제작, 팬던트 만들기, 장신구제작, 종이 노끈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천연 비누만들기, 미니백과 캐릭터

상자,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옷차림, 요요 켄트 장식품 등은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나 용품제작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문양을 활용한 생활용품제작, 손수건, 옷, 가방 등에 전사염으로 무늬표현, 칠보로 생활용품 만들기 등을 통하여 전통공예의 생활화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실습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2009년 개정교과 미술교과서에서의 북아트나 2007년 개정교과 미술교과서의 비누공예와 같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취미공예 분야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미술교과서의 내용이 보다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6-17 중학교 2007년 개정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교과서	실습내용
지학사 김정희 외 3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모자를 제작하여 보자./한지의 특성을 알고 전통 문양을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제작하여 보자./신문지를 이용하여 그릇을 제작하여 보자./흙의 특성을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자기를 제작하여 보자./검은 콩을 이용하여 흙치기 염색을 하여 보자.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박은덕 외 3	펜던트만들기(금속)/흙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에 필요한 도자기를 제작한다./종이를 이용한 생활용품만들기/나무의 특징을 알고 작품을 제작한다/ 탈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는 탈을 제작한다./장신구를 통하여 각 나라의 디자인 특성을 이해하고 간단한 장신구를 제작한다.
미진사 조중현 외 6	—
(주)미래엔 안혜영 외 4	동판을 이용하여 금속공예를 만들어보자./ 종이 노끈을 엮어 생활용품을 만들어보자./ 나뭇가지에 천연 염색한 천을 엮어서 꾸며보자.
지학사 김용주 외 3	재료의 특성을 살려 만들기/한지로 간단한 꽃접시 만들기/전사염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살펴보고 손수건, 옷, 가방 등에 무늬를 표현해보자./ 선물하기 좋은 천연 비누 만들기
교학연구사 이성도 외 6	칠보로 생활용품 만들기
일진사 김용숙 외 2	미니백과 캐릭터 상자 만들기/전통미를 살려서(한지를 이용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보자)/흙치기염 체험학습
(주)교학사 노영자 외 1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아름답고 쓸모있는 생활용품이나 그모형을 만들어 보자./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연출해 보고, 개성있는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찰흙을 이용하여 그릇이나 장식품을 만들어 보자.

두산동아 고승혜 외 4	도자기 만들기/요요 켈트를 이용한 장식품 만들기
--------------	----------------------------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는 2014년에 1학년부터 2009년 개정교과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2007년 개정교과과정이 적용된 미술교과서였다. 『미술』은 검정도서로 총 5종이 있는 반면, 인정도서인 『미술과 삶』, 『미술감상』, 『미술창작』은 각 한 종씩 있다.

표 6-18 2013년 출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적용 교과	종류	도서명	저자	출판사
2007년 개정	검정	미술	조익환 외 4인	(주)지학사
		미술	이상원 외 4인	천재교육
		미술	안금희 외 4인	(주)지학사
		미술	김영길 외 4인	미진사
		미술	노용 외 5인	(주)교학사
	인정	미술과 삶	조우호 외 3인	(주)지학사
		미술감상	박남희 외 11인	미진사
2009년 개정		미술창작	강해중 외 11인	미진사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역시 앞선 교과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공예 재료 영역과 공예 관련 실습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표 6-19]와 같다.

표 6-19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재료 범주별 구분

단위: 면

교과서		금속/ 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기타	이론	합
미술	(주)지학사 조익환 외 4인										4	4/80
											5%	5%

미술	천재교육 이상원 외 4인								1	2	3/84
									1.2%	2.4%	3.6%
미술	(주)지학사 안금희 외 4인		1							1	2/80
			1.3%							1.3%	2.5%
미술	미진사 김영길 외 4인	1				1	1			1	4/84
		1.2%				1.2%	1.2%			1.2%	4.8%
미술	(주)교학사 노용 외 5인		2							2	4/82
			2.4%							2.4%	4.8%
평균비율											4.1%
미술 과 삶	(주)지학사 조우호 외 3인	1	1			1				5	8/152
		0.7%	0.7%			0.7%				3.3%	5.3%
미술 감상	미진사 박남희 외 11인										0/198
											0%
미술 창작	미진사 강해중 외 11인	1	4		1	4	2			4	18/207
		0.5%	1.9%		0.5%	1.9%	1%			1.9%	8.7%
전체 평균비율(미술, 미술과 삶, 미술감상, 미술창작)											4.4%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총 페이지 수 대비 공예 분량의 평균 비율은 4.4%이고, 이 가운데 『미술』 5종에서의 평균비율은 4.1%이었다. 이는 2012년의 6.2%보다 역시 낮은 비율이다. 이에 반하여 『미술창작』의 경우 8.7%로 비율로,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분량의 비율이 높고 더불어 모든 공예 재료 영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의 설명이 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예의 전반적인 이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습이 없는 교과서도 3종(『미술』 2종, 『미술과 감상』 1종)이 있으며, 실습의 내용도 전적인 공예라기보다는 문화상품만들기(문화콘텐츠), 티셔츠와 포트폴리오만들기(디자인) 등이 미술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서 공예를 응용하는 방

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6-20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공예 실습 내용

교과서		실습내용
미술	(주)지학사 조익환 외 4인	—
미술	천재교육 이상원 외 4인	우리나라의 미의식을 알릴 수 있는 공예 문화상품을 만들어 보자.
미술	(주)지학사 안금희 외 4인	한지를 이용하여 조명등을 만들어 보자.
미술	미진사 김영길 외 4인	입사 기법을 체험해 보자/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한 티셔츠 꾸미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미술	(주)교학사 노용 외 5인	—
미술과 삶	(주)지학사 조우호 외 3인	도자와 금속공예로 생활용품만들기
미술감상	미진사 박남희 외 11인	—
미술창작	미진사 강해중 외 11인	문양을 활용한 한복드레스 만들기/문양을 활용한 북 바인더 만들기/문양을 활용한 시계만들기/전사지를 활용한 도자기 꾸미기/도자기 핸드페인팅/십이지 신상을 활용한 도장만들기/장승만들기/새집만들기/칠보로 장신구만들기/동판으로 목걸이 만들기/양파껍질로 손수건 염색하기/녹차로 우연의 효과를 살려 염색하기/장미로 두가지 색 스카프 염색하기

각 학년 군별 미술교과서 내 공예 분량은 초등학교 3-4학년은 2.5%, 5-6학년은 6.5%, 중학교는 3.7%(2009년 개정교과과정), 4.5%(2007년 개정교과과정) 그리고 고등학교는 4.4%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불어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부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금속/귀 금속/보석/석이나 목을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자, 섬유/가죽, 종이/한지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섬유/가죽의 경우 천연염색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이해의 폭이 좁았다. 반면에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교과에서도 일상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취미공예(북아트, 천연 비누 등)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일상과 공예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다. 더불어 비록 고등학교 미술교과에서는 공예 실습의 비율이 낮지만 이론적인 이해에 집중하고 있고, 이를 보다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

미술창작』에서 보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경험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 집필진 전공 현황 분석

초등학교 5-6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용되는 미술교과서를 대상으로 집필
진의 전공을 분석해보았다.¹³⁾ 전공은 교육학(미술교육학, 초등교육학, 교육학 등 관련된
전공 모두 포함), 공예, 디자인(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회화(서양화, 동양화 등), 조
소 그리고 기타 전공(미학, 철학, 한문학 등)으로 나누어 그 수치와 비율을 분석하였다.¹⁴⁾
그리고 각 학년 군별 집필진의 전공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6-21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 집필진 전공 분포

단위: 명

출판사	집필진	교육학	공예	디자인	회화	조소	기타	합계
두산동아	노부자 외 5인	6	—	—	—	—	—	6
(주)교학사	노영자 외 4인	4	—	—	1	—	—	5
(주)금성출판사	김용식 외 3인	1	—	—	3	—	—	4
천재교육	정 일 외 9인	6	1	—	3	—	—	10
천재교육	이우종 외 8인	9	—	—	—	—	—	9
천재교육	이규선 외 8인	7	1	—	1	—	—	9
합계		33	2	0	8	0	0	43
비율(%)		76.7	4.7	0	18.6	0	0	100

- 여러 전공자의 경우 최종학위 전공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회화에는 서양화와 동양화 모두 포함된다.
- 교육학에는 미술교육학, 초등교육과, 교육학 모두 포함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3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교과서에는 집필진에 대한 소개가 표기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4 많은 경우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에서 각기 다른 전공을 취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최종학력의 전공을 기준으로 삼았다. 『2012 공예
백서』의 경우 학사전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집필된 시점 상 최종학력에서의 전공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교과서의 경우, 교육학을 전공한 집필진의 분포가 76.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회화전공(18.6%)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부 공예전공자(4.7%)가 포함이 된 경우가 있으나 그 수가 적었다.

표 6-22 중학교 미술교과서(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통합) 집필진 전공 분포

단위: 명

출판사	집필진	교육학	공예	디자인	회화	조소	기타	합계
도서출판 미진사	김인규 외 9인	6			4			10
(주)교학도서	심영옥 외 5인	5					1	6
천재교과서	연혜경 외 2인	3						3
천재교육	김선아 외 4인	3			2			5
금성출판사	이주연 외 5인	5			1			6
두산동아	장선화 외 2인	1	1					3
형설출판사	박동진 외 9인	3		1	1	2	3	10
비상교육	김용주 외 4인	1	1	1		1	1	5
미래엔	김영길 외 5인	5						6
아침나라	이경애 외 3인	4						4
지학사	김정희 외 3인	4						4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박은덕 외 3인	1			1	1	1	4
도서출판 미진사	조중현 외 6인	5			1	1		7
(주)미래엔	안혜영 외 4인	5						5
지학사	김용주 외 3인	2			1	1		4
교학연구사	이성도 외 6인	4		1		1		6
일진사	김용숙 외 2인			2	1			3
(주)교학사	노영자 외 1인	2						2
두산동아	고승혜 외 4인	3	1		1			5
합계		63	3	5	14	7	6	98

비율	64.3%	3.1%	5.1%	14.3%	7.1%	6.1%	100%
----	-------	------	------	-------	------	------	------

- 여러 전공자의 경우 최종학위 전공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회화에는 서양화와 동양화 모두 포함된다.
- 교육학에는 미술교육학, 초등교육과, 교육학 모두 포함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중학교 미술교과서 역시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학 전공자가 64.3%로 가장 많고 회화 전공자가 14.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편차는 컸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기타 전공자(미학, 철학 등)를 포함한 경우가 있어서, 미술교과서에서 관련 이론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역시 공예전공자의 비율(3.1%)은 낮고, 공예전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교과서가 16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표 6-23 고등학교 미술교과서(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통합) 집필진 전공 분포

단위: 명

출판사	집필진	교육학	공예	디자인	회화	조소	기타	합계
(주)지학사	조익환 외 4인	3				1	1	5
천재교육	이상원 외 4인	3				1	1	5
(주)지학사	안금희 외 4인	4			1			5
미진사	김영길 외 4인	2					2	5
(주)교학사	노용 외 5인	6						6
(주)지학사	조우호 외 3인	2		1	1			4
미진사	박남희 외 11인							11
미진사	강해중 외 11인	8		2	1		1	11
합계		28	0	3	3	2	5	52
비율(%)		53.8%	0%	5.8%	5.8%	3.8%	9.6%	100%

- 여러 전공자의 경우 최종학위 전공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회화에는 서양화와 동양화 모두 포함된다.
- 교육학에는 미술교육학, 초등교육과, 교육학 모두 포함한다.
- 미진사(박남희외 11인)의 경우, 전공을 표기하지 않았다.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경우, 공예전공자가 포함된 경우는 한 중도 없었다. 다만 교육학 역시 다른 학년군의 미술교과서들에 비하여 53.8%로 그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기타 전공자의 비율(9.6%)이 회화 전공자(5.8%)보다 많이 집계되었다. 이는 보다 이론적인 설명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교과서 분석의 내용과 비교해볼 때 공예실습의 수가 적은 점과도 일치하였다.

각 학년 군별 미술교과서의 집필진 전공을 분석해보았다. 모두 교육학 전공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회화전공자의 수가 높으나 그 편차가 컸다. 이에 반하여 공예전공자는 초등학교 5-6학년은 4.7%, 중학교는 3.1%이고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집필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교과 외 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 교과 내 교육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학교가 교과 외로 이루어졌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며, 방과 후 활동은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교과 내 교육과 달리 필수과정이 아니며, 학교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외부 강사 영입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공예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없는 교과 내 과정과 다르게, 공예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심도 있는 공예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가.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¹⁵⁾으로 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내용 체제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종래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육과정 활동 영역이다. 2011년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13년에는 모든 학교 급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¹⁶⁾

표 6-24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과 연계

단위: 개교

구분	교과연계			지역사회연계		
	초	중	고	초	중	고
국어	31	23	9	4	—	—
수학	7	12	7	1	—	—
사회	30	27	15	3	1	—
도덕	26	11	1	3	1	—
과학	30	20	19	3	1	1
기술가정	18	12	4	4	—	—
음악	18	20	4	3	—	—
미술	24	17	4	4	—	—
체육	31	16	4	2	1	—
바른생활	13	—	—	1	—	—
슬기로운생활	20	—	—	4	—	—
즐거운 생활	18	—	—	1	—	—
영어	11	15	8	2	1	—
범 교과	—	6	4	—	—	—
참여학생수(천명)	—	2	—	1	—	—
구분안된사례	14	10	5	35	26	14

· 출처 이승미 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p.171

· 조사 시기 2013년 4월~7월

· 제시된 숫자는 해당 사례가 제시된 학교의 수를 의미한다.

교과 이외의 활동이지만 수업시수와 이수단위에 포함되며,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교과 연계는 초등학교는 국어(31개교), 체육(31개교)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고 중학교는 사회(27개교), 고등학교는 과학(19개교)이 가장 많이 연계되었다. 미술의 경우 초등학교가 24개교로 높은 연계성을 가졌지만, 중학교는 17개교, 고등학교는 4개교로 비교적 낮은 연계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는 창의

1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 2011-361 호)」[별책 26], 교육과학기술부, 2011, p.3

16 이승미 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머리말 참조

적 체험활동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미술교과와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¹⁷⁾

비록 미술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공예 관련 프로그램의 시수는 교과과정보다는 보다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이 이루어졌다. 가령 공예 관련 초등학교 미술수업이 기존에 정해진 2시수(80분) 동안 이루어지는 반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보다 긴 시간인 3시간에서 12시간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보통 여러 회 이루어지는 수업시간을 통하여(가령 1시간 수업 3회 등), 계획부터 만들고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보다 완성도 높은 공예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그리고 이러한 점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나. 방과 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교과 외 활동인 방과 후 학교를 2013년에 운영한 학교는 2012년과 동일한 99.9%에 달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은 2012년에 71.9%에 비하여 72.2%로 0.3% 소폭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참여율은 2012년에 각기 67.6%와 77.35%에서 2013년에는 65.8%와 76.6%로 감소한 반면, 초등학생의 참여율은 71.1%에서 73.3%로 증가하였다.¹⁹⁾

표 6-25 방과 후 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 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운영학교수(교)	5,906	3,172	2,319	11,397
비율(%)	100.0	100.0	99.9	99.9
참여학생수(천명)	2,035	1,186	1,447	4,678
비율(%)	73.3	65.8	76.6	72.2

· 출처 「2013년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보도자료), 교육부, 2013.4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7 위의 책, p.171

18 일선 창의적 체험 강사와의 인터뷰 내용 참조

19 2012년도 현황은 「2012 공예백서」 참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점차 확대 시행 예정인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후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를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2013년 조사에서 68%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돌봄교실의 경우 2013년에는 학교별 여건 내에서 저학년을 우선으로 운영하였지만, 2014년에는 1-2학년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에는 1-4학년, 2016년에는 전 학년이 돌봄교실에 참여대상이 된다.²⁰⁾

표 6-26 2013년 돌봄교실 운영현황

구분	운영시기·시간	학교수	돌봄교실수	학생수
오후돌봄교실	방과후-17:00	5,784교 (97.8%)	7,395실	159,737명
온종일돌봄교실 (오후돌봄 연장 운영)	06:30-22:00	1,459교 (24.7%)	1,927실	38,738명
합계		7,243교	9,322실	198,475명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 발표」, 교육부, 2014

· 조사기준일 2013년 4월 30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연계를 통하여 공예를 포함한 미술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것에 대한 기대는 2013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2013년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현황 중 미술의 경우 5.5%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어(14.7%)나 수학(14.5%)과도 많이 차이이며, 같은 예체능 계열인 음악(8.2%)이나 체육(11.1%)보다도 낮은 비율이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체육, 음악 및 영어에 이어 비교적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예프로그램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표 6-27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초	중	고	계	비율(%)
국어	9,689	15,583	33,147	58,419	10.2
수학	25,708	21,055	36,206	82,969	14.5
사회	2,198	12,991	24,712	39,901	7.0
과학	13,670	15,232	23,761	52,663	9.2
영어	25,901	21,401	36,793	84,095	14.7
제2외국어	3,125	1,614	1,102	5,841	1.0
음악	32,802	11,047	2,715	46,564	8.2
미술	25,562	4,110	1,618	31,290	5.5
체육	41,278	15,816	6,056	63,150	11.1
컴퓨터	23,376	1,429	3,897	28,702	5.0
독서논술	9,707	3,078	2,922	15,707	2.8
기타	38,176	11,446	11,398	61,020	10.7
계	251,192	134,802	184,327	570,321	100.0

· 출처 「2013년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보도자료), 교육부, 2014

· 조사기준일 2013년 4월 30일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초등학교에서는 미술관련 창의적 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요과목과 관련한 활동에 비하여 현저히 공예 관련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과 관련한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예체능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기회나 요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대학교양교육 현황

중고등학교 이후 공예교육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대학의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교양교육에서 공예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2013년 공예 관련 학과를 보유했던 대학은 59개로, 그 중 교양과목에서 공예 및 디자인 관련 과목이 개설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 중 도예관련 과목은 2개, 패션관련은 3개, 보석관련 과목은 1개이며, 대부분의 과목은 역사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과목이었다. 그리고 비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생활과 연관을 시키거나(예. 사물과 예술, 생활도예, 생활과 공예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함께 살펴본 과목(예. 전통문화의 이해,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등), 그리고 현 사회에서 시사 하는 논점을 중심한 과목(예. 생활도예, 창조와 디자인, 그린디자인, 슬로우 패션이야기 등)이 있었다.

표 6-28 대학교의 공예 및 디자인관련 교양교육

대학	교과목명	개설학과(전공)	이수학점	정원	개설학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 미의 탐색	전통교양교육원	3	—	2 학기
청주대학교	생활과 공예	교양	2	—	1, 2학기
	생활과 디자인	교양	2	—	1, 2학기
	한국미술문화체험	교양	2	—	1, 2학기
제주대학교	생활과 디자인	멀티미디어전공	2	60	1, 2학기
	문화와 디자인	문화조형디자인전공	2	60	1, 2학기
전남대학교	전통 문화의 이해2 (고고·민속분야)	인류학과	3	48	1, 2학기
	한국 전통미술의 이해	기초교육원	3	26	1, 2학기
이화여자대학교	사물과 예술	조형예술학부	3	80	1, 2학기
	디자인사	산업디자인전공	3	150	1학기
원광대학교	한국전통미술의 이해	고고·미술사학과	2	100*	1, 2학기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사학과	2	100	1학기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생활	디자인학부	3	50	1학기
	도예의 기초	디자인학부	2	30(25)	1, 2학기

서울대학교	예술·디자인과 녹색사회	기초교육원	3	80	1학기
	창조와 디자인	기초교육원	3	50	1학기
	디자인과 생활	디자인학부	3	50	2학기
	한국의 미와 예술	미학과	3	60	2학기
	한국의 문화유산	국사학과	2	60	2학기
삼육대학교	현대공예A/B	미술컨텐츠학과	3	25(최대30)	2학기
백석대학교	생활도예	공예디자인전공	2	20	1, 2학기
동양대학교	한국의 美감상	교양학부	2	40	2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EU문화컨텐츠	불어불문학과	2	80	2학기
	기호학과 문화콘텐츠	기초교양교육원	2	60	2학기
국민대학교	공예미술과 문화	도자공예학과	2	66	1학기
	그린디자인	미술학부	2	42(19)	2학기
공주대학교	한국민속과 축제	국어교육과	3	—	1, 2학기
	슬로우패션이야기	의류상품학과	3	—	1, 2학기
	현대패션과의 생활	의류상품학과	3	—	1, 2학기
	디지털디자인	멀티미디어전공	3	—	1학기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	문화재보존과학과	3	—	1, 2학기
	보석의 세계	조형디자인학부	3	—	1학기
	서양패션문화이야기	의류상품학과	3	—	1, 2학기

· 출처 해당대학교의 개설학과(전공) 및 교양학부 2013년 1학기, 2학기 기준

· 전국 공예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을 선정한 후(총 59개), 각 학교의 교무처 및 해당과에 연락하여 답변을 한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 원광대학교의 '한국전통미술의 이해'는 학기별로 정원 100명의 반이 두 개가 개설되어 있다.

비록 공예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많지 않고 대부분 전통문화나 역사와 같은 넓은 범위 내에서 공예를 이해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비전공 학생들이 공예 및 디자인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전문가들을 통한 취미공예와 관련 교육이 확대되고 이는 시점에, 보다 공예에 관한 근본

적인 이해와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공예 관련 과목의 개설이 요청된다.

3) 교강사 현황 및 교육 현황

2009년 개정 교육과정¹⁾이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미술교과의 시수는 학년 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교사의 재량이 공예교육여부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2013년 교강사 현황과 교강사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1) 교강사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 담임교사를 통하여 교과과정이 이루어지며, 교과 외 과정의 경우 외부 강사 및 전문가 등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중·고등학교는 미술담당교사에 의하여 공예교육이 이루어지는데, 『2013년 교육통계연보』²⁾을 통해 미술교원의 수와 공예·디자인 전공 교원 수를 파악하였다. 공예 및 디자인을 전공한 교원의 경우 미술교원 수 대비 비율이 중학교는 0.9%, 고등학교는 2.3%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공예에 대한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힘들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표 6-29 중·고등학교 미술교원 수 대비 공예·디자인 전공 교원 수 및 비율

단위: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공예·디자인 전공	전체 미술교원	공예·디자인 전공	전체 미술교원
국립	0(0%)	18	0(0%)	13
공립	39(1.0%)	3,868	32(2.8%)	1,159
사립	5(0.6%)	844	13(1.6%)	821
총계	44(0.9%)	4,730	45(2.3%)	1,993

· 출처 『2013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3

·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초등학교의 경우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교과과정을 지도하지 않지만, 교과 외 교육과정에서 외부강사에 의한 공예수업이 이루어진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교에서는 예체능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교 지원예술강사 역시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²¹⁾ 그 중 공예전문강사는 2010년부터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체 예술강사(공예 외에도 국악, 연극 등을 모두 포함)의 수가 증가함에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표 6-30 학교지원예술강사 중 공예 전문강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예강사(명)	52	87	127	167
전체예술강사(명)	4,156	4,164	4,263	4,485
비율(%)	1.3	2.1	3.0	3.7

· 출처 정현수 외,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p.18

· 학교지원 예술 강사의 전공분야는 공예 외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이 있다.

표 6-31 공예 강사 자원 참여 학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참여 학교수(개)	115	180	297	378
전체 참여학교수(개)	9,189	8,615	9,357	9,669
비율(%)	1.3	2.1	3.2	3.9

· 출처 정현수 외,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p.18

· 학교지원 예술 강사의 전공분야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이 있다.

공예 강사를 지원한 학교의 수와 비율 역시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교과 외 과정에서 공예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2013년에 3.9%인 378개교에서만 공예 강사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공예에 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21 앞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표 6-27] 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 음악 다음으로 미술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2) 교강사 교육기관 및 재교육

미술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사범대학교는 전국 7개이며, 2013년의 입학정원은 184명으로 2010년부터 총 194명으로 동일했으나 2013년에 다소 줄어들었다.²²⁾ 그리고 그 외에 디자인·공예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은 총 154개교로 2013년의 입학정원은 3,462명이었다. 이 역시 2012년 현황(5,766명)²³⁾에 비하여 크게 줄었다. 이러한 점에서 2년에 한번 집계되는 교원양성현황에서 2013년에 교원승인 된 인원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시 2012년의 455명에 비하여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6-32 디자인·공예 교직과정 설치대학 현황

대학	학교 수(개)	학과 수(개)	입학정원(명)
국·공립	30	748	250
사립	124	1,895	3,212
계	154	2,643	3,462

· 출처 「2013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부, 2013

· 교원양성기관 현황조사는 2년에 한번 씩 이루어지므로, 2013년 교원승인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거나 미술교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예의 특정한 분야 및 관련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한다. 실제 초등교사 인터뷰에서도 공예 제작과정에 대한 보다 쉬운 설명이 수록된 학습서 및 지도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²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사 재교육이 교원연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교원연수기관은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이었다. 그리고 각 연수원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학교 별로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 2013년에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진 연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미술교육과가 개설된 사범대학교 중 국립은 경상대, 공주대, 한국교원대이고, 사립은 경남대, 목원대, 한남대, 한양대이다(「2013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부, 2013.).

23 허보윤, 황승욱, 강정현, 김유라, 윤이랑, 앞의 책, p.169

24 일선 초등학교 미술 교사들의 〈신화수(서울신천초등학교), 이영규(서울삼전초등학교), 함성주(서울청구초등학교), 이수영(서울서빙고초등학교)〉 심층 인터뷰 내용 발췌

표 6-33 2013년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연수 과정 통계

연수종류	자격연수	직무연수	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	특별연수	합계
개수(개)	28	525	156	4	14	4	731

· 출처 서울시교육연수원(<http://www.seti.go.kr/>)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에서는 총 731개의 연수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공예 관련 과정은 직무연수에 포함된다. 그리고 2013년에는 특히 목공예만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11개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이 목공구 및 목공기계 다루기, 전통목공예 품 만들기 등 보다 실무적인 실습 위주로 이루어졌다.²⁵⁾

표 6-34 2013년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공예 관련 연수 과정

과정명	대상	인원(명)	기간
중등 우면공방(목공예) 전문가과정	중등 기술과 교사	19	12일
중등 수학과 목공예	중등 교원	20	4일
생활 속의 목공예 1과정	일반직, 기능직	40	8일
초등 꿈과 끼를 키우는 목공예교육 1기	초등교원	20	5일
초등 꿈과 끼를 키우는 목공예교육 2기	초등교원	20	5일
초등 꿈과 끼를 키우는 목공예교육(3기)	초등교원, 교육전문직	20	8일
초등 꿈과 끼를 키우는 목공예교육(4기)	초등교원, 교육전문직	20	7일
생활 속의 공예 1과정	일반직, 기능직	20	7일
초등 꿈과 끼를 키우는 목공예교육(5기)	초등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20	7일
초등 꿈과 끼를 키우는 목공예교육(6기)	초등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20	7일
생활 속의 공예 2과정	일반직, 기능직	20	5일

· 출처 서울시교육연수원(<http://www.seti.go.kr/>)

· 과정의 순서는 교육 시기별로 나열하였다.

25 서울시교육연수원(<http://www.seti.go.kr/>) 내 공예 관련 연수과정 세부내용 참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관련 일반교육의 2013년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2012년의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교과 내 교육에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 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예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는 미술교과 내 다른 분야(회화, 조각, 디자인 등)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예수업의 현황 상, 보다 쉽고 자세한 공예 제작에 대한 지도서 및 관련 교원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예는 재료범주별로 다양한 제작 방식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종류의 공예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하는 것에 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을 통하여 공예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외부 강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일반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일 것이다.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공예 활동이 기대되는 초등학교 교육에 반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공예 일반교육은 주로 이론이 강화되는 반면 시수나 개설 강의수가 다른 과목에 대하여 비교적 적었다.

3. 전문 공예교육 현황

전문교육은 어떠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문 공예교육은 학교 교육 중 공예전문가를 양성하기 목적으로 한 교육을 지칭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공예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중등교육과정과 전문학사과정 및 학사과정 그리고 석·박사과정을 포함한 고등교육과정이다.

1) 중등 공예교육 현황

2010년에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4개 유형으로 한 체제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중 전문계열 특수목적고(농업, 공업, 수산, 해양)과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다.²⁶⁾

표 6-36 공예과정 개설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구분		학급수(개)	학생수(명)
전체		13,554	375,063
금속	주얼리디자인 경영과	3	67
	금은세공	12	341
	귀금속과	12	319
	소계	27	727
도자	도예디자인과	9	241
	세라믹디자인과	2	58
	세라믹 아트디자인과	6	161
	도예과	7	183
	소계	24	740
섬유	섬유설계과	6	167
	섬유소재디자인과	3	63
	패션신소재설계과	6	182
	섬유디자인과	17	445
	섬유패션디자인과	6	172
	패션섬유디자인과	6	197
	디지털 섬유디자인과	6	171
	텍스타일디자인	7	198
	소계	57	1,595
기타	공예디자인과	3	83
공예과 합계		111	3,048

· 출처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포털(<http://www.hifive.go.kr/>)

2012년과 비교해보면, 공예과의 학급수는 6개가 줄었고 학생수는 265명이 줄었다. 학급수는 세라믹디자인과 두 학급, 섬유소재디자인과 한 학급, 텍스타일디자인 두 학급,

공예디자인과 세 학급이 줄어들고 도예디자인과와 도예과는 한 학급이 늘면서 변동이 생겼으나 전체적인 현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3년 재학생의 경우 모두 특성화고에 속하지만, 2013년에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2010년에 입학한 학생들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속했다. 이에 2013년 공예과정 전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37 공예과정 개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현황

개설과정	졸업	진학	취업
전문계 고등학교 전체(명)	141,774	67,184(47.3%)	50,146(35.4%)

· 출처 『2013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3

전문계 고등학교가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유사하게 진학비율(47.3%)이 취업비율(35.4%)보다 높았다. 2012년의 취업률(31.55%)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진학을 더욱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고등 공예교육 현황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중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예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학교의 공예과 및 전공은 학과 명칭에 공예에 들어간 경우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상 공예와 관련한 경우로 다소 폭넓게 살펴보았다.²⁹⁾

(1) 전문학사(2-3년제 대학) 교육

전문학사학위를 받는 2-3년제 전문대학은 전국에 총 140개교³⁰⁾가 있었으며, 이 중 26개의 학교에서 총 33개의 공예 관련 학과(전공)를 개설하였다. 이는 2012년 현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은 30개교에서 26개교로, 학과(전공)은 36개에서 32개로 줄었

29 자세한 목록은 [표 6-39] 2-3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개설현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에서 대학 공예과(전공) 개설 현황과 대학원 석·박사 공예과 개설 현황을 참고하기 바란다.

30 『2013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3

다. 하지만 『2012 공예백서』와 본 백서에서 대학 공예과 현황 파악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엄정한 비교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2012년에 비하여 다소 줄었다는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표 6-38 2-3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현황

구분	대학	학과(전공)	재료 범주
개수(개)	26	32	4

· 출처 전국 2-3년제 대학 홈페이지

표 6-39 2-3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개설현황

지역	대학명	학부 · 계열	학과(전공)
서울	송익여자대학교	디자인계열	주얼리디자인전공
	인덕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주얼리디자인과
			공간장식도자디자인과
	한양여자대학교	예체능계열	도예과
		공학계열	섬유패션디자인과
경기	계원예술대학교	라이프스타일군	산업디자인과
	동서울대학교	공학계열	시계주얼리과
	부천대학교	예체능학과	주얼리디자인전공
		공학과	섬유비즈니스과
	서정대학교	—	섬유패션디자인과
	신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섬유의상코디과
	여주대학교	예체능계열	도자문화예술과
			주얼리디자인과
	용인송담대학교	디자인계열	섬유패션디자인과
	장안대학교	디자인학부	주얼리디자인과

경기	한국재활복지대학	예체능계열	귀금속보석공예과
부산	동부산대학교	문화산업계열	생활도예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주얼리디자인과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화학부	보석감정&디자인과
대구	대구과학대학교	예체능계열	주얼리디자인과
		인문사회계열	보석감정마케팅과
	수성대학교	—	보석감정과
인천	인천재능대학교	문화예술분야	주얼리금속디자인과
광주	서영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과(가구)
			산업디자인과(주얼리)
대전	대전보건대학교	예능계열	주얼리디자인과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아트계열	귀금속디자인과
	혜천대학교	예체능계열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충북	강동대학교	디자인분야	주얼리디자인과
			섬유스타일리스트과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한류예술학부	주얼리디자인과
전남	전남도립대학교	예체능계열	도예차문화과
경북	문경대학교	—	도자기공예과
합계	26개 대학	—	33개 학과(전공)

· 출처 전국 2-3년제 대학 홈페이지

33개의 학과를 재료 범주별로 살펴보면, 금속/귀금속/보석/석이 18개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자, 섬유/가죽, 목의 순이다. 금속관련 학과는 전체 학과에서 56.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의 현황(52.6%)과 비슷하다. 이는 4년제 대학교의 공예 과정에 비하여 한 범주로 편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40 2-3년제 대학 재료범주별 공예관련 전공 수

구분	금속/귀금속/ 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 가죽	종이/ 한지	죽세/ 초경	기타	합계
개수(개)	18	6	0	2	0	6	0	0	0	32

· 출처 전국 2-3년제 대학 홈페이지

많은 전문대학과 대학의 공예과에서 학과 명칭을 공예에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점에서 학과 명칭에 ‘공예’를 사용한 학과만을 통계자료로 삼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공예과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3 교육통계연보』에서는 2-3년제 대학의 공예과를 23개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 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 졸업생 중 취업률은 42.2%로 4년제 대학 공예과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표 6-41 2-3년제 대학 공예과 학생 현황

구분	공예과(개)	입학생(명)	재적생(명)	졸업생(명)	취업자(명)	취업률(%)
수치	23	557	1,599	11,340	4,787	42.2

· 출처 『2013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3

· 2013년 4월 1일 기준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학사(4년제 대학) 교육

전국의 4년제 대학은 188개이며³¹⁾, 이 중 공예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59개교가 있었다. 이 역시 전문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과명칭 뿐 아니라, 학과 특성상 공예교육과 밀접할 경우를 모두 선정하였다.³²⁾ 그리고 2-3년제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2 공예백서』와 현황 파악 방식이 상이하여 엄정한 수치상 비교가 힘들지만 4년제 대학의 공예관련 공예과(전공) 현황 역시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³³⁾

31 『2013년 교육통계연보』

32 4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개설 현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에서 참조하기 바란다.

표 6-42 4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현황

구분	대학	학부 · 학과	학과(전공)
개수(개)	59	65	104

· 출처 전국 4년제 대학 홈페이지 참조

· 4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개설 현황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공예학부 · 학과는 65개로 집계되며, 여기에는 104개의 전공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문대학의 공예과보다는 보다 다양한 재료 범주의 분포를 알 수 있었다. 총 8가지 범주이며, 도자를 가장 많은 전공에서 다루고 있었고(28개), 그 다음으로 섬유/가죽/, 금속/귀금속/보석/석, 목공예였다. 더불어 공예의 모든 범주를 다루는 학과도 11개가 있었다. 또한 유리, 칠, 종이/한지는 비록 적은 수이었지만 전공이 개설된 학교가 있었고, 공예이론 전공도 한 개과에서 개설되었다.

표 6-43 4년제 대학 재료범주별 전공 수

재료범주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가죽	종이/한지	죽세/초경	종합	이론	합계
전공수(개)	23	28	3	12	2	24	1	0	11	1	105

· 출처 전국 4년제 대학 홈페이지 참조

· 4년제 대학 공예과(전공) 개설 현황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 한 전공에서 2개 이상의 공예분야를 교육할 경우 복수집계가 되므로 학과(전공) 현황과 차이가 있음.

앞서 전문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대학의 공예과에서 학과 명칭을 공예에서 디자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공예명칭을 사용한 학과만을 통계 근거로 삼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통계와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3 교육통계연보』에는 공예과를 35개로 보았다. 그리고 35개 학과의 졸업생 수에 비하여 취업률은 36%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문대학의 취업률보다는 다소 낮았다.

33 『2012 공예백서』에서는 4년제 대학 공예과 개설 대학은 59개교, 학부 및 학과는 65개, 학과(전공)은 104개로 집계되었다.

표 6-44 4년제 대학 공예과 학생 현황

구분	공예과(개)	입학생(명)	재적생(명)	졸업생(명)	취업자(명)	취업률(%)
수치	35	738	3,770	633	228	36

· 출처 『2013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3

· 2013년 4월 1일 기준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석·박사 교육(대학원)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은 전국에 1,200개가 있었다.³⁴⁾ 이 중 공예과(전공)이 있는 대학원은 40개교³⁵⁾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앞서 57개 대학교의 학부 중 53개 학부가 대학원과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 공예과를 가진 학사과정 대비 석·박사과정의 비율이 93%이었다. 또한 이 중 16개교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함께 개설되어 있었다.

표 6-45 대학원 석·박사 공예과(전공) 현황

단위: 개

지역	대학원	학부/학과	석사	박사	전공
서울	14	22	19	8	32
경기	6	8	8	4	17
충북	1	1	1	0	4
충남	4	6	6	1	6
광주	3	4	4	2	7
전북	2	2	2	1	2
대구	2	2	2	1	2
울산	1	1	1	0	1
경북	3	3	3	2	3

34 『2013년 교육통계연보』

3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에서 석·박사 공예과 개설 현황 참조

경남	3	3	3	2	3
강릉	1	1	1	0	1
합계	40	53	50	21	78

· 출처 전국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에서 석·박사 공예과 개설 현황 참조

학사과정과 석·박사과정이 연계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범주는 학사과정보다는 다양성이 적었다. 석사의 경우 5개 범주이며, 섬유/가죽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자와 금속/귀금속/보석/석이 비슷한 비율을 가졌으며, 그 다음으로 목과 유리가 있었다. 박사과정의 경우 범주는 4가지로 줄었으며, 섬유/가죽,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목의 순으로 재료 범주별 전공의 분포가 분석되었다.

표 6-46 대학원 석·박사 재료범주 전공 수

재료범주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가죽	종이/한지	죽세/초경	종합	이론	합계
석사(개)	23	24	2	13	0	26	0	0	0	0	88
박사(개)	13	11	0	8	0	14	0	0	0	0	46

· 출처 전국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에서 석·박사 공예과 개설 현황 참조

학생현황의 경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를 참고하였으며 이에 그 수가 석사과정은 29개과 박사과정은 3개과였다. 석·박사과정의 경우 학사나 전문학사에 비하여 학위취득이 어렵다는 점에서 취업률보다는 입학생수 대비 졸업생수의 비율이 유의미할 것이다. 2013년에는 석사의 경우 입학생수에 비하여 73.9%가 졸업을 하였고, 박사의 경우 12.3%가 졸업했다.

표 6-47 공예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 현황

구분	공예과(개)	재적생(명)	입학생수(명)	졸업생수(명)
석사	29	366	134	99
박사	3	21	7	1

· 출처 『2013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3

4. 소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2013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중 일반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미술’ 교과를 통한 교과 내 교육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공예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을 통해 공예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교강사 교육 현황 중 공예 관련 교육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특징적인 2013년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반 공예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에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 군과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학년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랐다. 초등학교 1-2학년 군(즐거운 생활)을 제외하고는 각 학년 군별로 미술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2009년 개정교과과정은 수업시수를 학년이 아닌 ‘학년 군’별로 정하였다고, 미술은 음악과 함께 ‘예술’로 묶어서 수업시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년 군별 탄력적인 수업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예 관련 수업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또한 미술교과서 역시 2012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예의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과 외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미술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활성화되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미술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낮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점은 공예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교과 내 수업보다는 더욱 긴 시간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완성도 높은 공예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셋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일반교육은 교양교육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공예가 있는 학교에서도 공예 관련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예 관련 교양수업이 개설된 경우에도, 특정 공예에 대한 수업이 아니라 공예나 문화 전반을 소개해 주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학교에서 미술과 공예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과 내 미술교원 중 공예 및 디자인을 전공한 교원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 외 교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예 관련 외부강사와 강사지원에 참여한 학교는 2010년부터 꾸준히 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 내 미술교원에 대한 공예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전국의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예 관련 프로그램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일반교육이 공예에 대한 교양의 함양에 더 기반을 두었다면, 보다 심화된 전문 공예교육을 살펴보았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고를 한 전문 공예교육이 이루어졌고,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한 공예전공과정이 보다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석·박사 과정에서 개설된 공예전공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2013년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전문 공예교육의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재편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공예과정 현황은 2012년과 비교해 보면 학급과 학생 수가 다소 줄었다. 2013년에 졸업한 전문계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재편 이전의 형태)의 졸업생수 대비 취업률은 35.4%인 반면, 진학률은 47.3%로 2012년보다는 다소 취업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진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등공예교육 중 2-3년제의 전문대학의 공예과의 경우 주로 금속/귀금속/보석/석의 재료범주에 속하는 전공이 많았고, 그 외로 도자와 섬유/가죽 등을 다루는 학과가 있었지만 대체로 편중되어 전공이 개설되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일부 재료 범주(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섬유/가죽) 등에 전공 수가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범주를 다루는 전공도 소수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률의 경우 2-3년제 전문대학

의 졸업생들이 다소 높았다.

셋째, 석·박사의 경우 공예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 중 93%가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석·박사과정이 함께 개설되어 있는 곳은 16개교이다. 석사과정의 경우 4년제 학부와 유사하게 폭넓은 재료범주별 전공분포를 보이지만, 박사과정의 경우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목, 섬유/가죽에만 한정되어 개설되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공예교육의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전문 공예교육의 경우, 공예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반 공예교육에서도 중·고등학교나 대학의 교양과목에서 공예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외 과정에서 특히 공예를 비롯한 미술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평생교육 중 취미교육과 교양과 문화의 함양을 위한 공예교육의 연결점을 찾아 볼 수 있다.

3절 · 공예 평생교육

공예교육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비중은 적지 않다. 특히 취미공예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공예 평생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 공예 평생교육의 정의 및 범주

1) 공예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법」에 의거하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³⁶⁾으로 정의된다. 이에 근거하여 공예 평생교육 역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공예교육활동으로 보았다.

2) 공예 평생교육의 범주

공예 평생교육은 크게 취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누어진다.³⁷⁾ 취미교육은 단어의 뜻 그대로 공예를 직업이나 생계의 목적이 아닌, 취미의 형태로 향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양을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취미교육은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 주체가 각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부터 박물관 등의 국·공립평생교육기관

36 「2011·2012 평생교육백서, 2013, pp.6-7

37 앞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과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으로 나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유·초·중등학교부설, 대학(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이 속하며,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과 방송통신고등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초·중·고) 등 각종 학력인정학교,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 및 전문대학과정), 사이버대학(대학 및 전문대학과정), 원격대학(대학 및 전문대학과정), 사내대학(대학 및 전문대학과정), 기능대학, 전공대학, 특수대학원 등의 각종 대학 및 전문대학과정의 학교를 말한다. 그렇지만 본 책에서는 엄밀히 일치하지 않지만 교육주체인 기관에 따른 분류보다는 교육의 성질에 대한 분류로 취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및 대학, 백화점, 대형유통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설평생교육기관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도사 자격증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지도사격을 갖춘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사업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규모는 방대하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취미교육주체에 대한 통계나 집계는 현재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중앙의 등록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한 점에서 조사기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 백서에서는 표본 조사를 중심으로 그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공예 직업교육 역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하며, 학생 및 일반인의 공예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 및 전문가들의 재교육을 포함하였다. 이 역시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지는 만큼 전체적인 파악은 쉽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과 같은 직접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의 공예교육 현황파악과 함께 자격증 현황, 그리고 전통전수관이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및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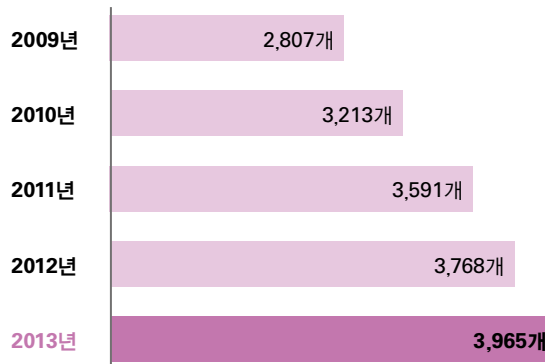
2. 공예 취미교육 현황

1) 취미교육 전체 현황

2013년 취미교육의 전체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와 평생교육진흥원의 『2013 평생교육백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중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취미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³⁸⁾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수는 2013년에 3,965개로, 이는 2010년 3,213개, 2011년 3,591개, 2012년 3,768개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3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이 중 지식·인력개발형태나 평생학습관의 일부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취미교육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기관을 아우르고 있다.

그림 6-1 평생교육기관 연도별 변화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진흥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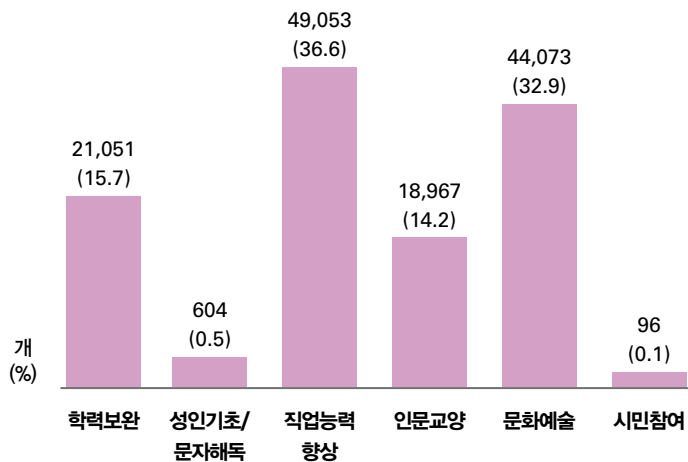
표 6-48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전체 현황

시설구분	기관(개)	프로그램(개)	학습자(명)
총계	3,965	180,843	18,260,301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학습자 역시 2012년의 178,971개와 17,618,495명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공예가 포함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32.9%로 직업능력향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6-2 2013년 유형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 현황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진흥원, 2014

· 1개월 이상 이루어진 수업에 한함

이러한 높은 관심과 참여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중, 공예 관련 프로그램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표 6-51와 표 6-52 참조). 독특한 점은 전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학습자가 참여한 것은 원격형태인 반면, 문화예술 및 공예프로그램의 경우 원격형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공예가 주로 실기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사업장부설이 가장 많은데,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 등 사설 평생교육기관에서 공예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6-49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 및 공예 강좌 학습자 수

단위: 명

시설구분	전체	문화예술	공예
유·초·중등 학교부설	388	72	0
대학(원)부설	833,176	173,364	1,738
원격형태	13,799,283	59,486	1,186
사업장부설	1,197,333	866,801	7,517

시민사회단체부설	170,032	55,652	1,972
언론기관부설	225,355	44,635	3,672
지식인력개발형태	869,497	164,700	2,643
평생학습관	1,165,237	421,341	7,798
총계	18,260,301	1,786,051	26,52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제공자료, “공예” 키워드 공예 학습자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 2013년 5월 1일 기준
- 회색부분은 각 항목별 가장 높은 수치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전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예교육은 전체프로그램 대비 프로그램 수는 2.8%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2년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2012년의 공예 관련 프로그램 수는 총 4,383개인 반면, 2013년은 5,504개로 증가하였다.

표 6-50 2013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 및 공예 프로그램 수

단위: 개

시설구분	전체	문화예술	공예
유,초,중등 학교부설	32	5	0
대학(원)부설	26,952	5,334	507
원격형태	45,247	578	57
사업장부설	63,348	24,760	2,227
시민사회단체부설	5,350	1,849	633
언론기관부설	6,485	1,849	805
지식인력개발형태	12,574	3,038	525
평생학습관	20,855	7,379	750
총계	180,843	44,792	5,50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제공자료, “공예, 공예이론, 금속공예, 수공제작, 양재 및 의상, 전승 및 전통” 키워드 공예 프로그램 중 공예에 맞는 프로그램 정리 후 집계한 수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 2013년 5월 1일 기준
- 회색부분은 각 항목별 가장 높은 수치

2) 국·공립 평생교육기관

국·공립 평생교육기관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박물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³⁹⁾ 이는 평생교육진흥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학습관’⁴⁰⁾으로 묶고 있는 기관들과 동일한 범주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서비스에서 수집한 평생학습관의 공예강좌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6-51 평생학습관의 재료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 현황

구분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가죽	종이/한지	죽세/초경	기타	전체
사례수(개)	18	74	0	8	1	223	267	0	159	750
비율(%)	2.4	9.9	0	1.1	0.1	29.7	35.6	0	21.2	10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제공자료

· 2013년 5월 1일 기준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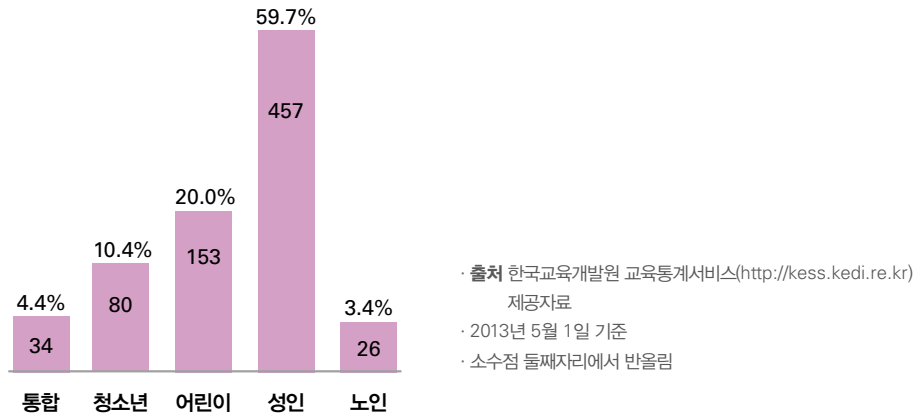
재료 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다루기 쉬운 재료인 종이/한지와 관련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었다. 전통의 한지를 이용한 공예가 가장 많았지만 이에도 냅킨 아트, 종이 공예 등 취미공예 분야가 있었다. 그 외의 기타로는 양초공예, 폐품공예와 같은 특정한 재료를 다루는 강좌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강좌 중 지도사 자격을 취할 수 있는 강좌(18개)가 있었지만, 대부분 보다 쉽게 공예를 접할 수 있는 내용의 강좌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다른 주체의 평생교육기관에 비하여,⁴¹⁾ 성인을 제외한 어린이(20.0%), 청소년(10.4%)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많았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연령층이 공예를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은 학습자가 강좌를 수강하기도 하였다.⁴²⁾

39 허보윤, 황승욱, 강정현, 김유라, 윤이랑, 앞의 책, p.173

40 2013년 5월 1일 기준으로 공예 강좌가 개설된 곳은 각 지자체의 도서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평생학습관, 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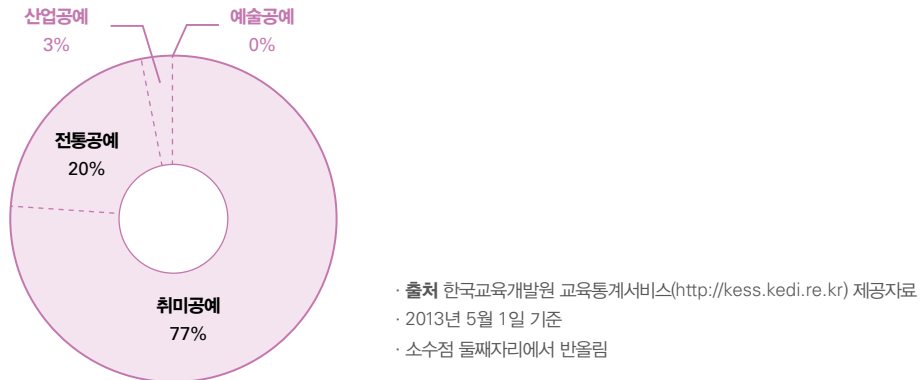
41 [표 6-61]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성인대상프로그램이 92.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대학(원)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만이 개설되었다.

그림 6-3 평생학습관 공예 강좌 연령대별 현황



보다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취미를 위한 강좌가 개설되었던 만큼 예술공예나 산업공예와 같이 전문적인 범주보다는 취미공예와 전통공예를 다루었다. 그 중 특히 취미공예가 공예강좌 전체의 77%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규방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자수나 천연염색 등 전통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전통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층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4 평생학습관의 1차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 현황



42 [표 6-54]를 참고해 보면, 전체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는 학습자가 가장 많은 것은 원격형태였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경우 사업장부설에서 가장 많은 학습자가 강의를 들었으며, 공예 강좌의 경우 평생학습관의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공예 강좌의 참여자가 많았다.

이와 같이 평생학습관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보다 쉽게 공예를 접하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축제 및 비엔날레 등을 통한 크고 작은 공예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회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고 4장의 전시와 행사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3) 사설평생교육기관

사설평생교육기관은 그 설립 및 운영 주체가 사설기관으로,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및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살펴보았다. 사실상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공예교육 프로그램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된 전체 프로그램 중 3.5%,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전체 프로그램 중 1.9%가 공예 관련 프로그램이었다.([표 6-52] 참조)

(1)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많은 공예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곳이 사업장부설평생교육기관이었다. 이를 재료 범주별로 보면, 평생학습관과 다르게 섬유/가죽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개설되었다. 규방공예나 천연염색, 지수, 조각보와 같은 전통공예와 함께, 리본공예, 펠트공예, 가죽공예 등 다양한 섬유/가죽공예 강좌가 이루어졌다.

표 6-5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재료 범주별 공예 강좌 개설 현황

구분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가죽	종이/한지	죽세/초경	기타	전체
사례수(개)	94	161	3	32	0	1,458	171	0	308	2,227
비율(%)	4.2	7.2	0.1	1.4	0	65.5	7.7	0	1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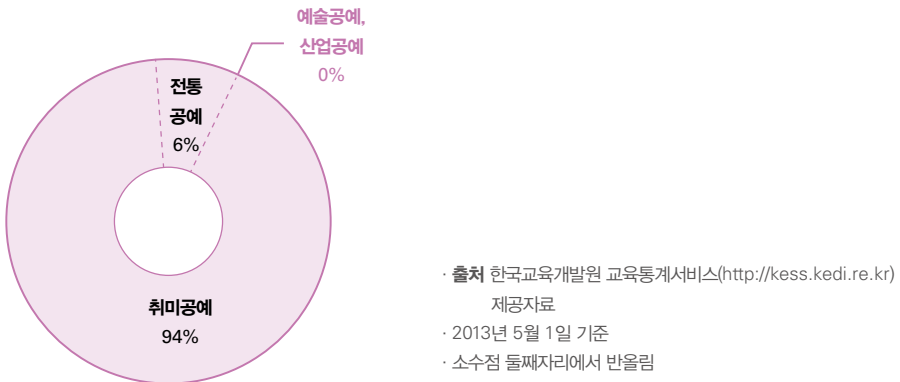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제공자료

· 2013년 5월 1일 기준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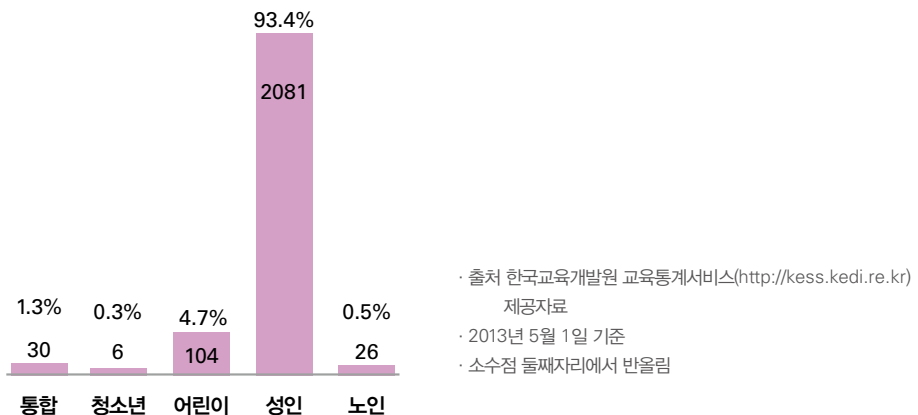
그리고 평생학습관과 달리 공예전체를 아우르는 강좌보다는 특정한 재료, 가령 비즈, 리본, 폼, 양초 등을 사용하는 강좌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한 만큼 예술공예와 산업공예 관련 강좌를 개설되지 않았고, 취미공예가 94%를 차지하였다.

그림 6-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1차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 현황



공예 강좌의 대상 수강연령대 역시 성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관과 차이를 보였다.

그림 6-6 사업장부설 공예 강좌 연령대별 현황



(2)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재료 범주별로 보면 비교적 다양한 재료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섬유/가죽이나 종이/한지는 다루기가 용이하여 평생학습관에서는나 사업장 부설 교육기관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도자관련 강좌도 비교적 많이 열렸다. 이는 대학자체에 도자 관련 시설이 있기에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 이외에도 수직공예와 유리공예처럼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개설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학점은 행제를 운영하는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패션디자인 관련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서 관련한 섬유/가죽 범주의 비중이 높아졌다.

표 6-53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구분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가죽	종이/한지	죽세/초경	기타	전체
사례수(개)	8	90	1	23	0	280	55	1	49	507
비율(%)	1.6	17.8	0.2	4.5	0	55.2	10.8	0.2	9.7	10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제공자료

· 2013년 5월 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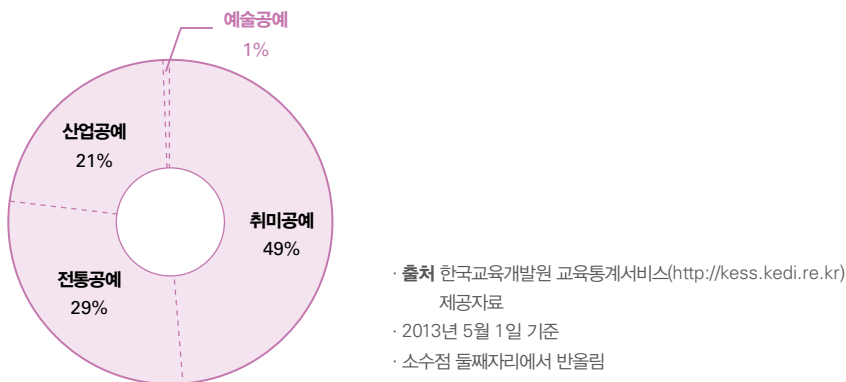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또한 다른 평생교육기관보다 취미공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대신 산업공예와 예술공예⁴³⁾의 비율이 다른 평생교육기관보다 높아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학점은행제에서 개설된 과목을 비롯하여 공예 이론 강좌⁴⁴⁾가 130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졌다.

43 조형도예(경인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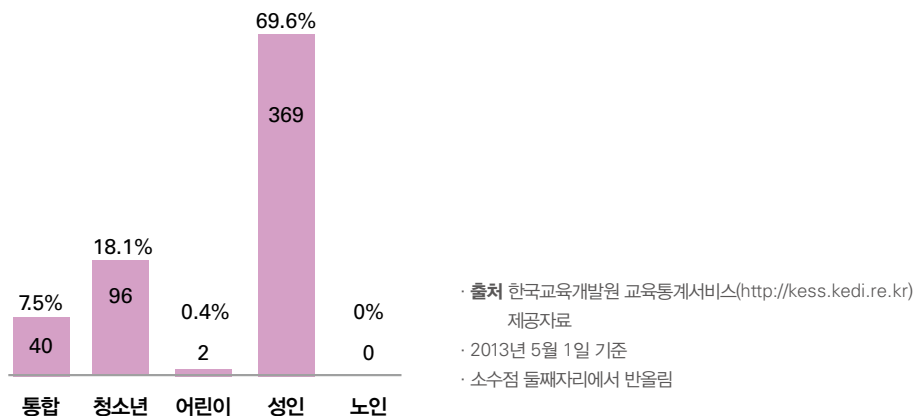
44 이론관련 강좌로는 현대공예사(대구공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현대도예론(단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의복과 현대사회(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고려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 의상사회심리(서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 한국복식사(동덕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 등이 있었다.

그림 6-7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의 1차 범주별 공예강좌 개설현황



공예 프로그램 참가 연령대는 성인은 69.6%로 사업장 부설보다는 성인의 비율이 낮았지만 청소년이 18.1%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학습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주로 한성대학교 부설, 세종대학교 부설, 부산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패션디자인 관련 과목들로, 청소년의 교양함양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패션관련 전문교육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⁴⁵⁾

그림 6-8 대학(원)부설 공예강좌 연령대별 현황



45) 관련한 과목은 주로 글로벌패션비즈니스(세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패션소재연구(세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주얼리마스터2급(부산여자대학교 사회교육원), 무대의상제작실습(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패션드레이핑(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등이 있었다.

국·공립 평생교육기관과 사립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았다. 이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공예프로그램 중 63.3%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밖에 원격형태,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었다. 원격형태의 경우 온라인이라는 매체 특성으로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처럼 이론수업이 개설되었다.⁴⁶⁾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의 경우는 취미교육과 직업교육의 중간적 성격을 가졌다. 많은 강좌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급별 수업이나 지도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3. 공예 직업교육 현황

직업교육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시행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제10778호)에서는 직업교육을 “직업교육훈련”이라 칭하며, 이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⁴⁷⁾으로 정의한다. 2013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전국적으로 7,000여 기관이며, 훈련과정은 8,000여 건이며⁴⁸⁾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단하였다.⁴⁹⁾ 이러한 직업훈련기관 중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과 같다.

46 명품시계와 주얼리의 경제학(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한국의 근대공예 전통성과 근대성(이캠퍼스, 메가빅스트평생교육원) 등이 있다.

4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 제10778호) 제1장 제2조 제1항

48 한국콘텐츠미디어 편집부, 『전국 직업훈련기관 현황』, ㈜한국콘텐츠미디어, 2013, 머리말

4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도입된 ‘내일배움카드제’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훈련기관이 급증하고 있다고 본다.(장혜정, 정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대상 훈련역량 강화 지원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p.2)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계좌라고도 하는데,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ttp://www.hrd.go.kr>).

표 6-54 직업교육훈련기관 종류⁵⁰⁾

직업교육훈련기관 종류	평가주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	교육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교육부장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당해 평가실시기관의 장

그리고 그 수가 많은 만큼 정부의 의미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주체는 훈련기관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평가하는 해의 평가실시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다.⁵¹⁾ 이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7호)을 따른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 현황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실포털(HRD-Net)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색하였다. 2013년에 개설된 공예 관련 프로그램은 총 737개로 2012년의 664개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재료범주에서는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목, 섬유/가죽의 4범주라는 점은 동일하였다.

5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7호) 제19조 제2항

51 앞의 법령, 제19조 제3항

표 6-55 재료 범주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의 공예 관련 프로그램 수

단위: 개

구분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유리	목	칠	섬유/가죽	종이/한지	죽세/초경	기타	전체
사례수	158	91	0	82	0	406	0	0	0	737

· 출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http://www.hrd.go.kr>)· 자세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df.kr/>) 참조

공예 관련 프로그램(참고자료 5-4 참조)을 보면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 많을 수 있었다. 가령, 주얼리 공예, 핸드메이드 장신구제작, 천연염색활용 생활복 및 소품, 홈패션 & 머신퀼트, 홈패션 및 의류리폼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예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그리고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귀금속가공기능사, 보석감정, 주얼리모델링을 위한 3D디자인, 도자기 상품제작, 세라믹아티스트 전문가, 퀼트패치워크 강사자격증반, 홈패션 전문가과정, 맞춤가구 제작 실무, 가구 설계제작, 가구제작 및 목공예 명장전수과정 등으로 이를 이수하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인이나 소규모 창업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공예기술을 활용한 창업 프로그램 역시 개설되었다. 예를 들어, 도자공예기능을 이용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창업반, 도자기 공방창업, 세라믹페인팅제품 제작 판매 창업반, 세라믹핸드페인팅 공방창업과정, 머신퀼트소잉백전문창업과정, 머신퀼트와 홈웨어제작, 손뜨개 창업반, 홈패션 창업과 의류제작, 목공방 창업 등이 있었다.

2) 한국폴리텍대학 현황

한국폴리텍대학은 기술교육을 지향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8개 대학과 34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다기능기술자(2년제)과정, 기능사(국비직업훈련)과정, 기능장(국비직업훈련)과정, 학위전공심화(공학사)과정,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6-56 한국폴리텍대학 공예관련 학과

양성과정	개설 대학	학과
다기능기술자과정	안성여자캠퍼스	주얼리디자인
	섬유패션캠퍼스	텍스타일 · 컬러디자인
기능사 과정	화성캠퍼스	주얼리디자인
	익산캠퍼스	주얼리디자인

· 출처 한국폴리텍대학(<http://www.kopo.ac.kr>)

공예 관련 학과는 2012년과 동일하게 4개의 학과가 네 개 캠퍼스에 있다. 이 중 안성 여자캠퍼스의 주얼리디자인과와 섬유패션캠퍼스의 텍스타일 · 컬러디자인과는 다기능 기술자과정이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은 2년제 학위 과정으로 “제품개발 및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 해결능력을 보유한 다기능기술자(Technician)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기관은 2년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화성캠퍼스와 익산캠퍼스에 각기 주얼리디자인과가 있는데, 이는 기능사 과정이다. 기능사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의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학력제한은 없으며, 전액 국비로 직업훈련을 지원해준다. 수료자의 90% 이상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게 된다. 교육기간은 1년 또는 6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공예수업의 경우 보다 기술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는 차별적인 수업내용을 가졌다.

3) 자격증 현황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뉘어진다. 그 중 국가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과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관리 및 주관하는 부서에 따른 차이를 갖는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산업인력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주관하며, 국가전문자격증은 해당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등)에서 주관한다. 그리고 민간자격증은 다시 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뉜다.

(1) 국가기술자격증

공예 관련 국가자격증은 13종으로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며,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총 5가지의 재료범주에 부여된다. 도자(1종), 목(1종), 금속/귀금속/보석/석(6종), 섬유/가죽(4종), 복합(1종)이 있다.

표 6-57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현황

종류	개요	수행직무	재료범주
도자기 공예 기능사	도자기공예는 국가 간에 상호 문화 교류를 유도하는 특수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빼어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 도자기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자기 공예에 대한 기초 이론 지식과 함께 숙련기능을 소지한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 제정	도자기 재료가 되는 고령토, 점토, 장식 및 기타 화공약품을 각종 분쇄기로 분쇄, 혼합, 미분쇄하여 소지토와 유약을 제조하고 각종 성형기계, 기구 및 석고형을 이용하여 소지토를 원하는 기물로 성형하고 건조, 시유, 장식한 후 가마에서 고온으로 소성시켜 식기류, 타일, 애자 및 위생도기를 만드는 직무수행	도자
목공예 기능사	목공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한 일반인의 목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숙련된 기능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시에 다양한 목공예 재료, 공예디자인 전반에 대해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목공예품 제작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목공예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조각도, 줄톱, 끌, 송곳, 사포 등 각종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나무를 깎고, 썰고, 자르고, 붙이고, 다듬어서 미관상 아름답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기능적인 업무 수행	목
가구제작 기능사	주문생산에 의한 소량의 가구제작에서 이제는 자동화 공정에 의한 대량생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체에서는 가구 제작 업무를 수행할 숙련 기능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목재나 금속, 플라스틱재의 자재와 부속품을 가공하고 조립하여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재료 절단, 연마, 도장, 조립 등을 거친 후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각종 가구를 제작	복합

보석 가공 기능사	우리나라에서 보석가공분야는 무공해, 탈에너지, 노동 집약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1976년 이리에 귀금속 보석공업단지를 설립함으로써 이 분야를 종합적으로 발전 육성시켜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고도의 가공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 가치의 신제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숙련 기능공 양성이 요구됨	각종 보석원석의 특성과 연마형태를 파악하고 연마기,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원석의 특성과 형태에 알맞게 보석(날)과 애완품을 일정한 각도로 연마하고 광택을 냄. 또한 귀금속에 알맞은 크기의 보석을 가공하여 끼우거나 확대경을 사용하여 불순물, 깨짐, 표면상태, 규격 등을 검사	금속/ 귀금속/ 보석/석
보석 감정사	경제 성장과 보석 수입에 자유화로 보석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보석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또 보석감정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감정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신설함	광학 기계를 사용하거나 규정된 화학 용액에 담귀 보석의 진위 감별 및 감정 수행. 그리고 중량을 측정하고 보석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과 제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 보석의 표면과 내부 구조를 검사함. 또한 보석의 빛깔, 연마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별·결정하여 보석 감정서를 발부하며, 도매 및 소매 가격을 평가하는 직무를 수행	금속/ 귀금속/ 보석/석
석공예 기능사	우리나라의 석공예 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지방 토산품으로서 원자재 조달 이용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 토착 산업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비전문적인 수준의 업체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을 살려 석공예품을 개발할 수 있는 숙련 기능공 양성이 요청되어 자격 제도 제정	건축물, 기념비 또는 조각, 실내 장식품 등의 장식적인 목적을 위해 화강암, 석회석, 대리석, 사암 및 그밖의 암석을 디자인하고, 절단하거나 조각하여 모양을 만들고 끝손질을 하는 업무 수행	금속/ 귀금속/ 보석/석
염색 기능사 (날염)	필요한 섬유에 관한 지식, 염색원료에 대한 화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약제의 사용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염색 업무를 수행할 숙련 기능공을 양성하고자 자격 제도 제정	날염 분야: 물감을 미리 만들어서 그 용액으로 프린트하는 식으로 염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직물만 염색할 수 있음	섬유/ 가죽
염색 기능사 (침염)	섬유의 염색 공정의 정련, 표백, 염색 및 가공 작업 내용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염색에 필요한 섬유에 관한 지식, 염색원료에 대한 화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약제의 사용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염색 업무를 수행할 숙련 기능공을 양성하고자 자격 제도 제정	침염 분야: 물에 염료를 잘 혼합하여 염액을 만든 후 염색하고자 하는 실이나 직물을 염액에 넣고 적당한 온도, 습도, 시간 등을 조절하여 끓여서 염색하는 업무 수행	섬유/ 가죽

한복 기능사/ 한복 산업기사	한복이 색상, 형태 등에서 다양화, 패션화, 고급화 되어감에 따라 다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치수의 규격화, 패턴의 다양화, 소재개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실용성 있는 한복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 제도 제정	각종 한복지를 재료로 하여 고객의 체형에 맞추어 치수재기, 본뜨기, 재단하기의 공정을 거친 후 재봉틀로 박거나 손바느질을 하여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 마고자, 조끼, 버선 등을 만드는 작업 수행	섬유/ 가죽
귀금속 가공 기능사	장신구뿐만 아니라 귀금속을 이용한 각종 공예품의 활용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귀금속 가공에 대한 숙련 기능을 소지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였다. 귀금속 재료 및 귀금속 가공 전반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귀금속 가공 제품을 제작하고 또한 수리·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공인하고자 자격 제도 제정	귀금속 및 보석의 종류와 특성 등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도면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각종 수공구와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귀금속 장신구를 가공 및 제작, 또한 수리 업무 담당	금속/ 귀금속/ 보석/석
귀금속 가공 기능장	귀금속은 아름다움의 추구 뿐만 아니라 자산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가공 기술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귀금속 가공에 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귀금속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자격 제도 제정	귀금속 가공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최상급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실제 귀금속 가공을 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작업 관리, 기능사의 지도 및 감독, 현장 훈련, 경영총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 관리자 역할 수행	금속/ 귀금속/ 보석/석
귀금속 가공 산업기사	귀금속 가공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귀금속 재료 및 가공 기법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를 겸비하고 귀금속 디자인 및 세공 등 복합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 제도 제정	세공할 모양, 형태에 따라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과 보석 광물, 합성석 및 모조석을 소재로 금속용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반지, 목거리, 귀걸이 등 신변 장신구, 식탁 용품 및 예술품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업무 수행	금속/ 귀금속/ 보석/석
총13개	-	-	5개 범주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http://www.q-net.or.kr>)

또한 국가자격증에서는 검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총 5가지의 등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다. 이중 공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기능장(1종), 산업기사(2종), 기능사(10종)가 있다. 기능사는 해당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따른다. 이보다 숙련성을 요구하는 산업기사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유무”로, 기능장은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자격을 부여한다.⁵²⁾

이 중 도자기공예기능사와 석공예기능사, 그리고 한복기능사와 한복산업기사의 경우 자격증의 개요와 수행직무를 참고해볼 때, 전통공예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는 산업공예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다.

(2)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중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자격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공예 관련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가구설계제도사 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주관)과 종이접기 자격증((사)한국종이접기협회 주관)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 외의 민간자격증은 비공인 민간자격증으로 그 수가 방대하며 주관하는 협회 및 단체, 기관 또한 다양하였다. 2013년에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은 1,689개로, 전체 민간자격증의 99.9%를 차지하였다.

표 6-58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국가 공인 및 비공인 현황

공인여부	개수(개)	비율(%)
국가공인	2	0.1
비공인	1,684	99.9
합계	1,6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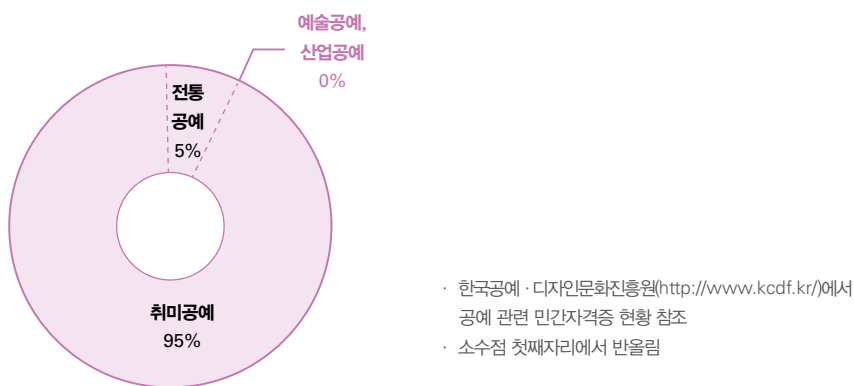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에서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현황 참조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러한 비공인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민간의 공예 관련 협회나 재단 등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데, 국가자격증과 달리 그 기준이 단체별로 상이하여 엄격한 기준이나 수준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각 자격증별로 그 기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

만 이러한 자격증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예 범주는 대부분 취미공예(95%)의 성격을 가졌다. 이는 앞서 살펴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졌기도 하지만,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중 직업인력개발형태나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6-9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1차 범주별 현황



취미공예에 대한 민간자격증의 편중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공예교육에 있어서 직업과 연결이 되는 것은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민간자격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전체 민간자격증 중 60.3%의 높은 비율을 가졌는데, 이는 단순히 취미의 함양만이 아니라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교육자나 창업 혹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

표 6-59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중 지도자자격증 현황

구분	개수(개)	비율(%)
지도자	1,018	60.3
일반등급	668	39.7
합계	1,686	100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에서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현황 참조
· 지도자 등급이 있는 모든 자격증을 포함한 현황임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러한 민간자격증의 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였는데,⁵³⁾ 이는 취미공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업 및 취업 때문으로 분석된다.

4) 전통공예전수기관 현황

문화재청에서 2013년 12월 31일에 발간한 「주요업무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공예 기술 관련 중요무형문화재는 총 50종목이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63명을 포함한 공예 기술 관련 이수자는 총 641명으로 집계되었다.⁵⁴⁾ 또한 각 시·별로 지역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2013년 공예기술 관련 무형문화재의 교육현황을 전수교육관, 한국문화의 집, 전통문화교육원을 조사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관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관련 이수자들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2013년에는 전국에 132소가 있었고, 중요무형문화재 91종목과 시·도무형문화재 130종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중 공예기술 관련한 전수교육관은 총 34소로 2012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전의 경우 ‘전통나래관’을 2014년 2월 새롭게 개관하여 2014년에는 지방무형문화재 중 기능장이 전통나래관으로 옮겨갔으나 2013년에는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입주해 있었다.

표 6-60 시·도별 전수교육관 현황

단위: 소

전수교육관수	전체	공예종목입주
서울	2	1
부산	3	0
인천	1	0
광주	1	0

53 『2012 공예백서』에 따르면, 비공인 등록 민간자격증 수는 2011년의 38개, 2012년에는 85개로 집계되었다.

54 보유자뿐 아니라, 전승교육 조교, 이수자를 모두 합한 수치이다(『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3, pp.37-39)

대전	3	1
경기	15	3
강원	13	1
충북	10	5
충남	14	3
전북	3	3
전남	20	8
경북	10	1
경남	21	5
제주	4	3
계	130	34

시·도별로 전수교육관을 살펴보면, 전체 종목에 대해서는 전남이 2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공예 역시 8개소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시·도별로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종목의 수는 서울이 12종목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이 11종목이 입주해 있었다.

표 6-61 공예종목 입주 전수교육관 현황

시도	전수관명	입주단체	종목수(종목)
서울	서울중요무형문화재	각자장(중무106) 오옥진	12
		매듭장(중무22) 김희진	
		입사장(중무78) 홍정실	
		조각장(중무35) 김철주	
		자수장(중무80) 한상수	
		공시장(중무47) 유명기	
		매듭장(중무22) 정봉섭	
		침선장(중무89) 구혜자	

서울	서울중요무형문화재	갯일(중무4) 정춘모	
		화각장(중무109) 이재만	
		소반장(중무99) 이종덕	
		악기장(중무42) 윤종국	
부산	—		0
인천	—		0
광주	—		0
대전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불상조각장(지무6)	6
		소목장(지무7)	
		단청장(지무11)	
		악기장-북메우기(지무12)	
		초고장(지무16)	
		악기장-가야금제작(지무18)	
경기	입사장	입사장(지무19) 이경자	4
	방짜유기장	방짜유기장(지무10호)	
	수원무형문화재	소목장(지무14)	
		단청장(지무28)	
강원	강원황성전통도자	전통자기도공(지무6)	1
충북	금속활자 전수 교육관 건립	금속활자장(중무101)	5
	배첩전수교육관	배첩장(지무7)	
	옹기장 전수교육관	옹기장(지무12)	
	사기장	사기장(지무10)	
	주철장 전수교육관	주철장(중무112)	
충남	한산모시짜기	한산모시짜기(중무14)	4
	저산팔읍길쌈놀이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지무13)	
	한산소곡주 및 복합공간	서천대목장(지무10)	
		서천부채장(지무21)	
전북	백동연죽장	백동연죽장(중무65)	4

전북	윤도장	윤도장(중무110)	
	부안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사기장(청자제작, 지무29)	
		대목장(지무30)	
전남	담양죽세공예	채상장(중무53)	11
		참빛장(지무15)	
		낙죽장(중무31)	
	곡성돌실나이	곡성의 돌실나이(중무32)	
	낙죽장도	장도장(중무60호) 한병문	
	목포옥장	옥장(중무100)	
	광양장도장	장도장(중무60)	
	담양 채상장	채상장(중무53)	
	염색장전수관	염색장(중무115)/윤병운	
		염색장(중무115)/정관채	
	나주반 전수교육관	나주반(지무14)	
경북	웅기장	웅기장(지무25-나)	1
경남	진주장도장	진주장도장(지무10)	8
	통영공예전수교육관	나전장(중무10)	
		두석장(중무64)	
		소목장(중무55)	
		염장(중무114)	
	산청목조각장	목조각장(중무108)	
	두석장	두석장(지무31)	
제주	거창전통문화전수교육관	징장(지무14)	5
		갯일(중무4)	
		망간창(중무66)	
	제주중요무형문화재	탕간창(중무67)	
		갯일(중무4)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성읍리 초가장(지무19)	

계	34소	종무 35종목/ 지무 26종목	61
---	-----	------------------	----

- 출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자료」, 문화재청, 2014
- 2013년 기준
- 중무: 중요무형문화재, 지무: 시·도 지역무형문화재
- *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2014년 2월 개소한 전통나래관이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기록되어 있으나, 해당하는 종목이 2013년에는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있었다는 것을 해당 기관에 확인함

각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종목의 기능장들은 작품 활동과 함께 무형문화재 기술을 전수하였다. 또한 전수교육관 및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일반 및 외부 인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 한국문화의 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설립한 한국문화의 집(Korea Cultural House, KOUS)은 “내·외국인이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한국문화의 집에서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문화재 수리기술강좌, 전통공예 디자인 강좌, 교원문화유산 직무연수, 문화유산교육 교재발간 업무를 한다. 이러한 주요 업무 방향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다음과 같은 강좌가 개설되었다.

표 6-62 2013년 한국문화의 집 공예관련 강좌 개설현황

구분		교육내용
교육명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단기강좌	1. 침선: 구혜재(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2. 색실누비: 김윤선(전승공예대전 수상작가) 3. 소목: 조화신(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4. 소반: 이종석(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교육기간	2013.1.16~2.27	
교육장소	한국문화의 집	
교육대상	일반인(총 4개 반, 각반 15명 내외)	

교육명	2013년 전통공예건축학교	총 14개 종목
교육기간	2013.3.4-12.28	1. 직물공예: 침선, 자수보자기, 매듭, 전통자수
교육장소	(주 1회 3시간, 32주/소목, 대목 38주)	2. 목공예: 소목, 각자, 전통창호
교육대상	한국문화의 집,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3. 금속공예: 칠보, 입사, 장석
교육명	2013년 교원 문화유산 직무연수	4. 칠공예: 옷칠, 나전칠기
교육기간	2013.7.29.-8.6(8일간 1일 6시간)	5. 전통화법: 단청
교육장소	한국문화의 집, 문화유산현장 (경복궁, 영릉 등)	6. 전통건축: 대목
교육대상	전국 초·중등 현직 교원 90명	문화유산이론, 전통예능실기, 문화유산 현장답사
교육명	전통공예디자인강좌	전통공예디자인개론, 디자인기획 경영이론, 전통
교육기간	2013.5.21-9.3(총 17주) 매주 화요일	공예의 현대적활용사례, 현장학습, 실기
교육장소	한국문화의 집, 재단 운영 상품관 등	
교육대상	일반인 30명	
교육명	2013 World Heritage Visiting Progra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국의 한국
교육기간	(2013 세계유산연계 체험프로그램)	문화재를 경험
교육장소	3월-11월까지 (16회에 걸쳐, 1일 혹은 1박2일일정)	
교육대상	구리, 서울, 수원, 고창 등지	
교육명	2013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 단기강좌 쪽염색	정관채(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 보유자) 강의
교육기간	2013.8.10-8.11(1박2일)	
교육장소	전남 나주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 전수관	
교육대상	일반인	

· 출처 한국문화의 집(<http://www.kous.or.kr>)

2013년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총 14개 종
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강사는 국가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

육조교, 이수자, 대한민국 명장, 전승공예대전 수상작가로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로 두었다. 그 외에도 2회의 단기강좌를 통하여 공예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교육기회도 넓혔다. 또한 공예와 디자인의 융합을 모색해 보는 강좌와 함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기회 또한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예강좌를 개설하여, 전통공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통문화교육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유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역량향상,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의 이해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2013년에는 총 5개 분야(직무교육, 전문교육, 전통기능교육, 사회, 국제)에서 41개 과정이 개설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받은 인원은 4,410명이었다. 이는 2012년에 32개 과정에서 2,930명을 교육한 것에 비하여 크게 늘었다.

표 6-6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의 전통문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현황

—	직무교육	전문교육	전통기능교육	사회	국제	계
과정수(개)	18	13	7	2	1	41
교육인원(명)	3,793	482	53	71	11	4,410

· 출처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3

주요 내용은 문화재 수리기술, 불교문화유산관리, 근대문화재관리, 매장문화재관리, 보존과학, 문화재 안전관리와 같은 유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강좌, 문화재 행정 실무, 무형문화재관리와 같은 행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원과 방문교사, 그리고 학교교육과 문화재를 연계하기도 하며, 역사 속 리더십이나 전통문화콘텐츠에 대한 강좌를 통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교육도 이루어졌다.⁵⁶⁾

5) 전문가재교육 현황

전통문화교육원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공예 관련 교육을 한 바와 같이, 공예와 관련한 전문가, 공예가, 디자이너, 행정가, 기획자, 사업자 등에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중요하다. 이는 최신의 경향을 이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그러한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2013년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경영자, 공무원, 공예 관련 종사자 및 문화기획자를 상대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6-64 2013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내용
교육명	공예·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디자인적 창의성과 비즈니스 감각을 지닌 디자인 경영 리더 양성 · 이론학습 9회, 해외탐방 1회(태국)
교육기간	2013.10.15~2013.12.17	
교육대상	공예디자인분야 경영자 32명	
교육명	공무원대상 공예·디자인 교육	지역개발, 공예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예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관련 사업의 정책실행 유도를 위한 워크숍 운영
교육기간	2013.11.15	
교육대상	공무원 24명	
교육명	문화디자이너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의 개념과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화 디자이너 양성 · 이론학습 9회, 국내탐방 1회(온양민속박물관)
교육기간	2013.06.19~2013.08.21	
교육대상	공예디자인 분야 종사자 및 문화기획자 39명	

· 출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 「공예·디자인 인력양성교육 실적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전문가들에 대한 국내외 탐방 및 이론학습, 그리고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하여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공예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4. 소결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을 일컫는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진 공예교육은 취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취미교육은 주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그 대표적인 기관은 평생학습관을 비롯한 국·공립 평생교육기관, 대형유통업체 등의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있다. 이에 대한 2013년 현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은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2013년에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다음으로 많은 것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이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공예교육 역시 여러 기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개설된 곳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이었다.

둘째, 국·공립 평생교육기관과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모두 참여자의 연령대 중 성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관을 비롯한 국·공립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중도 높았으나,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성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셋째, 재료 범주의 측면에서는 섬유/가죽 범주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규방공예, 조각보 등과 같은 전통공예와 함께, 리본공예, 홈패션 등의 취미공예 그리고 패션디자인관련 강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넷째, 공예 1차 범주의 구분해 보자면 모두 취미공예의 비율이 높았으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에서 94%가 취미공예인 반면,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산업공예과 전통공예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서 보다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이와 같이 공예를 교양이나 문화향유의 대상으로 한 취미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에는 보다 전문적인 직업교육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주로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관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공예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13종과 함께 민간자격증이 1,686종이 있다. 이외에도 전통공예전수기관이나 전문가재교육 공예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에 대한 2013년 현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에 등록된 공예 관련 프로그램은 2013년에는 총 737개였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섬유/가죽 범주였으며, 다음으로 금속/귀금속/보석/석, 도자, 목의 순서이다. 그 외의 분야에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편중되게 직업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창업과 관련한 직업프로그램이 다수 개설되어 있었다.

둘째, 한국폴리텍 대학에서는 주얼리디자인과가 3개 대학에, 텍스타일·컬러디자인과가 1개 대학에 있었으며, 수료자의 90% 이상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된다.

셋째, 직업이나 일정수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국가와 민간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다. 13종의 국가자격증 중 4종의 경우 전통공예에 해당하며, 9종은 산업공예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민간자격증의 경우 대부분이 취미공예(95%)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 주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전통공예는 각 시·도별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총 34개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 35종목과 시·도 지역무형문화재 26종목의 기능자 및 관련자들이 입주해있으며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 한국문화의 집과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예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공예를 알렸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4절 • 결론

2013년 공예교육의 현황을 크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과 정규교육과정 외의 평생교육의 공예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기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그리고 취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듯 공예교육은 그 범위가 넓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며, 그러한 만큼 각 범위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공예교육 분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일반교육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2013년에는 일부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미술교과서와 수업시수 등이 학년 군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2012년(제7차 교육개정과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와 비교하여 볼 때, 미술교과서 중 공예의 비율, 그리고 공예전공 교강사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미술교과서의 경우 그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점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의 경우, 디자인의 다루는 비율이 공예보다 높아지면서 비교적 공예에 대한 지면할애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이 필요한 공예의 경우, 보다 참신하고 다양한 수업을 이끌어가기에는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하며 교원의 전공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교과 내에서 공예교육이 활성화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교과 외 교육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 활동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미술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미술교과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비교적 많이 개설되어있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미술프로그램의 비율은 5.5%로 2012년의 5%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교과 외 수업의 경우 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시수가 정해지므로, 교과 내 과정에서보다 더 탄력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화된 공예교육이

가능했다. 이러한 점은 주로 공예교육이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중등과정의 일반 공예교육에 비하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공예교육은 주로 교양강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었다. 그리고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은 주로 각 공예 별 전공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대학 이전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공예 관련 학급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2012년의 현황과 비교해보았을 때,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의 경우 모든 학과를 분석하고 검색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이 부재하다. 또한 많은 수의 공예 관련 학과들이 학과 명칭에 공예가 아닌 디자인을 붙인다는 점에서 정확한 검색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점은 『2013 교육통계연보』에서 집계된 공예과의 수와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에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2012년과 정보검색방법이 동일하지가 않아, 정확한 수치비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많은 공예학과들이 명칭을 디자인과로 바꾸고 디자인관련 학부에서 세부전공으로 공예 관련 전공을 개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에서의 공예 관련 위상이 높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학교 교육에서 공예의 활성화가 어려운 것과 대조적으로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관련 취미교육은 그 규모가 상당했다. 평생교육 중 취미교육은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으로 묶이는 기관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공예 관련 프로그램 수가 2012년의 4,383개인 반면 2013년에는 5,504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이할 점은 2013년에 개설되었던 공예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취미공예 범주였다. 이는 앞서 학교교육과는 다른 분포로 많은 이들이 취미생활로서 공예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점은 공예 연구 중 출판물에서 취미공예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이와 같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공예 취미교육은 사실상 통계치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공방이나 강좌 등을 생각해볼 때 보다 규모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취미공예에 대한 관심은 민간자격증 중 취미공예가 9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연결되었다.

취미공예와 관련한 공예교육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직업교육의 경우 금속/귀금속/보석/석과 섬유/가죽으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직업훈련기관이나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전국 시·도의 전수교육관을 비롯한 전통공예전수기관의 경우 2012년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교육원의 경우 2012년보다 더 많은 강좌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전문가 재교육이 3회 이루어졌으나 관련한 교육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 해본다.

2. 과제와 전망

공예교육은 이루어지는 기관과 교육대상의 계층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파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요하는 공예의 특성상, 각 공예교육 별로 한계점이 드러났다.

첫째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교육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강사와 수업 자료 및 기자재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2012 공예백서』에서도 제언한 것으로 공예의 재료범주가 다양한 만큼 범주별 공예 프로그램과 함께 교원 및 강사를 재교육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시급하다. 2013년의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목공예관련 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목공이라는 재료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재료를 다루는 방식에만 초점을 두고 이를 보다 창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단편적인 수업은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활용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의 공예교육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온·오프라인을 통한 미술교과서 내의 공예분야에 대한 자세하고도 쉬운 해설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보다 쉽고도 전문적인 교육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및 공예 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원 및 강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선택하여 듣고 이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가 힘든 도자나 칠보 등을 위한 전문 기자재의 대여 및 관리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관련 기관 및 개인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예 전문교육의 경우, 그 규모가 점차 축소가 되고 있었다. 더하여 많은 학교들이 명칭을 바꾸거나 관련 전공을 다른 과에 편입시키기도 하면서 공예 관련 전공 파악이 쉽지 않았다. 이는 학과명이나 전공명에서 ‘공예’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명칭은 ‘디자인’으로 바꾸나 학과 성격상 공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공예’라 검색한 학과와 전공명만을 통계수집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쓰기에는 공예계의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한 점에서 정성적으로 공예적 성격을 가진 학과나 전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예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장학금이나 지원금 지급도 가능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예 관련 학과 학생들 및 졸업자들의 전시 및 사업 지원, 공예 관련 학과와 산학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전문 직종으로서 공예 작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이와 함께 공예를 전공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통계를 보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2013년의 공예 프로그램이 이전 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도 증가하여 관련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생교육의 경우 대부분이 취미공예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취미공예는 도자, 금속, 섬유 등과 같이 그 역사가 오래 되고 이미 축적된 작품과 지식이 있는 범주와 다르게, 보다 손쉬운 재료나 복합 또는 신소재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취미공예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현황파악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등 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취미공예교육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예교육의 경우 통계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여

러 사실 협회를 통하여 민간자격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간자격증 중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은 단 두 개인 반면 1,684개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의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이 발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공예 교육전문가, 혹은 공예작가에 대한 신용을 잃게 한다. 이에 공공 혹은 민간 차원의 취미 공예 관련 협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7장

해외 사례

1절
개관

2절
해외 공예 동향

1. 영국 공예산업 동향
2. 미국 취미공예 동향

3절
결론

7

7장

해외 사례

1절 · 개관

본 장에서는 영국의 산업공예와 미국의 취미공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공예현황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본 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동향은 각 나라의 공예문화 현황 및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파악한다 하더라도 정확도나 심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각 나라에서 활성화된 흐름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했음을 밝힌다.

영국에서 공예산업은 창조산업 내에 포함되어 문화정책이라기 보다는 산업정책의 입장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영국공예청을 중심으로 정책, 교육, 전시와 행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산하기관과 함께 수출지원과 홍보를 비롯하여 작가지원, 판매 유통, 전시지원, 해외교류, 인재양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인터넷과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글로벌한 경제 흐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나 환경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면서 공예산업의 ‘세계화와 지역화(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에 중점을 두어 여러 방향에서 공예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예는 작가의 손과 기술을 통해 생산하는 전통 수공예에서부터 미적 감각을 적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예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가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제작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생활소품, 패션, 의류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하여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는 여타의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취미공예’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어, 취미나 정서함양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군의 취미산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절 • 해외 공예 동향

영국에서 공예는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 자산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이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창조산업”¹⁾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공예산업은 제작자의 창의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손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물품의 기획, 제작, 실행, 유통 과정과 연관된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예산업의 범주에는 예술성이 강한 ‘예술공예’와 전통기술로 만들어진 ‘전통공예’,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변형, 발전시키거나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을 비롯하여 공예를 제작하는 과정과 소재를 연구하는 작업까지도 포함되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포괄적이다.

이러한 공예산업과 관련하여 영국정부는 영국공예청을 중심으로 정책, 교육, 전시와 행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미디어체육부^{DMCS: Department for Media, Culture and Sports}, 영국수출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 문화창조기술청^{Culture and Creative Skills} 등의 산하기관과 함께 수출지원과 홍보를 비롯하여 작가지원, 판매유통, 전시지원, 해외교류, 인재양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글로벌한 경제 흐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나 환경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면서 공예산업의 ‘세계화와 지역화’에 중점을 두어 여러 방향에서 공예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²⁾

이러한 방향은 근래 들어서는 ‘장소(성)’와 ‘지역(성)’과 연계하여 각각의 공예품이 차별화되는 지점을 설정하며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현재 공예제작과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첨단기술’이나 ‘테크놀러지’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타의 문제들, 즉 공예의 가장 큰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진정성^{authentic}’과 ‘독특성^{uniqueness}’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 DCMS,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Experimental Statistics”, DCMS, 2012.12.9, p.9. 창조산업에는 모두 13개 분야, 즉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생방향 게임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디바이스, 텔레비전 및 라디오”가 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BOP Consulting, *Craft in an Age of Change*, Crafts Councils, Creative Scotland, Arts Councils of Wales, Craft Northern Ireland, 2012, pp.40-41를 참조하기 바란다(이하 BOP Consulting으로 약칭).

일례로, 영국공예청은 2013년 10월부터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과 함께 퍼포먼스와 문화산업학교^{The School of Performance and Cultural Industries PCI}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컨템퍼러리 공예에서 ‘장소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역할이 무엇이며, 이것이 공예시장과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다.³⁾

다음에서는 『변화의 시대에서 공예^{Craft in an Age of Change}』와 「지역화: 컨템퍼러리 공예에서 지역화의 의미는 무엇인가^{Making It Local: What Does This Mean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Craft?}」를 중심으로 영국의 공예산업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았다.

1. 영국 공예산업 동향

2013년 영국에서 공예관련 종사자 수는 155,930명이다.⁴⁾ 공예관련 사업체 수는 23,050개이며, 이 중 약 90% 정도가 자영업으로 나타났다.⁵⁾ 제작업체의 총 수입은 £457,000,000이며, 원료를 제작·가공하여 완성품을 만들고 서비스되었을 때 공예가가 지는 총부가가치는 약 £220,000,000으로 추정되었다.⁶⁾

표 7-1 공예관련 사업체 수/수입/총부가가치(GVA)⁷⁾

구분	사업체 수	수입 (£)	총부가가치
잉글랜드	17,150	£ 339,000,000	£ 169,558
스코틀랜드	3,350	£ 70,000,000	£ 16,119
웨일즈	1,500	£ 28,000,000	£ 15,061
북아일랜드	1,050	£ 20,000,000	£ 17,685

3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문화, 창조, 그리고 기업(Culture,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이나 '퍼포먼스, 문화, 그리고 컨텍스트(Performance, Culture and Context)' 등의 과목이 있다. 보다 자세한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http://www.pci.leeds.ac.uk/about/>).

4 Fiona Dodd, "Defining and Measuring Craft: A Review for the Crafts Council(Report Two: Proposals for a Way Forward)," Crafts Council, 2013, p.14

5 BOP Consulting, pp.21-22

6 BOP Consulting, pp.5-6

합계	23,050	£ 457,000,000	£ 223,936
----	--------	---------------	-----------

공예산업 분야의 총 수입을 다른 창조산업 분야와 비교해 보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0년 런던 웨스트 엔드 극장(London West End Theatres)의 연 수입은 £512,000,000이며, 같은 해 영국에서 음악 다운로드에 사용한 금액은 £316,000,000으로 집계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 수는 다른 창조산업 분야 전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3배가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⁸⁾

영국에서 현대공예 제작자는 ‘공예 및 관련 학과 전공’ 유무와 공예제작을 ‘본업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표 7-2 공예제작자 구분⁹⁾

공예 전공자 Craft careerists	공예학과나 관련 학과를 이수한 후 얼마 안되어 일을 시작하여 본업으로 공예 일을 하는 이
장인 Artisans	학위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본업으로 공예 일을 하는 이
이직 공예가 Career changers	다른 일을 하다가 전문적으로 공예 일을 하는 이
복직 공예가 Returns	미술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하다 나중에 공예 일을 하는 이

현대공예 제작자 중에서, 공예 작업을 본업으로 하는 ‘공예 전공자’가 38.4%, ‘장인’이 11.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공예 및 디자인 관련 전공’이 61%, 공예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24%로 과반수 이상이 공예 또는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것으로 파악되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제작자별 분류에 따른 공예관련 수입으로는 장인이 £27,095, 공예전공자가 £23,133, 복직공예가£15,931, 이직공예가 £15,385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경력과 학력과 높을수록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¹¹⁾

7 BOP Consulting, p.6, 205

8 Karen Yair, "Craft & Enterprise", Crafts Council, 2010, p.1

9 BOP Consulting, p.35

10 BOP Consulting, p.25

공예제작자들의 전공은 약 6% 정도가 칼리지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습이나 단기코스, 성인교육과 같은 과정을 거친 이가 23.7%로 전체 85% 정도가 공예관련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3 공예제작자들의 전공(복수응답)¹²⁾

단위: %

구분	제작자 비율
칼리지나 대학에서 미술/디자인/공예 학위(BA, BSc) Art/Design/Craft degree at college or university	56.0
칼리지나 대학에서 미술/디자인/공예 석사 이상(MA/MSc/PhD) Art/Design/Craft postgraduate degree at college or university	20.2
미술/디자인/공예 파운데이션 코스Foundation course in Art/Design/Craft	16.2
미술/디자인/공예 분야A level and/or O level/GCSE in Art/Design/Craft	16.9
정규 양성과정Formal apprenticeship	5.5
도제식 경험(비공식적) Working with experienced makers(not as formal apprenticeship)	6.1
파트 타임이나 단기 코스Part-time and short course	8.9
성인교육 클래스Adult education classes	5.9
기타 공예 트레이닝Other craft training	13.8
트레이닝 받은적 없음N/A-No training	15.5

· 참조 Percentages for Wales based on 325 respondents

또한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는 분야로는 도자가 25.7%이며, 뒤를 이어 텍스타일과 보석이 22%와 20%로 나타났다. 즉, 도자, 텍스타일, 보석, 세 항목이 전체 제작 품목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목공예와 유리가 10.7%와 10.3%로 뒤를 이었으며, 직조 1.9%, 가죽 2.0%, 합성재료 2.2%, 그래픽 2.5%, 석공예가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11 BOP Consulting, p.37

12 BOP Consulting, p.127

표 7-4 활동분야 및 재료에 따른 비율¹³⁾

단위: %

구분	비율
도자	25.7
텍스타일(니트와 자수포함, 직조 제외)	22.9
보석	20.2
여타 금속(보석과 은 제외)	12.1
목재(가구 제외)	10.7
유리	10.3
은	7.1
가구	5.9
종이(그래픽 공예 제외)	4.0
혼합재료	3.7
석(돌)	2.7
그래픽 공예(서예, 간판, 책제본 포함)	2.5
합성재료(플라스틱 포함)	2.2
가죽	2.0
직조	1.9

이러한 현상은 전공별 공예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영국 고등교육통계청 HESA: High Education Statistics Agency의 공예 분야 전공별 학생 수이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전공은 텍스타일과 도자, 그리고 금속공예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는 위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도자, 텍스타일, 보석 및 여타 귀금속 등의 작업을 하는 이들의 전공 후 작업활동과 연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생 현황	대학원생 현황
텍스타일 디자인	61	47
도자 & 유리	12	36
금속 공예	6	2
공예	11	10
퍼니처 디자인	10	5

1) 공예산업의 동향

전통적으로 공예품의 경제적 가치는 ‘장소성’과 ‘역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 일례로 공예제작자들이 지역 고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지역의 문화, 정신, 환경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공예품들을 제작해 온 것이 그것이다. 글로벌한 시대에, 특히 인터넷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공예’와 ‘장소성’의 문제에서 보다 복잡한 논의를 유발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장소’란 물질적인 공간의 의미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지역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공예품의 제작과 생산, 판매 방식을 통해 공예산업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1) 테크놀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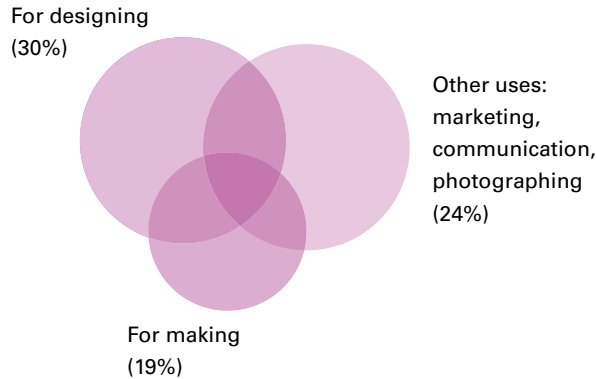
인터넷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음악, 출판, 영화를 비롯하여 공예분야에서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영국 공예산업에서는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공예품을 제작하고 유통, 판매를 확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테크놀로지를 꼽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고, 새로운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것뿐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수출과 수입, 또 국가 경쟁력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의 자료는 공예제작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사용 비율이다. 전체적으로 약 65%

14 Dr Karen Yair, "Craft and Higher Education: An Update," 2013, p. 12

의 제작자들이 작품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판매 등을 위해 테크놀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중 약 30%는 디자인에, 24%는 판매나 홍보 등에, 19%는 제작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이 부분을 적절히 중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제작시 테크놀러지 사용 비율¹⁵⁾



이러한 변화들은 공예에 우려를 포함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일례로, 새로운 테크놀러지, 즉 레이저 절단이나 3D 프린팅과 같은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공예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련의 탐색들이 그것이다. 작가들은 컴퓨터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재료들에 프린트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용이하게 작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즉 기존에 ‘손으로 제작된^{hands}, 독특한^{unique}’, 진정성을 지닌^{authentic}’으로 칭해지는 공예의 기본적인 속성과 상반되게 첨단 테크놀러지를 통해 대체, 혹은 복제 가능하며 복수화된 공예품들이 제작 가능하게 된 것이다.

판매방식 또한 테크놀러지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여,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판매를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조사에 의하면 제작자의 약 30% 정도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13%는 다른 사이트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판매채널이었던 갤러리와 전시에서의 판매가 점차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영국공예청에서는 온라인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⁷⁾

또한 영국공예청은 새로운 투어 전시인 <공예 실험실: 컨템퍼러리 공예에서 디지털 모험 Lab Craft: Digital Adventures in Contemporary Craft>¹⁸⁾을 통해 영국 전역의 미술관과 갤러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쾌속조형기나 레이저 커팅과 스캐닝, 그리고 디지털 프린트와 같은 최첨단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이용하여 재료를 미학적 감수성과 시지각, 촉각 등과 연결하여 작업하는 26명의 제작자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 언어의 출현으로 보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 보다 열린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시각 언어란 손으로 제작하는 한계를 넘어서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복제, 왜곡, 탐구 등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구상,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¹⁹⁾

일례로 런던에서 활동 중인 텍스타일 디자이너 멜라니 보울스Melani Bowles는 전통 공예 테크닉과 새로운 테크놀러지, 올드한 것과 새로운 것을 서로 전이시키는 디지털 텍스타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소비자의 정체성과 기억을 디자인과 제작과정에 끼워넣고, 고유성을 텍스타일 프린트에 맞추어 넣음으로써 입는 이의 캐릭터와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 디자인 기법을 통해 옷을 입는 이와 디지털 디자인의 관계를 탐색해온 작가는, 작업과정에서부터 소비자와 함께 디자인, 제작하고, 재료 또한 지역 재료나 로컬 제작자들과 연계하여 작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작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2) 세계화와 지역화: 지속 가능성과 환경, 윤리 문제

지난 20년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국제적인 상황은 영국의 공예시장에

16 최근 영국공예시장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인터넷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유럽 최대를 자랑하며,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한 쇼핑은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소셜 네트워크 사용도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17 자세한 내용은 Karen Yair, "How Make and Craft Organizations are Using Social Media Effectively", Crafts Council, 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18 <http://www.labcraft.org.uk/Lab Craft>

19 <http://www.labcraft.org.uk/tour>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재편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는 상황은 영국 공예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²⁰⁾ 또한 인터넷과 첨단기술의 발달로 문화적, 지역적, 국가적 경계를 넘나드는 공예 제작방식과 구매, 판매방식도 영국 내 공예산업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 내에서는 최대의 도자회사인 웨지우드의 파산 신청으로 자국의 공예산업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중국과 인도에서 저가의 공예들을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영국의 공예산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 및 육성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²¹⁾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영국정부는 공예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지역주의 Localist’와 ‘세계화 Globalisation’를 중심으로, 기존 영국공예의 우수함과 다양성에 지역적 특성을 가미해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주의’란 특정 지역에 기반한 공예제작자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바탕으로 제조하는 것에 더해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세계화’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예를 통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기관의 지원제도를 통해 공예 제작과 수출의 기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²²⁾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제작자 중 30%만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영국정부는 제작자들의 공예품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또는 수출경험이 없는 영국 내 공예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자문, 지원을 해주는 영국수출투자청 UK Trade and Investment의 ‘수출 패스포트 Passport to Export Success’를 비롯하여 영국공예청의 작품들을 국내외 바이어에게 제공해 주는 ‘더 내셔널 레지스터 오브 메이커 The National Register of Makers’와 ‘포토스토어@이미지 라이브러리 Photostore@ Image Library’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공예청에서는 작가들이 구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20 BOP Consulting, pp.40-41

21 이원태, 『공예상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예디자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p.148

22 BOP Consulting, pp.40-41

23 BOP Consulting, p.41

등을 제시하고 있다.²⁴⁾

또한 ‘세계화’와 ‘지역화’와 맞물려서 ‘지속가능성’과 ‘환경’, 그리고 ‘윤리적 생산과 소비’의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공예 분야에서도 지역산물과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거나 지역 공급업체를 이용하거나, 혹은 재활용, 공정무역이나 윤리적 재료들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공예제작자들이 지난 3년간 환경적 혹은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했던 노력은 다음과 같다.

표 7-6 제작시 환경을 위한 변화²⁵⁾ (복수응답)

단위: %

환경실천의 변화	51.5
친환경적이거나 지속가능한 재료 사용	32.8
친환경적이거나 지속가능한 제작 과정 이용	20.3
운송 마일지리를 줄이기 위해 지역 공급업체 선택	11.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고 있는 공급업체 선택	7.0
재활용	4.5
기타	15.5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에게도 공예작품의 구입을 통해 환경과 인권, 공정무역 등의 윤리적 문제를 제고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들의 실천 방법이자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추후 전세계 공예시장은 이러한 부분과 연관되어 고가의 상품 및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공예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⁶⁾

일례로 영국에서는 재활용 종이나, 자전거 튜브를 재활용한 가정용 마감제 등을 정

24 자세한 내용은 Karen Yair, “How Make and Craft Organizations are Using Social Media Effectively”, Crafts Council, 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25 BOP Consulting, p.43

원 장식용품으로 활용하고 오래된 천을 재활용하여 주얼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근래 들어서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소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섬유, 유리 와 건축 재료를 이용하여 새롭고 지속가능한 재료를 개발하여 작업을 하는 로라 메스덴 Laura Maesden 을 들 수 있다. 작가는 다른 재료들에 쓰레기 플라스틱 백을 가열하여 조각 한 후 스티치를 가해 ‘영원한 레이스Eternal Lace’라는 컨셉으로 주얼리와 패션 악세서리를 선보이고 있다.²⁷⁾

(3) 공예관광과 공예마을: 장소 정체성Craft Tourism, Craft Town and ‘Place Identification’

최근 지역재생의 맥락에서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공예관광Craft Tourism은 지역 경제 발전의 주요 수입원이자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²⁸⁾ 이와 유사한 공예마을Craft Town 또한 지역 공예전통과 지역의 독 특성을 강하게 결합시킴으로서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²⁹⁾

공예판매 및 유통에 있어 관광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조사결과는 영국 공예제작자들의 공예품 판매와 관광과의 연계성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외 관광이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약 2/3 이상의 제작자들이 공예품 판매 와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약 34.4%의 제작자 가 아주 중요하다, 33.6%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약 20% 정도는 그리 중요하 지 않다고 반응하였다.³⁰⁾

26 BOP Consulting., p.43 참조

27 Morris Hargreaves McIntyre, “Consuming Craft: The Contemporary Craft Market in a Changing Economy”, p.7 참조

28 Dr. Julie Brown, “Making It Local: What Does This Mean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Craft?” p.3 이러한 ‘공예 관광’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의 관광산업에서도 새로이 등장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에서 공예관광은 공예 관련 세미나와 단기간 연수나 교 육과 같은 것이 지역에서 열린다. 이를 통해 지역관광 산업의 확장과 함께 지역공예를 홍보하는 계기가 된다.

29 Dr. Julie Brown, “Making It Local: What Does This Mean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Craft?”, p.3

30 BOP Consulting, p.45

표 7-7 제작자/소매업자들에게 있어서 관광의 중요성³¹⁾

단위: %

관광의 연계	비율
아주 중요함	34.4
상당히 중요함	33.6
상관없음	7.0
그리 중요하지 않음	18.8
중요하지 않음	6.3

특히 공예과 관광이 연계되어 있는 ‘창조관광’^{Creative Tourism}과 ‘공예관광’^{Craft Tourism}은 제작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새로운 관광지 혹은 새로운 문화체험과 휴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근래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예관련 관광 프로그램들에서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작업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예 워크숍 등을 통해 작가들에게 창조적 사고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공예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가이 맬리슨Guy's Mallison의 ‘우드 랜드 워크숍’^{Wood Land Workshop}에서는 그 지역의 목수와 바구니, 캐비닛 제작자, 디자이너들이 지역 산물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거나 그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친환경적인 장소에서 지역 음식과 함께 고급스런 패키지 형식이나 캠핑 식으로 제공되어 지역 호텔과 레스토랑, 요식업 관계자를 비롯하여 창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틈새시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예 마을’^{Craft Town}은 공예작품을 지역의 역사나 전통을 살리는 ‘장소 정체성’^{Place Identification}을 강조한 것이다. 대표적인 도시로 데번주의 토트니^{Devon Totnes}와 서리지역의 판햄^{Surry Farnham}, 그리고 웨스트 킬브라이드의 스코틀랜드 공예마을^{West Kilbride Craft Town Scotland}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스코틀랜드 공예마을’은 스코틀랜드에서 공예와 디자인 타운으로 조성

된 유일한 곳으로, 캠핑식의 공예제작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지역 내 공예제작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지역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공예 제작자에게 워크숍이나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이 특성을 잘 드러내자, 이 도시의 주요 장소이자 관련 업자들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공예제작자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는 ‘크라프트 스튜디오(Craft Studio)’를 비롯하여 ‘벨로니 센터(The Batrony Center)’에서 영국 최고의 공예제작자들의 작품 전시와 교육,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미국 취미공예 동향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고,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방대한 지역적 특성 탓인지 국가에서 별도로 공예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으며 주정부 단위로 공예지원 정책이 행해지고 있다. 공예관련 지원은 크게 국가산하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국가산하기관인 미국연방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해서는 미국관광산업협회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민간기관으로는 미국공예청(American Craft Council, 핸드메이드 인 아메리카^{Handmade in America}, 에이드 투 아티자^{Aid to Artisa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공예의 특징은 산업발달과 대량생산체제로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생활공예의 확산, 즉 작가의 손과 기술을 통해 생산하는 전통 수공예에서부터 미적 감각을 적용하여 대량으로 생산되는 인테리어 제품과 생활용품으로까지 확장되어 그 분야가 상당히 넓고 포괄적인 것을 들 수 있다.³²⁾ 또한 정서함양이나 취미활동으로서의 공예활동을 넘어서, 기능성과 실용성 있는 생활소품이나 기타 공예품들을 제작하여 이를 상품화하고 판매하

32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해외공예현황: 공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마케팅 조사』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5, p.124

는 취미공예단체의 활성화를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국내나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 평생교육 및 정서함양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취미공예가 그 영역을 넘어서 산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고유의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미국 취미 공예교육과 행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예와 취미협회(CHA: Craft & Hobby Association)를 중심으로, 미국 취미공예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미국 취미공예 현황

2012년 공예와 취미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취미 공예가는 약 62.5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여성이 75%이고, 전체 공예가 중 47%가 10년 이상 작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제작하는 공예품은 주로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56%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의 제작, 판매를 통해 연간 29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7-8 미국 취미공예 현황³³⁾

구분	내용
취미공예가 수	약 62.5만명
여성 : 남성	75 : 25(%)
취미활동(작업) 기간	10년 이상(47%)
주요 제작품목	생활용품
연간 수익	29억

공예와 취미협회에서는 제시한 12개의 공예범주와 각 범주별 커뮤니티 회원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33 The Craft & Hobby Association, "2012 State of the Craft Industry", 2010, p.3

표 7-9 공예와 취미협회 공예범주 및 범주별 커뮤니티 현황³⁴⁾

구분			공예가		
	공예범주	커뮤니티 현황	비율(%)	수(백만명)	
1	책 제본, 카드 제작, 종이 공예	Scrapbooking/card making/paper crafting	10	23.0	
2	보석 세공	Jewelry making	7	15.8	
3	꽃공예	Floral crafts	4	9.9	
4	케이크 및 음식 장식공예	Cake and food decorating (and other food crafts	8	18.8	
5	나무공예	Ready-to-decorate wood crafts	4	10.3	
6	니트	Knitting	5	11.9	
7	크로셋	Crochet	6	14.7	
8	크로스티치, 바느질, 자수, 펠트	Cross-stitch, embroidery, needlepoint, needle felting, etc.	6	13.6	
9	섬유공예	Fabric/sewing crafts	8	18.7	
10	패션공예	Ready-to-decorate Fashion Crafts	2	5.1	
11	회화, 드로잉, 서예, 프린트공예	Painting/drawing/calligraphy/print making	9	21.0	
12	조각, 도자, 유리공예	Sculpture/pottery/glass crafting(Non-jewelry)	3	6.8	
13		어린이 공예	Kid's crafts	6	14.3
14		기타공예	Not specifically listed above	6	14.3

위의 표에서, 책 제본, 카드 제작, 종이 공예관련 커뮤니티 회원들이 23만 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했으며, 회화, 드로잉, 서예, 프린트공예가 21만 명으로 9%, 이어 케이크 및 음식 장식공예와 섬유공예 커뮤니티 회원들이 각각 18.8만 명으로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보석세공을 비롯하여 바느질, 자수, 펠트와 나무공예 등이 6-4%로 이어지고 있다.

공예와 취미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회원 수

와는 무관하여, 현재 가장 인기있는 공예 범주로 공예와 나무공예, 크로셋, 어린이 공예를 언급하고 있어, 추후 미국 취미공예 범주의 변화가 가늠된다. 특히, 이 중 13번 항목인 어린이 공예는 공식적으로 취미공예의 범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작업을 하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회원의 42%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에 아이들과 관련된 장난감이나 물품 등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예와 취미협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공예와 취미협회

(1) 협회 소개³⁵⁾

2004년 초, 미국 취미공예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취미산업협회(HIA: Hobby Industry Association)와 공예와 창조산업 협회(ACCI: Association of Crafts & Creative Industries)가 공예와 취미협회(CHA: Craft & Hobby Association)로 합쳐지면서, 보다 역동적으로 공예산업을 이끌어 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예와 취미협회의 비전은 취미공예 활동을 통해 공예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예와 취미협회의 목표는 수요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도록 회원들을 조력하며, 취미공예시장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예와 취미협회는 ‘생활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자’라는 타이틀 아래 소비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공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캠페인 활동을 비롯하여, 추후 취미로 공예를 시작할 잠재력을 가진 이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매해 무역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해 「2012 공예산업의 현황」(2012 State of the Craft Industry)와 같은 취미공예산업 현황 조사를 비롯하여 「취미공예의 소비자 이용과 구매 연구」(Provide Demographic Profiles and Attitudinal/Behavior Patterns of Crafters)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협회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직접 만나고 교류하

35 <http://www2.craftandhobby.org/allaboutcha.html>

는 이벤트와 교육, 정보공유 등을, 국외 캐나다와 영국 협회와는 각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비즈니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공예와 취미협회에서는 크게 섬유공예, 종이공예, 비즈공예를 비롯하여 디자인과 사회미디어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바느질 분과Sewing Section는 2013년 뜨개질 관련 회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섬유예술청The Fabric Arts Council를 주축으로 진행된다. 초반에는 ‘뜨개질’로 시작하였으나 이후에 다른 공예 산업을 아우르기 위해서 ‘패브릭’이라는 단어로 변경하여, 회원들의 산업적 발전과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종이공예 분과The Paper Arts Section는 2013년 여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협회 내에서 가장 큰 분과이다. 특히 공예와 취미협회에서 주관하는 트레이드 쇼Trade Show와 지역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Creative Conference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다. 사회미디어 분과Social Media Section 또한 2013년 여름에 시작된 분과로,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장이다. 이 분과의 회원들은 온라인상으로 여러 분과를 비롯하여 공예와 취미협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과 개인적, 그룹별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트레이드 쇼와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2) 주요 프로그램³⁶⁾

공예와 취미협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예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크리8타임CRE8TIME, 에듀케이션 월드Education World, 피스 러브 스튜디오Peace Love Studios 등이 있다.

가. 크리8타임CRE8TIME³⁷⁾

크리8타임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으로, 하나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 가며, 사회 시스템 내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책

36 <https://www.craftandhobby.org/eweb/DynamicPage.aspx?Site=cha&WebKey=6b4c40ff-e4ff-464d-b389-a5322fee1804>

37 <http://www.cre8time.org/>

임과 의무, 그리고 스트레스는 점점 더 늘어나,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버려야할 것으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크리8타임은 공예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영역을 접하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고,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에듀케이션 월드³⁸⁾ Education World

에듀케이션 월드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상으로 교육관련 교육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다.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업 계획안과 재료 및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크라임타임의 파트너쉽을 통해 공예수업 계획안을 브랜드화하고, 공예와 취미협회 회원 제조업체들³⁹⁾ CHA Member Manufacturers의 프로젝트와 연관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1,000명의 선생님과 교육자들이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 피스 러브 스튜디오³⁹⁾ Peace Love Studios

피스러브는 ‘포용’과 ‘연대’라는 구호 아래, 예술창작 프로그램과 제작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창의적인 표현이 사람을 바꾸고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며,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공예작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파트너와 연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크리8타임과의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 활동의 혜택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다.

(3) 주요 활동

가. 교육 활동

공예와 취미협회는 회원들에게 공예관련 전문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인 ‘컨퍼런스 에듀케이션과 이벤트³⁸⁾ Conference Education & Event’와 사업관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 리소

38 <http://www.educationworld.com/>

39 <http://peacelovestudios.com/>

스Expert & Resources',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예관련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회의Webinar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컨퍼런스 & 에듀케이션⁴⁰⁾Conference & Education & Event

컨퍼런스 에듀케이션은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사업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사업 초보자인 전문가이든 각자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시범교육은 45분 동안 참여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소개 및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교육은 현재 비즈니스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적 방법과 지식을 소개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4시간 동안 전문가와의 개인교습을 통해 소프트웨어나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것들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워크숍은 공예품 제작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해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새로운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얻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자신의 기술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 다양한 공예 범주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 세미나는 주제에 따라 공예와 취미협회의 모든 회원들 또는 특정 공예 범주의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발표자는 주제 전문가나 비즈니스 리더, 작가, 혹은 취미공예협회의 회원 중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강연회나 프리젠테이션, 혹은 토론회, 강의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즈니스 훈련소⁴⁰⁾Business Bootcamp는 마케팅, 재정, 법률 등과 같은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5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관련 교육Demo-nars은 공예품 제작기술 시범 및 제작을 병행하는 비즈니스 교육이며, 네트워킹 이벤트는 전세계 공예산업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리다.

40) <https://www.craftandhobby.org/eweb/DynamicPage.aspx?Site=cha&WebKey=3b7c6584-e009-49c4-8acf-9abaa8a3275f>

표 7-10 컨퍼런스 & 애듀케이션 프로그램

구분	내용	비고
시범 교육	전시출품자의 제품 소개 및 사용 설명 및 실습(45분)	무료
참여 교육	전문가와의 개인교습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 교육(2-4시간)	회원: \$35 비회원: \$50
비즈니스 훈련소	마케팅, 재정, 규제 등과 관련한 주제로 전문가 강의(2-5시간)	회원: \$35 비회원: \$50
워크숍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는 워크숍	회원: \$35 비회원: \$50
비즈니스 세미나	주제별 전문가, 사업 전문가, 작가, CHA 회원 중 전공별 전문가들의 프리젠테이션, 토론회, 강의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	회원: 무료 비회원: \$15
시범 세미나	사업관련 교육과 공예품 제작기술 시범 및 제작을 병행하는 세미나	회원: 무료 비회원: \$25
네트워킹 이벤트	전세계 전문가들과의 친목회 진행	이벤트마다 상이

나) 전문가 & 리소스⁴¹⁾ Expert & Resources

전문가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문분야로는 소셜 미디어, 기술, 소매, 웹사이트, 스몰 비즈니스, 디자인 분야 등이 있다. 또한 현재 제공 중인 자료로는 공예관련 법률과 규정 등이 있다.

다) 온라인 회의⁴²⁾ Webinars

수요회의⁴¹⁾ CHA Webinar Wednesdays에서는 60분 분량의 공예관련 자료들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교육 내용당 회원은 15불, 비회원은 25불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내용들로는 ‘온라인 판매품 개발⁴²⁾ Developing Online Content That Sells’, ‘웹사이트 내용 강화하는 10가지 방법⁴³⁾ 10 Ways To Strengthen Your Website Content’, ‘새로운 소비

41 <https://www.craftandhobby.org/eweb/DynamicPage.aspx?Site=cha&WebKey=2aac44d3-64bc-4da3-852e-de21949a1c20>

42 <https://www.craftandhobby.org/eweb/DynamicPage.aspx?Site=cha&WebKey=44f2130c-0f49-4858-afc3-c7c1770efc04>

자를 위한 새로운 판매 방법Shopping Isn't What It Used To Be: New Consumer Tools Require New Selling Rules', '저작권법 101Copyrights 101', '광고문안 작성하기Writing Marketing Copy That Gets Results' 등이 있다.

나. 이벤트: 메가 쇼⁴³⁾Event: MEGA Show

공예와 취미협회 회원들, 즉 제조업체, 수입업체, 제작업체를 비롯하여 운송, 출판, 서비스 등 취미공예관련 전분야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로 매해 개최되고 있다.

2013년에는 '크라프트 앤 커넥트 2013CRAFT- N-CONNECT 2013'라는 주제로 라스 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7월 22~25일에 열렸다. 참가자 수는 총 1,8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7%가 캐나다, 영국, 멕시코, 독일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업체 수는 미국 내에서 46개, 캐나다, 영국, 멕시코, 독일 등에서 40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행사 기간 중에는 매해 "The Hot 20 Awards"를 발표하는데 2014년에 지정된 제품들로는 말뚝 형식의 고정장치에 와이어를 빠르고 쉽게,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한 Artistic WireBeadalon Artistic Wire Findings Forms™, 주얼리 제작자를 위한 데스크탑 매듭도구Beadalon Knot-a-Bead™, 하나의 도구로 피어싱, 폴딩, 종이제거 등 다양한 공예적 기능을 하면서도 휴대가능한 Spellbinders Tool-n-One 등이 선정되었다.⁴⁴⁾

다. 연구 활동⁴⁵⁾

공예와 취미협회는 산업 및 판매채널, 다양한 공예분야의 참여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공예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태도와 용례 연구CHA Attitude & Usage Study는 미국 공예산업을 대표하여 글로벌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

43 <https://www.craftandhobby.org/eweb/DynamicPage.aspx?Site=cha&WebKey=9c8cd328-26f8-4ba5-b09b-7f18b5e75683>

44 <http://www.beadalon.com/products/228S-652.asp>
보다 자세한 세부 항목들은 https://www.craftandhobby.org/eweb/dynamicpage.aspx?webcode=cha_news&key=184AE72-79AA-4E3C-9571-70556E129113를 참조하기 바란다.

45 <http://www2.craftandhobby.org/research.html>

을 말한다. 매해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며, 지역적, 인구통계학적으로 공예가구crafting households를 대표하는 약 6,000여 가구가 참여한다. 조사결과는 매월, 분기별 공예와 취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연구는 공예산업의 규모를 측정하고, 판매채널 예상 및 추적, 카테고리별 공예참여자 결정 및 추적, 공예가의 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과 패턴 제공, 소비자들의 쇼핑패턴 조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공예와 취미협회 크라프터 인사이트 스터디CHA Crafter Insight Study는 공예 구매자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다. 주요 주제로는 현재 공예현황,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언제 구입하는지, 공예품 구입 시 감정적 이점은 무엇인지,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새로운 공예품을 시작하는지, 공예가들간의 크로스오버와 코퍼레이티브 작업을 할 것인지 등이다.

이 외에도 공예와 취미협회에서는 다양한 공예 범주와 더불어 이 지역들의 역사, 문화, 인구, 지형 등과 연관된 연구를 수행하는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 시장연구Asian/African/American Market Report도 하고 있다.

3절 • 결론

본 장에서는 1차 공예범주를 중심으로 영국의 산업공예와 미국의 취미공예 동향을 살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공예의 특징은 문화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된다는 점이다. 특히 1998년에 공예가 창조산업군에 포함된 이래 영국공예청을 중심으로 수출지원과 홍보를 비롯하여 작가지원, 판매유통, 전시지원, 해외교류,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공예정책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공예제작과 판매를 비롯한 지원과 정책에 적용하여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테크놀러지의 발달, 글로벌한 경제 흐름을 파악하여 ‘세계화와 지역화’를 강조하고, 공예제작 및 소비에서 있어서 지속가능성이나 환경,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반면, 미국공예는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테리어 제품과 생활용품으로 확장되어 기능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었다. 공예관련 정책이나 지원의 경우, 전국 규모의 비영리 공예교육기관인 미국공예청에서 일반인에게 현대미국 공예품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작가들에게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지역적 특성으로 단일한 분류체계나 지원보다는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공예동향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공예에서는 여타의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취미공예가 활성화되어 취미나 정서함양의 차원을 넘어 일군의 취미산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특히 취미공예협회의 활동들은 공예교육이나 전시, 행사를 비롯하여 재료 시장과 연계되어 연간 29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추후 취미공예의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본 백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974.5.27 공포}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술, 기법을 이용해서 제조된 전통적 공예품 생산의 진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후계자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일본의 전통공예 정책과 ‘문화가 사회의 창조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이념 하에 공예분야에서 전통의 ‘혁신’과 이를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프랑스의 공예정책

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문화예술 정책의 상이함으로 정책 및 활동을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운 점, 또 언어적, 시간적 한계 등으로 영국과 미국의 사례만을 언급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국내 공예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해외 사례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3년 공예 관련 사업 현황

목차

1. 공예 · 디자인 스타상품 개발
2. 공예디자인 인력양성
3. 공예디자인 인력양성 교육
4. 공예백서 발간
5. 공예사료리소스북 발간
6. 공예소재 연구개발
7. 공예유통망 구축
8. 공예인증제연구 및 구축
9. 공예해외교류 사업
10. 구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11. 문화예술ODA
12. 아카이브센터 운영
13. 정기간행물 발행
14. 지역공예마을 육성
15. 한복생활화 인식확산 사업
16. 한지 상품개발 및 유통확산 지원
17. 2013 공예트렌드페어
18. 2013 밀라노 가구박람회 한국관 조성
19. KCDF갤러리 기획전시

1. 공예 · 디자인 스타상품 개발

사업기간 2013.3-2014.2

목적 공예 · 디자인 문화산업의 활성화 모색, 2차년도 사업으로 문화상품개발의 질적 수준 증진 및 전년도 개발 상품 유통망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시스템 구축

내용 및 성과

- 공예디자인 상품개발 공모로 10명의 참여자를 선정 후, 상품 기획, 개발, 제작을 위한 3차례의 워크숍 및 자문 통해 스타상품 개발
- 개발된 상품 2013 공예트렌드페어, 2014 메종&오브제(프랑스), 문화역서울284 <온기>전 참여
- 홈페이지, 도록, 리플렛 제작 및 배포로 홍보
- KCDF 갤러리숍 상품 판매, 진흥원 VIP용 선물 구입 등 상품 유통 활성화
- 2013 공예 · 디자인 스타상품

사진	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
	참외무늬 간편 다기세트	인현식	한국 대표적 전통문양인 참외무늬를 이용한 현대적인 다기세트
	Fliessen Solid & Void(SnV) Special Edition	이지수	Solid&Void 조소기법을 이용한 컵에 새로운 재료를 도입시킨 스페셜 에디션으로 조형성은 물론 타재료와의 혼합에서 오는 신비로움과 독창성을 가진 컵 시리즈
	매듭가방	문유진	갯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한 가방. 섬세한 말총의 짜임을 주름으로 표현하고 갯끈을 다양한 매듭 끈으로 제작해 반영

	색칠놀이책 -이야기가 담긴 도자기	윤진초	우리나라의 도자기와 문양을 아이 들이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 록 제작된 색칠놀이책
	결	강지혜	시간의 흔적이 담긴 나뭇결 조각 들로 이루어진 시계
	모시장신구	강미나	강한 원색이 입혀진 모시의 조각 들이 조합된 장신구
	자연	조신현	색채와 형태의 반복이 주는 아름 다움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색판 들이 겹쳐 선을 이루며 어우러진 면에 조각을 한 다기 세트
	옷칠 젓가락&반침 '소소(小昭)'옷칠 목걸이 "Ah, ott"	강희정	전통소재인 옷칠과 나전, 금박 기 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수저, 커트 러리 반침. 또한 옷칠 목걸이는 젓 가락받침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
	H Felt Shopper	이음 (i:um) -조희은, 김수연	조상들이 씨실과 날실을 엮어 짜 는 기법으로 물건을 담는 형태를 만들었던 것을 현대화시켜 응용 한 가방
	휴	이윤희	전통적인 도자등잔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상품

2. 공예디자인 인력양성

사업기간 2013.3-2014.2

목적 공예·디자인 교육서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문화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예·디자인 교육

내용 및 성과

- 교육현황 및 교육모델 연구
 - 국내외 모범사례 연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가이드라인 설계 및 공예교육지침서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기획하여 2014년도 공예디자인 교육운영 시범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대학생대상 공예디자인교육
 - 전문성 있는 강의와 심도 있는 주제토론, 팀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등의 역량 강화 및 대학별 결과물 심사하여 우수작 장관상 수상
- 대학생대상 공예디자인교육 개요

교육명	일정	내용	참여자
대학생대상 공예디자인교육	8-12	전통공예기술의 이전과 상상력 (총 46개의 프로젝트 수행) · 이론과정: 7강 (1박2일) · 실습과정: 3개월, 주별 4시간 이상 실습, 총 48시간(12주) · 문화탐방: 지역 전통문화산업 현장 또는 장인의 작업장 1곳 이상 1일 탐방 · 지역특강: 권역별 실습기간 중 1곳 이상 1일 문화관련 특강 추진	수강생 183명 교수 10명 장인 5명

• 대학생대상 공예디자인교육 수상내역

교육명	권역 및 대학	수상팀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충청권/ 건국대학교	너나들이
KCDF 이사장상	대구권/ 계명대학교	단디
KCDF 진흥원장상	광주권/ 광주대학교	치투연
	부산권/ 영산대학교	목민심서
	대전권/ 목원대학교	장군

• 대학생대상 공예디자인교육 현장



3. 공예디자인 인력양성 교육

사업기간 2013.1-12

목적 공예 · 디자인분야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종사자, 어린이, 청소년, 문화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환경에 필요한 교육기회 제공

내용 및 성과

- 문화디자인인력양성 교육
 - 공예 · 디자인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디자인과 공예, 문화와의 소통과 본질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문화디자인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제시
- 공예 · 디자인 학교
 - 어린이, 청소년,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공예 · 디자인 교육지원을 통한 공예문화 향유 계층 확대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불평등 해소
- 공예 ·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 디자인경영 중심의 핵심 직무능력 강화교육
 - 태국 방콕의 예술프로그램 및 공예 · 디자인센터 시찰을 통한 전문확대
- 공무원대상 공예 · 디자인 교육
 - 지역개발 및 공예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 공예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관련 사업의 정책실행 유도를 위한 워크숍 진행,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방향 공유
- 공예 · 디자인 인력양성 교육 개요

교육명	일정	내용	참여자
문화디자인인력양성 교육	6.19-8.21	한국 공예 ·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체계적인 지식 제공	39명 공예 · 디자인 분야 종사자 및 문화기획자
공예 · 디자인 학교	7-8 여름방학 기간	공예 · 디자인분야의 체험 형 실습교육과 작품전시회 운영 (기간: 8.29~9.2, 장소: KCDF갤러리)	165명 초등 4학년~중등 2학년, 문화소외계층

공예 ·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10.15- 12.10	트렌드, 브랜딩, 마케팅 전략, 성공사례 등 의 이론 교육과 토론, 해외탐방을 통하여 공예 · 디자인 경영 이해	32명 공예 · 디자인 분야 경영자
공무원대상 공예 · 디자인 교육	11.15	공예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관련 사업의 정책실현 유도를 위한 워크숍	24명 지역개발, 공예업무 관련 전국 지자체 공무원
총 참여자 수			260명

• 문화디자인어양성 교육 현장



• 공예 · 디자인 학교 교육 현장



• 공예 · 디자인 비즈니스 교육 현장



• 공무원대상 공예 · 디자인 교육 워크숍 자료집



4. 공예백서 발간

사업기간 2013.1-12

목적 공예계의 동향 분석 및 수요예측,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및 지식의 지속적 공유, 공예정책 수립의 토대마련, 연차적 연구의 축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 및 성과

- 공예 분야의 전망이나, 정책 제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국내 외 현황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함, 향후 백서 발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12 공예백서』 발간
 - 2011년도 선행연구, 2012년도 현황조사를 종합 분석하여 집필
 - 1,000부 발간, 총 600여개 기관 발송, KCDF 홈페이지 온라인 무료 열람
- 2013 공예 현황조사
 - 공예 현황조사를 통해 연구·분석된 데이터 『2013 공예 현황보고서』로 발간
- 온라인 통계리포트, 온라인칼럼
 - 조사 데이터 웹사이트를 통해 전문가, 일반인 모두 읽을 수 있는 리포트로 제공
- 15,000여 건 로우데이터 생산 및 KCDF 홈페이지 등재
 - 관련기관 연구서 및 교재사용 총 20여건
- 지속적인 공예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 체계 구축
-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등의 공예백서 및 제반 자료 활용
 - 공예정책토론회 발제자 공예백서 100% 인용, 국민대학교 대학원 논문 자료, 서울시 백서 발간 참고 자료로 활용 등
- 연구 성과물

발간내용	수량
2012 공예백서	1,000부
2013 공예 현황조사	50부
온라인 통계리포트 : 우리공예디자인통계	12회
온라인 칼럼 : 우리공예디자인오늘	8회

- 2012 공예백서 표지



- 2013공예 현황보고서 표지

5. 공예사료리소스북 발간

사업기간 2013.1-12

목적 전통공예기술의 현황과 역사, 재료의 현대적 접목에 대한 정보를 국영문판으로 제공하여
국내외 관련분야의 다양한 활용화 도모

내용 및 성과

- 향후 3개년도 전통공예기술 종목 중 발간종목 9가지 선정 및 공예사료리소스북 발간 매뉴얼
제작으로 중장기계획 수립
- 공예사료리소스북 3종목 소목, 한지, 장식 국, 영문 판 총 6종 발간

제목	국문 발간 수(권)	영문 발간 수(권)
한눈에 보는 소목 Somok: The Korean Traditional Joinery	700	500
한눈에 보는 장식 Jangseok: The Korean Traditional Metalwork for Joinery	700	500
한눈에 보는 한지 Hanji: The Korean Handmade Paper	700	500
소계	2,100	1,500
합계	3,600	

- 연구를 통해 생산된 텍스트 및 이미지 자료의 저작권 확보(직접 촬영)
 - 주요 도서관 및 공예학과 개설 대학교 등 총 600여 곳에 배포
 - 영문판의 국내 배포로 발간 종목의 국제적인 사료화 기준 마련
- 발간된 6종의 전 도서 E-book 콘텐츠 제작, 뷰어사이트 구축 및 오픈
 - <http://library.kcdf.kr/ebook/>

• 리소스북 표지



6. 공예소재 연구개발

사업기간 2013.1-12

목적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공예소재 연구 개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예소재 개발 연구 환경 활성화, 공예 산업 핵심 산업 추진으로 경제적, 문화적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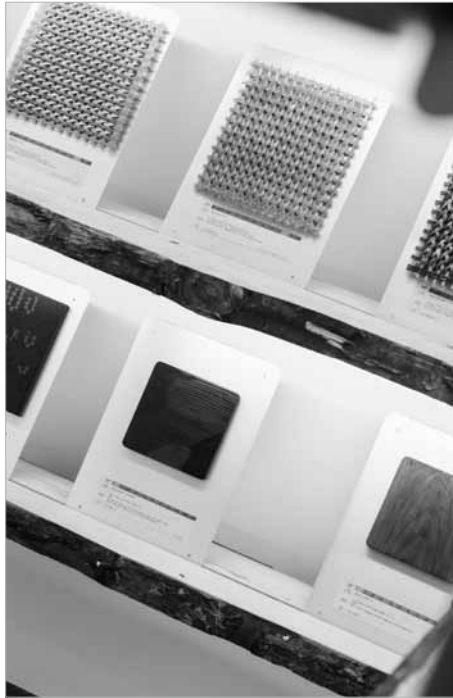
내용 및 성과

- 목칠공예의 소재화 가능성 연구
 - 지속성을 고려한 소재화 대상으로 목재 선정
 - 전통 공예 기법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전통 목공예 기법에 칠을 접목한 소재 킷 가이드라인 설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예소재 샘플 킷 제작
 - 연구 소재 관련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소재 107여종의 소재 킷 제작 및 소재 킷 활용을 위한 디자인언어(Key Concept) 개발
- 연구 성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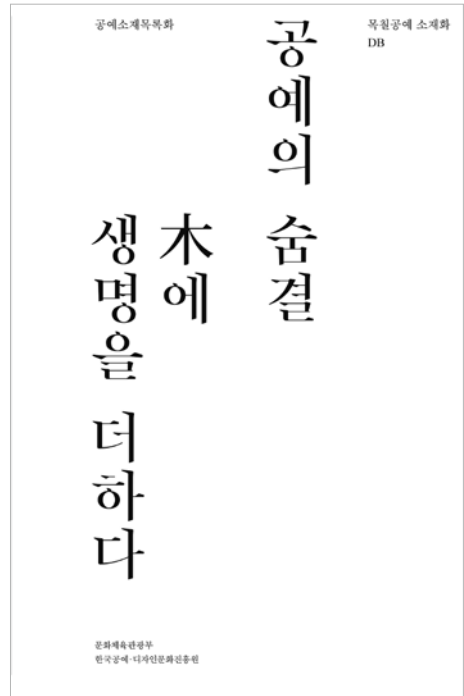
연구 성과물	수량
공예소재연구개발 목칠공예소재 연구보고서	30부
목칠공예 소재 샘플 킷	107종
목칠공예 소재 도록	350부

- 소재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소재 킷으로 <2013 공예트렌드페어> 사업홍보관에 시범 소재관 조성
- 금속, 목칠공예 관련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공예소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작된 연구결과물을 한국조형예술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

- 〈2013 공예트렌드페어〉 소재관 전시



- 목칠공예 소재 도록



7. 공예유통망 구축

사업기간 2013.1-2014.2

목적 공예 생산의 실태와 지원 대상 파악, 데이터베이스화 · 온라인화 하여 공예 정보콘텐츠 제공 및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종합유통망 구축 및 활성화 도모

내용 및 성과

- 공예 DB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석 설계 및 화면UI를 내부 사용자 및 테스트 참여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시범시스템 구축
- 공예산업 분류기준 설정 및 분류체계 개발
 - 공예산업분류체계(안) 제시로, 향후 국가승인 공예통계 기반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방안수립 계획
- 분류체계관점의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공예산업 현황 조사
- 공예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사업체 대상/개인 대상)
 - 진흥원 제공 협회리스트를 포함한 모집단 확보 후 유효표본 2,603개 확보 및 현황 분석
 -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사업체	사업체 기초 현황, 사업분야, 생산 제품의 형태, 유통 제품의 형태, 매출액 현황, 기술수준
개인	공예작품활동 영역, 공예 작품활동 운영 현황, 판매액 현황, 기술수준

- 공예산업 실태조사 품질수준 검증 조사
 - 실태조사 참여업체 2,600개를 대상으로 한 품질진단
 - 향후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약 1,100개의 모집단 수집

8. 공예인증제연구 및 구축

사업기간 2013.1~12

목적 국산 공예품의 구별법과 품질의 차이를 인증할 공예인증제도 마련 및 효율성 확립, 공예인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 연구 및 점검

내용 및 성과

- 공예인증제실행계획수립연구
 - 공예인증제도 시행 시 KCDF의 역할, 14년도 인증제 시행 시 필요사항 등 논의
 - 2014년 우수공예상품지정표시제도 도자공예분야 시범운영 확정
- 공예인증제 분과위원단 구성 및 운영
- 공예정책토론회
 - 〈공예품 인증제도의 시행과 우리의 과제〉

일시	장소	참여 현황	참가자 수
12.10(화) 14~17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발제자 김대근 박사, 오영택 교수, 편종필 교수, 최웅철 대표 토론자 김효정 박사, 민복기 교수, 전수걸 이사장 외 발제자	100여명

- 공예정책토론회 포스터
- 공예정책토론회 전경



9. 공예해외교류 사업

사업기간 2013.1-2014.2

목적 해외유통 확산 및 한국 공예 브랜드 인지도 제고 위해 국가별 주요 페어 참가 및 대륙별 공예 네트워크 구축

내용 및 성과

- 공예 박람회 및 페어 참여

국가	행사명	기간	참여 현황	참여성과
영국	콜렉트	5.9-3	정해조-옷칠, 장연순-섬유 김명선, 김문경, 윤주철-도자 심현석, 안민식, 정지민-금속	· 대영박물관,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 소장구매 · 판매금액: 25,700파운드 (한화 약 45,000,000원)
프랑스	메종& 오브제	9.6- 10	비믹스-조명 및 아로마 박선영-페인팅 도자 테이블 웨어 이지수-도자 테이블웨어 외 7명	· 현장 주문액: 약 55,000유로 (한화 약 82,500,000원) · 현장 샘플 판매액: 5,063유로 (한화 약 7,600,000원)
	REVELA- TIONS	9.11- 15	정해조-옷칠, 고혜정-금속 이지윤-섬유, 한성재-가구 이민수-도자	· 판매액: 총 6,540유로 · 장식미술관장 개인 소장 구매 · 2015년 프랑스공예비엔날레 한국 주빈국 초청제안
	문화유산 박람회	11.6- 10	한국 전통공예장인 작품 출품 및 시연 진행	· 전통공예 프로모션 전시 · 3분야 장인의 현장 시연 · 전통연계 프랑스 명품협업공방 3곳 시찰
	메종& 오브제	2014. 1.24- 28	트렌드페어 참여작가 연계 8명 스타상품개발사업 참여작가 10명	· 현장 주문액: 총 8,321유로 (한화 약 12,481,500원) · 현장 샘플 판매액: 8,593유로 (한화 약 12,459,000원)

미국	SOFA	10.31-11.3	김명선, 박정홍, 이인화-도자 김정석, 김준용, 허혜옥-유리 김수연, 박은주-주얼리 전경화-섬유, 진영섭-금속	· 현장 판매금액: 25,780달러 (한화 약 28,000,000원) · 이인화 작가 출품작 전량 판매, 박은주 작가 뉴욕 소재 갤러리 거래 연계, 전경화 작가 출품작 75% 판매
대만	국제문화 창의산업 박람회 (TICCIE)	11.21-24	밀라노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3>전 연계 후속전시	·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상 방문

• 공예 전시 참여

국가	행사명	기간	참여 현황	참여성과
프랑스	공예전문 갤러리 아틀리에 전시	4.11-6.9	고희숙-도자 외 18명	· 전시기간 방문자: 약 1,300명 · 작품 판매 액: 3,180유로 (한화 약 4,770,000원)

- 프랑스 장식미술관-진흥원 간 한불수교 130주년기념 협업전시 확정
- 네트워크 구축
 - 프랑스 보부쉐디자인워크숍 관계자 진흥원 방문으로 2014년 보부쉐 워크숍 강사 구성 추천 및 협력 요청, 한국 학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협조, 보부쉐 워크숍의 세계 순회전시 방안 논의 및 아이디어 공유 요청
- 프랑스 장식미술관-진흥원 간 한불상호교류의 해 기념 협업전시 확정
- 영국 <Collect> 전시전경
- 프랑스 2013 메종&오브제 부스 전경



• 프랑스 공예비엔날레 부스 전경



• 시카고 SOFA 진흥원 부스 전경



• 프랑스 문화유산박람회 전시현장 시연



• 대만 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한국공예전시관



• 프랑스 2014 메종&오브제 진흥원 부스 전경



• 프랑스 아틀리에 갤러리 전시전경



10. 구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사업기간 2013.1~12

목적 구 서울역사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 복합문화 공간 구현, 문화역서울 284의 홍보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공간 운영 활성화

내용 및 성과

- 2013년 문화역서울 284 상임 예술감독 및 팀원 선임
 - 예술감독 김기용, 팀원 민병직(전시, 학술, 퍼블릭 프로젝트), 김서령(공연, 다원예술, 이벤트), 김상윤(광장 활성화 및 교육, 홍보 마케팅)을 선임하여 전시, 공연,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문화역서울 28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문화역서울 284 관련 인사 위촉 후 분기별 1회 이상 자문, 운영 위원회의 개회를 통해 운영 및 사업내용 자문, 예술 감독 및 팀원의 프로그램 운영성과 평가
- 전시 현황

구분	기간	전시제목	참여 현황	관람객 수
기획전시	3.23~4.14, 4.26~5.26	여가의 새발견-서브컬처 익스프레스	26팀(42명)	44,499명
	6.6~7.14	대중의 새발견-누가 대중을 상상하는가	25팀(44명)	17,460명
	11.23~12.31	근대성의 새발견-모던떼끄놀로지는 작동중	27인	12,810명
상설전시	11.23~12.31	유연한 역사 (驛舍, The flexible station)	3팀(4인)	8,902명 (동시진행)
	9~12 일부~2015.12	환대(퍼블릭 프로젝트)	8팀(10인)	
합계				83,671명

• 공연 현황

구분	기간(월)	공연제목	현황	관람객 수
기획공연	3-5	여가의 새발견	공연 60회, 워크숍 7회, 전시 31일	3,886명
	5-6	삐에르 빠뜨랑		1,185명
	10-12	아트플랫폼 스페셜 에디션 〈현대예술, 만만하게 보기〉		202명
	12	Party 284 〈경성쌀롱〉		749명
정기공연	10-12	아트인큐베이팅: 서울역문화공작소	공연 51회, 워크숍 11회	2,070명
	6-12	아트플랫폼		1,107명
	6-12	죽흥상설 -고수푸리		778명
	6-12	오픈스테이지		1,105명
이벤트 프로그램	2.8-11	설연휴 풍물놀이	10회	2,000명
	6.23-10.26	전통상설 풍물연희 〈어울마당 풍물세상〉	20회	4,717명
합계				17,799명

• 교육 현황

- 디자인 평론가 최범과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

구분	기간	행사명	현황	참석자 수
교육	3.23-4.14, 4.26-5.26	대중예찬	4회 강의, 답사	156명
	6.6-7.14	여가의 새 발견-리바이벌	3회 강의, 답사	67명
	11.23-12.31	근대만담	12회 강의, 답사	307명
합계				530명

- 전시 전경(여가의 새 발견)



- 공연 전경(고수পুর이, Party 284 <경성살롱>)



- 교육 전경



11. 문화예술 ODA

사업기간 2013.4-2014.2

목적 저개발국 공예 자원과 디자인 기술을 활용한 지원 대상국의 공예디자인 생산 유통 기반 확대,
우수 인력의 해외 파견 지원을 통한 국내 공예 · 디자인 생산 기술의 다각화 모색

내용 및 성과

- 공예 ·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높은 국가 중심의 권역별 조사 연구 및 ODA 시범 파견 프로그램 설계
- 공예디자인 ODA 전문가 공모를 통한 선정 (공모기간: 7.19~7.28 10일간)

공예 · 디자인 ODA 파견프로그램 전문가 선정자		
이름	국가	분야
장지우	라오스	섬유
최미경	필리핀	제품가구

- 2013 공예디자인 ODA 파견프로그램 진행
 - 라오스 현지기관 LHA(Lao Handicraft Association), 필리핀 현지기관 CCAP(Community Craft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와 공예디자인 ODA 전문가 파견프로그램 진행
 - 현지기관 KANCHANA(라오스), CCAP(필리핀)과 저작권 협약서 체결
- KOICA 등 외부 기관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ODA 파견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예 · 디자인 분야 ODA 연구기반 구축
- 파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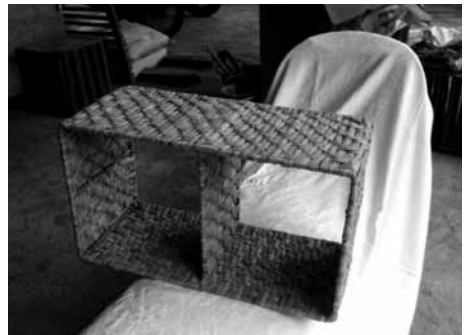
회차	국가	날짜	기관 및 업체	내용
1	라오스	8.14-21	LHA, KANCHANA	공예디자인 ODA지원, 저작권 협의, 섬유 분야 지원 및 협의: 현지업체 KANCHANA
	필리핀	8.20-25	CCAP	공예디자인 ODA지원, 저작권 협의, 제품 분야 지원 및 협의
2	라오스	10.5-26	KANCHANA	ODA 2차 파견회의, 제품개발 회의

2	필리핀	10.2-6	CCAP	ODA 2차 파견회의, 제품개발 및 생산방법 논의
3	필리핀	2014. 1.12-15	CCAP	ODA 파견프로그램 결과물 최종 협의

• 라오스 프로그램 결과물



• 필리핀 프로그램 결과물



12. 아카이브센터 운영

사업기간 2013.1-12

목적 공예 및 디자인분야의 전문자료 수집 및 전문정보 제공, 진흥원 발간자료의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대국민정보공개서비스 기반확립에 이바지

내용 및 성과

- 아카이브 센터 운영 현황

연도	소장자료	전문자료(비율)	센터 방문자수	전자도서관 접속자수
2012	8,173건	4,183건(52%)	2,317명	9,542명
2013	9,245건	6,382건(60%)	2,786명	17,661명

- 자료 구성

단행본	비도서	논문	저널	총계
6,184건	224건	116건	2,721건	9,245건

- 전체 장서 대비 전문자료 비율 증가

- SNS, 뉴스레터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한 온라인 이용자 대폭 증가(188%)

- 7건의 진흥원 발간자료 공공누리 4단계(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를 통한 자료 개방
- 국외 4곳, 국내 10곳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교류, 해외 주재 한국문화원 28곳 진흥원 발간자료 발송
- 서울도서관 도서전(1,672명 관람), KCDF 갤러리 내 자료전시 49건의 오프라인 홍보 진행
- 진흥원 뉴스레터 추천도서 및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아카이브센터 전경



13. 정기간행물 발행

사업기간 2013.1-12

목적 연 총 2회의 국문 정기간행물 발간 및 배포로 한국 공예 · 디자인의 가치발굴과 저변을 확산하고, 다양한 소재가 융합된 볼거리 제공

내용 및 성과

- 『공예+디자인』 발행
 - 공예 · 디자인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이슈, 전문정보를 기획 · 편집하여 총2회 발행
 - 국내외 공예 · 디자인 분야를 전문 · 통합적으로 다루어 발행되는 유일한 매거진으로서 한국 공예 · 디자인 대표 전문 정기간행물

제목	면수	발행시기	발간 수
공예+디자인 7호	150면	8월	5,000권
공예+디자인 8호	150면	12월	5,000권
합계			10,000권

- 무료 배포현황(회당)

구분	발송처	배포 부수
우편발송	정기구독자, 신규구독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약 3,000부
현장배포	진흥원 갤러리, 사무실, 아카이브, 문화역서울 284	약 2,000부
합계		약 5,000부

- 2011-2013년 연간 정기구독자 약 4배 증가(약 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증가)
- 오프라인 배포와 동시에 온라인서비스 제공

14. 지역공예마을 육성

사업기간 2013.1~12

목적 지역에서 자생력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가이드라인 제시

내용 및 성과

- 지역의 공예인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지원책을 수립하고,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 공예마을 모델 제시
- 지역공예마을 11~13추진홍보책자 및 리플렛 제작
- 시범지역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및 체계 구축
- 지역공예마을 지원 현황

경남 통영	서울 종로구
통영전통공예관 공간컨설팅 추진 - 통영전통공예관 공예품판매 및 문화휴게 공간 조성	북촌소식지 4회 및 북촌아카이브집 발행 - 총 24명 인터뷰 및 내용 정리
통영나전칠기공방 공간컨설팅 및 워크숍프로그램 운영 - 통영나전칠기공방 다목적홀 조성 및 워크숍 프로그램 5회 추진	북촌전통공예체험 UCC & Photo 공모전 추진 - 143개 작품 응모, 21개 작품 선정 - 수상자 시상식 및 전시 추진(KCDF 갤러리) · UCC 부문 최우수상: 힐링이 필요해 (수상자: 배수진, 이경미, 이경실) · PHOTO 부문 최우수상: 체험의 흔적들 (수상자: 민경찬)
	체험관 홍보리플렛 국영문판 제작

- 공예트렌드페어 내 사업홍보관 1개소, 지자체홍보관 2개소 운영
- 지역공예마을 사후관리가이드라인구축연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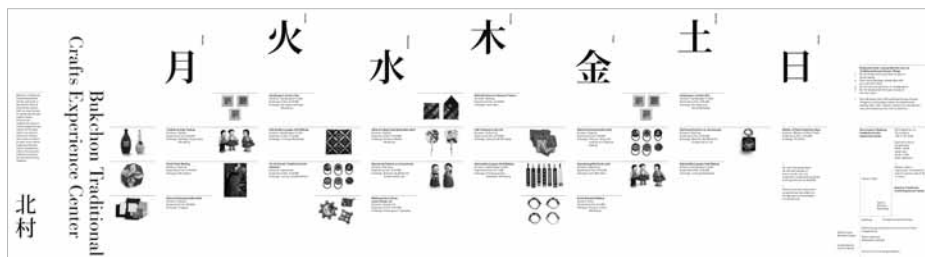
• 통영전통공예관



• 통영나전칠기 공방 워크숍



• 북촌 전통 공예체험관 리플렛



• 북촌 전통 공예체험관 리플렛



• 사업홍보관 전시전경



15. 한복생활화 인식확산 사업

사업기간 2013.3~2014.2

목적 한복 생활화 및 인식확산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지속·확대하고, 한복축제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전환 및 한복의 국내외 문화적 가치 향상

내용 및 성과

- 한복디자인 경연대회
 - 본선 경쟁을 통해 최종 3명에게 시상 각종 진흥원 전시 및 홍보행사에 작품 활용

구분	상명	수상자	상금(만원)
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송혜미	500
2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	안정미	300
3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	조정분	100

- 한복교복 제작
 - 2012년 한복교복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지속 관리 및 2013년 한복교복 신청학교 제작지원 (2012년 대상학교 5개교, 2013년 대상학교 8개교)

구분	발송처	발송처	배포 부수
대전 동구	동명초등학교	김남희	79명
전북 남원	산동초등학교	김남희	42명
전남 보성	조성남초등학교	이혜순	33명
전남 화순	춘양초등학교	이혜순	31명
경남 하동	고전초등학교	장광효	34명
경남 고성	하일초등학교	장광효	31명
경남 고성	하일초등학교	장광효	31명
경북 봉화	법전중앙초등학교	조진우	39명
제주 한림	재릉초등학교	조진우	79명
합계		4명	368명

- 울산 한복 페스티벌
 - 울산시, 울산 MBC와 함께 한복 패션쇼 25,000여명 관람, 한복 전시회 36,000명 관람
 - 한복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K-패션 한복〉, 60분, 제작/방영
- 한복 고쳐 입기
 - 공모 선발된 이해은 전문 한복디자이너와 선정된 일반인 3명(김명희, 정혜선, 최정인)의 논의를 통해 한복 리폼
- 민간단체 한복사업 지원
 - 한복관련 민간단체 한산모시문화 추진위원회,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분화청년회, 여백,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교육, 공연, 전시 등을 지원
- 한복 심포지엄
 - 한복문화의 현주소 고찰 및 향후 과제, 비전과 실행방안 논의(한복관계자 400여명 참여)
- 한복 요소별 발전전략 전문가 토론회
 - 한복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입을 수 있도록 방안 연구
- 한복의 날 행사 개최
 - 한복관련 전문 패션쇼, 세미나, 공모대전, 한복고증 전시회 등으로 새로운 한복 디자인 제안
- 한복의 날 행사 패션쇼 진행



- 한복디자인 경연대회



- 울산 한복 페스티벌 패션쇼 / 전시 전경



- 민간단체 한복사업 지원



16. 한지 상품개발 및 유통확산 지원

사업기간 2013.3-2014.2

목적 한지 육성기반 확대 및 한지품질표시제 운영 및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한지 소재 콘텐츠의 다양성 확장 및 유통루트 개발

내용 및 성과

- 한지품질표시제 운영
 - 한지품질표시제 생산업체 지원 및 공공영역 참여
 - 수록한지 업체 총 21개 업체 중 참여업체 8개(시행초기)에서 18개(현재)로 확대,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하고 100%참여
 - 한지품질표시제 공청회 개최
 - 한지산업지원센터 협약을 통한 체계화된 업무와 제도 홍보 인쇄물(샘플북, 포스터, 리플렛), 영상제작(지진희, 이병복 재능기부), TV 광고 편성홍보(지진희, 김승환 재능기부)
- 한지상품개발 디자인 경연대회 3기 운영
 - 선발한 신진 디자이너 10팀이 각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10개 한지 상품개발 및 프로모션

일번	선정자	상품명
1	김혜신(장관상 수상)	유유자적(悠悠自適) 블라인드 paradise / moving mountains I , II
2	지희승(원장상 수상)	함
3	모조 랩(김은학, 이정은)	류(流)
4	소동호	Korean Traditional Paper(Hanji) Furniture Series
5	송민아	Hanji Travel Mate
6	양혜은	원
7	오나령	숨 · 쉬다
8	정순구	1. 그림자 드리우기 팝업카드, 2. 카나발 모빌 3.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 USB
9	조하나	'찰나의 향기' 장신구
10	김현주	'The Vein' tray

- 공공소비 상품개발 및 제작
 - 한지 방명록 210부 제작하여 해외 문화관, 대사관 등 배포
- 한지소재 등록 및 해외 프로모션
 - 한지소재 글로벌 프로모션 워크숍 개최, 한지소재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한지 융복합 시제품 개발, 소재전문 기관 한지 소재 등재 진행
 - 8개사의 12종 머테리얼 커넥션(Material ConneXion) 라이브러리 소재등록 완료
- 국내외 전시 참가 및 프로모션
 - 박람회 참가를 통해 한지상품 및 한지품질표시제 참여업체 한지 프로모션
 - 부산 홈테크 박람회, 공예트렌드페어, 독일 페이퍼 박람회 참가
- 2013 독일 페이퍼 박람회



- 한지품질표시제 포스터



17. 2013 공예트렌드페어

사업기간 2013.3-2014.2

목적 다양한 기획전시와 공예전문마켓 개최를 통해 공예작가 발굴, 소비자와의 접점 모색,
공예유통 활성화 도모

내용 및 성과

- 12.19~22 4일간 코엑스 A1,2,3 홀에서 개최
 - 전년도(21,531명)대비 10,340명 증가한 31,871명 관람
- 공예 소재의 물질적 특성을 탐구하고 공예의 미래를 모색해보는 종합행사
- 행사장 구성 및 동선을 관람객 중심으로 설계, 중견작가 초청프로그램, 참여 작가 연계 현장 이벤트, 강연, 체험,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작가와 관람객 참여 활성화
- 행사구성

구분	내용	참여자
특별기획관	“소백, 물질을 말하다”를 주제로 국내외 25명의 스타작가의 작품 전시	25명
KCDF 홍보관	KCDF갤러리숍, 지역공예육성마을, 공예소재개발, 공예디자인 대학생교육, 공예디자인스타상품개발, 한지디자인상품개발 등	50팀
지자체관	이천시 등 8팀 참여	8단체
창작공방관	기획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가 100팀	100팀
산업관	공방, 제조/유통업체, 공방, 대학, 갤러리, 공예관련 매체 등 총 142팀 참여	140팀
해외초청관	영국공예청, 프랑스 공예인협회	2기관
스타부스	홍보대사 지진희 전시관	1명
합계		약 600여명

• 행사기간내 거래규모

거래내역		거래규모
현장 판매액	산업관	2.9억원
	창작공방관	0.8억원
상담 거래액		5.8억원
전시 및 입점요청 건		개별참가자 평균 5건

• 포스터



• 행사 전경



18. 2013 밀라노 가구박람회 한국관 조성

사업기간 2013.1-5

목적 해외진출 성공가능성이 높은 전통공예(가구)분야를 밀라노 가구박람회에 출품 및 홍보하여
한류의 지속 성장 도모

내용 및 성과

- 전시 준비를 위한 전문 기획단 구성
 -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장인들의 작품세계를 통해 새롭게 진화, 정제된 한국의 전통공예 소개’를 주제로 기획 및 작품선정
- 2013년 4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밀라노 트리엔날레디자인 뮤지엄에서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3>전 운영하여 총 93,478명이 관람(트리엔날레 집계자료)
- 디자인계의 세계적 거장 알렉산드로 멘디니(건축가, 디자이너), 마리오 벨리니(건축가), 크리스티나 모로찌(디자인, 예술 평론가)의 호평
- 밀라노 전시 이후 문화역서울284에서 귀국전(6.21-7.14) 개최, 대만 문화부 초청으로 대만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11.21-24) 참여
- 출품 내용

일번	출품분야	작가	작품내용	작품수	비고
1	도자공예	김익영	돈(墩) - 백자 의자	10	출품작 전체 판매
2		권대섭	달항아리	3	출품작 전체 판매
3	목공예	장경춘(백골) + 김상수	사오기나무 옷칠콘솔	1	
4	섬유공예	서영희(큐레이터) + 침선장 김인자, 정영자, 조효순(Craftman)	한국의 옷	10	서영희 강의 초청
5		강금성	한국의 이불	2	작품 교과서 게재
6	지공예	김삼식(Craftman) + 김연진(Craftman)	전통한지 및 전통한지등	3	

7	금속공예	홍정실	향로	1	
8	칠공예	손대현	모란당초 나전 2층장	12	작품 교과서 게재
9		오왕택	소반	5	
10		정해조	건칠 향아리 외	大 1, 小 5	출품작 전체 판매
11	궁중채화	황수로	궁중채화	1	
합계	7종	16명		총 43점	

• 행사 전경



• 전시 주도록(국-이탈리아어)



19. KCDF갤러리 기획전시

사업기간 2013.1-12

목적 우수 국내 공예작가 및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한국공예 · 디자인 트렌트와 미래지향성을 제시하는 기획전시 개최

내용 및 성과

- KCDF 갤러리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통한 대 주제 및 객원 큐레이터 선정 후 전시기획

분류	기간	전시명	관람객 수(명)
특별전 1	4.17-30	정부시장지원 공예분야 공모전 수상작 특별전	약 350
특별전 2	5.3-13	KCDF갤러리숍 판매전	약 500
기획전 1	9.9-10.1	웅성웅성크라프트	약 1,200
기획전 2	12.25-2014.1.7	에브리원 makes 에브리싱	약 800
총 관람객 수(명)			약 2,850

- 윈도우 갤러리

- KCDF갤러리 인트로 공간에 맞춰 공예 · 디자인을 통한 새롭고 다양한 생활문화 소개

분류	기간	전시명	비고
1회	4.30-6.19	복-새로이 짓다	장소의 특성상 관람객 측정 불가
2회	6.21-9.3	추억-그 시간의 잔상	
3회	9.9-10.1	기획전 1(웅성웅성 크라프트) intro	
4회	10.3-12.24	숲과 우리사이의 물건	
5회	12.25-2014.1.7	기획전2(에브리원 makes 에브리싱) intro	

• 디자인 큐브

- 통영, 제주, 경주 지역에 디자인큐브를 설치하여 지역적 공예 · 디자인문화를 홍보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프로모션 진행

분류	기간	전시명	비고
1회 통영시 케이블카	11.27-12.15	이삼웅-나전가구	장소의 특성상 관람객 측정 불가
	12.16-2014.1.27	Studio KAMKAM-소반	
2회 통영시 문화 한마당	11.27-12.15	김종량-나전	
	12.16-2014.1.27	조대용-염장	
3회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11.21-12.19	현병묵-목공	
	12.19-2014.01.22	오창윤-옹기	
4회 경주 현대호텔	8.21-11.24	박선영-도자, 양용걸-가구	
	11.24-12.22	디자인이든-가구	
	12.23-2014.1.27	윤주철-도자	

• KCDF 갤러리 기획전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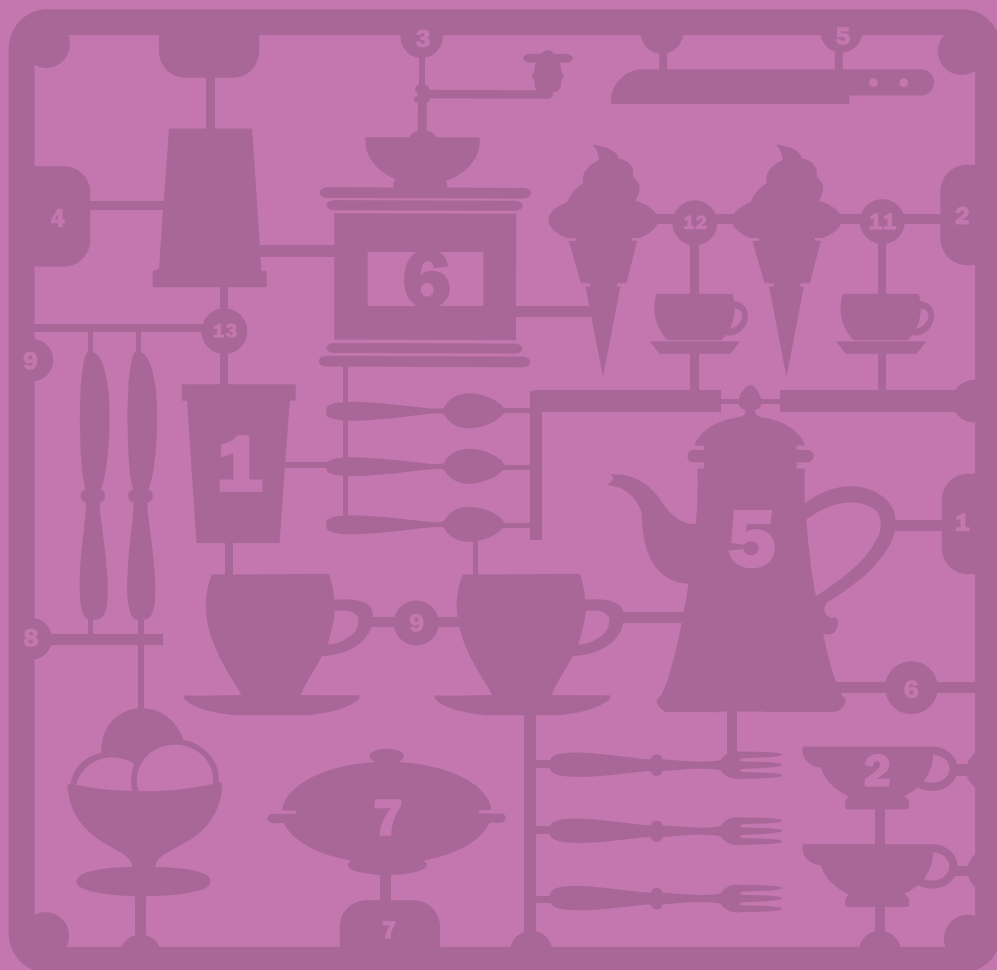
• 원도우갤러리 전시전경



• 통영시 문화마당의 디자인큐브



참고자료



1. 공예정책 현황

1-1 공예관련 법률 발의 현황

발의된 법률 총 63개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심사진행상태
1902482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2012.11.07	—	—	소관위접수
190534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6인)	2013.06.05	—	—	소관위접수
190842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2013.12.09	—	—	소관위접수
190353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3.01.31	—	—	소관위접수
190601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기의원 등 10인)	2013.07.17	—	—	소관위접수
190714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원의원 등 10인)	2013.10.04	—	—	소관위접수
191017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길정우의원 등 10인)	2014.04.15	—	—	소관위접수
190978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등 19인)	2014.03.18	—	—	소관위접수
191018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등 11인)	2014.04.15	—	—	소관위접수
190934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6인)	2014.02.10	—	—	소관위접수
190696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2013.09.25	—	—	소관위접수
19077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2인)	2013.11.12	—	—	소관위접수
190616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2013.07.26	—	—	소관위접수
19028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1인)	2012.11.27	2013.12.31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190078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	2012.07.23	—	—	소관위접수
190096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21인)	2012.07.31	2013.06.25	원안가결	공포
190989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	2014.03.27	—	—	소관위접수
190609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등 16인)	2013.07.22	—	—	소관위접수
190259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22인)	2012.11.15	—	—	소관위접수
190403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0인)	2013.03.12	—	—	소관위접수
190670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회의원 등 19인)	2013.09.05	—	—	소관위접수
1905203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등 15인)	2013.05.30	—	—	소관위접수
1901095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관영의원 등 20인)	2012.08.07	—	—	소관위심사
1900994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관영의원 등 21인)	2012.08.01	2012.08.07	철회	정부이송
190734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10.25	—	—	소관위접수
19031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2.12.27	2013.12.31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191015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2014.04.11	—	—	소관위접수
19018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23인)	2012.09.17	—	—	소관위접수
19075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3.11.06	—	—	소관위접수
19079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2인)	2013.11.21	—	—	소관위접수

190544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0인)	2013.06.12	-	-	소관위접수
190487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래의원 등 10인)	2013.05.08	-	-	소관위접수
19038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래의원 등 10인)	2013.02.22	-	-	소관위접수
190976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래의원 등 11인)	2014.03.18	-	-	소관위접수
190888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2013.12.30	2013.12.31	원안가결	공포
190856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2인)	2013.12.13	2014.05.02	수정가결	본회의의결
19093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22인)	2014.02.14	-	-	소관위접수
19024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범의원 등 10인)	2012.11.06	-	-	소관위접수
19019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8인)	2012.09.21	-	-	소관위접수
190696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석의원 등 10인)	2013.09.25	-	-	소관위접수
19045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1인)	2013.04.15	-	-	소관위접수
19042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20인)	2013.03.22	-	-	소관위접수
19084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2013.12.09	-	-	소관위접수
19099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2014.04.02	-	-	소관위접수
190310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10인)	2012.12.18	2013.12.31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190123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1인)	2012.08.21	2013.12.31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19024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2012.11.07	-	-	소관위접수
19052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2013.05.31	-	-	소관위접수
19021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2012.10.10	-	-	소관위접수
19044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1인)	2013.04.05	-	-	소관위접수
190507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3인)	2013.05.23	-	-	소관위접수
190935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6인)	2014.02.12			소관위접수
190602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 등 10인)	2013.07.17			소관위접수
19012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10인)	2012.08.24	2013.12.10	수정가결	공포
190623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1인)	2013.07.31	-	-	소관위접수
1905716	전통수공업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43인)	2013.06.27	-	-	소관위접수
19027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2012.11.21	2012.11.22	원안가결	공포
19000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종범의원 등 24인)	2012.05.30	2012.11.22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19101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2014.04.08			소관위접수
190603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식의원 등 10인)	2013.07.18	2013.12.26	수정가결	공포
1907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3.11.21			소관위접수
190943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욱의원 등 11인)	2014.02.19			소관위접수
19006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1인)	2012.07.11	2012.11.22	대안반영폐기	대안반영폐기

지역	법규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1.06.07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3.04.11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2.12.27	행정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2011.09.2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2012.09.2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10.07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전시예술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2013.05.3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3.07.3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2013.07.3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7.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2.2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2013.07.26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10.10	총무국 문화공보과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2.05.16	경제산업본부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2012.03.30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3.11.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1995.02.28	산업지원기금속속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2011.11.17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2000.05.22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존관리종합지침	1999.02.24	총무국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 남구문화재보존관리종합지침	1990.12.17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 연수구문화재보존관리종합지침	2003.05.19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인천광역시 남동구문화재보존관리종합지침	1988.12.06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5.03	문화복지국 문화관광체육과
	강화군 지방유형문화재 관리 및 사 용조례	2001.01.10	문화예술과
	옹진군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지침	1995.05.16	관광문화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2013.11.01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7.19	경제수도추진본부 중소기업지원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2012.07.10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예술진흥과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2011.09.15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예술진흥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2012.07.10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예술진흥과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09.04.15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예술진흥과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2011.11.15	총무국 문화체육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	2012.11.05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3.12.19	북지문화국 문화체육과
	광주광역시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2012.05.30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07.27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산업과
	광주광역시 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2010.06.30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산업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013.08.16	문화체육국 중무문화재과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2012.06.15	문화체육국 중무문화재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2011.12.30	문화체육국 중무문화재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2013.11.08	문화체육국 중무문화재과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1.11.21	충무국 문화체육과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2.02.10	충무국 문화체육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5.14	충무국 문화체육과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2007.10.05	과학문화산업본부 관광산업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2012.11.15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2.06.28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2.03.05	충무국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13.05.02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과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2008.06.30	투자지원단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2012.04.12	문화체육국 관광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12.19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2012.08.20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2012.07.02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07.02	문화체육관광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2.07.02	문화체육관광과
경기도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2013.07.1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3.11.1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2013.11.12	문화관광국 관광과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2009.12.31	문화관광국 관광과
고양시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과천시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7.11.09	문화체육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8.01.14	문화체육국
남양주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0.04.01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동두천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2013.05.16	문화체육국

동두천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2012.05.14	문화체육과
부천시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3.09.30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성남시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2.20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11.13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3.12.09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3.11.13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2007.11.15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수원시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4.12.31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01.16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안산시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2012.02.27	행정국 문화예술과
안성시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13.03.14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과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001.09.17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과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02.23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과
양평군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	2012.12.26	문화체육과
여주군	여주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9.17	기획감사실
	여주군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	2013.09.17	문화관광과
여주시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9.23	기획예산담당관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09.23	기획예산담당관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 육성 조례	2013.09.23	기획예산담당관
연천군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3.01.10	문화관광체육과
	연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2010.05.10	문화관광체육과
의왕시	의왕시 향토사료관 운영 규정	2007.05.31	시민서비스국 문화체육과
의정부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11.06.28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이천시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	2007.07.02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6.08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2.03.09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0.01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평택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2013.04.16	기획재정문화국 문예관광과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13.09.17	기획재정문화국 문예관광과
	평택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10.09.30	기획재정문화국 문예관광과
하남시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05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8.09.08	기획예산담당관
	하남시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운영 조례	2008.07.08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2013.03.14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하남시 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2005.06.17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하남시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조례	2009.10.16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강릉시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8.11.19	관광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009.09.23	관광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 관리조례	2009.11.25	관광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 관리조례 시행규칙	2009.05.13	관광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강릉시공예 · 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규정	2007.05.16	관광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강원도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2013.03.15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3.11.22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13.10.04	경제진흥국 기업활성화과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2013.11.01	경제진흥국 기업활성화과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 · 운영 조례	2013.07.26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강원도 평화 · 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011.07.08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강원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2012.07.13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고성군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13.04.17	관광문화과
	고성군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2011.04.13	관광문화과
	고성군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2010.04.16	관광문화과
삼척시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조례	2012.03.02	문화공보실
양구군	양구군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2011.11.15	문화체육과
	양구군 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조례	2011.11.15	문화체육과
양양군	양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4.12.10	문화관광과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3.03.29	문화관광과
원주시	원주시 옷 · 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2009.10.01	경제문화국 지식경제과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2013.11.08	경제문화국 지식경제과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4.02.14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원주시 옷산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2009.10.01	경제문화국 지식경제과
	원주시 옷산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2013.10.11	경제문화국 지식경제과
	원주시 한국옷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2013.11.08	경제문화국 지식경제과
인제군	인제군신촌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2013.06.25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11.08.01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1.08.01	문화관광과
정선군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2013.07.31	문화관광과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3.07.31	문화관광과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3.11.15	문화관광과
	정선군 향토박물관운영조례	2009.04.08	문화관광과
정선군	정선군 향토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	2007.05.14	문화관광과

춘천시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3.10.31	경제국 문화체육과
태백시	태백시 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규정	2005.06.30	관광문화과
평창군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1.06	관광경제과
홍천군	홍천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5.03.10	문화체육과
화천군	화천군 공예방 운영규정	2010.02.19	기획감사실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2013.06.05	문화체육과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2013.06.05	문화체육과
	화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2013.06.05	산림경영과
횡성군	횡성군 정금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12.30	문화체육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0.02.19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2012.07.1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충청북도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2.12.28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
괴산군	괴산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01.05	문화관광과
	괴산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2008.06.13	문화관광과
단양군 보은군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	2001.06.18	지역경제과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2001.09.06	지역경제과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	2001.06.18	지역경제과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2001.09.06	지역경제과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012.01.13	문화관광과
	보은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시행규칙	1995.10.11	문화관광과
영동군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2011.12.28	문화체육과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8.10.06	문화체육과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2012.10.25	문화체육과
옥천군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07.05	문화관광과
	옥천군 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2004.11.30	문화관광과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2008.12.19	문화관광과
음성군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2013.10.15	문화체육과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5.07.01	문화체육과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2013.10.15	문화체육과
증평군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1.05.27	문화체육과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2010.05.07	문화체육과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2012.02.24	문화체육과
진천군	진천군 공예마을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09.26	문화체육과
	진천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2012.03.15	문화체육과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12.23	문화체육과

진천군	진천군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02.16	문화체육과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2013.05.09	문화체육과
청원군	청원군 용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6.05.15	문화체육과
청주시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8.07.18	안정행정국 문화관광과
충주시	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2013.06.28	문화복지국 관광과
	충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	2013.06.28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2010.03.1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1.09.2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충청남도 전통문화가정발굴·선양 운영 규정	2005.01.1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2007.07.3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논산시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12.30	예산담당관
당진시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012.01.01	안전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당진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	2013.12.02	안전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1.01	안전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01.01	안전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부여군	부여군 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	1996.06.17	문화관광과
	부여군 전통민속연수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2010.12.31	문화관광과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 조례	2010.12.31	문화관광과
서천군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12.09.28	문화체육과
아산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09.11.05	교육복지국 문화관광과
	아산시 외암민속관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2007.03.05	교육복지국 문화관광과
	아산시 웅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2012.03.09	교육복지국 문화관광과
	아산시 웅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06.15	교육복지국 문화관광과
청양군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2007.10.04	문화체육관광과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06.19	문화체육관광과
	청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8.11	문화체육관광과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2011.11.11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2012.07.0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2009.04.03	민생일자리본부 기업지원과
	전라북도 문화재보존관리지침	2000.07.21	문화예술과
고창군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0.03.19	문화관광과
군산시	군산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2003.03.31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0.04.15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김제시	김제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2013.08.19	문화홍보촉진실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1.01.03	문화홍보실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2.11.16	총무국 문화관광과

남원시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2013.02.01	시설사업소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2012.11.16	총무국 문화관광과
	남원시 율치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2012.11.16	안전경제건설국 경제과
	남원시 율치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2012.11.16	안전경제건설국 경제과
무주군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2007.08.13	문화체육관광과
부안군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2005.08.10	문화관광과
	부안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02.18	문화관광과
순창군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09.12.30	문화관광과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09.12.30	문화관광과
	순창군 웅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2.31	장류사업소
	순창군 웅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12.31	장류사업소
익산시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 시행규칙	2005.01.29	문화관광과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2012.07.11	전략산업국 문화관광과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7.11	건설교통국 주택과
임실군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2010.10.04	문화관광산업과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2008.08.29	문화관광산업과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0.04.07	문화관광산업과
장수군	장수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2003.05.01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장수군 문화예술촌설치및운영조례	2001.05.15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전주시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1.12.30	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전주시 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06.09	한옥마을사업소
정읍시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2009.05.29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2007.07.25	시설관리사업소
진안군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3.04.01	문화관광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 · 관리 조례	2011.11.15	문화관광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 ·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13.04.01	문화관광과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12.29	행정지원과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2013.02.20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2013.02.20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03.11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02.20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강진군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2013.12.11	문화관광과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2013.12.11	문화관광과
	강진군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2011.04.20	문화관광과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2013.12.11	청자박물관

강진군	강진군 고려청자재현물관리규정	2007.12.21	청자박물관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2013.12.11	청자박물관
	강진군 청자촌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12.11	청자박물관
	강진군 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2013.12.11	청자박물관
	강진군 청자축제 조례	2013.12.11	문화관광과
광양시	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2010.08.25	문화홍보담당관
구례군	구례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2011.11.18	문화관광과
	구례군 문화재 보존관리 책임제 시행 규정	2011.07.25	문화관광과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11.18	문화관광과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1.07.25	문화관광과
나주시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2011.02.14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 운영 조례	2013.06.05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1.02.14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2011.02.14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시행규칙	2011.02.14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08.03	행정복지국 전략산업과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06.20	행정복지국 전략산업과
	나주시 천연염색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6.20	행정복지국 전략산업과
담양군	담양군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2001.03.23	문화체육과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2011.12.28	대나무자원연구소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시행규칙	2011.12.28	대나무자원연구소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2011.12.28	대나무자원연구소
	담양군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조례 시행규칙	2011.12.28	대나무자원연구소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06.07	지역경제과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2013.05.02	대나무자원연구소
목포시	목포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2.06.11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 운영조례	2012.06.11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
무안군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2.06.15	관광문화과
여수시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2011.01.10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
영광군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2.06.29	문화관광과
영암군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1.07.28	문화관광과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08.12.09	문화관광과
장성군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2008.12.31	문화관광과
장흥군	장흥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2003.12.31	문화관광과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3.12.31	관광문화과

장흥군	진도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12.06.11	관광문화과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2012.07.31	기획조정실
해남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3.10.25	문화관광과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011.04.15	지역개발과
	해남군 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2009.11.01	지역개발과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011.04.15	지역개발과
	해남군 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2009.11.01	지역개발과
화순군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2008.03.11	문화관광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2009.07.23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2009.12.17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2011.05.30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경주시	경주시 민속공예촌전시판매장및휴게시설차관리조례	1995.01.03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고령군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09.01.15	문화새마을체육과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1.09.21	문화새마을체육과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2013.07.31	문화새마을체육과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2008.01.14	문화새마을체육과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8.12.04	문화새마을체육과
문경시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2009.06.17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봉화군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2012.06.28	그린타운추진단
	봉화군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2.06.28	그린타운추진단
상주시	상주시 상주박물관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처리규정	2010.03.29	상주박물관
성주군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	2000.04.15	문화체육과
안동시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2010.01.07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7.07.13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시 안동포전시장 관리·운영 조례	2011.12.30	문화복지국 전통산업과
영덕군	영덕군 문화재 보존 및 관리지침	2007.12.06	문화관광과
	영덕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2010.06.04	문화관광과
영주시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1.11	기획감사실
	영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2009.01.09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영천시	영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2013.03.14	안전행정국 문화공보관광과
예천군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09.04.23	문화관광과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09.09.07	기획감사실
울진군	울진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2009.10.01	문화관광과
	울진군 주민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2010.12.31	문화관광과
울진군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2011.05.13	문화관광과

의성군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	2010.04.23	새마을문화과
	의성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10.07.09	새마을문화과
청송군	청송군 문화유산보호 조례	2007.03.02	문화관광과
	청송군 문화유산보호 조례 시행규칙	2007.03.02	문화관광과
포항시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2011.09.20	문화관광과
거창군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2011.08.08	문화관광과
경상남도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2011.08.18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2011.08.18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조례	1962.08.29	경제정책과
고성군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2012.10.15	문화관광체육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2008.09.10	문화관광체육국
창원시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7.01	복지문화여성국 문화관광과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7.01	복지문화여성국 문화관광과
밀양시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화관 관리 운영 조례	2001.07.31	안전행정국 문화관광과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2012.03.22	안전행정국 문화관광과
사천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2012.05.30	총무국 문화관광과
산청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012.12.31	문화관광과
진주시	진주시 향토문화재보호조례	2008.08.11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12.12.21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진주시 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	2007.08.09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진주시 전통예술학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2007.08.09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12.07.06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2011.07.15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창녕군	창녕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1.13	기획감사실
	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조례	2012.02.27	생태관광과
창원시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7.01	복지문화여성국 문화관광과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품의 설치조례	2007.10.11	생활복지국 문화관광과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품의 설치조례 시행규칙	2008.01.10	생활복지국 문화관광과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7.01	복지문화여성국 문화관광과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5.25	복지문화여성국 문화관광과
통영시	통영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2013.07.31	안전행정국 문화예술과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5.08.10	안전행정국 문화예술과
	통영시 향토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5.11.17	안전행정국 문화예술과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조례	2010.12.31	공보감사담당관
통영시	통영시 통영나전칠기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12.30	지역발전추진단

함안군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2.31	기획감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2008.06.18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2013.05.15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2013.11.27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2012.04.06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1-3 자치단체 공예관련 업무 및 소관부서 현황

총 17개 자치단체 45개 부서(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1개 특별자치)

자치단체	부서명	공예 관련 업무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미래유산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본부 홈페이지 운영 총괄
		기타 신규 현안업무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 수립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래유산 자원관련 조례 제정
		미래유산 관련 민간기관 협의 추진
		문화예술인 명소 복원 조사 추진
		물품관리 관련 업무
		창의, 교육 관련 업무
		미래유산 관련 민간기관 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미래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 지원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서울문화재단 지도·감독
		국내외 자치단체간 문화교류 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문화지구 육성지원 총괄(인사동, 대학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지원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 육성
		홍대앞 문화생태계 활성화 추진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운영
		창작공방 조성지원(주민참여)
		주간업무·홍보계획 보고
		서울시창작공간 운영 총괄
		남산예술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성북예술센터 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창작공간 관련 공유재산 관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전통예술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분야 지원(검토)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창의업무 및 하트리더(봉사활동)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관련업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시스템 관리
	전문예술법인 지정관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시민문화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
	문화나눔 종합계획 수립
	시민예술가 육성지원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박물관 관련 업무
	박물관진흥계획 추진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박물관 물(mall) 관련 업무 등
	사립박물관 등록업무
	사립박물관 지원업무(준학예인력 포함)
	문화재위원회 총괄 및 무형문화재분과 운영
	무형문화재 지정·관리 및 전승활동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등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관리
	문화재종합 DB시스템 유지 보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활용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지원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전통문화체험교실 및 상설체험) 운영
	남산골한옥마을 각종 행사지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특화관광팀	특화관광 개발 및 활성화 총괄
	한류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문화디자인팀	공공미술작품 일제조사 총괄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 계획 수립
	공공미술 관련 조례 제개정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문화디자인팀	공공미술개선 자문단 운영 지원
		도시갤러리 유지관리
		공공미술 사업 관련 희망일기 총괄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관련 사무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업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등
		미술작품 사후관리 총괄(정기점검, 과세자료 등)
		재미있는 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및 유지관리
		공공미술작품 종합개선 추진
		공공미술개선 자문단 운영 총괄
		공공미술 설치, 사후관리, 활용 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여성인력개발기관 인프라 확충(기능보강)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여성창업플라자 등)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개최 및 사후 관리
부산광역시	본청 경제산업본부 기업지원과	공예품 관련 전판(기본계획, 대전, 장려금, 명장 등)
		공장 설립
		인터넷기업 애로 상담실 운영
		장애인기업 지원
	사업소 여성문화회관	업무보고 예산 및 의회 관련 사항
		문화교실 운영 계획, 강좌 개설
		요리/문화/예술과목 운영 및 강의실(요리실, 음악실, 미술공예실) 관리
	사업소 해양자연사박물관	해양공예품관, 화석관 운영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의 육성 발굴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및 지도 감독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역예술의 육성 발굴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구,군문화회관 및 문화원 관련 업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문화산업 정책 발굴 및 기획 조정
		전통문화 자원의 산업화
		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향토역사관	향토역사관 주요 업무 계획
		향토역사관 기획전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회관 향토역사관	향토역사관 유물 수집 및 관리
		향토사조사 연구 및 홍보물 제작
		역사관 시민강좌 운영
		향토역사관사무(예산, 물품, 지출등)
	문화체육관광국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	소장작품 보존 및 관리
		미술관 특성화에 기여하는 전시기획 및 시행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	공예도자류 기초자료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
	중구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위탁업무
		공예산업육성 및 복권업무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공장등록, 기업지원, 공예산업 관련 등
		중소기업육성 및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문화산업과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시책 발굴
		CT연구원 등 문화산업 기반 조성 업무
		CGI센터 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
		공예명장 선정 및 공예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게임대회(e스포츠)대회 등 게임산업 육성
		게임서비스 기반 및 품질테스트 지원 산업
		테마아시아문화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
		CG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 추진
		빛고을공예창작촌 시설확충 지원사업 추진
		공예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디자인센터 등)
		문화콘텐츠 기획 창작 스튜디오 운영 지원
		WAF대회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공예조합 관련 업무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총괄
		생활예술 업무의 종합 기획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
		시립미술관 지도 감독 관련 업무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사항
		예술(국악)강사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법인 허가(종합, 연극, 건축, 미술, 사진)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	울산공예협동조합 관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종합예술단체 관리
		예술인복지사업 추진
		문화재단 업무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
		전시행사지원(건축, 문인, 미술, 사진, 서예등)
		문화산업 업무 총괄
경기도	경제기획관 기업지원 1과	공예품대전 등 공예산업 육성
	산림환경연구소	목공예체험, 전시실운영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토요문화학교사업 지원
		박물관 미술관법/조례 관련
		뮤지엄파크 조성
		경기도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운영 관리
		박물관/미술관협회 관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지원
		도단위 예술단체 사업 지원
강원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기반시설 건립과 운영 지원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예술인 특화마을, 공연장, 문화원, 문화의 집
		공예공방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대관령 야외공연장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와 위원회 운영
		정부합동평과 관리, 영월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 지원
	경제진흥국 기업활성화과	강원도 향토공예관 관리 및 공예산업 육성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공산품 품질관리 및 경진대회 개최 지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지방문화의 육성, 보급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집 지원, 육성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
		문화예술포럼 운영
		민속예술 발굴 보존 지원 등 관련 사항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 협력 추진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창의적 예술프로젝트사업 시행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지방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수행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 관련 해외협력체계 구축 지원
		문화산업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문화산업 기반 조성
		문화산업 관련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민속공예품 개발에 관한 업무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업무
		기타 문화산업 등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축제 지원 육성
		시군향토문화축제 지원 육성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판로지원 및 국내시장 개척(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지원)및 상품 홍보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도지정예술, 문화플랫폼, 전문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문화바우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산업 업무 총괄
전라남도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	공예업무, 공산품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
		공예경영장제, 공예품 해외 판촉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
		향토산업 육성
		우수 공예업체 지정 운영 등
		공산품 해외마케팅 지원
		공산품 해외규격 인증 산업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민속예술 축제행사 계획 수립
		예술은행 운영
		예술 관련 전국 및 시군대회 지원
		문화산업 업무 전반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전통문화상품개발, 육성 지원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예술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업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리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지정 관리 등
	민생일자리본부 기업지원과	공예산업 육성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소상공인지원담당	공예산업 육성, 지원
		경상남도 공예축제 및 공예품대전 개최
		해외 공예품 박람회 및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
		경상남도 추천상품 공예품 분야 심의회 개최
		우수공예업체 현장실습 실시
		공예품대전 개최 계획 수립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농촌생활문화관 운영 및 생활문화 교육
		전통 규방공예 과장 운영
		전통자원 및 문화활용 지도
		농촌생활문화 교육
		농촌생활문화관 운영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전통문화, 민속놀이 계승 발전 및 지역문화의 발굴 육성
		문화단체, 문화원 지원 및 지도
		전시문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예술 및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전통예술의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각종 예술단체의 연구, 진흥에 관한 사항
		우수문화상품개발 및 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공예산업개발 및 지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전통문화 개발에 관한 사항
제주도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판로지원담당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전시예술 육성 지원 및 행사장 관리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사항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지방문화원, 제주문학의집 운영
세종 특별자치시	안정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향토문화 보존 및 조사지원
		문화재 관련 업무 기획·조정 및 총괄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관리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2. 공예산업 현황

2-1 공예 관련 협회 및 조합

총 162개 협회 및 조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설립일	분야
(사)고려다종이공예협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00-8	02-3436-1980	http://www.dackjongie.co.kr	1996	종이
(사)김해도예협회	경남 김해 진례면 송정리 360	055-345-7677	http://www.doye.buncheong.net	1998	도자
(사)대한공예예술연합회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44-3 2층	051-758-4572	http://cafe.daum.net/kha21	2005	포크아트
(사)대한민국명장회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7-1 센추럴관광호텔 1층	02-3443-6596~7	http://www.master.or.kr	1993	종합
(사)대한산업미술가협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 17길 115	02-911-4991	http://www.sanmi.org	1945	종합
(사)신라공예협회	경북 경주 충효동 2936-15	054-743-0201	http://www.shillacraft.org	2008	종합
(사)안성공예가회	경기 안성 보개면 북평리 34-24	031-676-0651	http://cafe.daum.net/atelier11	2000	종합
(사)움터문화예술협회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969-1 새롭프라자 701호	031-968-0810	http://www.wcaa.co.kr/	2009	종합
(사)의식공예문화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	02-776-3958	http://cafe.naver.com/uiseok	1997	한지
(사)인천광역시공예인협회	인천 남동구 간석1동 900-25	010-4570-0810	http://www.icackr.com	1997	종합
(사)전통한지공예가협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73-1	02-394-6533	http://www.hanjiart.or.kr/	2001	종이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대전 서구 둔산동 999	042-481-7520	http://cafe.daum.net/Cultural-product	1999	종합
(사)지천년한지 공예문화진흥원	경기 의왕 초평동 219-1	031-461-8082	http://blog.naver.com/hanji_cp	-	종이
(사)한국고미술협회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6호	02-732-2240	http://www.hkoms.or.kr	1971	고미술
(사)한국공예가협회	서울 마포구 성산1동 51-17 성산빌딩 205호	02-324-4529,5357	http://www.craftkorea.org	1973	종합
(사)한국공예교육협회	대구 동구 도동 978-284	053-656-0321	http://www.craftedu.org	-	종합
(사)한국공예문화협회	전북 익산시 선화1로 106 슬리문화예술회관 3층	063-837-6767	http://www.artcraft.or.kr	1999	종합
(사)한국공예사랑협회	서울 관악구 봉천동 925-27 경인빌딩4층	010-2508-5259	http://www.korcca.or.kr	2006	종합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지하1층 88호	011-9409-9502	http://cafe.daum.net/kcaa5757	1994	종합
(사)한국관광명품협회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02-318-2196	http://www.ktopsa.or.kr	2001	종합

(사)한국구슬공예협회	강원 원주 우산동 73-5 제일빌딩 4층	033-747-1644	http://www.koreabeads.co.kr/	2003	구슬
(사)한국귀금속보석 디자인협회	서울 광진구 중곡동 638-5 용담빌딩 3층	031-788-7088	http://www.kjda21.org	1993	귀금속/보석
(사)한국리본아트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번지 천마빌딩 703-1호	02-515-2447	http://www.ribbon.or.kr/	2003	리본
(사)한국문화상품디자인협회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8-16	02-940-4543	-	2008	종합
(사)한국문화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4가 9-1번지 5층	02-742-1477,1478	http://www.hanc.co.kr	2000	종합
(사)한국문화예술공예협회	대구 남구 대령3동 1921-11 4층	070-7664-1568	http://www.kchd.or.kr	2009	종합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광주 북구 충흥동 373-1 2층	062-524-4002	http://www.kcaak.org	2007	종합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부산 연제구 거제 2-27 2층	051-501-4471	http://www.kcap.or.kr	1988	종합
(사)한문화진흥협회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59-2 삼정빌딩 1층	02-588-1021~2	http://www.korea-culture.com/	1984	종합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서울 종로구 계동 102-1 연화빌딩 3층	02-3672-8803~4	http://www.kcca88.or.kr	1988	종합
(사)한국문화체험협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188-117	010-4457-5999	http://www.korkea.or.kr/	2008	종합
(사)한국미술협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812호	02-744-8053~4	http://www.kfaa.or.kr	1961	종합
(사)한국생활디자인아카데미협회	서울 중구 남창동 205-49 2층	070-7799-0070	http://www.koreadiy.or.kr	2005	D.I.Y
(사)한국선물포장 디자인협회	서울 서초구 잠원동 75-19 반포소필타운 3동 434호	02-591-1799	http://www.krgift.co.kr	2000	포장
(사)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20	02-753-4074	http://www.koreaquilt.org	1991	섬유/퀼트
(사)한국수공예기능인협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66-1번지 2층	02-3667-4005	http://www.hikcc.com	2000	종합
(사)한국수공예디자인협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큰골길 90 1층	053-653-3133	http://www.handi-craft.or.kr/index.php	2011	종합
(사)한국수공예양초협회	경기 광명 광명동 158-305 해연빌딩 2층	010-3705-5584	http://www.kcandle.or.kr	2007	양초
(사)한국수공예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69-2 삼선빌딩 315호	02-773-9647	http://www.handicraft.co.kr	1998	종합
(사)한국예원문화협회	서울 종로구 경운동 SK HUB A동 305호	02-739-7272	http://www.koreayewon.org	1999	종합
(사)한국전승도예협회	경기 이천 신둔면 수광리 330-1	031-634-2266	http://cafe.daum.net/jeunseun	2006	도자
(사)한국전업도예가협회	경기 광주 오폐읍 고산1리 29번지	031-672-5384	http://cafe.daum.net/koreaappa	2005	도자
(사)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	-	02-3279-9970	http://www.boksik.com	-	종합
(사)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	경기도 성남 중원구 은행2동 82-1번지	031-735-7734	http://www.snf.or.kr	1999	종합
(사)한국전통염색협회	경남 밀양 무안면 운정리 149-4	055-352-0735	http://www.korcolor.com	-	염색
(사)한국조형예술공예협회	경기 수원 영통구 매탄동 1208-5번지 2층 202호	031-216-7724	http://www.kptaa.com	2006	조형
(사)한국종이접기협회	서울 중구 신당3동 366-104 명진빌딩 1층	02-2264-4561	http://www.origami.or.kr	1989	종이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72 중앙빌딩 4층 503호	02-766-1588	http://www.kofji.or.kr	1975	귀금속/보석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 능보존협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02-3453-1685~6	http://www.kpicaa.co.kr	1973	종합
(사)한국천연염색협회	전남 보성군 복내면 반석리 518	061-853-5456	http://www.ggonmul.co.kr/	2008	염색
(사)한국칠보공예디자인협회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8 예린빌딩 302호	02-547-5174	http://www.koreaenameling.com/index.html	1983	칠보

(사)한국칠보공예협회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 C동 1208호	02-2026-0540	http://www.koreaenamel.com/home/home_main.php	2007	칠보
(사)한국퀵트연합	서울 종로구 연지동 275-1 연지드림빌 604호	02-516-2242	http://cafe.naver.com/cqa	2008	퀵트
(사)한국폴리머클레이 공예협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59	032-516-8163	http://www.polymerclay.co.kr	2006	폴리머 클레이
(사)한국프레스플라워협회	서울 서초구 반포동 경남상가 228호	02-536-1034	http://www.koreapressflower.com	1998	프레스 플라워
(사)한국현대도예가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7-13 남강빌딩 3층	02-3144-8730	http://www.kcca.org	1978	도자
(사)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대구 서구 비산4동 251-3	053-555-3345	http://www.hanjeworld.org/	1976	종이
(사)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02-525-0169	http://www.hanji-kpa.com	2005	종이
(사)현대공예인협회	인천 남구 주안6동 629-13 대동빌딩 3층 202호	1588-5902	http://www.hdarts.co.kr	1985	종합
대구 · 경북공예협동조합	대구 달서구 공원순화로46 두류공원내 관광정보센터1층	053-626-6131	http://www.dkhand.or.kr/	1983	종합
대한장애인공예협회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1 벽산상가 108동 지하 30호	02-3391-8751	http://cafe.daum.net/handiart	1995	종합
서울 · 경인공예협동조합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통신센터 B-305호	02-738-0001	http://www.handcraft.or.kr	1962	종합
신공예발전연구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동 259-1	062-263-9711	http://www.ihandcraft.co.kr/	1993	종합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경기 여주 여주읍 천송리 301-1	031-885-5713	http://www.yeojuceramic.com	1984	도자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306	031-633-6381	http://www.cerawork.or.kr	1995	도자
전통천연발효염색연구소	경북 안동 성곡동 826-1	054-823-4079	http://andongs017.martbiz.net	1987	섬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공예 협동조합	제주 제주시 용담2동 2630-1번지	064-713-7560	http://www.jejuhand.or.kr	1982	종합
충청북도공예협동조합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 (남문로2가 97)	043-223-8557	http://cafe.daum.net/kohand1962	1962	종합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4길 6, 일진빌딩 4층	02-2698-0003	http://www.kohand.or.kr	1962	종합
한국디자인공예협회	서울 중랑구 중화1동 281-11 수성빌딩2층	02-6012-7780	http://www.kdca.or.kr	2001	종합
한국리본공예협회	서울 서초구 잠원동 69-16 반포쇼핑타운 6동 311호	02-533-1814	http://www.eribbon.net	2000	리본
한국에그아트협회	서울 강서구 둔촌동 628-13 현대 프린스투스613호	02-3481-1373	http://www.eggart.or.kr	1994	알
한국와이어아트협회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75-2 위너스빌딩 1차 7층 704호	02-426-5080	http://www.wireart.or.kr	2006	와이어
한국전통등연구원	경기 양주 광적면 덕도리 600-1	02-396-0308	http://www.koreanltern.com	1996	전통등
(사)한국전통산업공예 진흥협회	서울 종로구 옥인동 104번지	02-736-0001	http://tcakorea.com/	1996	종합
한국포슬린협회	서울 강남 개포동 대정타워 909	02-546-7544	http://cafe.daum.net/kpaa	2001	포슬린 페인팅
한국핸드메이드협회	서울 서대문구 합동 31번지 디오빌비즈니스센터 140호	02-2195-4774	http://www.koreadiy.net/	1999	종합

(사)전라북도전통공예인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안산구 교동 61-5	063-231-2721	café.daum.net/jtc063	-	전통
(사)전통공예문화협회	경기 안산 단원구 외동 821-14 2층	031-401-4540	-	2003	종합
(사)전통천연염색색채 예술연구회	제주 이도 일동 1688-2	010-699-7360	-	2009	염색
(사)평생교육공예협회	대구 중구 동산동 297 신동산빌딩 203호	-	-	2009	종합
(사)한국공예기능협회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9-1	02-749-6626	-	-	지함/꽃꽂이
(사)한국공예·디자인협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60-1 화성상가 201호	031-223-0600	http://www.kadc.co.kr/	2001	종합
(사)한국도자기문화진흥협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3-20 요업회관 2층	02-362-6749	-	1990	도자
(사)한국문화상품디자인협회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8-16	02-940-4543	-	2008	조형
(사)한국생활공예교육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27-1 매트로 프라자 H135호	053-257-5792	http://www.kartist.co.kr/	1980	종합
(사)한국아트플라워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1401호	070-7721-3367	-	2001	플라워아트
(사)한국자수문화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02-744-5356	-	1984	자수
(사)한국자연염색공예 디자인협회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번지 신세계타운2동 102호	-	-	1999	염색
(사)한국한자공예협회	경기 구리 인창동 264-4 쌍용선스타워 615호	-	-	2006	종이
(사)한국한자문화산업 발전연합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11 도시예빛 I 910호	-	-	2006	종이
강원도공예협동조합	강원 춘천 퇴계동 770-3	033-254-4419	-	1975	종합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 83-5	055-266-4044	-	1965	종합
고양시공예사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1020-7	031-966-8242	-	1995	종합
광주광역시공예협동조합	광주 동구 금남로1가 23번지	062-223-7040	http://www.gjhand.or.kr/main/	1962	종합
광주광역시도시사업협동조합	경기 광주 신흠면 삼리 산29-6	031-797-3773	-	2001	도자
대전광역시공예협동조합	대전 동구 중동 317	042-256-7686	-	1983	종합
부산광역시공예협동조합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291	051-740-7588	-	1962	종합
인천광역시공예협동조합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4-1	032-362-0085	-	2006	종합
전라남도공예협동조합	전남 목포 상동 1023-17	061-285-7041	-	1984	종합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전북 전주 완산구 전동 24-1	063-231-2288	-	1973	종합
충청남도공예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22-1	041-856-9097	-	1983	종합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서울 종로구 묘동 88-1	02-776-4622	-	1975	귀금속/보석
한국종이예술공예회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현대 2차 115동 508호	02-937-0426	-	1999	종이
한국종합공예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33 대현빌딩	02-573-8853	www.kacc.co.kr/	-	종합
칼라클레이문화예술협회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다플리스 자식산업센터 B동 1311호	070-7724-2694	http://www.colormix.org/	1988	클레이
한국생활아트공예인협회	인천 남구 용현5동 627-355 201호	032-886-9693	http://www.hyuniart.com/	-	종합
대한공예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미로 36	1644-4054	http://www.koreahand.or.kr/ main/index.html	1999	종합

(사)설탕공예협회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91길 12 1층	02-762-8763	http://sugarcraftkorea.com/	2007	설탕
한국포앤데공예협회	대구 달서구 본동	053-581-7942	http://www.fdart.co.kr/default/	2008	종합
한국천연공예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7층	02-926-7900	http://knksa.co.kr/	-	비누
한국생활수공예협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37-22번지 2층	054-976-5452	http://www.koreaca.or.kr/	-	종합
서울포크아트장식 미술가협회	-	010-8525-8534	http://www.seoulfolkart.com/	1998	포크아트
한국슈가공예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0 2층	02-573-3555	http://www.sugarart.or.kr/	-	설탕
한국공예디자인이너협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자인문화관 3층		http://www.koreacda.org/	1972	종합
한국북아트도탈공예협회	경기도 일산동구 마두동 759 백마프라자 409호	070-4120-7738	http://www.total-art.co.kr/main/?load_popup=1	2006	북아트
한국종이접기저작권협회	서울시 도봉구 창5동 320번지	02-906-5025	http://www.korica.or.kr/	2009	종이
한국수공예문화협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2길 17로 자산빌딩 403호	02-539-9605	http://www.koreahca.or.kr/main/main.html	-	종합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 보존협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02-3453-1685	http://www.kpicaa.co.kr/intro/intro01.asp	1973	종합
한국공예아카데미협회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63길 92	02-994-8986	http://www.lovekca.com/	-	종합
한국공예전승협회	인천시 남구 송의동 58-5번지 SC제일은행 건물 1층	032-261-6339	http://www.kor-craft.com/xel/index.php?mid=index	-	종합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 장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길 1	02-3676-5302	http://www.kfjo.org/	2002	귀금속/보석
내셔널생활공예협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81 104-602	02-3472-5978	http://www.n-deco.co.kr/	-	종합
한국아트디자인작가협회	충청북도 흥덕구 서경로 4번길 13	043-286-8080	http://www.아트디자인.com/	-	종합
슈가크래프트공예협회	-	-	http://cafe.naver.com/sugarflowera	-	설탕
한국실용공예협회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676, 402	070-8286-5722	http://www.easycraft.co.kr/	-	종합
구미공예협회	-	-	http://cafe.naver.com/gumiartnet	-	종합
익산파랑굴공예협회	-	-	http://blog.naver.com/ennee73	-	퀼트
(사)스타킹공예협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40	070-8723-6038	http://www.스타킹공예.kr/	2009	스타킹
루미에르공예협회	-	010-4728-4940	http://cafe.naver.com/lumierecraft	-	리본/베킨
한국생활공예문화협회	서울 노원구 상계동 339-2 남도빌딩 4.5층	02-951-0168	-	1994	종합
한국라이스클레이협회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구파발 9단지	010-5752-0501	http://blog.naver.com/kissmouse	-	클레이
무안분청자기협회	전라남도 무안군	-	-	2005	도자
한국차공예문화협회	경남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658번지	055-324-0350	http://www.ktcca.com/	2008	차
한국크래프트협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47, 709-104	070-8259-9642	http://www.korea-craft.or.kr/default/	2004	리본

크리에이티브공예인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7층 719호	070-4135-9115	http://www.gongyein.com/	-	냅킨
한국드레스인형협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16번길 40	070-8792-3366	http://www.kdressdoll.com/	2003	인형
수인공예문화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건영3차 지하상가B-2	1588-2242	http://suinart.kr/gboard/suin-art_insa.php	2008	종합
국제아트잔협회	-	-	http://www.iaartists.com/page/sub03	-	종합
경주도예가협회	-	-	www.gyeongjufestival.co.kr	-	도자
아시아프슬린작가협회	인천시 서구 탁옥로 98번길 8, 3-2	010-3586-3764	http://www.ptia.or.kr/	-	포슬린 페인팅
한국공예체험협회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28번지 B1층	02-764-6909	http://www.incraft4u.or.kr/	2007	종합
한국창작디자인협회 (올리비아트)	인천 남구 관교동 325-6	010-9264-3531	http://cafe.naver.com/oliviart/	-	냅킨
한국공예아티스트협회	인천 부평구 갈산동 370-2 2층	010-8669-2435	http://blog.naver.com/i2ieco	-	비누/냅킨
한국가족공예협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8-65 지층	02-334-8427	http://www.colca.co.kr/	2011	가족
대한수공예협회	-	010-7151-3965	http://cafe.daum.net/bizcraft	-	비즈/리본
그린나래수공예협회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음성마을1길 12-1	041-688-3693	http://blog.naver.com/gin77	-	펠트
(사)한국클레이교육협회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2-5 동곡빌딩 204호	02-481-1028	http://www.uniclay.com/bbs/board.php?bo_table=G011	2009	클레이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	010-5514-1494	http://cafe.naver.com/kceca	-	종합
한국도예협회	경기도 인천시 사음동 629-10	-	-	2010	도자
(사)한국도자문화협회	-	02-747-5634	http://www.kpottery.kr/	2009	도자
한국선물포장연구협회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441-3 명승마루텔 402호	070-4246-0768	http://cafe.naver.com/kogda	-	선물포장
한국종합예술교육협회	-	-	http://cafe.naver.com/koreaartspace/	-	종합
한국펠트공예협회	인천 동구 금곡동 10-1 배다리전통공예거리 50호	1544-4760	http://www.koreafeltcraft.com/	-	펠트/양모
한국포크아트메니아협회	-	02-595-1941	http://www.folkartmania.com/rb/	1994	포크아트
한국까또나주아트협회	-	010-8623-2253	http://cafe.naver.com/lecartonnageart	-	종합
한국수공예발전협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47-4 금오빌딩 4층	062-431-7855	http://pdncraft.co.kr/	2012	종합
(사)한국공예문화예술협회	대구시 남구 대명3동 1921-11 크라메BD 4층	070-7664-1568	http://www.kchd.or.kr/	2009	종합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서울시 종로구 육인동 104번지 형주B/D 3층	02-736-0001	http://www.tcakorea.org/	1995	종합
포천시공예가협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2리 920-2번지	031-538-3322	http://www.pccart.kr/mall/index.php	-	종합
한국야생화자수협회	-	-	http://cafe.naver.com/herb-flower05	-	자수
남양주공예기능인협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51 다남프라자 405호	031-559-1858	http://www.dambia.or.kr/	-	나전칠기/꽃

참고문헌

단행본

- BOP Consulting, *Craft in an Age of Change*, Crafts Councils, Creative Scotland, Arts Councils of Wales, Craft Northern Ireland, 2012
- DCMS,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Experimental Statistics", 2012(12.9)
- E. Anderson James, *Public Policy-making*, New York: Holt, Rinehartand Windston, 1984; 이종수, 이대희 역, 『정책형성론』, 대영문화사, 1991
- Easton David,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이용필 역, 『정치체계분석』, 한국학술정보(e-book), 2002
- Fiona Dodd, "Defining and Measuring Craft: A Review for the Crafts Council(Report One: Definitions 1998-2012)", Crafts Council, 2013
- Howard Risatti, "Design, Workmanship, and Craftmanship",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 J. Lowi Theodore, "Fo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2, 1972
- Morris Hargreaves McIntyre, "Consuming Craft: The Contemporary Craft Market in a Changing Economy", Crafts Council, 2013
- Raymont Guidot, *Historire du design 1940-1990*, Hazan, 1994
- R. Dye Thomas, *Understanding Public Policy*, (14th ed), Boston: Pearson, 2013
- The Craft & Hobby Association, "2012 State of the Craft Industry", The Craft & Hobby Association, 2012
- W. I. Jenkins, *Policy Analysis: A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8
- 다케우치 도시오, 『미학 ·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89

연구보고서

- 「2012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안내책자」, 한국산업인력공단, 2013
- 『2013 예술강사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 김정호, 「〈2013-02〉 인정도서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13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고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박남희, 문희원, 이시은, 이경애, 『해외공예산업 분류체계 현황조사』,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 박남희, 이현경, 안영주,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 월드리서치, 『공예유통망 활성화를 위한 201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 이원태, 『공예상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공예디자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이승미 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장혜정, 정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대상 훈련역량 강화 지원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정현수 외,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최범, 허보윤, 「2011 공예백서 선행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2 공예 현황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해외공예현황: 공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마케팅 조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05

허보윤, 황승욱, 강정현, 김유라, 윤이랑, 『2012 공예백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

공시자료

『2011·2012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013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부, 2013

「2013년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 교육부, 2014

「교육부 보도자료-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 발표」, 교육부, 2014

「미술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 13])」, 교육인적자원부, 2007

「미술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3]」, 교육과학기술부, 2011

「생활 속 문화융성 실현과 또 하나의 한류를 위한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03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3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 2011-361호)[별책 26]」, 교육과학기술부, 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교육과학기술부, 2012

「초·중등학교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교육과학기술부, 201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2008

논문

김나현, 「전통공예분야 문화산업정책의 대안 모색-융복합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종선, 「산업공예 기초경영진단 지표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2, 한국콘텐츠학회논문, 2013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ttp://www.hrd.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교보문고 스킨라, <<http://scholar.dkyobobook.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 통합검색,

<<http://www.dlibrary.net/>>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

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누리미디어, <<http://www.dbpia.c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산업통산자원부, <<http://www.motie.go.kr>>

서울시교육연수원, <<http://www.seti.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조달청, <<http://www.pps.go.kr/>>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포털, <<http://www.hifive.go.kr/>>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http://www.kcti.re.kr>>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http://www.kohand.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0.re.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kcti.re.kr>>

한국문화의 집, <<http://www.kous.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http://www.q-net.or.kr>>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http://tctc.nuch.ac.kr/>>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www.kci.go.kr/>>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http://www.pci.leeds.ac.uk>

<http://www.labcraft.org.uk>

<http://www.melaniebowles.co.uk>

<http://www.lauramarsden.com>

<http://www.mallinson.co.uk>

<http://www.crafttownscotland.org>

<http://www2.craftandhobby.org>

<http://www.cre8time.org>

<http://www.educationworld.com>

<http://peacelovestudios.com>

<http://www.beadalon.com>

2013 공예백서

주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기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연구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책임연구원 박남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NID융합기술대학원 외래교수

연구원 이경애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장산구금속디자인학과 강사
허나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강사
문희원 글로벌예술문화교육연구소 연구원
노운영 글로벌예술문화교육연구소 연구원

총괄 이선영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연구개발팀장
진행 오원심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책임연구원

•
발행일 2014년 10월 20일
발행인 최정철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장
발행처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5층
tel 02)398-7925, fax 02)398-7999
<http://www.kcdf.kr/>

디자인 스튜디오 기글스 studio giggles
인쇄처 신화프린팅

•
© 2014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수록된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SBN 978-89-97252-32-9
ISBN 978-89-97252-06-0 (세트)



